50년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년사

워싱턴의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역사파노라마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Washington

50주년 희년을 기념하며

자유, 평화 그리고 부흥을 향해 미래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워싱턴교협의 역사 지계표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the Greater Washington
P. O. Box 1942 Annandale, VA 22003
www.ckcgw.org

50년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2025년 10월 25일 초판발행

기획출판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주 소 | PO Box 1942,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 www.ckcgw.org
편 집 인 | 이병완
편집총무 | 김범수
편집위원 | 김택용 최윤환 정인량 정영만 김성도 배현수
한세영 허성무 정승욱 문선희
문의전화 | 301-963-2809

인 쇄 | 범선문화사
제 본 | 보경문화사
발 행 처 | 도서출판 표란시스
등 록 | 2002. 9. 18 제15-592호
주 소 | 08813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24길 57
전 화 | 02-878-3066

표란시스 ⓒ,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9-11-86225-46-2
정 가 | 40,000원

CONTENTS | 차 례

발간사 – 이병완 목사50주년(희년) 기념위원장 및 편집인 ····· 6
축사 – 전찬선 목사(교협 50대 회장) ····· 7
축사 –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 8
축사 – 김영진 목사(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 9
축사 – 정인량 목사(27대 교협회장) ····· 10
축사 – 최고센 목사(NYSKC World Mission 대표 회장) ····· 11
축사 – Larry Hogan(전 메릴랜드주지사) ····· 12

제 1 장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 13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역대회장(1975-2025) ····· 14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회칙 ····· 17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총회 ····· 21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연합회 회칙 ····· 22

제 2 장 교회협의회 초창기 역사 이야기 ····· 23

● 교협 초창기 교회들의 역사 개관 – 김택용 목사 ····· 24
● 교협역사의 한마당 / 워싱턴 성서대학 이야기 – 최윤환 목사 ····· 31
● 워싱턴지역 원로목사 이야기/황혼의 메아리 – 박석규 목사 ····· 33
●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 정인량 목사 ····· 38

제 3 장 역대 회기별 50년 교협역사 ····· 45

● 태동기(1대 – 10대) ····· 46
● 발전기(11대 – 20대) ····· 66
● 성장기(21대 – 30대) ····· 76
● 부흥기(31대 – 40대) ····· 109
● 확장기(41대 – 50대) ····· 168

제 4 장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및 행사 ····· 237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기자 간담회 ····· 238
증경회장 원로 간담회 ····· 242
목회자 및 증경회장단 오찬 기도회 ····· 246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예배 ····· 248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음악회 ····· 254
목회와 교회론 포럼 ····· 260
50주년 희년정신구현을 위한 미자립교회 및 선교후원 ····· 260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교협 “50년사” 발간예배 ····· 261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 위원회 ····· 262
교협 50년사 편찬위원회 ····· 268

제 5 장 교회협의회 회원교회들의 역사 ····· 273

와싱톤중앙장로교회 ····· 274
열린문장로교회 ····· 279
워싱턴지구촌교회 ····· 283
워싱턴성광교회 ····· 288
페어팩스 한인교회 ····· 293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 296
워싱턴세계로장로교회 ····· 300
워싱턴서울장로교회 ····· 304
린치버그한인교회 ····· 307
워싱턴동산교회 ····· 311
열방사랑교회 ····· 315
워싱턴휄로쉽교회 ····· 319
워싱톤한인장로교회 ····· 322
와싱톤한인교회 ····· 327

제 6 장 유관기독교단체 ····· 331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 ····· 332
워싱턴목회연구원 ····· 336
워싱턴청소년재단 ····· 344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 348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 353
Washington Jabez University ····· 356
워싱턴기독장학재단 ····· 358
한미기독장학재단 ····· 361
국제성경연구원 ····· 364
워싱턴여교역자회 ····· 368
워싱턴밀알선교단 ····· 371
메릴랜드 상록회 ····· 375
미주성경통독선교회 ····· 378

50년사를 마감하면서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 ····· 380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후원금 내역 ····· 380
편집후기 ····· 382

제 7 장 후원교회, 기관 & 사업체 광고 ····· 383



이병완 목사
50주년(희년) 기념위원장

50년사 발간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영광 올립니다.

워싱턴 교협이 창립되어 50주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가 5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희년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희년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50년 전에 워싱턴교협을 세우셨을까요?

세상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간의 발자취를 찾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기쉬운데, 희년을 계기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자성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협 50년사를 발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워싱턴교협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명을 따라 영광스럽게 땀흘리며 달려오신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손길들을 여기 50년사에 담아 후대에 전하여 귀감이 되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협 5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 성도님들, 동포사회 각 단체장들과 인사들,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편찬위원회 총무 김범수 목사님을 비롯한 편찬위원들, 그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되셔서, 워싱턴 교협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음 희년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힘과 꿈과 목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영광을 돌리며 교협 50년사 발간사를 가름합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희년) 기념 『교협 50년사』 발간 축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대 회장 **전찬선**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협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교협은 이 지역의 한인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모든 분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교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워싱턴 동포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협 50년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손길과 눈물, 기도의 흔적을 담은 이민자 신앙인들의 기념비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질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간하는 『교협 50년사』는 그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믿음과 사랑의 기록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연합의 소명과 복음적 사명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50년 또한,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연합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 깊은 역사서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류응렬**

찬란한 50년을 넘어 영광스러운 100년을 향해

세계의 수도 워싱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명으로 교협을 세우신 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나온 세월 동안 삶을 드려 수고하신 모든 목회자님과 성도님들, 특히 교협을 위해 땀흘려 섬겨오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워싱턴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지역 같은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협을 통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워싱턴 지역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상하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가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두고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워싱턴 지역의 교회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십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어느 때보다 따가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기라는 것 때문에 무너진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의 시기에 위기를 뚫고 비상을 이룬 것이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헌신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시대의 어둠을 뚫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비상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지나온 50년 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찬란한 과거의 흔적을 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협 50년사 발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워싱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협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영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의 50주년(희년)을 맞이하여 교협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영광을 돌리고, 긴 역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헌신하신 교협 산하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희년은 주지하시는 것처럼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신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대립하고,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과 대립, 반목과 싸움, 경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겉모양은 화려하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길을 찾아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협이 50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자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창조적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75년에 교협이 시작되면서 워싱턴의 교계는 부흥되었고, 동포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자성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250여개의 교회들이 단지 겨우 생존(Survival)해야만 하는 처절한 단계에서, 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흥(Sucess)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가운데서 우뚝 서서 세상을 주도(Significant)한 교회가 되도록 50주년을 맞는 교협이 워싱턴 지역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도록 더욱 더 힘쓰는 교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교협의 50주년, 희년을 축하드리며, 다가올 미래의 50년(희년) 역사책은 또 어떻게 쓰여질 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50년사 편찬위후원회장
정인량 목사

교협 설립 50주년 축사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가 설립 50주년 역사적인 희년을 맞이하여 기념비적 50년사를 출간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50년사 편찬을 위해 헌신한 편찬인 이병완 목사님과 편집총무 김범수 목사님과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증경회장 제위와 교협회원교회와 목사님들과 동포사회 각 단체기관들과 인사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50년사 편찬위후원회장의 중책을 맡아 책임감도 무거웠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사가 출판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세기의 교협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로 후대의 교협과 산하 교회들에게 귀중한 자료들이 될것입니다.

교협의 희년의 역사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씌어진 것입니다. 특히 워싱턴교협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사와 북미주 한인교회사에 녹명됨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이룬 영적 자양분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선배들의 정신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더 가까운 교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절박한 때에 워싱턴 교협은 워싱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때 하나님께서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우라 명하셨습니다(수4:1-2). 이것은 신앙의 이정표(里程標)인 동시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희망의 마일즈스톤(milestone)입니다.

워싱턴교협은 이제 역사적 희년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이정표는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고 나갈 마일즈스톤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NYSKC World Mission
(예배회복운동)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워싱턴교협 50년사 발간 축사

50년동안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오도록 지금까지 교협을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아 워싱턴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달려가실 교협에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협은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지체가 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애쓰며 지역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신 수고가 아름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성령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화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조력하신 5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음과 먼 거리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랑을 따라 일했습니다. 신약성경에 자랑이라는 말이 32번 나오는데 그 중에 25번을 고린도 교회에 사용됨으로써 자기 중심, 자기 증명에 초점 맞추어져 십자가의 복음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렇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변질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워싱턴교협은 십자가의 도가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협력자로서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 지역의 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들의 무너진 것이나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고자 구원의 주, 회복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루터의 말처럼 행하며 달려오셨습니다.

더욱 감사할 것은 교협의 이름에 합당하게 교회가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되게 힘쓰셨습니다. 매년 교협에 소속된 교회뿐 아니라 지역의 공통체를 위한 복음 사업을 추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일 뿐 소망과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령충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며 달려갈 교협이 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하드립니다.



Larry Hogan Former
Governor of Maryland



Yumi Hogan Former
First Lady of Maryland

With deep respect and warm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CKCGW's 50 years history book

It is with great joy and heartfelt admiration that we congratulate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Greater Washington on its 50th anniversary.

For the past five decades, the Council has faithfully brought together Korean American churches in the region, building unity, strength, and shared purpose. It has played a vital role in nurturing the spiritual lives of Korean immigrants, serving the community with compassion, and guiding generations in faith. This remarkable milestone reflects a rich history of prayer, dedication,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service.

We especially honor the pastors and church leaders who have poured their hearts into their congregations. Your tireless devotion, particularly during difficult times such as the pandemic, has been a source of hope and healing for many. We are deeply grateful for your leadership and the comfort and direction you have provided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we look to the future, the role of the church remain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an increasingly complex and changing world, churches must continue to be beacons of truth, compassion, and community. We believe the Council will continue to inspire and equip churches to serve as anchors of faith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s bridges between cultures in our diverse society.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 next 50 years will be filled with even greater blessings, growth, and unity among the churches. May God's abundant grace and peace be with all the pastors, congregations, and families who make up this beloved faith community.



제 1 장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역대회장 (1975-2025)
- 교회협의회회칙
-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총회
- 증경회장단회칙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역대회장
(1975~2025)
증경회장연합회


1대 **정용철** 목사
(1975-1976)


2대 **김택용** 목사
(1976-1977)


3대 **박관빈** 목사
(1977-1978)


4대 **김현철** 목사
(1978-1979)


5대 **김승학** 목사
(1979-1980)


6대 **여운세** 목사
(1980-1981)


7대 **김종선** 목사
(1981-1982)


8대 **김택용** 목사
(1982-1983)


9대 **김상묵** 목사
(1983-1984)


10대 **최윤환** 목사
(1984-1985)


11대 **이원상** 목사
(1985-1986)


12대 **박석규** 목사
(1986-1987)


13대 **김화일** 목사
(1987-1988)


14대 **김화일** 목사
(1988-1989)


15대 **손인화** 목사
(1989-1990)


16대 **황수봉** 목사
(1990-1991)


17대 **한철우** 목사
(1991-1992)


18대 **허중호** 목사
(1992-1993)


19대 **김석현** 목사
(1993-1994)


20대 **황친규** 목사
(1994-1995)


21대 **이원희** 목사
(1995-1996)


22대 **지선묵** 목사
(1996-1997)


23대 **오광섭** 목사
(1997-1998)


24대 **김종철** 목사
(1998-1999)


25대 **임종길** 목사
(1999-2000)


26대 **최바울** 목사
(2000-2001)


27대 **정인량** 목사
(2001-2002)


28대 **양광호** 목사
(2002-2003)


29대 **정영만** 목사
(2003-2004)


30대 **김재동** 목사
(2004-2005)


31대 **신동수** 목사
(2005-2006)


32대 **이병완** 목사
(2006-2007)


33대 **김양일** 목사
(2007-2008)


34대 **김인호** 목사
(2008-2009)


35대 **김성도** 목사
(2009-2010)


36대 **배현수** 목사
(2010-2011)



37대 **차용호** 목사
(2011-2012)



38대 **김범수** 목사
(2012-2013)



39대 **최인환** 목사
(2013-2014)



40대 **노규호** 목사
(2014-2015)



41대 **박상섭** 목사
(2015-2016)



42대 **손기성** 목사
(2016-2017)



43대 **한세영** 목사
(2017-2018)



44대 **한 훈** 목사
(2018-2019)



45대 **김재학** 목사
(2019-2020)



46대 **이 범** 목사
(2020-2021)



47대 **임헌묵** 목사
(2021-2022)



48대 **심대식** 목사
(2022-2023)



49대 **박엘리사** 목사
(2023-2024)



50대 **전찬선** 목사
(2024-2025)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전문 :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따라서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는 진리 안에서 교회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교회 연합사업 증진의 중차대한 사명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그 사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교회는 뜻을 합하여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를 창립하고 본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the Greater Washington)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위치는 워싱턴 지역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워싱턴지역 한인 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으로 워싱턴지역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신앙적 유대를 가지고 연합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복음주의 교회들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관할지역은 원칙적으로 Washington D.C.지역, 메릴랜드 지역: Anne Arundel County, Charles County, Calvert County, Frederick County, Howard County, Montgomery County, Prince George's County, St. Mary County, 버지니아 지역: Alexandria City, Arlington County, Fairfax County, Loudon County, Prince William County, Stafford County 일원으로 한다.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워싱턴 지역의 교회가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단 총대는 1교회 3명으로 하되, 1명은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지명하는 목사와 2명은 교회에서 파송하는 평신도로 한다. 단,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7조: 본 회의 회원의 상벌에 관해서는 임원회 제청으로 증경회장 9인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지 않거나 회원의 자격을 2년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개선이 될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목사), 목사 부회장 1인, 평신도 부회장 1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본 회의 역원은 1)신학분과위원장 2)전도분과위원장 3)교육분과위원장 4)청소년분과위원장 5)홍보분과위원장 6)음악분과위원장 7)봉사분과위원장 8)여성분과위원장 9)선교분과위원장 10)윤리분과위원장 11)섭외분과위원장 12)이단대책분과위원장 각 1인으로 구성한

다. 13)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4)본 회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본 회의 실행위원회는 임원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및 임무

제11조: 본 회 권리와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지며 임원 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임원 피선거권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에게 한해 주어진다.

제3항: 정기총회 전 8월 15일까지 가입과 동시 회비를 납부한 신규가입 회원교회는 가입 당해 년도 총회에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와 본 회가 규정하는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회장이 되어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목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제3항: 평신도 부회장은 회장 및 목사 부회장을 보좌하며 목사 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항: 총무는 본 회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총괄하며, 부총무는 총무를 협력한다.

제5항: 서기는 회의록과 제반기록사항 및 모든 서류를 관장하며, 부서기는 서기를 협력한다.

제6항: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의 출, 입금 사항을 관장하며, 부회계는 회계를 협력한다.

제13조: 본 회 각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신학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신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항: 전도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전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항: 교육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항: 청소년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항: 홍보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항: 음악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음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항: 봉사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항: 여성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항: 선교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선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0항: 윤리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항: 섭외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2항: 이단대책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이단문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항: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또는 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만을 다룬다.

제4장 회의

제14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10월 중에 소집하여 임원선거와 함께 예결산보고 및 연중행사 지침과 기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되, 2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임원회 결의 또는 회원 10교회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시 실행위원회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되, 1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제3항: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항: 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정기 및 임시총회 개회시는 출석수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5장 임원선거 및 임기

제15조: 본 회의 회장 선거는 공천위원회(현 회장과 최근의 증경회장 역임순으로 5인)가 회장후보로 현 목사부회장을 총회에 공천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 새로운 회장후보를 세울시 목사 2인을 정회원 가운데서 공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한다.

제16조: 목사부회장 후보는 2인을 정회원 가운데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하고, 투표는 2차까지하되 과반수 미달일 경우는 다점자로 정한다. 평신도부회장 후보는 차기회장의 추천으로 공천위원회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출하되 본 회의 중 또는 본 회의 양해를 받아 21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발표한다.

제18조: 회기 중 임원이나 역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정,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로 한다.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소정의 회비와 교회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본 회의 재정을 위하여 임원회는 50명 이내의 재정이사를 매회기마다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감사

제23조: 본 회의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를 받는다.

제24조: 본 회의 감사는 메릴랜드 목사 1인, 버지니아 목사 1인 총 2인으로 구성하되,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항: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재정 운영을 전 후반으로 감사하고 재정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재정자료는 최소한 1년 동안 임원회에서 보관토록 한다.

제2항: 감사는 인수인계시 동석하여 감사의 결과가 시행되도록 감독한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25조: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회장으로 구성하여 회장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9장 부칙

제26조: 본 회의 회칙을 수정 및 개정 시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규례에 따르며, 회의진행은 Robert's Rules of Order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회의 개정된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04년 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김택용, 서기:이병완, 위원:정영만, 이원희, 최바울, 정인량, 김재동, 김인호)

*이 회칙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총회의결)

*이 회칙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총회의결)

*이 회칙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이병완, 서기:박상섭, 위원:김택용, 이원희, 김성도, 차용호, 김범수, 최인환, 손기성)



2019년증경회장연합회총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총회

교협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총회

일시 : 2006년 10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Sandy Point Park Shelter

교협의 증경회장들은 교협회장으로 섬기면서 교협과 교계를 이해하고 교협의 존재의의, 방향 등 때로는 교협임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자문을 구할 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영적 경험, 영적 지식을 가진 교협안에서 영적 자산과 같은 존재들이다. 교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자문위원의 역할은 교협회칙에 정해져 있으며,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증경회장들간의 영적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병완 목사가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을 제안하여 중지를 모으는 중 준비위원으로 김택용 목사, 이병완 목사(교협 차기회장)가 추천되어, 증경회장 목사님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우선 회칙을 김택용 목사가 초안을 준비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하고 일정과 과정을 조율하였다.

마침 2006년 10월 16일은 관례대로 교협 차기임원들이 증경회장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대면하는 날이였기에 날자를 확정했다. 대면 교제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중에, 예정대로 총회장소에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증경회장 14명이 모여 1부로 창립예배를 드리고, 2부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택용 목사가 기초한 회칙을 상정하고 심의 검토한 후 회칙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초대회장으로 김택용 목사, 서기 김재동 목사, 회계 최윤환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 김택용 목사가 사회를 담당했고, 교협회장 신동수 목사가 설교를, 준비위원이자 차기회장 이병완 목사가 축사를 담당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총회

일시 : 2006년 10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Sandy Point Park Shelter, MD

제 1 부 창립예배

사회 : 김택용 목사

묵 상 ..... 다 같 이

찬 송 ..... 다 같 이

기 도 ..... 이원희 목사

설 교 ..... 신동수 목사

축 도 ..... 김석현 목사

제 2 부 회 의

사 회 : 임시회장 김택용 목사

회원점검 ..... 임시회장

개회선언 ..... 임시회장 김택용 목사

회순채택 ..... 회 중
경과보고 ..... 준비위원 김택용 목사
축 사 ..... 준비위원 이병완 목사
회칙채택 ..... 회 중
임원선거 ..... 회 중
사업계획 ..... 회 중
기타안건 ..... 회 중
폐회기도 ..... 정인량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연합회 회칙

명칭 : 본회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연합회"라 칭한다.

위치 : 본회는 워싱턴 수도권에 위치한다.

목적과 취지 : 본회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협의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교계의 정화와 발전을 위해 협조한다.

회원 : 본회의 회원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로 구성한다.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임원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3명으로 구성한다.

임원 선출 : 본회의 회장은 회장 역임 순으로 총회에서 확인 추대한다. 총무와 회계는 회장이 지명하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 :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과 결산, 사업보고, 신 안건 등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각종 회의는 일주일 전에 통보(서면 또는 통화)해야 하며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재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 규칙에 의하거나 재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006년 10월 16일 오후 2시 창립총회에서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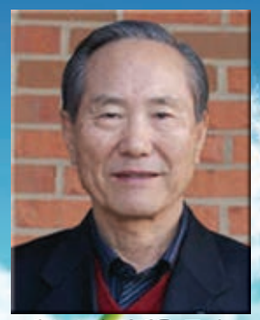


제 2 장

교회협의회 초창기 역사 이야기

- **교협 초창기교회들의 역사 개관**
  - 김택용 목사
- **교협역사의 한마당**
  워싱턴 성서대학 이야기 - 최윤환 목사
-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이야기**
  - 박석규 목사
-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 정인량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초창기 교회들의 역사 개관



제 2, 8대 **김택용** 목사

김택용 목사는 제 2대(1976-77년)와 제 8대(1982-83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워싱턴 교계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김택용 목사는 현재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원로목사이며,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전신, 워싱턴복음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현 한미기독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1.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조직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1975년 10월에 한인교회간의 연합 사업을 위해 발족되었다. 교회협의회는 교역자들의 개인적인 참여를 위주로 하는 교역자회와는 달리 담임 교역자와 교회 대표(평신도 2명)가 참석하여 교회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창립 발기인은 정용철 목사, 박관빈 목사, 김택용 목사 장일형 목사였으며 초대 회장에 정용철 목사, 총무에 김택용 목사를 선임하였다. 교회협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활절새벽연합예배뿐만 아니라 동포복음화대회 등 교회의 연합사업 일체를 담당하고 전개하기로 하였다. 1979년까지의 역대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아래와 같다.

제 1대 : 정용철 목사(1975~76년)
제 2대 : 김택용 목사(1976~77년)
제 3대 : 박관빈 목사(1977~78년)
제 4대 : 김현칠 목사(1978~79년)
제 5대 : 김승학 목사(1979~80년)

2. 초창기 Washington DC에 세워져 역사를 이어온 교회들

1)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 화부한인감리교회(1951년 10월 14일, 현 와싱톤한인교회)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의 발발은 한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는 신앙적 자각 의식이 더해 갔다. 그리고 조국의 전쟁 이재민을 도와야 한다는 동포애도 더해갔다. 드디어 워싱턴에 한인교회를 세우자는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때마침, 1951년 봄, 하와이에 있던 김태묵 목사

가 워싱턴으로 이주하여 왔다. 김태묵 목사는 하와이에 거주할 때 "하와이한인기독교회"에서 목회한 바가 있었다. 한인교회 목회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 워싱턴 교계에는 교회 태동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주 구매관으로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던 박원규가 자의와 타의에 의해 앞장을 섰다. 그는 김태묵 목사와 교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한인교회의 진로와 그 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격식을 갖춘 교회를 시작하려면 예배처소가 있어야 했다. 매 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확정된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었다. 차선의 방법으로, 타 지역의 한인교회와 같이 미국교회를 예배 처소로 빌어 사용하기로 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에 김태묵 목사와 박원규 두 사람은 당시 Connecticut Avenue와 N Street, NW, Washington, DC에 위치하고 있는 National Presbyterian Church를 찾아갔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그 장로교회를 찾아 간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장로교 교인이었고, 또 한인교회를 설립하려는 뜻을 가진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때 National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는 Ellison 목사였다. 두 사람은 Ellison 목사에게 한인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예배장소를 제공해 주면 고맙겠다는 호소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Ellison 목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Ellison 목사는 말하기를 "미국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독립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들이 현지 미국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소수 민족교회의 장래성이 의문시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llison 목사의 그러한 답변은 "외국인이 미국 와서 자기들의 말로 따로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 대신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교회에서 모두 영어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북장로교회(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의 전신) 교단이 수립하고 있는 정책 즉, "소수민족 선교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국, 기대를 가지고 갔던 두 사람은 좌절감을 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교회설립 추진 위원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에 Washington DC에 위치하고 있는 Foundry United Methodist Church의 담임 목회자 Frederick Harris 목사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어왔다. Harris 목사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인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다면서 "한인들이 원한다면 자기 교회를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가운 내용이었다. 그 교회는 1500 16th Street 과 P Street, NW, Washington, DC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다. 감리회 총회의 개방적인 흐름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면에서는 일찍이 이승만 박사가 그 교회에 출석한 일이 있었던 일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에 워싱턴 라파엣 호텔에서 한족대회가 개최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 때의 한족대회의 순서지를 보면 이승만 박사가 한족대회의 회장이었고 Foundry 감리교회 목사가 축도를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Harris 목사는 보다 호의적이었으며 협조적이었다. 결국, 예배장소를 확보하게 된 준비 위원들은 힘을 얻게 되었으며 교회 설립추진 운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기도와 준비 끝에, 1951년 10월 10일자로 교회 설립에 대한 초청장을 워싱턴 거주 한인들에게 발송하게 되었다. 초청장은 김태묵 목사와 박원규씨 그리고 고병철(유학생 대표)씨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교회 설립 예배가 10월 14일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951년 10월 14일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밝아왔다. 이날 오후 3시에 감격적인 첫 예배가 상기 Foundry Method-

ist Church에서 드려졌다. 워싱턴지역 최초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32명이었다. 예배 후에는 곧 사무 총회를 열어 담임 목사 김태묵, 재무 박원규, 통신 서기 고병철씨, 기록 서기 양기백(유학생)씨 등을 각각 선출했다. 이렇게 해서 워싱턴 최초의 한인교회가 탄생하였다. 교파 소속은 감리교회와의 인연을 통해 세워졌으므로 감리교회 소속교회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공식 이름을 "화부한인감리교회"라고 명명하였다. 1953년에 김태묵 목사가 사임하고, 오창희 목사가 그 뒤를 이어 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며 1955년에는 김성덕 목사가 동사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1956년에는 황재경 목사가 제 3대 담임 목사(처음에는 동사 목사로 시작)로 취임하였다. 1956년에 이르러 초교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교회명칭을 '감리'라는 말을 빼고 "화부한인교회"로 개칭하였다. 1977년에 황재경 목사가 은퇴하고 1977년에 선윤경 목사가 제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1978년 1월 20일에 동 교회는 예배장소를 Wisconsin Avenue, NW, Washington, DC에 있는 St. Luke U. M. Church로 이전하였다. 1981년에 제 5대 담임으로 박종렬 목사가 부임하였다. 뒤를 이어 조영진 목사가 제 6대 담임 목사로 시무하였고, 현재는 김유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사역 중에 있다. 지금, 이 교회는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하고 있다.

2)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 - 워싱톤한인침례교회(1951년 10월 14일)

1951년 10월 14일, 최초의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설립될 당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이름은 김창순 박사다. 김창순 박사는 안수를 받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김태묵 목사가 목회하던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에서 한 때 목회를 한 바 있었다. 그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1951년 최초의 워싱톤 한인교회가 설립되기 얼마 전에 워싱턴으로 이주해 왔다. 그래서 김태묵 목사와 박원규 씨는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려 했을 때에 김 박사를 찾아가서 교회 설립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 박사는 그들의 요청을 사양하였으며 협조적이 아니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에 자신이 교회 설립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차라리 교회를 별도로 세울 것이라고 하며 끝내 화부한인감리교회 설립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후부터 김창순 박사는 서울의 한국침례회 진흥본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별도의 교회 설립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침례 교인들을 중심으로 유학생들과 이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3200 Rittenhouse Street, NW, Washington, DC에 있는 주택을 구입, 개조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56년 5월 6일, 두 번째의 한인교회가 설립예배를 드리고 공식 출발하였던 것이다. 교회 이름은 "제일한인침례교회"라고 불렀다. 새 교회의 구성원은 침례교인과 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특색이었다. 이 무렵 워싱턴에는 한인 거주자가 200명 정도로 늘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회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한 김창순 박사가 목회 일선에 나서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자를 찾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차선의 방책으로,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수학 중이던 강원용 목사를 초청, 주말마다 워싱턴을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임시목사 또는 설교목사 격으로 시무하게 하였다. 1958년에는 안병국 목사가 한국으로부터 초빙되어 부임하였다.

이때 김창순 박사와 안병국 목사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안목사는 1959년 2월 대다수의 교인

과 더불어 16th St NW & O St NW, Washington, DC에 있는 미국인 교회인 First Baptist Church로 이전하여 따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새 교회 이름을 워싱톤한인침례교회(Korean Community Baptist Church)로 명명하였다. 후에 김창순 박사가 후퇴함에 따라 1960년 두 교회는 통합하였다. 1969년에 안병국 목사가 사임하고 김병서 목사가 부임하였고, 1969년에는 김현칠 목사가 부임하였다. 1974년에 이르러서는 여운세 목사가 제 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 후에 김원기 목사 등이 뒤를 이었으며 그외 이승희 목사 등 여러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로 시무, 역임하는 가운데 발전, 금일에 이르고 있다. 이 교회는 워싱턴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침례교회로서는 미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한인교회로 현재는 박영호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현재 교회는 미국 남침례회 교단 소속이다)

3)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1965년 7월)

워싱턴지역에는 1956년부터 그때까지 약 10년 가까이 화부한인감리교회와 제일한인침례교회가 양립되어 있었다. 미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도 교인들의 분포로 볼 때는 장로교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장로교단의 교세가 다른 교단에 비하여 비교적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교포수의 증가와 함께 장로교회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다. 1961년 한국의 5. 16 군사 혁명 때에 미국에 온 강경옥 장로와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던 박원봉 목사 그리고 김순복 씨 등 12명이 뜻을 모아 1965년 7월 4일에 발기예배를 드리고 7월 11일, Howard University Chapel에서 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교회 설립 위원장을 맡았던 강경옥 장로가 초대 교역자로 시무하게 되었다. 이로써 워싱톤한인장로교회는 1965년 7월 15일, 이 지역에 세 번째로 수립된 교회가 된 것이며 워싱턴 지역 최초의 장로교회가 된 것이다.

이 무렵, 워싱턴 거주 한인은 약 800명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초기에는 예배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임시 모임 장소로 Washington DC의 Howard University Chapel과 National Presbyterian Church등을 전전하다가 백악관 근처의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에 정착하였다. 워싱톤한인장로교회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의 특별한 배려에 기인하지만 이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북장로교회(연합장로교회) 교단의 선교정책, 특히 소수민족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화 또는 허용 쪽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교단에서는 1959년까지 "이민으로 온 소수 민족이 미국에 와서 자기들의 말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고,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교회당에서 모두 영어로 통일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선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1959년에 이르러 상기 선교정책을 수정할 것을 총회에 상정하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장로 교인들이 교회당을 빌려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하는 획기적인 수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 속에서 워싱톤한인장로교회는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의 기틀을 잡아갔다. 1966년에 안상엽 목사가 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4년 동안 시무했다. 안상엽 목사가 캐나다 교회로 이전함에 따라 1970년 5월에 김택용 목사가 제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동 교회는 1975년에 Alexandria에 있는 Bible Protestant Church를 구입하여 자체 교회당을 마련하였

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81년에는 Burke, VA에 있는 Church of God 교회당(5에이커 대지, 현재 필그림 교회)을 구입, 이전하여 교회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시, 동 교회는 1998년, 보다 큰 교회당인 9524 Braddock Road, Fairfax, VA 소재 Calvary Baptist Temple을 구입하였다. 김택용 목사는 2001년 4월, 31년의 목회를 마감한 후에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김목사의 후임으로는 제 4대 담임은 김현준 목사, 제 5대는 김태권 목사가 뒤를 이었고 2009년부터 현재의 박성일 목사가 제 6대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4) 네 번째로 세워진 교회 – 워싱톤한인연합장로교회(1969년 11월 2일)

이 교회는 1969년 11월 2일에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선상에 있는 미국인 제 6교회당에서 설립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참석인원은 장년 36명과 아동 13명이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없이 김응창 장로를 비롯하여 이춘삼, 강종철, 이응환, 최창욱, 정학수, 김성덕, 김순복, 김수희, 최경남 등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교회이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주일마다 주위의 여러 목사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였다. 강사로 초청된 설교자들은 설의돈, 김기복, 김선도, 김택용, 김승학, 한태경, 한제호, 박관빈, 김인수, 윤영봉, 김병서, 신성국, 김현칠, 김유식 목사 등이었다. 1970년 8월 2일에 정용철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초빙을 받아 부임하였다. 한국에서 기독교장로회에 소속되어 있던 정 목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목회를 하였으며 1974년 9월에 미국연합 장로교(현재의 Presbyterian Church, USA) 수도 노회에 가입하였다. 예배장소는 정 목사의 재임 후반기부터 Bethesda, MD 소재 Trinity Presbyterian Church와 공동 사용하는 형식으로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정용철 목사는 15년간의 시무를 마감하고 1984년에 정년 은퇴를 하였다. 그 후 이철순 목사, 안현준 목사, 김해길 목사가 담임을 하였고, 지금은 윤택한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5) 다섯 번째 교회 – 베데스다한인침례교회

베데스다 한인침례교회는 1969년 워싱턴한인침례교회의 협동목사로 있던 한태경 목사가 동 교회 협동목사직을 사면하고 새로 교회를 개척함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새로 이주 해온 침례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됐으며 위의 두 장로교회들처럼 침례교회도 양립이 된 것이었다. 이 때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측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로 합하는 일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같은 침례교회만은 둘이 양립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 교인들이 후원하는 가운데 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침, 한태경 목사가 1971년부터 필라델피아의 Crozer 신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직을 사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합동 운동은 힘을 얻게 되어 1971년 8월 8일을 기하여 베데스다한인침례교회와 워싱턴한인침례교회는 무조건 합동하게 되었다. 베데스다한인침례교회는 상대적으로 교세가 약하였고 담임 목사도 공석 중에 있었음으로 워싱턴한인침례교회에 흡수 통합이 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의 한인교회는 워싱턴한인침례교회의 일부가 된 것이다.

6) 여섯 번째 교회 – 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1972년 4월 2일)

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는 1972년 4월 2일 부활절을 기하여 Arlington, VA 소재 Westover Baptist Church의 Chapel 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창립 예배에는 박관빈 목사의 인도 하에 장년 12명, 유년 18명이 회집하였다. 이 교회는 그때까지의 교회들이 Washington, DC 지역 안에 있었으나 이 교회는 버지니아 주 교외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교회가 되었다. 교회 초창기에는 초교파 교회를 지향하는 듯, 교회 이름을 버지니아한인교회(Virginia Korean Community Church)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1976년에 이르러 "미국남침례회에 가입하고 버지니아침례교회로 개칭하였다. 1987년 현재의 Burke Lake 공원 길 건너편에 자체건물을 구입하여 정착하였다. 1992년 4월 박관빈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퇴하였다. 그 이후 서세원 목사 등 여러 교역자가 거쳐 간 후, 지금은 교회 이름을 우리교회로 개명하고 양승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7) 일곱 번째 교회 –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1972년 5월 14일)

워싱턴 수도권 메릴랜드 교외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이다.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는 장일형 목사를 중심으로 1972년 5월 14일에 설립되었다. 장일형 목사의 은퇴 후에 남정길 목사 등 여러 목회자가 거쳐갔다. 한편, 이웃의 같은 교단 소속인 워싱턴영락교회의 제 5대 목회자로 이희문 목사가 부임(1999년 5월 9일)한 후, 두 교회는 통합하기로 하고 2001년 5월 22일에 "하나교회"로 새 출발하였다. 교단은 미국장로교회(PCUSA)에 소속하였다. 그후 하나교회와 예람교회가 통합하여 메릴랜드장로교회로 개명했으며, 안현준 목사가 담임목사로 위임받았고, 그 후 이승환 목사가 부임하였다.

8) 여덟 번째 교회 – 메릴랜드한인제일장로교회(1973년 10월 17일)

허중호 목사의 인도로 동년 10월 17일에 6513 Queens Chapel Road, University Park, MD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출발하였다. 이 교회는 1976년에 미 연합장로교(United Presbyterian Church) 교단에 가입하여 수도노회 소속이 되었다. 이 때를 기해 메릴랜드한인제일장로교회는 담임목사 위임식과 초대장로 4명의 임직식을 가졌다. 매릴랜드한인제일장로교회는 1994년에, 6410 Kenilworth Avenue, Riverdale, MD에 자체교회를 구입하고 하였고, 그 후 2017년 10월 8일, 8430 Glenmar Rd, Ellicott City, MD 21043의 교회당을 구입하였다.

1989년에 영어예배 김규형 전도사, 1993년 영어예배 부목사, 김윤곤 1997년 김범수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하였다. 2001년에 허중호 목사가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박은우 목사가 제 2대 담임교역자로 부임하였다. 그 후 지금은 3대 조은상 목사가 2012년 이후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9) 아홉번째 교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1973년 11월 4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1973년 11월 4일 윤명호 목사 댁에서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윤명호 목사가 설립 교역자가 되었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라는 이름은 1974년에 공식화하였다. 이 교회의 초기에는 North West, Washington, DC의 Pilgrim Presbyterian Church 에서 회집하고 있었다. 이원상 전도사가 제 2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이원상 전

도사는 197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교회는 예배 처소를 Arlington, VA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724 Chain Bridge Road, McLean, VA의 Lewinsville United Presbyterian Church로 이전하였다. 1987년 10월에 Vienna, VA에 마련된 대지에 자체교회를 건축하여 이전하였다. 2010년 6월에 이르러 이 교회는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에 대형 교회 건물을 건립하면서 mega church가 되었다. 소속 교단은 PCA 총회이며, 이원상 목사는 2003년 원로 목사로 은퇴하였다. 제 3대 담임 목사는 노창수 목사였고, 지금은 2013년 4월 이후 류응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3. 초기 연합사업의 출발: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

워싱턴 한인교역자회와 부활절 새벽 예배 3개 교회 통합운동의 좌절은 각 교회에 충격을 주어 교회간의 친선과 교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교회간에 있음직한 연합 사업이나 친선 운동이 수년간 보류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1971년 봄에 새 시대가 열려 7월 5일에 Windsor Park Hotel(현재의 중국 대사관)에서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Korean Pastors Council of Washington)"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창립멤버는 김성덕, 김택용, 박관빈, 장일형, 황재경 등, 5명의 목사였다. 그 명칭을 목사회로 하지 않고 교역자회라 칭한 것은 목사의 수가 적어 전도사들까지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데 의미를 둔 배려였다. 교역자회는 초대회장으로 황재경목사, 총무에는 김택용 목사를 각각 선임하였다. 교역자회에서는 일차 사업으로 매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주최하기로 하였으며 계속해서 교역자와 교회간의 친선 도모에 힘쓰기로 하였다. 최초의 부활절 연합예배는 1971년 4월 4일 워싱턴 Monument 광장의 Sylvan Theatre(음악 강당)에서 회집되었다. 이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5개 한인교회(와싱톤한인교회, 워싱톤한인침례교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워싱톤한인연합교회, 베데스다한인침례교회)가 참여하였고 순서는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분담하였다. 제 2차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Georgetown University의 Lisner Hall에서 모였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1975년 워싱톤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조직될 때까지 한인 교역자회가 매년 주관하였다. 교회협의회가 조직되자 교역자회는 교역자간의 친목과 교류에 주력하기로 하였고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등 연합사업은 교회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교협역사의 한마당 - 워싱턴성서대학 이야기



10대 교협회장
최윤환 목사

워싱턴 교회 역사에 확실하게 '워싱턴성서대학' 신앙신학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귀한 목회자님들이 이에 함께 협조하여, 이민 초기의 평신도 신앙신학의 바탕을 다듬어 놓고, 워싱턴 지역 교회 역사와 이민초기 여러 교회의 굳건한 평신도 지도자 성장을 위해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해 내었던 이민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일획을 해 내었던 현실적인 실적과 열매의 기록을, 그 한 발자취로 몇 자 글로 남겨놓고 싶은 이유에서 페이지를 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 '워싱턴성서대학' 에 학생으로서 참여하였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령이 꽤나 높아지셨겠지만, 현재도 곳곳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또 활동해 내셨던 분들이 확실하게 계심을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 시작 년도와 끝맺게 되던 년도는 당시 컴퓨터도 활성화 되던 때도 아니었고, 또 그 필사 기록도 전체로 분실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안스럽다. 당시 '워싱턴성서대학' 역사 중반쯤에 그 활동에 회동했던 연고로, 그 시작이 소목으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고, 활동하셨던 목회자님들도 정확하게 누구이었는지 몰랐고, 다만 당시 교수 일을 보며 중반에 회동하면서 교무과장 사역은 하였으나, 당시 목격했던 Richmond, VA. 교육국에 등록에 오른 정관을 잠간 보았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이다. 고로 활동년도나 활동하셨던 교역자님들 몇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 불명확한 채 올려놓아 보기로 해 본다.

분명한 것은 이 사역 시작을 그 정관에서, 김택용 목사님이 그 첫 관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 함께 일하셨던 분, 기억나는 대로 몇 분을 올리자면, 물론 김택용, 우수명, 조영진, 그리고 차후 바로 허중호, 황수봉, 최윤환, 김재동 목회자님들, 또 그 외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셨을 것이지만, 이에 교수로 역할 분담을 하였고, 지역관계상 학교 운영을 후에 2곳으로 분할해, Maryland지역은 허중호 목사님이, Virginia지역은 황수봉 목사님이 학장으로, 한 '워싱턴성서대학' 아래 지역을 분할하여 교수역할을 하였으며, 분할 후부터 최윤환 목사가 교무사역을 맡아 일 하여 온 경험이다.

그 시작연도는 맞는 연도일지는 몰라도, 대강 짐작하여 1988년 쯤이겠고, 이 사역이 종료 되던

해는 역시 대략 2005년 쯤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이유는 그 종합서류가 북버지니아교회 안에 두었었으나 교역자가 은퇴하시는 관계로, 새 교역자의 사역에 인계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 컴퓨터가 아닌 필사서류 들이어서 분실된 경우 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개교가 되던 때에 함께 뒤에서 뒷받침 해 주신 분들이 있음에, 당시 소목은 함께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뒤에서 역할 하셨던 분이 기억나는 대로 안병국 목사, 메릴랜드의 차피터 장로 이셨다.

소목이 직접 교수직과 학교사역에 합류한 해는 아마도 1998년도부터 2005년 까지로 기억을 한다. 교수일과 졸업식은 한 6회 정도 직접 활동하였다.

'워싱턴성서대학'에서 소목이 두 곳을 매주 오가며 교실에서 교수, 학생 간에 은혜와 감격적 소통을 나누었던 몇 과목 교실은 소목의 생애에 잊혀지지를 않는다. 예를 들자면 '성경중간사 고고학' 교실. '계시록 강해' 교실. '세계선교 역사' 교실로, 선교역사 지역 해설교실에서 기독교초기 선교역사로부터 인, 즉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인도, 남미 선교사역 등 선교역사 교실로 그 은혜 교실은 생애에서 지워버릴 수 없던 기억이 남는다.

한 가지 꼭 이 '글'에 올려보고 싶은 이야기 하나와 기억하는 몇 분 이름도 여기 올려서 잘못은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우선 소목이 얼마, 얼마_ 즉 한 거의 15년 후에 'World Mission College of Greater Washington' 교수사역 하면서, 교실학생 교습 중에, 한 학생분이 '교수님! 저희 아버님이 오래 전에 '워싱턴성서대학 메릴랜드 교실에서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하고 반가워 하던 학생 분을 만났었다. 물론 이 학생 분은 벌써 몇 해 전에 'WMCGW' 대학원을 졸업을 하신 학생분이시다. 또 성함은 생략하지만, 성자만 여기 올려 보는, 고인이 되신 교회장로 현역을 사역으로 열열하게 사역 하셨던 분... 이 장로님, 현재도 교회 중요직 활동을 하고 계신 한 장로님, 강 장로님 등 등 VA, MD 지역에서 모두 교실에서 너무 은혜로 넘쳐, 밤 교실이 10:30분에 교실이 모두 끝났는데도 강의 내용에 흠뻑 젖어 12시가 넘는데도 귀가하지 못하고 교실에 남아 함께 토론을 계속했던 기억들, 마치 그림처럼 머리 안에 남겨져 있다.

'워싱턴성서대학'이 서서히 학교운영 종료가 되었던 이유가 있다. 차츰 워싱턴지역 사회사역 활동이 커지고, 이민사역이 커짐에 따라 정규신학교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기관이 정규화 되면서 평신도 신앙신학에 필요성이 차츰 많이 완화되어 갔던 이유로 그 역할이 종료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한 20년간의 '워싱턴성서대학' 활약은 워싱턴 이민신앙사역에서 대단히 큰, 교회들을 향한 신앙신학 정진에, 또한 '복음사역'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열매에 대하여서는 함께 시작을 열고 끝까지 강당을 붙잡고 뛰었던 교수교역자님들 모든 분들에게 큰 찬사를 드리며 작은 글이지만 필을 여기서 끝맺기로 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2:42)



워싱턴지역 원로목사 이야기 - 황혼의 메아리 -

박석규 목사
12대 교협회장 박석규 목사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는 1991년 3월 2일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35년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원로목사님들의 영적교제 뿐만 아니라 워싱턴교계가 말씀안에서 왕성해 지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Korean Retired Minister Association Greater of Washington)는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두고 목적은 초교파적인 모임, 친목과 봉사, 여생을 의미있게 보내며 진리수호와 연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회 회원은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은퇴목사와 사모로 하며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은퇴목사와 사모는 준회원이 될 수 있지만 단, 이단 종파의 목사와 사모는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로목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는 월 $10이며,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워싱턴지역,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위치한 교회들이 원로목사회를 매월 초청해주셔서 초청해주는 교회를 방문하여 모임을 갖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의 순서는 1부 예배, 2부 회무처리, 3부는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원로목사회원들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버지니아 지역의 교회가 초청할 때는 메릴랜드의 회원들이 먼 길을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임원들, 특히 총무가 운전을 해 주셔서 편하게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 지역의 초청교회로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 지역의 초청교회를 방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회협의회 임원들이 현역 목회자들이기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원로목사회 1차 총회는 1991년 워싱톤한인장로교회(담임 김택용 목사)에서 22명이 참석하였고, 임원선거에서 회장 박진규 목사, 부회장 강인선 목사를 선출하였다. 1 차 총회에서 본회의 명칭을 '워싱턴원로목사회'로 결정하였다. 참석자명단: 이주원, 박진규, 강인선, 정용철, 한태경, 이재만, 박원호, 김종선, 은영기, 배기주, 반병섭 김택용(이상 목사회원)

그간 원로목사회를 위해 수고하신 역대회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1년도 박진규목사. 1992년-1994년도 강인선목사. 1995년도 안병국목사.
1996년도 신후식목사. 1997년도 김종선목사. 1998년도 안재희목사. 1999년도 김승학목사
2000년도 안형직목사. 2001년도 한준섭목사. 2002년도 배기주목사. 2003년도 박덕준 목사.
2004년도 신상휴목사. 2005년도 김택용목사. 2006년도 한희택목사. 2007년도 김석현목사.
2008년도 김윤국목사. 2009년도 손인화목사. 2010년도 은영기목사. 2011년도 한철우목사.
2012년도 신석태목사. 2013년도 오광섭목사. 2014년도 박석규목사. 2015년도 이원희목사.
2016년도 박문규목사. 2017년도 이태구목사. 2018년도 박상철목사. 2019년도 김상묵목사.
2020-2021년도 오쾌한목사. 2022년도 임종길 목사. 2023년도 김영숙목사.
2024년도 김택조목사. 2025년도 이석해목사.

개인적으로는 나와 원로목사회와의 만남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1980년 포토맥연합감리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가운데 교단의 방침에 따라 뉴욕연회로 파송 받아 떠났고 포토맥연합감리교회는 1995년 워싱턴선교교회와 통합하여 워싱턴감리교회를 창립하여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뉴욕커가 된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모르고 목회에 전념을 하다보니 어느 덧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되어 교단 방침에 따라 은퇴한 후 자녀들이 살고 있는 워싱턴 메릴랜드 내려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게는 뉴욕에서 목회했다하더라도 워싱턴은 제 2의 고향 같은 정든 곳이기에 워싱턴에 내려와 큰 딸이 준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선배 군목으로 가까이 지내던 고인이 되신 손인화 목사께서 한국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을 보고 여기 내려와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반겨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워싱턴 원로목사회'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달에 한번씩 만나 지난 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자' 고 하셔서 2008년 6월 원로목사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지금도 새롭기만 합니다. 낯익은 목사님들이 많았고 존경하여 뵙고 싶었던 선배 목사님들도 계셔서 기뻤습니다. 원로목사회 회원들이 맡아 진행하는 예배순서는 은혜스러웠고 회장 목사님의 과거를 회상하며 들려주는 순백한 설교는 나의 자화상 같았습니다. 총무 목사의 광고가 마음을 찡하게 했으며, 회원들 근황을 일일히 전하고 병환중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성함을 알려주며 쾌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 하자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그때 함께 기도 하시던 분들의 태반이 하늘 나라로 떠나 가셨기에 마음이 허전하기만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뵐 것이라는 소망속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비록 해야 할 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 살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지금까지 불러본 찬송이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 하여도"라는 찬송이 날마다 제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소망속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모임때마다 초청해준 교회에서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탁은 진수성찬 이었고 돌아갈 때 선물까지 챙겨주니, 받을 때마 초청교회를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교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리스찬 제과점에서 매달 무료로 보내준다는 생일케익에 둘러서서 그달 생일을 맞이한 회원을 위하여 'Happy Birthday' 를 부르며 축하해 주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제안으로 원로목사회 회원 입회 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정회원이 되어 '원로목사회'가 모이는 날을 한 달 동안 기다렸으니 나도 원로목사회를 사랑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막내 격인 나는 열심히 참석한 1년 후에 선배 목사님들의 권유에 순종하여 회계, 서기, 총무, 부회장을 거쳐 2014년 14대 회장이 되어 원로목사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이던가 손인화 목사님 댁을 방문하였다. 서재에서 '황혼의 메아리' 라는 설교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3년 박덕준 회장 총무 박상철 총무가 수고하여 발행한 25인의 워싱턴원로목사회 설교집 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 선배 목사님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설교가 실려있어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회장이 되면 '황혼의 메아리 2'집을 발행해야지 결심을 했었습니다. 2014년 회장이 되어 임원들과 논의 끝에 설교집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출판비가 문제였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모임이라 원고를 수집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회원 가운데 내년에 95세가 되시는 분이 계시고 90세를 갓 넘으신 회원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사역의 모진 비바람이 만들어낸 아프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이제 진주같은 보석들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손이 떨려 원고를 집필하기에 힘든 분이 있었고 저려오는 손을 주물러가며 컴퓨터를 쳤다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사실은 10년 만에 발행하는 이번 황혼의 메아리에 꼭 설교를 싣고 싶은데 병환 중에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곁에서 간호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모! 그분들 모두의 마음과 격려, 사랑과 기도가 설교집에 담겨 있습니다. 설교집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고동치는 신앙 체험 환희와 감격, 고뇌와 좌절, 저성과 후회 그리고 후배들에게 보내고 싶은 당부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고, 유수 같다더니 참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은퇴를 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백발에 앞이 희미하고 다리도 휘청거리며 기억력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도 점점 잊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혼이 지나고 깊은 밤이 되면 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취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땅에 머물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고향 집, 천국입니다. 그 곳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 갈 것입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빌4:13-14)



황혼의 메아리 편집위원



창립발기인 12명의 목사중 1인
김택용 목사



황혼의 메아리 출판기념예배



오쾌한 목사 임종길 목사 김영숙 목사



손인화 목사 박상철 목사



신석태목사 오광섭 목사 박석규 목사



원로목사회 주소록



원로목사회 단체사진



2025년 6월 정기모임



정기총회 2024년



교협 50주년 기념집에 워싱턴교계에 잊혀지지 않는 몇분을 기고하게 되었다. 이 분들외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필자와 개인 친분있던 분들을 기록하였다.

황재경 목사



황 목사님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해방 이후 미국 워싱턴의 한인교회에서 목회한 목사, 아나운서, 음악가라 되어있다. 워싱턴교계에서 그와 친분관계에 있는 분은 김택용 목사님 정도 일것이다. 나는 그 분이 한국 극동방송의 설교자로 있을때 한번 만난 일이 있다. 1906년 함경남도 안변군 안변읍(지금의 강원도 안변군 안변읍 지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황찬식(黃讚湜)은 후에 안변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남대천에서 연어를 잡는 어부였다가 뒤에 교회의 과수원을 가꾸는 일을 하였다. 1892년경에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선교사가 나귀에 마가복음을 싣고 안변에 들러 황재경의 할아버지에게 전도하였는데, 황재경이 목사가 된 먼 배경이 되었다.

대학시절 연희전문 4중창단으로 경성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1934년 연희전문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전에서 동양음악을 강의하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후 일본기독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1947년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194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국에서 한국어 아나운서로 활동하였다. 1977년까지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로 활동하다 사임한 이후로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는 톱(saw)연주 개척자로 미국 의회 연설 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초대한 만찬에서 톱연주를 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의 아나운서로 한국의 전시상황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였다. "오늘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희망을 가지

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가 전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한국전쟁 휴전 후 목사안수를 받고 워싱톤 D.C. 최초의 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1973년 24년간의 방송인 생활과 23년간의 목사활동도 끝마친 황재경 목사는 1984년 78세의 나이로 타계했는데, 방송인답게 극동방송에서 설교중에 세상을 떠났다. 워싱턴 한인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귀한 분이다.

정용철 목사



내 친구 정재두 목사의 부친인 영하(零下) 정용철 목사님은 시인이며 유명한 찬송가 가사 작시자이시다. 외국번안 찬송이 대부분이었던때(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이 올려져 사랑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가 그 곡이다.

"네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영하는 기장의 1세대 목사로서 강원룡, 문익환, 문동환 목사 등과 함께 간도 용정중학교와 한국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수학한 분이다. 그는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원로였지만 그 분만큼 소박하고 겸손한 분은 찾기어려울 것이다. 격을 두지않고 워싱턴의 목사들과 친분을 두텁게 하시고 젊은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아까지 않으셨다. 한번은 지상에 실린 내 글을 보시고 직접전화 주시며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고 만남이 있을때마다 글쓰는 일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셨다. 오래곤 큰 아들 곁에 가셔도 가끔 전화주시고 안부를 묻곤하셔서 몸둘바를 몰랐다. 그는 일본 동경신학대학과 청산학원과 미국 프린스톤신학교에서 수학한 학구파였지만 동시에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의 일생을 사셨다. 백세수 찬하를 받으시고 그해 아들곁에서 눈을 감으셨다. 이주원, 신후식, 정용철 목사님 모두 백세를 사신 기적과 같은 분들이다. 그들이 지내온 인고의 세월을 볼때 그렇다. 그 분들이 양지바른 워싱턴의 공원에서 오손도손 담소하시던 격조있는 그 교제를 어디서 찾을수 있으랴!

신후식 목사



보산(普山) 신후식 목사님은 워싱턴의 원로로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다. 그 생애의 공과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으나 그 분이 3.1운동에도 참여하신 일면도 있었음을 상기해둔다. 그는 경북지역에서도 오지인 청송 출신으로 모태신자였다. 대구의 명문 계성학교를 졸업 평양 숭실전문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후 곧 평양신학교를 나와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향리 대구제일교회를 담임하였으나 거의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하였다. 후에 통합측 총회장을 지내셨으나 본인의 모교 계성고등학교 교장과 대구의 기독교 명문 여학교 신명여고의 교장을 지내셨다. "내 장모님 손복희 권사는 그때 학생이었다. 보산의 아우는 계명대학의 총장을 지낸 고 신태식 목사이며 오랫동안 총장을 역임한 신일희는 그의 조카이다. 내 처 숙부 고 김상열 장로가 한때 재단 이사장을 지내셔서 양가가 끈끈한 연을 맺고 대구의 명문가로 회자되고 있다." 여

기까지는 장인 고 김상영 장로께 들은 이야기다.

내가 경험한 보산은 인후정대(仁厚正大)하신 분이시며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신선한 감각을 지니시고 유쾌한 유머의 달인이셨다. 손자뻘 되는 나를 다만 처가의 연으로 끔직이 사랑하셨다. 설교를 부탁하면 언제나 간단명료하게 Brand new 설교하셔서 후배들을 감탄케 하셨다. 그 분은 별 운동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장수하셨다. 고봉의 밥을 남김없이 드시고 늘 영문신문을 읽으셨고 시류에 대한 명료한 식견을 가지시되 겸손함을 잃지 않으셔서 원로목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으셨다. 워싱턴 교협 30대 회장 김재동 목사의 자문요청으로 보산의 백수연을 주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서울장로교회에서 친인척은 물론 동문들 그리고 교계가 만장을 이룬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그때 축사를 맡아 그의 인품을 7가지 덕으로 소개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내가 설립한 워싱턴 청소년재단에 1 만물을 쾌척하셔서 놀라게 하시기도 했다. 사모님이 먼저 작고하신후 워싱턴을 떠나 딸 곁에 계시다 10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좋은 어른으로 늘 그리워 지는 분이시다.

이주원 목사



산전수전 이 목사님은 함경도 북청이 고향이다. 북청사람들의 근면함은 물지게를 져서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 한다. 이 분은 호랑이가 출몰하는 심심산골 출신으로 일찍 예수믿고 개화된 분이시다. 고향에서 3.1 만세운동에 도 참석하셨다. 피어슨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잠시 소학교 교사하시다 소명에 따라 한국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평생 기장 교단을 떠나지 않으신 분이다. 주로 수원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후에는 고아와 빈민을 돌보셨다. 그 공로로 독일정부가 주는 상을 받으시기도 했다. 게이더스버그 한 노인아파트에 계셨는데 영광교회 출석하신 관계로 8년동안 신앙과 목회의 멘토로 자식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셨다. 그 분을 한마디로 추억하면 영국신사같은 분이란 것이다. 흐트러짐없는 단정한 옷차림 고상한 말 솜씨 약속시간 엄수 등 구순의 노인으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분이셨다. 절제된 삶은 건강의 비결이라면서 호사하는 것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포도주 한잔씩 하는 것이라 하셔 방문할 때 좋은 포도주 선물하면 그렇게 좋아 하셨다. 아파트로 모시러 가면 늘 미안해 하면서 운전면허 따지못한 것을 한탄하셨다. "정목사님 내가 3층에서 로비까지 내려 오는데는 어떤 미국노인들 보다 빠른데 저렇게 지팡이 의지하는 노인도 현관앞에서는 자동차 몰고 쏜살같이 달리는 구료" 했다.

강용절 사모님과는 검은머리 파뿌리 되기까지 해로하셨다. 사모님 역시 정갈하셔서 늙은이 냄세 피우면 안된다고 늘 향수를 애용하셨다. 함경도 분답게 가자미 식혜를 담아 주시곤 했다. 목사님은 그의 평생 설교문을 보관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시면서 내게 메모쪽지도 버리지 말라고 늘 권고하셨다. 서가에 한 권 남은 자서전 "산전수전"을 선뜻 내게 주시기도 했다. 사모님이 더 이상 살림을 못하시게 되어 몇 몇 복지시설을 다니시다 사모님이 먼저 세상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고 목사님은 100세 되시던 해 양로원에서 백수연을 받으신후 몇달 후 소천하시고 버지니아 버크 메모리얼 묘원 에 안장되었다. 참으로 깨끗한 일생을 사신 분이시다. 몇년 동안이라도 이런 어른을 모셨다는 것은 내게는 큰 복이다.

김종선 목사



김종선 목사님은 예성과 기성의 신학교를 두루 섭렵하신 성결인이나 장로교 목사로 평생을 목양하셨다. 그는 기도자였고 전도자였다. 젊은 시절 수많은 기도회를 조직하고 인도하였고 한국땅 도처에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불신자 전도에 최선을 다하셨다.

도미해서는 미주한인장로회 총회(KAPC) 수도노회를 고 김화일 목사와 함께 설립하시고 노회의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신 총회의 어른이셨다. 88년 이민와서 어리둥절한 나를 다독여 주시고 친절하게 면려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다. 총회에 참석하여 몇번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한 밤중에 일어나셔서 침대밑에 꿇어 엎드려 한정없이 기도하시고는 해서 젊은 나로서는 송구하기 짝이 없었다. 총회에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꾸짖어서 교단의 내노라하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지금도 "모세는 80세에 출정하였고" 하신 명 연설이 귀에 쟁쟁하다.

워싱턴에서 붙박이로 여생을 보내시면서 교단과 교계에 두루 모범을 보이셨고 자녀들 모두 모범된 신앙인으로 양육하셨다. 맏아들 김택조 목사를 뒤늦게나마 신학을 하게 하여 목사안수를 받는 감격을 보셨다. 간호원 출신의 사모님은 인정이 많으신 분으로 댁을 방문하면 언제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한번은 목사님을 모시고 먼 길을 다녀왔는데 마중나오셔서 손에 무얼 꼭 쥐어주셨는데 나중에 펼쳐보니 거금 300불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

내외 간에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다. 그는 침술에 능하여서 장침 맞은 여러분들이 기절초풍하기도 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일은 목사님의 90세 생신연을 지금은 없어진 한성옥에서 워싱턴의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베풀어 드린 일이다(KAPC수도노회 교력자회주최). 목사님은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지금도 "구여운 종들에게 복주옵소서" 하신 기도가 이명으로 들려온다. 나도 목사님을 본 받아 '구여운' 후배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생을 보내고자 한다.

김윤국 목사



김 목사님은 신학을 목회에 접목시킨 보기드문 실천신학자이며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다.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신학교에서 교수하며 목회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한국의 예장이 둘로 나뉘기 전 남산신학교(박형룡 교장)에서 소장교수로 동년배 학생들을 가르쳤다. 후에 서울 영락교회 3대 목회자를 지내면서 여러 일화를 남겼는데 너무 많은 당회원 때문에 당회를 밤새워 해야 할일들이 있어 스톱워치를 가지고 발언시간을 제한하시고 했다고 한다.

자녀들이 거주하는 워싱턴 인근 북버지니아에 정착하신 후에도 각종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이민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등 그의 사전에는 은퇴란 없는듯 하였다. 그는 평북 강계출신으로 자수성가한 목사중 한분으로 당시 손꼽는 미국 유학파였다. 장신에 호남형의 목사님은 신학박사인 동시에 법학박사로서 PCUSA에 오랫동안 몸담았다. 그는 평양신학의 전통을 잇는 보수적 복음주의

자로서 일생을 헌신하였다. 그는 일제치하와 한국동란 등에서 체험한 자전적 수기 “산넘고 물건너”, “태평양을 넘어서” 2권을 남겼는데 원적이 평북 철산인 나는 밤새워 장편수기를 읽으면서 조상들의 고향땅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었다.

목사님은 워싱턴원로목사 회장을 지내면서 명칭문제의 법리적 해석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사모님 역시 평안도 출신으로 남편못지 않은 학구열로 미국고등학교의 교사를 지냈다. 목사님이 피난후 경북사대를 다니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은 없어진 초원식당에 장인 내외분과 함께 정담을 나눈 일이 기억에 새롭다.

그는 그토록 오랜 타국생활을 했음에도 평안도 특유의 사투리를 늘 구사하였다. 한번은 동향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그 집 손자가 받아 투박한 이북말로 “할아버지 바꾸라우” 했더니 이 녀석 대뜸 하는 말이 “갸는 잔다. 넌 누구냐?”해서 살소를 금치 못했다 한다. 장군이 멍군이 된 셈이다. 그토록 정정하셨던 분 9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카이로스는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워싱턴교계는 정녕 잊을수 없는 훌륭한 어른들을 많이 모신 복된 곳이다.

박관빈 목사



박관빈 목사님은 만주출신으로 워싱턴 이민교회 개척자 중에 한분이시다. 그 분과 함께 워싱턴 복음화에 애쓰셨던 분은 당시 유명 연예인들을 넘는 인기인 황재경 목사가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은 서울신대와 필라 페이스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워싱턴교협 설립에도 참여하셔서 3대 회장을 지냈다. 박 목사님은 버지니아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인 동시에 침례교회인 버지니아 침례교회를 설립하여 20년을 목회하였다. 이 분의 특징은 교단이나 교파를 가리지 않고 젊은 목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셨다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므로 정부 요로에 한인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많이 애쓰셨다. 그분과 함께 한식당에 가면 주인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그의 동포사회를 위한 애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스천대학 설립을 위해 무진의 노력을 경주하셨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신 안타까움이 남겨져있다. 인테리 사모님은 미국 국회도서관에 오랫동안 봉직하시면서도 목회의 훌륭한 동반자셨다.

박 목사님은 털털한 성품으로 만담을 잘하셔서 동료 목사님들께 즐거움을 선사하시고는 했다. 특히 성대묘사는 “남보원”을 뺨칠만큼 잘하셔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신다면 백세 스탠딩 개그맨으로 데뷰하셔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박 목사님은 워싱턴 청소년재단을 설립한 내게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한번은 좋은 양식집에 양 갈비를 대접해 주셨는데 텔아비브 맥심에서 맛보았던 것 같이 맛있다고 하여 두고 두고 생각나는 추억이다. 애난데일 가는 236도로 근방에 박 목사님의 구옥에 정영만 목사와 방문해 주옥같은 목회경험담을 듣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목사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 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쾌한 분이시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육척장신의 목사님은 91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이원상 목사



이원상 목사님은 목회일념의 전형이라 할만큼 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을 떠나서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충성된 종이었다. 그의 설교는 주해를 중심한 강해로 일관되어 혹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예화없는 말씀중심의 고집스런 강론은 은퇴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연륜을 쌓아간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 푹빠져서 신세대 후임목사가 한동안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가 1977년부터 2003년까지 26년간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며 미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이자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킨 이면에는 이러한 목양설교적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한데 있었다. 그는 만주출생으로 경북 경산과 대구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대학(계명대)과 대학원(경북대)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한때 경산의 메노나이트 계통의 미션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미국에 오기전 총신(합동)에 시험을 치뤄 합격했으나 달라스신학에 유학오게 되어 늘 한국신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총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분이다. 그래서인지 총신대학 합창단의 미주공연 때는 늘 앞장서 도움을 주었다. 그의 평소 취미라면 시를 쓰는 것으로 한권의 시집 “내 양을 먹이라”를 발간하였다.

시집출판 기념예배에 백순 장로가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시인”이라고 해서 만장의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를 추억하는 워싱턴 교계의 원로들은 한결같이 인내의 종이었다고 평한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잡음없이 평안하게 교회가 성장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성장에 몰두하다보니 교계에 대한 돌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특히 내가 많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러던 중 워싱턴 교협이 워싱턴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어서 목사님에 대한 편견이 많이 수정되었고 재단의 초대 이사장까지 역임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많은 만남이 이루어져 그 인격의 고매함과 진실됨에 감탄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123도로 변에 “마르코 폴로”에서 늘 야채중심의 뷔페를 권하셨다. 그 분의 사모님은 약사로서 내 처 숙부 김상열 장로의 제자이다. 평생 목회일념의 목사님곁에서 그림자처럼 내조하시므로 오늘날의 중앙장로교회로 성장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목사님은 은퇴후에도 영국 웨일스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할만큼 학구파였으며 시드선교회를 설립 세계선교회 꿈을 펼쳐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모범적 선교회가 되고 있다. 한편 프레션 기도운동에도 앞장서 워싱턴의 기도운동의 불씨를 살렸다. 201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평생 교회외는 다른 일에 매달리지 않는 교회인이었다.

신동수 목사



고 신동수목사는 죽마고우(竹馬故友)는 아니나 뒤늦게 친구가 된 후로는 그 이상으로 단짝이 되어 거의 20여년을 워싱턴에서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우애를 다졌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밑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며 상경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군입대 육본의 좋은 보직에서

편안히 복무하다 제대하였다. 이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하숙하던 중 예수믿고 서대문에서 한창 부흥중이던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여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의 사랑을 받고 청년부 회장을 맡게되어 숨겨져있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개척한 후 미국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미국 이민교회에 소명을 받고 캘리포니아 여러 곳과 캐나다 뱅쿠버를 거쳐 동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를 지금 여의도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의 후임으로 오게 되었다.

손인화 목사



손 목사님은 워싱턴 교계에 잊혀지지 않는 분중에 한분이시다. 특히 내게는 미국 이민 초창기에 큰 도움을 주셨다. 아이들 학교 입학이나 심지어 장보기까지 돌보아 주시고 때때로 버지니아교회에 초청해서 설교하게 하신 고마운 분이다. "외줄타기 같았던 목회를 마치고 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골인 지점에 들어선 운동선수같은 기분입니다." 이는 46년 목회를 마감한 그의 은퇴소감이다.

1956년 목사 안수를 받던 해 육군 군종학교를 수료하고 바로 중위로 임관, '푸른 옷과 함께 실려간' 손 목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 받은 삶', 바로 그것이었다.

1965년 맹호 부대와 함께 월남으로 파견돼 제 1연대 군목을 지내고 육군 본부 군종감실 선교담당관, 수도경비 사령부 군종참모, 육군대학 군종 부장 및 동대학 교수, 육군 본부 군종 과장 등 1980년 정년 퇴역하기까지 손목사의 전반기 목회는 나라의 간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1985년 워싱턴 버지니아장로교회로 바로 부임해 이곳에서 퇴임하였으니 복이 많은 분이다. 특히 목회 중 교회당 건축해 봉헌했다. 은퇴 후에도 군선교에 헌신하여 매년 한국장병 세례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여정을 보냈다. 개성 출신의 미인 사모님은 그림자 내조로 유명하고 세명의 따님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 말년에 지극한 효도를 받았다.

나가는 말

하나님 앞에 그 어느누구도 자랑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은 많을 것이다. 부름받은 목사님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 목사님들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감히 그 길을 따라 가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 우리도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각자마다 인내하며 천국까지 갈 때 그 곳에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 3 장

역대 회기별 50년 교협역사

- 태동기(1대 - 10대)
- 발전기(11대 - 20대)
- 성장기(21대 - 30대)
- 부흥기(31대 - 40대)
- 확장기(41대 - 50대)

제 1대를 회고하며 - 시작, 연합, 꿈 -



제 1대 회장 **정용철** 목사

1970년 8월 2일에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나의 인생은 한국에서의 목회 활동을 뒤로 하고 워싱턴에서의 제 2 인생과 목회역사를 시작하였다. 이미 내 인생은 반세기를 넘도록 한국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다시 인생의 또 다른 반세기를 살아야 할지 기대감과 의구심을 함께 가지면서 미국 정치 1번지인 워싱턴에서 목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다.

목회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동역자들이 등을 떠밀어 워싱턴의 교회들이 모여 교회협의회를 조직하자고 했을 때 아무 것도 준비가 되지 못한 환경이라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지금까지 교역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함께 했던 교역자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교협 역사의 첫 번째 회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마음처럼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의 문패를 달고 앞으로 다가올 워싱턴 교회들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과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셨고, "내개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9)의 말씀을 의지하며, 동포들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뿐이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신앙의 목표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교협의 일을 감당하였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꿇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해 낼 수 없었던 이 귀한 교협의 사역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친애하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제 1대 정용철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대 임원단 (1975~1976년)

† 제 1 대 임 원

회장 : 정용철 목사(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총무 : 김택용 목사(워싱톤한인장로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75년 4월 18일(주일)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 광장

협력 : 교역자회

2. 워싱턴성서학원 후원

교역자회의 후원 속에 태동된 워싱턴성서학원이 개강되었으며 학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협의회가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제 2대를 회고하며 - 개척, 소망, 연합 -



제 2대 회장 **김택용** 목사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다른 아무 말을 하려한다하여도 제 인생은 '턱걸이 인생'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가 가사가 저의 간증주제가 되었고, 내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유니게처럼 저의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는데 신앙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90이 넘어도 어린 아이처럼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백명의 교사보다 더 훌륭한 세기의 요람 어머니 햇솜의 순명주 표단보다도 더욱 포근한 어머니 품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과 부드러운 어머니 음성 언제나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언제나 그리운 그 이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기록해 봅니다.

인생의 여러 과정과 고비를 당할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워싱턴 교회협의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협의 초창기는 개척의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일에 저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교협의 기초를 세우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소망하면서 지내왔는데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청춘이 이제 90이 넘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50살의 장년을 맞이하는 교협이 청춘의 독수리처럼 부흥하고 성장하여, 워싱턴을 넘어 세계속에서 우뚝 서 있는 교협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동포사회를 보듬는 교협이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2대 김택용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대 임원단 (1976~1977년)

† 제 2 대 임 원

회 장 : 김택용 목사(워싱톤한인장로교회)

부회장 : 김현칠 목사(워싱턴제일침례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77년 4월 10일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 광장

2. 교회 대항 친선 축구대회

일시 : 1976년 봄

3. 유사기독교 비판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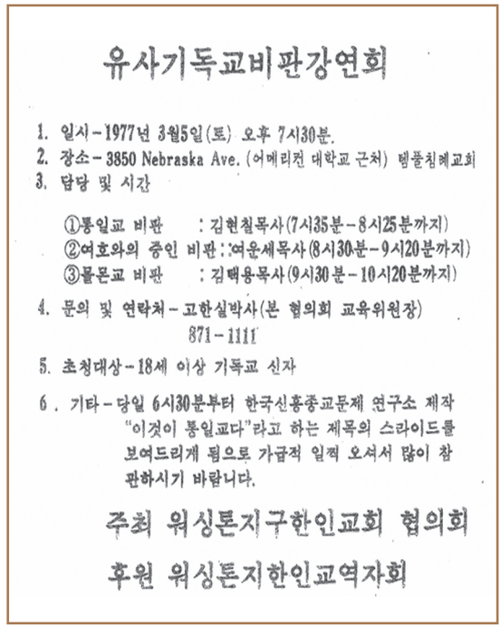
일시 : 1977년 3월 5일 오후 7:30

장소 : 3850 Nebraska Ave(American 대학 근처) Temple Church

강사 : 여운세 목사(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에 관해 김택용 목사(몰몬교), 김현칠 목사(통일교)

목적 :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포교하는 유사 기독교의 정체를 해부하고 이에 대한 성경적 대책을 마련

참석인원 : 150여 명



유사기독교비판 강연회 광고

유사기독교비판강연회

1. 일시 – 1977년 3월5일(토) 오후 7시30분.
2. 장소 – 3850 Nebraska Ave. (어메리칸 대학교 근처) 템플침례교회
3. 담당 및 시간

①통일교 비판 : 김현칠목사(7시35분 – 8시25분까지)
②여호와의 증인 비판 : 여운세목사(8시30분 – 9시20분까지)
③몰몬교 비판 : 김택용목사(9시30분 – 10시20분까지)

4. 문의 및 연락처 – 고한실박사(본 협의회 교육위원장)
871 – 1111
5. 초청대상 – 18세 이상 기독교 신자
6. 기타 – 당일 6시30분부터 한국신흥종교문제 연구소 제작 "이것이 통일교다"라고 하는 제목의 스라이드를 보여드리게 됨으로 가급적 일찍 오셔서 많이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워싱톤지구한인교회 협의회

후원 워싱톤지한인교역자회



유사기독교비판 강연회 신문기사 한국일보

심판대에 오른 유사기독교

통일교·여호와의증인·몰몬교 비판강연

유사 기독교 비판강연회(주최 : 워싱톤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가 지난 5일 (토) 하오 7시 30 분부터 미 Temple 침례교회에서 열렸다.

강연장에는 김성덕목사, 박판빈목사, 정용철목사를비롯 약 1백 50여명의 각교회에서 나온 재직자들이 비판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첫번째로 등단한 김현칠목사는 「통일교비판」을, 다음 차례는 여운세목사가 「여호와의 증인비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택용목사가 「몰몬교 비판」을 하였다.

강연에 앞서 약 50 분 간은 슬라이드를 통해 "이것이 통일교다" 를 소개했다.

강연요지 는 아래와 같다.

◆여호와의 증인비판 (여운세목사) —서론과 연역 설명은 생략하고 비판내용만 발췌함.

모든 이단 종파들은자기네의 경전을 성경보다 권위있게 믿는게 통례이다. 마호멧트교의 코란경, 몰몬교의 몰몬경, 문선명의 성양서가 그렇다. 이것은 자기들의 원리에

워싱톤지구 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THE GREATER WASHINGTON ARE

204 East Del Ray Avenue, Alexandria, Virginia 22301

교협 2 - 9
수신 : 각 교회 담임목사 및 기관장
참조 : 각 교회 교인
제목 : 유사기독교 비판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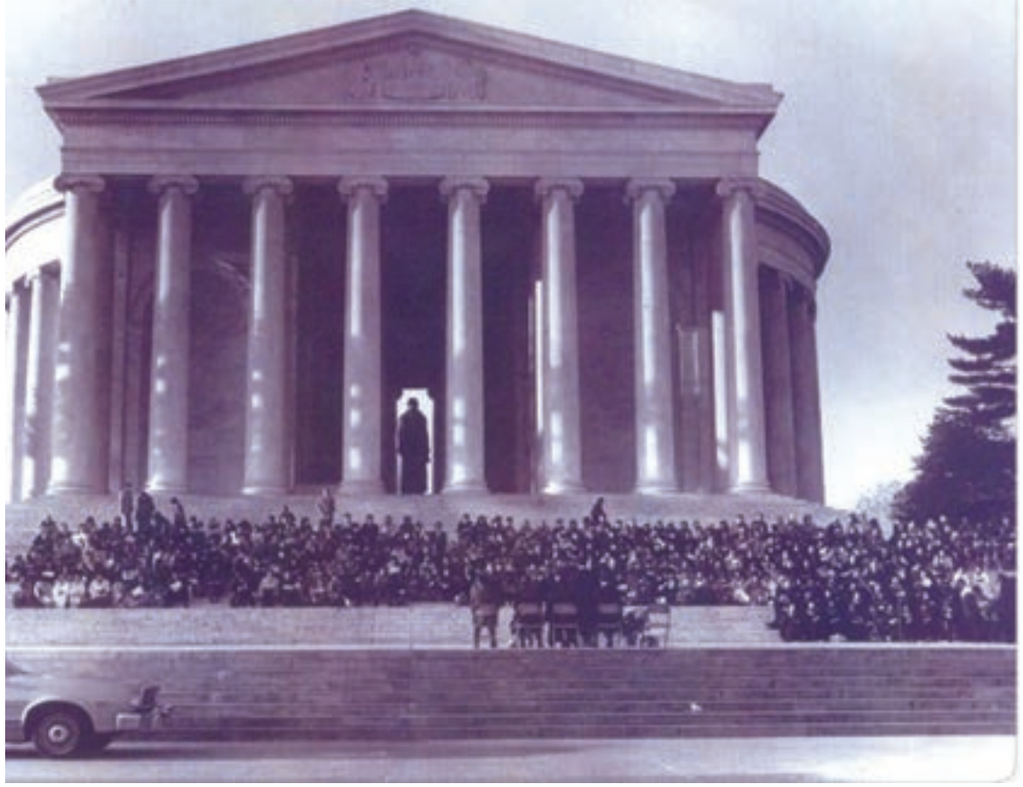
워싱톤지구 한인 교회협의회에서는 워싱톤지구 한인 교역자회의 후원을 얻어 다음과 같이 유사기독교(이종단파) 비판 강연회를 가집니다. 모처협의 기회에 다수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1977년 3월5일(토) 오후 7시30분부터
2. 장소 : 미국 버지니아 침례교 구내(구 워싱톤 한인 성서학원 강의실)
3. 담당 및 시간 :
   ① 통일교 비판 : 김현칠 목사(7시35분부터 8시25분까지)
   ② 여호와의 증인 비판 : 여운세 목사(8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③ 몰몬교 비판 : 김택용 목사(9시30분부터 10시20분 〃)
4. 강사 소개
   ① 김현칠 목사 : 숭전대학교 졸업, 하워드대학 종교학부 대학원 졸업(Master of Divinity) 현재 제일한인침례 교회에서 목회중
   ② 여운세 목사 : 총신대 및 동대학원 졸업, 샌프란시스코 대학신 졸업(Master of Theology) 현재 워싱톤한인침례 교회에서 목회중
   ③ 김택용 목사 : 총신대 및 고대 대학원 졸업(M.A.) 샌프란시스코 대학신 졸업(Th.M.) 하워드대학 종교학부 대학원 졸업(Doctor of Ministry) 현재 워싱톤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회중.
5. 초청대상 : 18세 이상 기독교 신자
6. 문의연락 : 고한실 박사(본 협의회 교육위원장 871 - 1111)
7. 기타 : 공식 강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6시30분부터 "이것이 통일교다"라는 제목의 한국 신흥종교문제 연구소 제작 슬라이드를 약 50분간에 걸쳐서 보여 드림으로 가급적 일찍 오셔서 많이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용 목사 1977년 2월 15일

유사기독교비판 강연회 공문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 3대를 회고하며 - 봉사, 섬김, 사랑 -



제 3대 회장 **박관빈** 목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봉사나 섬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미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칭찬과 대접, 인정과 존경을 얻기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고,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반이고,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섬김은 대가가 없는 것이고, 섬김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칭찬을 얻기위해 베푸는 선과 사랑은 욕심이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곤욕과 심문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억울한 심정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봉사, 섬김,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인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수고와 헌신의 자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목사로, 그리고 교협의 회장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3대 회장 박관빈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대 임원단 (1977~1978년)

† 제3대 임원

회장 : 박관빈 목사(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
총무 : 김현칠 목사(워싱턴제일침례교회)

제 4대를 회고하며 - 개척, 희망, 내려놓음 -



제 4대 회장 **김현칠** 목사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자기를 위한 세상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열정인데, 그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했기에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기포기입니다. 내려놓음, 곧 자기포기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총회와 신학교 사역과 목회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신앙안에서는 그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과 내려놓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4대 교협회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4대 회장 김현칠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대 임원단 (1978~1979년)

† 제4대 임원

회장 : 김현칠 목사(워싱턴제일침례교회)

총무 : 김승학 목사(몽고메리침례교회)

제 5대를 회고하며 - 영접, 사명, 사귐 -



제 5대 회장 **김승학**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생사를 오고가는 위험한 순간을 넘기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한 민족 한 겨레가 서로 총을 겨누어야 하는 비극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깨뜨리는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의 죄악이었습니다. 6.25 전쟁가운데 남하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을 믿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의 부름에 응답할 수 밖에 없는 거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한국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친구의 권유로 워싱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교협 회장이 된 것도, 그리고 미주침례교단의 회장이 된 것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동원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얻은 것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소통입니다. 교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연합과 소통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5대 회장 김승학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5대 임원단 (1979~1980년)

† 제5대 임원

회장 : 김승학 목사(몽고메리침례교회)

부회장 : 여운세 목사(워싱턴한인침례교회)

제 6대를 회고하며 - 말씀, 교육, 신학 -



제 6대 회장 **여운세** 목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목회하는 목사로, 어떤 목사는 선교사로, 어떤 목사는 교수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목사중에 선교사로, 교수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영성과 인성을 골고루 겸비하여 어느 곳, 누구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였으니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할 성경의 위인입니다.

교협 회장을 지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보다 성도들의 삶이 더 존경받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역과 올바른 열매는 처음부터 시작이 옳아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겉의 모양이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썩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교협회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은혜가 감사할 6대의 교협은 평신도 교육에 힘쓴 한 해였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과 대화의 관계를 가졌고, 평신도전도요원훈련, 그리고 여전도회연합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임원으로 수고하시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는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선배 회장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은혜롭게 교협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6대 회장 여운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6대 임원단 (1980~1981년)

† 제 6 대 임 원

회장 : 여운세 목사

목사 부회장 : 김종선 목사

평신도 부회장 : 이상훈 집사

총무 : 이태구 목사

서기 : 김창오 집사

회계 : 서준택 장로

교육위원장 : 이태호 장로

봉사위원장 : 노원진 집사

† 주요행사

1. 신년축하의 밤

일시 : 1981년 1월 1일 오후 8시

장소 : 워싱턴순복음교회

2.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81년 4월 19일 오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Washington DC)

설교 : 이원상 목사(한국어) 김상복 목사(영어)

3. 워싱턴지역 한인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간담회

일시 : 1981년 3월 21일

장소 : Hanna's Cafe

4. 워싱턴지역 한인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창립준비총회

일시 : 1981년 3월 16일 오후 8시

장소 :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참석교회 12교회 총회참석인원 33명

준비위원장 선출: 회장 홍성남(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서기 장은숙(후레데릭한인침례교회)

5. 평신도 전도요원 훈련대회를 위한 조찬기도회

일시 : 1981년 6월 29일 오전 8시

장소 : Ramada Inn, McLean, VA

6. 평신도 전도요원 훈련

일시 : 1981년 6월 22일 –27일(6일간)

장소 : 워싱턴한인침례교회(여운세 목사)

주소 : 310 Randolph Rd. Silver Spring, Maryland 20904
전화 : (301) 622-3465

교회협의회보

발행인 : 여 운 세
편집인 : 노 원 진

워싱톤지구 교회 협의회 1981년 10. 발행



협의회 회장 여 운 세 목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천국문에서 영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앉아서 반갑게 맞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지나서 많은 성도들중 저쪽에서 한 사람이 또 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더니 황급히 일어나서 너무나 반갑게 뛰어가 포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있던 성도들이 은근히 샘이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전해하시나 우리들은 그저 앉으셔서 맞아 주시고 저사람은 도대체 누구인데 저렇게도 특별히 환영하신단 /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하십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 그 사람은 우리들보다 더 그렇게 환영하시나요"

그때 미소를 띠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렇지 많은 성도들이 줄을 이어이 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중에 목사는 지금까지 하나밖도 없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오니 내가 어찌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말들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일드며 경배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본회 회장으로서 일년간 봉직하는 중에 감격하는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충성입니다. 목사인 나와 비추어볼때 철석 순수하고 참신하며 성실한 성도들임을 발견 하였읍니다. 목사인 나보다 더 주님 복음에 대하여 정열적임을 발견하였읍니다. 더우기 이번에 수고하신 본회 임원들이 피없이 충성하는것을 볼때 감격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불충했던 나를 한없이 인내하는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도편달해주신 여러교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일에 협력하고 격려하신 교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무궁한 부흥과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사 주님중심에 오실때 다같이 돌림받는 기쁨에참가하길 기원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 상 훈 집사(부회장)

지난 일년동안도 우리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와싱톤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데 힘써온것을 먼저 하나님앞에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태 구 목사(총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사람이면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 : 12)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지역교회의 힘찬 맥박소리를 들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승리로써 역사의 중장을 장식하기 위하여 교회의연합, 협력, 총력을 촉구합니다.



김 창 오 집사(서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지난1년 우리가정과 교회 특히 이곳 와싱톤지역 교포들에게 베풀어주신 축복해 주심을 감사 합니다. 지난1년동안 여러가지 행사 중에도 특히 토마스 제퍼슨광장에서 있었던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를 기억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교우들이 이른새벽,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생명에 기쁨을 나누고져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뜻깊은 일이였읍니다. 그날 아침 일기가 예상외로 어떻게나 추웠는지 모든 교우들이 정말추위에 떨었던 사실을 생각게됩니다. 나자신도 미국에 온이후 그렇게 추워서 떨어보기는처음이였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많은 교우들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그런추위에도 불구하고 한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지않고 끝까지 찬송과 예배에 열심인지 새삼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과 열의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은 그저 지나쳐버릴수 있는 적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 하나로 뭉쳐진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볼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적으로 찾아볼 수있는 우리들의 단결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이곳 미국이민생활속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굳은 믿음과 참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묵묵히 전진할때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듯이(히 11 : 29) 우리의 홍해도 육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와싱톤한인교회협의회 재정보고서 (1981년 9월30일)

행 사	수 입	지 출	수입초가
협의회 회비	$ 730.00	$ —	$ 730.00
신년축하연합예배	662.95	260.00	402.95
부활절연합예배	1,449.77	780.00	669.77
연예인 간증의 밤	161.35	680.00	(518.65)
전도대회 및 평신도수련회	4,972.93	5,416.08	(443.15)
대합창제(부활절) 보조		615.00	(615.00)
기타		53.50	(53.50)
총합계	$7,977.00	$7,804.58	172.42
1980년의월금	—		81.13
Total Cash Balance 9/30/81			$ 253.55

전도대회 및 평신도수련회 수입 및 지출명세

수입

전도대회 특별헌금	$1,230.00
평신도수련회 등록비	2,206.47
전도집회 헌금	1,536.46
	$4,972.93

지출

사례금 강순영 강사	600.00
〃 김춘곤 목사	1,000.00
강사숙소 경비	906.56
초청기도회 경비	162.86
교재(Texts & Matenials)	1,040.00
비행기	326.00
인전비	300.00
현지통사, 순서지등사 및 수송비	330.66
	$5,416.08
광고비	$ 750.00

회계 서준택 장로



지난 일년동안 와싱톤 한인교회협의회의 회계일을 맡아 봉사할 수 있게하여 주신 주님께 저는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일년동안에도 좋은 행사를 계획하여 열심히 일할려고하는 임원들에게 항상 아쉬운것은 예산문제였읍니다. 이때마다 행사회에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임원들의 굳은 신념과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믿음의 확신속에서 항상 승리하였으며 계획하였던 예산보다 배나되는 경비를 우리 주님은 항상 예비하여 주시였읍니다.

이한해를 보내며 저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노원진 집사(봉사위원장)

"능력주시는자 안에서 모든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있는 한해였읍니다. 평신도 전도요원 훈련기간 일주일간 매일 수백명의 이지방 믿음의 형제들이 망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행하려는열의를 갖고 열심히 뛰우는것을 보면서 감격과 감사를 금할 수 없었읍니다.

와싱톤은 앞으로 제2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게될 것을 하나님께 이시간 기도합니다.



이 태 호 장로(교육위원장)

교포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을 통하여 교사들의 서로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저 하였으나 금년에도 이루지 못하였읍니다. 다음 임원들에게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살며

그를 전하자

워싱톤지구 교회협의회 1981년 주요행사 및 사업

1. 신년축하의 밤
   1981년 1월1일 오후8시
   워싱톤 순복음교회
   사회 : 여운세 회장
   설교 : 신년 및 메세지
   ▲선교공동체로서의 교회 안병국목사
   ▲사랑의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용철목사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신윤경목사
   기원
   ▲인류 평화를 위하여 김태웅목사
   ▲고국을 위하여 이윤상목사
   ▲교포와 미국을 위하여 김현철목사
   여섯교회 참가 연합성가 및 성가순서참여
   참석교인수 500여명
2.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1981년 4월19일 오전6시
   Jefferson Memorial 광장
   설교 : 이원상 목사(한국어)
   김상복 목사(영 어)
   참석인원 : 1200여명
3. 와싱톤지역 한인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간담회
   1981년 3월21일
   Hannah's Cafeteria
   1부 예배
   기도 전회장 김승학 목사
   설교 "우리가 하나인것 같이"
   정용철 목사
   2부 간담회 내용
   가. 환영인사 소개
   나. 81년도 교회협의회 사업소개
   다. 81년 대전도대회 계획 준비 설명 및 협조요망
   라. 사이비종파에 대한 대책
   1. 문제점제시 김현철 목사
   2. 대책토의 연구위원회구성
   마.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안내
   바. 목회자 세미나 : 교회성장 세미나
   사이비종파 비판
   사. 산하기관 소개
   한인교회 성가대연합회
   한인교회 여전도회연합회준비위원회
   한인교회 주일학교연합회준비위원회
   아. 교회협의회 참여협력요망 및기태보고
   참석교회 22교회 참석자 58명
   신규담임교회 3교회
4. 한국연예인 신앙간증예배
5. 와싱톤지역 한인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창립준비 총회
   주관 : 와싱톤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때 : 1981년 3월16일 오후8시
   곳 : 와싱톤 한인연합교회
   1부 창립준비예배
   2부
   참석교회 12교회 총회참석인원 총33명
   준비위원장 선출 회장 홍성남(와싱톤연합장로교회)
   서기 장은숙(루테드릭 한인침례교회)
6. 평신도 전도요원 훈련대회를 위한 조찬 기도회
   1981년 6월20일 오전8시
   Ramada Inn, Mc Lean, Va 16명의 목회자 참석
   1. 예배인도 회장 여운세 목사
      말씀 기탄없는 말씀전파(사무엘4 : 13)
   2. 전도대회 및 요원훈련 내용 및 진행사항보고
   3. 연속기도
   4. $700여의 찬조 성금이 약속됨
7. 평신도 전도요원 훈련
   장소 : 와싱톤 한인침례교회
   일시 : 1981년 6월22일~27일 6일간
   강사 : 김춘곤 목사(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
   강순영 간사(한국대학생 선교회 전도훈련 담당)
   제1일 개회예배 및 토의 사명리강해(A)
   제2일 메세지 예수의 유일성
   제3일 최첫을 받는방법,토의 사명리강해(B)
   제4일 성령충만을 받는방법, 전도 준비와 책자
   제5일 성령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제6일 성경공부인도법, 전도실습, 전도교재 사용요령
   연 참석인원 1500여명
8. '81 대와싱톤지구 전도대회
   때 : 1981년 6월27일, 28일 오후7 : 30
   곳 : 순복음 와싱톤교회
   강사 : 김춘곤 목사(한국대학생 선교회)
   참석인원 600여명
9. 교회협의회 후원사업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복음선교회주관 성가대연합회, 부활절 수난음악제, 할렐루야 축구팀 경기, 주일학교연합회, YMCA주관 사이비종파 세미나, 기타수개 사업지원
10. 와싱톤, 볼티모어지구 목회자세미나
    때 : 1981년 6월22일 오전10시
    곳 : 와싱톤 한인침례교회
    강사 : 김춘곤 목사
    참석인원 40여명 참석





와싱톤한인교회협의회 재정보고서 (1981년 9월30일)

행 사	수 입	지 출	수입초가
협의회 회비	$ 730.00	$ —	$ 730.00
신년축하연합예배	662.95	260.00	402.95
부활절연합예배	1,449.77	780.00	669.77
연예인 간증의 밤	161.35	680.00	(518.65)
전도대회 및 평신도수련회	4,972.93	5,416.08	(443.15)
대합창제(부활절) 보조		615.00	(615.00)
기타		53.50	(53.50)
총합계	$7,977.00	$7,804.58	172.42
1980년의월금	—		81.13
Total Cash Balance 9/30/81			$ 253.55

전도대회 및 평신도수련회 수입 및 지출명세

수입

전도대회 특별헌금	$1,230.00
평신도수련회 등록비	2,206.47
전도집회 헌금	1,536.46
	$4,972.93

지출

사례금 강순영 강사	600.00
〃 김춘곤 목사	1,000.00
강사숙소 경비	906.56
초청기도회 경비	162.86
교재(Texts & Matenials)	1,040.00
비행기	326.00
인전비	300.00
현지통사, 순서지등사 및 수송비	330.66
	$5,416.08
광고비	$ 750.00

회계 서준택 장로

지난 일년동안 와싱톤 한인교회협의회의 회계일을 맡아 봉사할 수 있게하여 주님께 저는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일년동안에도 좋은 행사를 계획하여 열심히 일할려고하는 임원들에게 항상 아쉬운것은 예산문제였읍니다. 이때마다 행사회에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임원들의 굳은 신념과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믿음의 확신속에서 항상 승리하였으며 계획하였던 예산보다 배나되는 경비를 우리 주님은 항상 예비하여 주시였읍니다.

이한해를 보내며 저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제 7대를 회고하며 - 말씀, 사명, 전도 -



제 7대 회장 **김종선**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으로 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선 때였습니다. 이민사회가 미약했던 시기였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복음의 열정은 그대로 식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나의 목회신학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거룩한 성령으로 성숙과 성장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자기욕심과 자랑으로 물들어가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 7대 교협 회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평생 살아온 그 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7대 회장 김종선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7대 임원단 (1981~1982년)

† 제 7 대 임원

회장 : 김종선 목사(동부장로교회)

부회장 : 김택용 목사(워싱턴한인장로교회)

제 8대를 회고하며 - 믿음, 성장, 절제 -



제 8대 회장 **김택용** 목사

제가 2대 회장을 역임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갔습니다. 워싱턴으로 이민오는 한국 동포들이 많아짐에 따라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은 교인들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워싱턴 동포들에게는 중심적인 모임의 장소가 되었고, 교회는 모이는 교인들 때문에 숫적인 증가는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도로서 이민생활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않고, 단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교회에 와서 채우는 영적인 교회가 아닌 사회적인 교회로의 전락될 위험을 깨닫고 교회나 교협이나 먼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중점이 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평가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을 맞아 USA TODAY 신문에서 링컨 대통령이 '무신론자'이며 '그가 무엇을 믿었는가?'라는 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신문에서 링컨은 "조지아대학 교수 스티븐 베리는 링컨이 처음에는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 먼 신을 믿었지만 남북 전쟁과 1882년 11세 아들 윌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더 종교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링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확신합니다.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1313 New York Avnue, Washington, DC)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2층 본당 Sanctuary에는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긴의자(Lincoln Pew)가 유물로 구별되어 다른 의자들과 함께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에는 노예해방과 관련된 서신의 원본이 유리관에 담겨 벽에 걸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약 100여명의 좌석이 있는 아담한 별관, Lincoln Chapel이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369 페이지에 달하는 <History of the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 (1803 to 1961)> 교회역사 책에서 링컨과 직접 관계된 기술은"The Lincoln Family and the New York Avenue Church"라는 항목으로 23페이지(p234~p257)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정기적으로 주일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

로 주중 기도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띄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그 교회 교인이었다는 법정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링컨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거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역사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링컨은 기독교 신자였으며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에 열심히 참석한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인은 그 분을 더욱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람이 보는 데서 혹은 보이지 않는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믿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성도를 가르쳐야 하고, 교협은 단지 모이는 수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가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제 8대 김택용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8대 임원단 (1982~1983년)

† 제8대임원

회장 : 김택용 목사(워싱톤한인장로교회)

부회장 : 민대석 목사(워싱턴성지교회)

총무 : 강일구 목사(워싱턴한인성결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83년 4월 3일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Washington DC)

2. 축구대회

일시 : 1983년 봄

3. 첫 교회주소록 발간

일시 : 1983년 7월 5일

협찬 : 워싱턴지역 교역자회장(송문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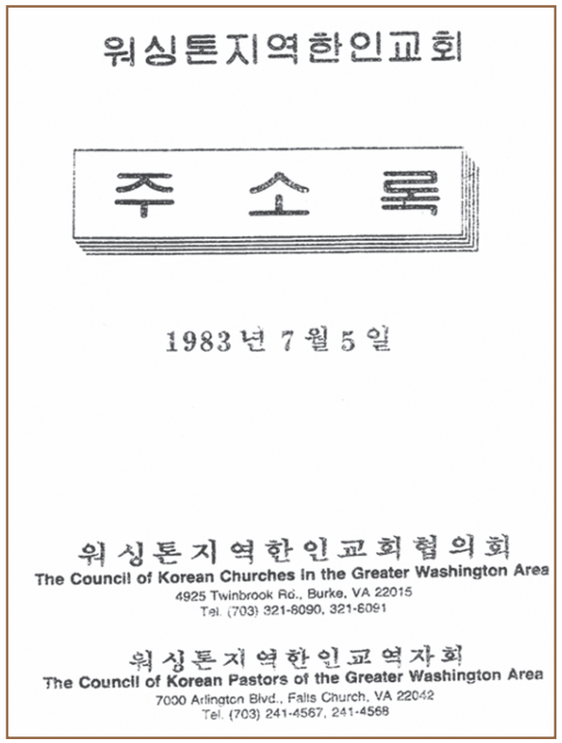
내용 : 76교회와 11개 기독교 단체 그리고 85명의 목사명단

4. 목사 세미나

일시 : 1983년 7월

장소 : 중앙침례교회(송문섭 목사)

강사 : 하용조 목사


워싱톤지역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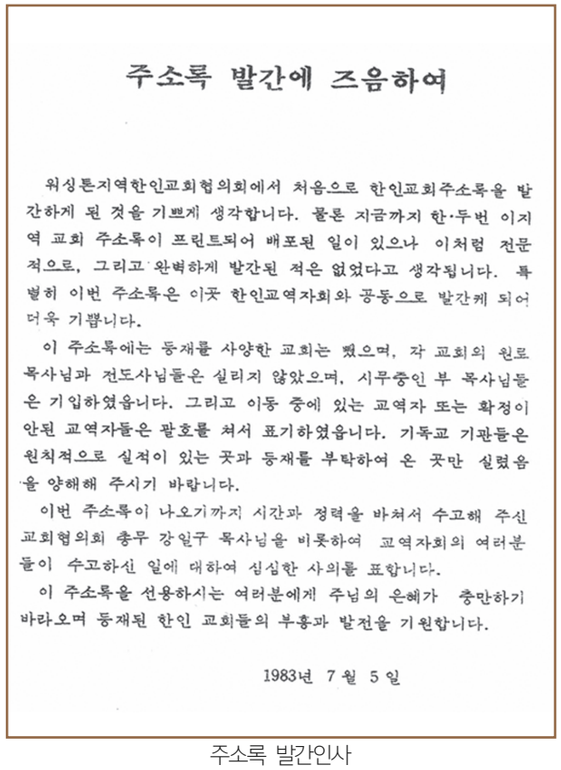
주 소 록

1983년 7월 5일

워싱톤지역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the Greater Washington Area
4925 Twinbrook Rd., Burke, VA 22015
Tel. (703) 321-6090, 321-6091

워싱톤지역한인교역자회
The Council of Korean Pastors of the Greater Washington Area
7000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2
Tel. (703) 241-4567, 241-4568

주소록 표지


주소록 발간에 즈음하여

워싱톤지역한인교회협의회에서 처음으로 한인교회주소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두번 이지역 교회 주소록이 프린트되어 배포된 일이 있으나 이처럼 전문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발간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소록은 이곳 한인교역자회와 공동으로 발간케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 주소록에는 등재를 사양한 교회는 뺐으며, 각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실리지 않았으며, 시무중인 부 목사님들은 기입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있는 교역자 또는 확정이 안된 교역자들은 괄호를 쳐서 표기하였읍니다. 기독교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실적이 있는 곳과 등재를 부탁하여 온 곳만 실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소록이 나오기까지 시간과 정력을 바쳐서 수고해 주신 교회협의회 총무 강일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회의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일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주소록을 선용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라오며 등재된 한인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3년 7월 5일

주소록 발간인사

제 9대를 회고하며 - 믿음, 주권, 사역 -



제 9대 회장 **김상묵** 목사

1977년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마치 알을 낳기 위해 강가의 가파른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물살을 헤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 것을 알면서도 새생명을 위해 어떤 장애도 헤치고 치솟아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젊음과 열정, 나의 지식과 나의 시간을 다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목회뿐 아니라 교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현재에 낙심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보여야 하고, 이런 교회들이 모여 교협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워싱턴 동포 사회에 본이 되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협이 되어야 합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동락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기관과 다른 신령한 곳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협의 초창기의 역사속에서 큰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협의 연합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9대 회장 김상묵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9대 임원단 (1983~1984년)

† 제 9 대 임원

회장 : 김상묵 목사(맥클린한인장로교회)

부회장 : 최윤환 목사(중앙그리스도교회)

제 10대를 회고하며 - 진실, 정직, 사랑 -



제 10대 회장 **최윤환** 목사

1975년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정용철 목사, 김택용 목사, 박관빈 목사를 중심으로 발의하여 열매를 맺어, 연합적인 교회운동이 결성되었고, 차츰 맥클린장로교회 김상묵 목사의 활동 역시 복음사역에 큰 거보를 넓게 펴가게 된다. 다시 여기에 결속되어 가게 된 분들이 박태환 목사, 임종길 목사, 유흥태 목사의 열정이 보태어 지고, 차츰 워싱턴의 복음 활동은 확장되어 갔는데, 특히 1984년에 소목이 교회협의회의 회장 일을 맡아 일할 때는 윤정태 목사가 총무 일을 맡아서 함께 일했고, 그때 함께 활동하여 준 분들은 기억나는 대로 김치환 장로, 은환표 장로, 이인길 장로(이 분들이 당시는 아마 집사 사역을 맞고 계셨던 분들이셨을 것이다) 등이다. 그 이후에 다시 윤정태, 우수명, 김 철, 최윤환, 정인량, 박노영 등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서 차츰 교회 복음 활동은 더욱 박차를 더하여 갔으며, 벌써 이미 이 지역에 워싱턴지역 교역자회도 설립되어서, 안병국 목사가 열의를 갖고 이끌었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워싱턴지역 땅을 밟은 귀중한 선배 사역자들, 그리고 조국 독립운동을 위하여 큰 발판을 열어 놓고자 그 자리매김을 마련해 놓았던 우리 조국의 열사들, 또 저들의 삶의 바탕이 그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려니와 이 분들의 노고는 계속 우리 "워싱턴한인이민사" 이민 2장 – 교협 형성과 역대 회기 별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동포사회와 교협이 계속 발전되어 왔고, 이민 역사의 그 기틀이 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워싱턴지역 이민사회의 역사로 이어져서, 여기 미주 땅에 피와 땀으로 점철하여 왔음을 부연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에 매진해 왔던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제 10대 최윤환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0대 임원단 (1984~1985년)

† 제 10 대 임원

회장 : 최윤환 목사(중앙그리스도교회)

부회장 : 강일구 목사(워싱턴한인성결교회)

총무 : 윤정태 목사(워싱턴제일장로교회)

† 주요행사

1. 신년하례예배

강사 : 이동원 목사(워싱턴한인침례교회)

장소 : 워싱턴한인침례교회

2. 1차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

장소 : 마샬고등학교((VA)773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강사 : 박조준 목사(영락교회)

내용 : 김택용 목사가 발의하여 처음으로 복음화대성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함.

3. 2차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

장소 : 조지메이슨 고등학교 대 강당

강사 : 김준기 목사(연세대 신학대학 학장) 박조준 목사(영락교회)

4. 주미대사관과의 유대협력

당시에 주미 한국대사로 활동하였던 김용식 대사가 한 번은 Seven Corner(VA)의 한 미국식 음식점에서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30~40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하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였던 따뜻했던 모임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물론 그 후 함병춘 대사님 경우에도 상기 목사님 부부를 대사관으로 초청하여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게 해주었던 기억도 잊혀지지 않는 모임이었다.

그 이후에 다시 윤정태, 우수명, 김 철, 최윤환, 정인량, 박노영 등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서 차츰 교회 복음 활동은 더욱 박차를 더하여 갔으며, 벌써 이미 이 지역에 워싱턴지역 교역자회도 설립되어서, 안병국 목사가 열의를 갖고 이끌었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당시 이동원 목사가 이 지역의 한인침례교회에 부임해 왔고, 필자가 워싱턴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사역을 맡아 헌신했던 84년에는 당시 처음 이곳에 부임하여 왔던 이동원 목사에게 부탁하여 신년예배를 워싱턴한인침례교회(현 지구촌교회)에서 드렸던 기억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5. 교회협의회의 뒷 이야기

1975년 경에 이미 황재경 목사(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책임자 및 한인 감리교회), 김택용 목사(워싱톤한인장로교회), 정용철 목사(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안병국 목사(후에 안디옥침례교회 설립), 박관빈 목사(버지니아침례교회), 또 메릴랜드의 허중호 목사, 감리교회로서는 베데스다 쪽의 선윤경 목사, 또 버지니아에는 김영훈 목사, 또 침례교 목사로서는 김현칠 목사, 여운세 목사, 이태구 목사, 김승학 목사의 사역 활동으로 이 지역에 활동적인 복음 전도가 피어나는 새싹처럼 펼쳐져 가고 있었고, 벌써 이곳 주변에 너덧 교회가 설립되어 활발한 복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차츰 황수봉 목사가 북버지니아 장로교회를 설립했고, 또 윤명호 목사가 중앙장로교회를 맥클린에서 시작하여 이원상 목사가 이었으며, 또한 조국에서 군종감 활동을 활발히 하셨던 한준섭 목사의 감리교회 활동, 한태경 목사, 또 장로교의 김종선 목사 등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송문섭 목사(중앙침례교회), 그 이후 권경환, 이영훈 목사(워싱턴순복음교회) 등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성결교의 한철우 목사, 그리고 제가 77년에 버지니아에 와서 얼마의 교인들과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차문제 목사(정통한인장로교회)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이분은 이곳에서 사역지를 펼칠 때, 처음 만나 뵌 분들 중의 한 분이셨다. 황재경 목사의 뒤를 이어 박종열 목사, 조영진 목사의 와싱톤한인감리교회의 활발했던 교회 역사도 워싱턴지역 초기 기독교 활동에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하는 사역 중 일익이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에서 활발한 복음화 대회를 시작한 것은 필자가 회장 사역에 헌신하던 때에 김택용 목사의 귀한 첫 발의로 타이슨 코너에 자리한 마샬고등학교를 빌려서 워싱턴복음화대성회에 박조준 목사를 초청해서 강당에 가득 차게 모인 첫 번째 '워싱턴 복음화 대회'의 사역이었다. 이어서 당시 연세대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김준기 목사를 초청하였고, 이때는 7번 도로 길에 소재한 조지메이슨 고등학교 대강당을 사용해 강단까지 올라온 성도들로 강단이 비좁을 정도로 채웠고, 은혜로운 말씀과 이민생활가운데 겪었던 삶의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치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은혜를 받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처럼 첫 번째 복음화대성회를 통해서 워싱턴 동포사회와 지역교회들 사이에서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아름다운 소식의 화두가 되었다. 아마 그때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심한 분들이 적지 않아 현재까지 각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다.

한 번 더 기억에 떠오르는 복음화 대회는 메릴랜드 지역과 버지니아 지역에서 함께 한 김삼환 목사를 초청한 대회였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사역 활동 기억이다. 당시 김삼환 목사의 재미있는 복음사역 이야기 예화들을 듣고, 불신자들의 심적 각성을 크게 일으켜, 온 강당을 가득 메운 속에서 새로운 신앙에 눈을 뜬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각 교회에 흩어져 역시 귀한 일꾼이 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김장환 목사 초청 복음화 대회도 이어졌고, 당시 주로 복음 활동으로 결집하던 모임 장소 역시 모여지기 좋은 장소들로 식도원, 서라벌, 동락 식당들이 이런 귀한 모임을 태동하게 하는 모임 장소들이 되었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를 이 곳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선진국가인 미국에 파송하셔서 미국속에 한인교회와 동포사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민 초창기의 교회 역사와 교협역사의 기초를 다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임원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제 11대를 회고하며 - 소명, 목회, 선교 -



제 11대 회장 **이원상** 목사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며,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교협을 섬기고, 또한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저의 삶과 목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늘 저는 여러 워싱턴의 목회자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워싱턴의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삶의 초점은 선교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저는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품고 있습니다.

교회도 선교이고, 목회도 선교이고, 연합사업도, 교협도 선교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교협의 일을 맡았지만 전체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워싱턴 교협의 여러 목사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교협 회장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교회들과 임원들, 특히 부회장 되신 박석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워싱턴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 11대 회장 이원상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1대 임원단 (1985~1986년)

† 제 11 대 임원

회장 : 이원상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부회장 : 박석규 목사(워싱턴감리교회)

제 12대를 회고하며 - 은혜, 전도, 감사 -



제 12대 회장 **박석규** 목사

예수믿고 나서 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시116:12-14)"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나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인사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 입술로 찬양할 수 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면서 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에도 조금도 마음에 힘들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때 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영원한 오늘"이라는 책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회장으로 함께 일하면 이 목사님도 회장을 하겠다고 하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과 함께 교협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요, 아버지인 요한 웨슬리는 늘 전도의 열정을 가졌고, 그 열정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결은 성령충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나도 늘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늘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생을 마치는 것과 이 땅 교회들이 더 순수하고 정결해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교협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12대 회장 박석규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2대 임원단 (1986~1987년)

† 제 12 대 임원

회장 : 박석규 목사(워싱턴감리교회)

부회장 : 김화일 목사(워싱턴새한장로교회)

제 13대를 회고하며 - 말씀, 교회, 영광 -



제 13대 회장 **김화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무엇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 보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백번 천번 만번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말의 종으로서 짧은 생애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배운 신앙의 교훈은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경험과 습관으로 몸에 그런 신앙과 신학이 머물렀을지도 모르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연합사업, 노회와 총회의 일들을 돌보았지만 언제나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가를 고민하면서 살았지만 아무래도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교만과 자랑과 욕심 때로는 명예의 유혹이 떠나지 않아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를 부르짖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모습은 풀처럼 흙처럼 사라진다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다면 그것으로 저의 인생은 만족할 것입니다. 저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3대 회장 김화일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3대 임원단 (1987~1988년)

† 제 13대 임원

회장 : 김화일 목사(워싱턴새한장로교회)

제 14대를 회고하며 - 사명, 순종, 헌신 -



제 14대 회장 **김화일** 목사

미국 워싱턴에서의 시간들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가족도 돌 볼 여유도 없이 이 곳 저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저를 찾으시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13대 회장의 책무를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해 워싱턴의 교회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 목사님들께 늘 송구한 마음의 한 해 였습니다.

그동안 미주 총회, 수도노회, 워싱턴개혁장로신학교, 그리고 교회 목회와 부흥회 일정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마음으로 저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대 회장을 마치고,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날짜가 다가오는데 14대 교협 회장을 할 목사님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올 해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다시금 교협 회장을 재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협 회장에 대한 개인적 욕망이 많아서 또 한 번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협 회장을 하신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협 회장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했습니다. 다만 자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닌 그래도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을 보안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는 늘 후회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혀의 설교처럼, 대화의 열기처럼 행하지 못한 모습에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지금 고백해야 할 말은 이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와 긍휼에 감사합니다".

제 14대 회장 김화일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4대 임원단 (1988~1989년)

† 제 14대 임원

회장 : 김화일 목사(워싱턴새한장로교회)

부회장 : 손인화 목사(버지니아장로교회)

제 15대를 회고하며 - 열심, 선교, 연합 -



제 15대 회장 **손인화**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님을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월남에 군목으로 파송하셔서 생과 사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이방 땅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가며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한 동안 있었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내 삶과 목회에서 함께 진행되어 왔던 사역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한 사람의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 생애에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이곳 워싱턴 한국의 장병들에게 진중세례식을 베풀 수 있는 사역의 길을 열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열정과 비전이었습니다. 교협도 결국 선교 공동체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혼자서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함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협 회장으로서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협이 십수년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성서대학이 활발하게 운영된 것을 감사하고, 함께 성서대학에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쳐 준 교수 목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대학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한 선교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서대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5대 교협 회장 손인화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5대 임원단 (1989~1990년)

† 제 15대 임원

회장 : 손인화 목사(버지니아장로교회)

부회장 : 황수봉 목사(북버지니아장로교회)

제 16대를 회고하며 - 진취력, 신중함, 간절함 -



제 16대 회장 **황수봉** 목사

원래 수줍음도 많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 조차 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셨습니다. 오직 교회와 목회에 전념하고 있던 저를 동료 목회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워싱턴 교협을 위해 일해 달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목회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때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교협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교회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은 아닌가 조심스러워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역자들의 간절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역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는 오히려 동역자 간의 의리와 사랑에 해를 입힐 것 같은 순진한 염려가 제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교협 회장은 어떤 권위나 권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늘 모든 교회와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낮은 자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려는 말을 청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되었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약간의 혼동과 혼란이 오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되었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협 회장이 되도록 간곡하게 설득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16대 회장 황수봉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6대 임원단 (1990~1991년)

† 제 16대 임원

회장 : 황수봉 목사(북버지니아장로교회)

부회장 : 한철우 목사(유니온성결교회)

제 17대를 회고하며 - 전도, 개척, 성실 -



제 17대 회장 **한철우** 목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한량이 없건만 제가 하나님께 이룬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에 말씀 앞에서 늘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부르신 그 목적이 있기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서울의 암사동, 속초,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까지 하셨으니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1980년 대 초에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오게 하셔서 또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어떤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무지함과 교만함보다는 아무 것도 없는 것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후에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 믿기에 무엇보다도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착한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제 17대 회장 한철우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7대 임원단 (1991~1992년)

† 제 17 대 임원

회장 : 한철우 목사(유니온성결교회)

부회장 : 허중호 목사(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제 18대를 회고하며 - 믿음, 헌신, 인내 -



제 18대 회장 **허중호** 목사

나의 신앙은 조부 허 간 목사로부터 유업을 받았습니다. 조부 허 간 목사는 황해도 출신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셨다. 그 후 황해도 재령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 백령도 중화동 교회를 설립하여 1947년부터 1970년까지 목회를 한 후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조부 허 간 목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백령도 주민들과 삶을 함께 하며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세우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주민들에게 말씀과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조부는 목회자일 분 아니라 사회 계몽가였으며, 백령도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조부님은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민자로서, 또 이민 목회자로서 인내로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역에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1994년에 예배당을 구입하게 하셨고, 미국장로교 한인총회장으로 섬겼고, 또, 교협 18대 회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협 산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부족한 종이 교협 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며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 특히 황수봉 목사, 오광섭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8대 회장 허중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8대 임원단 (1992~1993년)

† 제 18 대 임원

회장 : 허중호 목사(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부회장** : 김석현 목사(세계선교교회)

회계 : 최종구 사관(구세군교회)　**부회계** : 배현수 목사(샘물장로교회)

† 주요행사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93년 4월 11일(주일) 오전 6:00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Washington DC)

제 19대를 회고하며 - 변화, 끈기, 열정 -



제 19대 회장 **김석현** 목사

월남에 파병한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월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파병된 군장병들은 하루 하루가 늘 생사를 오고 가는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고, 위기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쉬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울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로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불행하고, 불쌍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월남에서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국과 미군의 삶의 문화를 배우게 된 계기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생각과 삶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전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이면서 군인의 신분으로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 경험한 부분들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위해 매년 토마스 제퍼슨 기념 공원 사무실에 가서 장소를 빌리고, 업무 협조를 구하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교협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협이 단지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그런 기관으로 머물지 않고, 더욱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히 복음전하는 일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교협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협력하신 교회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9대 회장 김석현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19대 임원단 (1993~1994년)

† 제 19 대 임원

회장 : 김석현 목사(세계선교교회)

부회장 : 황찬규 목사(대성침례교회)

제 20대를 회고하며 - 시련, 회복, 선교 -



제 20대 회장 **황찬규** 목사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몸에 평생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육신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의 계속적인 싸움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영적 승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죽을 생명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 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죽을 육신의 질병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려 왔노라"(막 2:17) 예수님은 약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근본 요소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의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연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기12:10)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결코 한 순간, 이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 20대 교협 회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평생 살아온 그 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는 날까지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협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20대 회장 황찬규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0대 임원단 (1994~1995년)

† 제 20 대 임원

회장 : 황찬규 목사(대성침례교회)

부회장 : 이원희 목사(신생침례교회)

서기 : 배현수 목사(샘물장로교회)

제 21대를 회고하며 - 진실, 정직, 사랑 -



제 21대 회장 **이원희** 목사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를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신앙과 제도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개혁은 외부적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났기에 밖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더라도 속이 썩으면 언젠가는 겉도 썩기 마련입니다.

교협 회장은 어떤 지위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직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받는 죄인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그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열거하기 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일했는냐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리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더욱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도 언제나 되내이며 했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 사람 앞에서 진실, 그리고 자신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있을 때 사람과의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교제와 소통이 결국 연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 곧 신생,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태어남, 신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헌신자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헤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이었고,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늘 거짓되고, 교만함이 머물지만 날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진실함을 지키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21대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때까지 이 땅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21대 회장 이원희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1대 임원단 (1995~1996년)

† 제 21 대 임원

회장 : 이원희 목사(신생침례교회)

목사 부회장 : 지선묵 목사(에덴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 이종률 장로(메시아장로교회)

총무 : 박태환 목사(워싱턴지구촌교회)

서기 : 배현수 목사(샘물장로교회)

회계 : 김경진 목사(워싱턴감리교회)

여선교회장 : 김수미 권사(필그림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Washington DC)에 약 1,500명에서 2,000여명 성도들이 참석하였고, 이흥섭 장로가 연합성가대 찬양과 예배 찬송을 위해 피아노를 준비하였다. 여선교회에서는 다과를 준비하였고, 각 교회에서는 교통편을 제공하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고, 주차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였다. 김석현 목사와 배현수 목사가 Jefferson 광장을 D.C 정부, Park 관리 사무실에 가서 예약을 하였다. 이 날 부활절예배 설교는 회장 이원희 목사가 하였다.

2.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한빛침례교회(송문섭 목사)에서 강사 나겸일 목사(인천주안장로교회)를 모시고 3일밤 집회를 열었는데 매일 밤 은혜를 사모하여 일찍 와서 앞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했고, 500명 이상 많은 성도들이 3일밤을 참석하여 예배당에 자리가 꽉 찰 정도가 되어, 워싱턴의 교회에 새로운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3. 워싱턴지역 기독교선교기관과 교회 후원

밀알선교회($ 1,000), 화재가 난 흑인교회($ 1,000), 워싱턴권익옹호($ 1,000) 등을 지원하였다.

4. 주미 한국대사관 박건우 대사의 교회협의회 협력

주미 한국대사 박건우 대사가 워싱턴소재 대사관저로 저녁에 100명의 워싱턴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저녁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박건우 대사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였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들면서 이민 목회자들과 대사관과 대화와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제 22대를 회고하며 - 섬김, 봉사, 나눔 -



제 22대 회장 **지선묵** 목사

여러 선배님들보다 먼저 제가 교협 회장으로 일한 것이 분에 넘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전심전력하여 네 진보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하라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감당하는 작은 자로서 교협을 섬길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가치는 소유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람의 존재가치는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크고, 높은 물질적 혹은 명예적인 것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빛과 소금, 곧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만큼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한 것보다는 많은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한 해를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선배 회장님들께서 줄 곧 힘쓰신 부활절새벽연합예배와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를 감당했고, 더욱이 북한의 동포들에게 작은 사랑의 마음들을 모아 그래도 함께 한민족 한겨레로서 언젠가는 통일될 그 날을 바라보며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옥수수 한알에 묻어있는 사랑의 기도의 눈물을 담아 직접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언젠가는 통일될 것을 기도하며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그런 불행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협을 사랑하고, 워싱턴의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민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22대 회장 지선묵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2대 임원단 (1996~1997년)

† 제 22 대 임원

회장 : 지선묵 목사(에덴장로교회)
부회장 : 오광섭 목사(버지니아제일장로교회)
총무 : 양광호 목사(페어팩스한인교회)
회계 : 배현수 목사(샘물장로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97년 3월 30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워싱턴 D.C. 제퍼슨 기념관
설교 : 지선묵 목사
성가대를 위하여 바람막이를 특별하게 준비했고, 많은 성가대가 함께 참석하여 연합찬양대로 찬양을 돌렸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새벽이었다. 설교는 지선묵 목사가 "예수 부활의 의미"로 예수 부활의 기쁨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전하였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침해가 떠오르고, 그 빛이 포토맥 강변물결을 윤슬로 만들고, 좌우에 망울망울 피어오르는 새색시같은 벚꽃의 수줍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퍼슨 광장에 오셔서 새벽 찬공기로 인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성도들을 품어주시며 힘들고 지친 이 민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예배가 되었다.

2.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1997년 7월
장소 : Mclean High School(VA)
강사 :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3. 북한동포돕기 및 평양봉수교회 예배

일시 : 1997년 9월
약 8만여불을 모금하여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5명의 이 지역 목사님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구호미를 전달(옥수수 400톤 평안도 문덕)하고 돌아와 보고회를 가졌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금을 하여 전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고백했다.
주일예배는 봉수교회에서 드렸고, 주일대표기도는 지선묵 목사가 담당했다.

제 23대를 회고하며 - 열정, 극복, 믿음 -



제 23대 회장 **오광섭** 목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듯이 저를 뉴 올리언스에서 워싱턴으로 오게 하셔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낯설었지만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목회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협 회장이 되었을 때는 한국이 IMF 위기가 닥쳐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한국을 어떻게 도와야 고국이 빨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하는 때였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면 누구나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멀리 고국 한국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의 동포들이 얼마나 고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개인적으로, 또 교협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학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전미국에서, 그리고 이 곳 워싱턴에서 동포들이 한국으로 보낸 달러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통해서 IMF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들이 하나되어 몇 년에 걸쳐 IMF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IMF같은 큰 위기처럼 우리 삶에 그리고 교회안에 위기가 닥쳐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때의 상황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 때 이후의 미래까지 바라보는 믿음이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로마서8:18)" 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 23대 회장 오광섭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3대 임원단 (1997~1998년)

† 제 23대 임원

회장 : 오광섭 목사(버지니아제일장로교회)

부회장 : 김종철 목사(매나사스한인침례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98년 4월 12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2. 이단세미나

한국에서 정동섭 교수(대전 침신대)를 초청하여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였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 – 정동섭 목사의 강의안 발췌-

정 소장은 8년 동안 몸담았던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를 2시간 넘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정 소장은 대학교 2학년 때 구원파 계열(박옥수·권신찬·이요한·유병언 등) 지도자 중 한 명인 유병언을 만나 구원파에 빠지게 됐다. 정 소장은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을 나와 이들의 이단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구원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삼환 목사)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최병남 목사) 등 주요 기관과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다. 정 소장은 구원파는 정통 교회와는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다.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관이 잘못됐고, 죄 사함을 받은 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는 회개관이 잘못됐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등의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얘기다. 정 소장은 구원파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 영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기도, 찬양, 예배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병언과 이요한, 박옥수라는 세 인물이 이끄는 이 집단은 사이비 기독교라며,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 사상인 도덕률(율법) 폐기론과 영지주의가 2000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이어 이들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이런 질문은 마치 구원이 확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박옥수 씨의 구원관에 빠져 있는 것은 '의지적인 회개와 결단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했다. 박 씨는 의지적 회개와 결단이 빠진 채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정통 교회와 입장을 달리 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예장통합은 지난 1992년 열린 제77회 총회에서 이런 교리를 문제 삼아 구원파 중 한 계열인 박옥수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통합은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틀림없으며,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로마서 9:6)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백한 이단으로 사료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 소장은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신천지 이만희 등 교주가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소장은 이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구원파 같은 집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도자를 재림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보통 목사와 똑같이 행동하고, 대부분 이단이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는 것에 비해 이 집단은 그것조차도 없다. 정 소장은 구원파는 교주가 성경을 억지 해석한 설교집을 경전과 같은 위치에 올려놨다고 했다.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것이다

출처 : NEWS M(https://www.newsm.com)

제 24대를 회고하며 - 조직, 협력, 연합 -



제 24대 회장 **김종철** 목사

제가 회장으로 섬길 때는 작년에 한국에서 IMF의 위기를 겨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새로운 질서와 구조를 세우는 때였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해외 동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고국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도한 결과 1998년도 하반기는 안심할 수는 없지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길을 마련했기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워싱턴 사회를 대표하는 워싱턴 한인회와 함께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가 한국 정부의 안정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벗어나 세계에서 뛰어난 국가로 발돋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 날 설교에서 "구름을 뚫고 보는 믿음"이란 설교를 하면서 한국의 IMF를 이기는 길은 한국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교협은 멀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가깝게는 미국 동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분주하게 일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찬양집회를 통해서 이민 2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교협의 행사진행 때문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후원해준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24대 회장 김종철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4대 임원단 (1998~1999년)

† 제 24 대 임 원

회장 : 김종철 목사(매나사스한인침례교회)
목사부회장 : 정인량 목사(영광장로교회)
총무 : 김경진 목사(워싱턴감리교회)
서기 : 박건철 목사(은혜침례교회)
회계 : 심우섭 장로(페어팩스한인교회)
평신도 부회장 : 김영호 장로(열린문장로교회)
부총무 : 주성봉 목사(워싱턴충현장로교회)
부서기 : 이석해 목사(세광교회)
부회계 : 강신호 장로

† 주요행사

1. 신년하례예배

일시 : 1999년 1월 18일(월) 오후7:30
장소 : 워싱턴한인성결교회(최승운 목사)

2.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99년 4월 4일(주일) 오전 6:00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사회 김종철 목사(24대 교협회장), 기도 신동수 목사, 성경봉독 김영호 장로, 찬양 워싱턴기독합창단(지휘 곽은식), 특송 워싱턴기독여성중창단,
설교 오광섭 목사(예수의 부활은 진리와 사랑 생명의 승리;요14:8-19)

3. 원로목사 초청 간담회

일시 : 5월 중
장소 : 워싱턴한인성결교회(최승운 목사)

4. 워싱턴동포복음화대성회 및 청소년복음화대성회

일시 : 1999년 7월 30일(금) -31일(토) 오후 7:30
장소 : 지구촌 교회(김만풍 목사)
강사 : 황수관 박사
청소년복음화대성회 장소 : 지구촌 교회(별관)

5. 한국예수전도단 초청 부흥과 통일 콘서트 1차

일시 : 1999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
장소 : 예루살렘장로교회
후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워싱턴-볼티모어지역본부

6. 한국예수전도단 초청 부흥과 통일 콘서트 2차

일시 : 1999년 9월 28일 오후 7:30
장소 : Wakins Mill High School
강사 : 휄로쉽교회(김원기 목사)
후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워싱턴-볼티모어지역본부
사회 김세웅 장로(KASDM 공동대표), 기도 유흥태 목사, 설교 김종철 목사
합심기도 안계수 목사, 김요한 목사, 서동주 목사, 홍원기 목사, 광고 서준택 장로,
축도 박인철 목사

7. 교협 교회 주소록 발간

위원 : 정인량 목사, 김경진 목사, 김영호 장로, 심우섭 장로

8. 위싱턴 기독교 유관단체장 초청 간담회

일시 : 1999년 2월 1일(월) 오후 12:00
장소 : 한성옥
사회 : 김종철 목사, 기도 : 주성봉 목사, 설교 : 손인화 목사, 축도 : 김석현 목사
간담회 : 사회 김경진 목사, 폐회기도 : 박관빈 목사

9. 박세직 장로 초청 조찬 기도회

일시 : 1999년 7월 2일(금) 오전 7시
장소 : 워싱톤순복음제일교회(신동수 목사)
사회 김종철 목사, 기도 신동수 목사, 성경봉독(살전5:16-17;롬8:28), 강사소개 손영구 목사,
특송 소연 집사, 간증 박세직 장로(체험을 통한 나의 신앙), 특별 기도 정인량 목사, 윤정태 목사(워싱턴교역자회장), 주성봉 목사, 박윤식 목사, 김영철 목사, 광고 김경진 목사, 축도 김승학 목사, 조찬기도 오광섭 목사.

10. 민주 평통 워싱턴협의회 신년하례식

일시 : 1999년 1월 9일(토) 오전 8시
사회 유지옥 위원장, 반주 홍춘해 권사, 특송 홍 철 집사, 설교 김종철 목사(구름을 뚫고 보는 믿음), 중보기도 김택용 목사, 임종영 목사, 백 순 장로, 신동수 목사, 유천종 목사, 김화일 목사
통성기도 이원상 목사, 헌금기도 손인화 목사, 축도 박관빈 목사
협의회장 신년인사 이종연 회장, 공관장 인사 이홍구 대사, 조찬기도 오학근 상임위원

11. 제 10회 교회 친선 탁구대회

일시 : 1999년 4월 24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George Marshall High School(7731 Lessburg Pike, Falls Church, VA)
주최 : 워싱턴한인YMCA, 주관: 워싱턴한인탁구협회
후원 : 워싱턴체육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개회 예배
사회 정진화 회원, 기도 심우섭 장로(워싱턴 YMCA 이사장), 설교 김종철 목사
경기진행 발표 전종준 위원장, 격려사 강남중 회장, 축도 김종철 목사

12. 춘계 교역자 야외예배

일시 : 1999년 5월 10일(월) 오전 10:00
장소 : Centennial Park(Columbia, MD)

예배 사회 명돈의 목사(메릴랜드교역자회장), 기도 임종영 목사(메릴랜드교회협의회장)
설교 김종철 목사(갈렙의 믿음), 광고 안인권 목사(메릴랜드교역자회 총무), 축도 정인량 목사(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

13. 제 24 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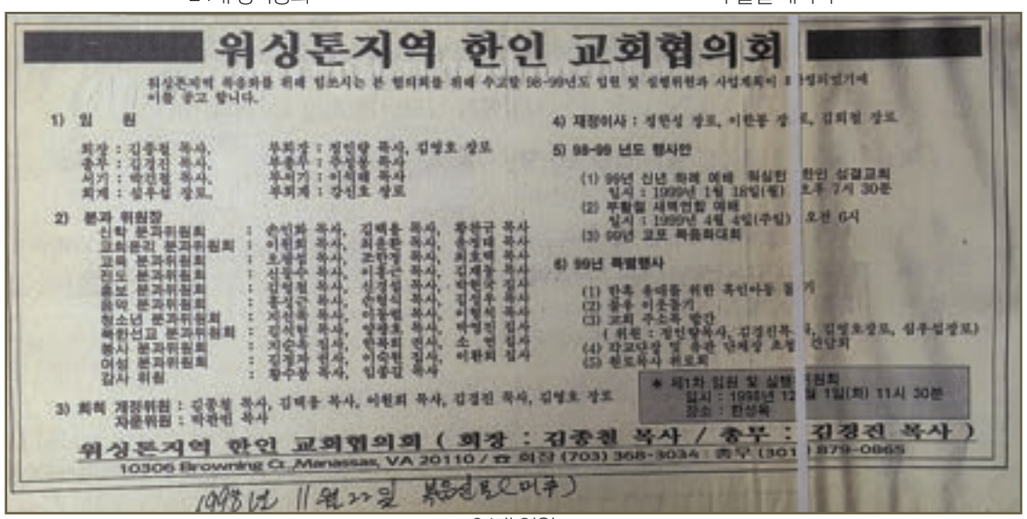
사회 김종철 목사, 기도 심우섭 장로, 성경봉독 이석해 목사(창1:1-3), 설교 신동수 목사가 '히브리백성의 하루의 개념' 후 박건철 목사와 김영호 장로의 합심기도 후 오광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다.
2부 회무는 사회 김종철 목사로 진행되었다. 회장으로는 임종길 목사가 선출되었다.



24대 정기총회



부활절 메시지



24대 임원


음신 소식
한국
제의 주역
24대 정기총회


imes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한인기독교계 부활절 맞아 다채 행사
24대 정기총회 인사말


음신 소식
이단'
복음화 대성회


주미대사와의 오찬


1991. 1·14 미주A문
평통 전원에 김대통령 새임명장
워싱톤협의회 조국통일 조찬기도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싱턴지역협의회
조국통일 조찬기도회

제 25대를 회고하며 - 믿음, 능력, 기적 -



제 25대 회장 **임종길** 목사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의 복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복, 사역의 복,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눈 앞에서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를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목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하면 아픈 환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적에 의존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저의 신앙이고,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신비로운 시간이었기에 하루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 날들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때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이 무엇인가 깜짝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을 시기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매주 모여서 교제도 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없었지만, 작은 일들이라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은혜롭게 마치게됨을 감사드립니다. 제 25대 회장 임종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5대 임원단 (1999~2000년)

† 제 25 대 임원

회장 : 임종길 목사(워싱턴제일교회)
목사 부회장 : 최바울 목사(새서울침례교회)
평신도 부회장 : 심우섭 장로(페어팩스한인교회)
총무 : 조남홍 목사(갈릴리장로교회)　　**부총무** : 이석해 목사(세광교회)
서기 : 정영만 목사(월드비전교회)　　**부서기** : 윤명호 목사(세광연합교회)
회계 : 전영권 집사　　**부회계** : 이숙원 집사(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 주요행사

1.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1999년 4월 23일(주일) 오전 6:00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Washington DC)
사회 임종길 목사, 기도 지선묵 목사, 성경봉독 이한봉 장로, 찬양 워싱턴 목사사모찬양대,
설교 김종철 목사(생명의 승리), 특별기도 정인량 목사, 윤정태 목사, 주선조 목사, 김석현 목사,
양성연 목사, 헌금기도 조명철 목사, 헌금특송 목자의 소리, 광고 조남홍 목사, 축도 최윤환 목사

2. 워싱턴지역 동포 복음화 대성회

일시 : 8월 17일(목) – 20일(주일)
장소 : Word of Life 교회(VA)
강사 : 안종만 목사(대전대흥침례교회)



한국일보 대표전화 (703)941-8001 2000년 4월25일 (화요일)

▲부활주일인 23일 새벽 제퍼슨 기념공원에서 열린 연합 예배에서 김종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인교협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차가운 새벽 공기와 푸른 이끼를 가르고 부활의 소망을 알리는 찬송가가 워싱턴 DC에서 울려 퍼졌다.

부활주일인 23일 새벽 죽음 존재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인들은 DC내 포카스 제퍼슨 기념 광장에서 열린 연합 새벽 예배에서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부활절 예배를 가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라며 『부활의 메시지가 비전리에 대한 전리의 승리임을 세상에 알리는데 힘쓰자』고 역설했다.

참혹한 날씨와 공사 때문에 예년처럼 제퍼슨 기념관 잔디밭을 사용할 수 없어 참은 잔디위에 앉아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자들은 한국 전쟁에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며 전쟁지역의 인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워싱턴한인교협 주관

(1면에서 계속)

제 26대를 회고하며 - 구원, 감사, 선교 -



제 26대 회장 **최바울** 목사

사람이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함을 깨닫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는 노력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옛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16:3)입니다.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나의 계획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래도 늦게나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인생 졸업장이 되는 것이고, 우등상장이 될 것입니다. 교협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26대 회장 최바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6대 임원단 (2000~2001년)

† 제 26 대 임 원

회장 : 최바울 목사(새서울침례교회)
목사 부회장 : 정인량 목사(워싱턴영광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 전용운 장로(맥클린장로교회)
총무 : 나정용 목사(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제 27대를 회고하며 - 변화, 청소년, 하나님께 영광 -



제 27대 회장 **정인량** 목사

교협의 회장되는 것은 어떤 감투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을 위한 것이라 봅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27대 교협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나름대로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교협을 섬길 수 있었으며, 늘 남다른 각오와 헌신의 마음을 다지며 교협회장의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이전의 교협 회장님들이 교협을 위해 기초를 놓았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교협을 이끌어 가는 동안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집중적인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사역들은 많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워싱턴청소년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의 이원상 목사님이 재단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교회들과 교협 임원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워싱턴청소년재단은 교협에서 세운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교회들이 연합하여 성탄을 축하하는 음악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새벽연합예배와 복음화대성회가 중심이었던 교협의 행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길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성탄축하음악예배를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교협을 이끌어주신 선배 회장들의 헌신을 바탕이 있었기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교협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되고, 또 개혁되는 그런 교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27대 회장 정인량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7대 임원단 (2001~2002년)

† 제 27 대 임 원

회장 : 정인량 목사(워싱턴영광장로교회)
목사 부회장 : 신동수 목사(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평신도 부회장 : 최재근 장로(맥클린한인장로교회)
총무 : 정영만 목사(월드비전교회)
부총무 : 박대일 목사(워싱턴프레이즈교회)
서기 : 송정식 목사(주안장로교회)
부서기 : 유병진 목사
회계 : 김인호 목사(프랭코니아한인침례교회)
부회계 : 백인기 목사(주님의 교회)

† 주요행사

1. 제 1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01년 12월 9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한빛지구촌교회(장세규 목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성탄축하음악예배를 드리면서 교협회장 정인량 목사는 "9.11 테러사건 등으로 전세계가 종말적 전쟁의 공포로 떨었던 한해였지만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음악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김한수·이경미 씨가 사회를 보았고, 워싱턴에덴장로교회(지휘 이용복), 워싱턴한인침례교회(지휘 곽태우), 필그림교회(지휘 김정환), 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지휘 이기복), 영생장로교회(지휘 유흥종), 성광교회(지휘 정지용), 워싱턴장로성가단(지휘 홍성근), 기쁜소리방송 어린이합창단(지휘 구용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샬롬중창단(지휘 구용회) 등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날 예배중에 드린 헌금은 워싱턴밀알선교단(단장 정택정 목사)과 워싱턴 빈민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나눔공동체(최상진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2. 27대 교협에 대한 좌담회

일시 : 2002년 12월 30일 오전 11시

사회 : 워싱턴중앙일보 구명회 기자

참석자 : 정인량 목사(회장), 김택용 목사(자문위원장), 신동수 목사(부회장), 정영만 목사(총무)

진행 : 구명회 위원

1) 교회 정체성에 관하여

정인량 목사 : 교회의 정체성이란 '교회의 교회됨'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하지 말고 본질적 측면에서 이해하자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변해도 이같은 진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원칙이 확고히 설때 비로소 전도, 예배, 교육, 구제, 친교, 교회 성장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교계 일부에서 교회성장 등 기능적 측면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칫 사회적 비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극단적 발언이 나오는 것도 결국 따지고보면 이 때문입니다.

2) 27대 교협행사에 대하여

정영만 목사 :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유료음악회를 5월경 개최 하려고 합니다. 음악회에는 주로 워싱턴 일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출연하게 되며 클래식, 가스펠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 및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조과학세미나는 단순히 강의로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워싱턴 근교를 탐사하는 일정도 포함하고 있어 목회자들에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경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의 '한국선교사 마을' 방문계획도 잡혀있습니

다. 이 마을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 한국민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셨던 미국인 선교사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원로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마을을 방문, 한국인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교사 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원로목사님들도 무척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금년도 동포복음화성회 강사로는 본국의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를 초청할 계획이며 거의 내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재정확보에 대하여

신동수 목사 : 기본적으로 회비에 의존해야겠지요. 협의회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이 멤버의식을 갖고 협의회일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회비문제를 떠나 하나님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워싱턴지역 한인사회가 급팽창하면서 교회재정도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회원교회들의 회비납부 실적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협의회 예산규모는 5만 달러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이민교회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김택용 목사 : 교회는 이민사회의 구심점입니다. 50%이상의 한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추산 됩니다. 교회는 또 매주 일요일마다 모이는 집단입니다. 1년에 한두번 모임을 갖는 친목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교회가 한인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국을 위해서도 할일이 많습니다. 과거 미주한인교회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이민교회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동포와 한인교회는 어느 의미에서는 남북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5)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후세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죠. 당면문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차세대교육을 꼽을수 있습니다.(한인 사회에서 2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벌써 3세, 4세가 나오고 있는만큼 2세보다는 차세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인사회의 축이 서서히 차세대로 이동하는 만큼 이들이 한인사회와 교회역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1세에 대한 관심을 줄이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민교회는 아직 1세들 중심인게 분명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한인교회들이 히스패닉 사역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 시기입니다. 히스패닉 인구는흑인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흑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한·히스패닉 관계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과거 LA폭동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히스패닉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노인사역에 대한인식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노인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센터도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인 미주이민 100주년기념사업에도 교회가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2년 1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김택용 목사)

4.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02년 3월 31일(주일) 새벽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설교 : 최바울 목사(새서울침례교회)

5.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2년 6월 27일 -29일
강사 :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6. 워싱턴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한 음악회

2002년 10월 25일 워싱턴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는 한국이나 LA 등 타지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기복음성가가수대신 워싱턴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했다.

벧엘교회, 코람데오 남성중창단, 워싱턴예사모 합창단, 소프라노 김은정, 드보라 성서무용단(단장 김미희), 손영진 사모,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샬롬 중창단, 워싱턴남성성가단, HOLIC 찬양단등 워싱턴 한인사회에 친근한 얼굴들이 교대로 출연해 정감어린 무대를 연출했다. 특히 워싱턴지역에 새로 구성되는 연합합창단으로 화제를 모은 '소리드림'이 공식적으로 처음 찬양발표를 했다. 교협회장 정인량 목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들어가 돌무더기를 쌓은 것처럼 워싱턴청소년센터를 위해 워싱턴 한인들도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7. 워싱턴청소년재단(Washington Youth Foundation) 설립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 의해 차세대 한인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였다. 2003년에 IRS로 부터 501(c)(3) 비영리 재단 자격을 받았고. 제 1대 이사장으로 이원상 목사가 선임되었다. 1.5세와 2세들을 보다 바르고 선하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협의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포사회와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 28대를 회고하며 - 교육, 선교, 진리 -



제 28대 회장 **양광호** 목사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말은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할 때 표어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세상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적인 길로 가게되면 교회의 번성과 부흥의 틀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게에는 불에타 없어질 짚과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늘 마음 속에 간직했던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고, 복음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체인 교회협의회는 단지 교회의 연합체라는 것 이상으로 동포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동포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교협은 어떤 교협이 되어야 하는가 성찰했습니다.

28대 교협은 그동안 27대의 역사속에서 지속되어온 교회협의회의 행사를 이어가면서도 그 중심적인 행사의 뿌리와 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교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행하는 자가 없으며, 행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결과는 아무 것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추하지 않고, 늙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자세와 정신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위해 신앙의 뼈대를 잃지 않는 교회, 교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수고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28대 회장 양광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8대 임원단 (2002~2003년)

† 제 28 대 임 원

회장 : 양광호 목사 (패어팩스한인교회)
목사부회장 : 정영만 목사(월드비전교회)
총무 : 마중만 목사(순복음은혜교회)
서기 : 윤명호 목사(세광연합교회)
회계 : 김인호 목사(프랭코니아침례교회)
평신도 부회장 : 지순옥 집사(서울장로교회)
부총무 : 박대일 목사(워싱턴프레이즈교회)
부서기 : 이병완 목사(세계로장로교회)
부회계 : 김양일 목사(하나님의 말씀교회)

† 주요행사

증경회장단 자문회의

일시 : 2002년 11월 26일 오전 11시

1. 제 2회 성탄축하 음악예배

일시 : 2002년 12월 1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톤 한인장로교회(김택용 목사)
참여교회 : 11개 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의 '기뻐하라'는 찬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성탄축하음악예배는 참가한 8개 교회 성가대와 청중들이 함께 부르는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시종일관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의 조화 속에 천국 찬양 잔치를 누리는 것 같았다.
사회는 기독교복음방송대표인 김영호 장로가 담당했고, 각 교회 성가대들은 핸드벨, 플룻, 호른 등 서양악기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악기인 장고까지 동원해 가며 평소 연마한 기량을 과시했다. 또 워싱턴 장로성가단, 샬롬중창단, 예사모합창단과 찬양 사역자 박시몬, 구명회 집사가 특별 출연, 음악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회장 양광호 목사는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축하를 전하는 메시지"라며 '이민 100주년을 맞는 이 시기에 워싱턴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탄 축하의 찬양이 메아리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참가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워싱턴감리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에덴장로교회, 영생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맥클린장로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2.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3년 1월 6일(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신동수 목사)

3.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03년 4월 20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주제 : 예수 부활의 기쁨과 전후 이라크의 조속한 복구와 북핵문제 해결 기도
설교 : '왜 울고 있느냐?'(교협 직전회장 정인량 목사)(워싱턴 영광장로교회)
연합성가대와 워싱턴장로성가단(지휘 홍성근 목사)의 찬양으로 예수부활의 영광을 돌린 후 정인량 목사가 '왜 울고 있느냐?'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서 정인량 목사는 "삶의 고난과 역경,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절망스런 순간이 와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현재에 감사와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석해 목사(교역자회 회장)가 '전후 이라크의 조속 복구와 복음화를 위하여', 김종철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석현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워싱턴지역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하여', 최정선 워싱턴 여전도회 연합회장이 '차세대 자녀들의 신앙무장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하여', 최용우 교협 선교분과 위원장이 오는 7월 개최되는 '이민선교 100주년 선교대회와 선교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
양광호 교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부활절 예배는 이어 김양일 목사의 헌금기도,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샬롬중창단(지휘 구용회)의 헌금 특송, 연합성가대의 송영합창 '할렐루야', 박관빈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4.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3년 9월 4~7일
장소 : 와싱톤 중앙장로교회(이원상 목사)
강사 : 손인식 목사(남가주베델한인교회)
주제 :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생활
설교제목: 1)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2) 그리스도인의 깊이
3) 죽어도 좋은 목숨
손인식 목사는 "생명 자체보다는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 했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닳아 없어지는 삶이 더 고귀하다."고 했다.
대회기간중에 워싱턴장로성가단, 서울장로교회, 워싱턴영광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워싱턴청소년오케스트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샬롬중창단, 워싱턴여선교연합회 등은 찬양과 연주, 봉사로 섬겼고,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영생장로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등의 찬양팀은 예배 전 찬양을 인도했다.
5일 오전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세미나가 열려 30인 한인 목사들에게 지혜로운 목회 비결을 강의했다.

5. 청소년집회

일시 : 2003 년 7월 19~20일
장소 : 워싱턴성광교회(임용우 목사), 페어팩스한인교회(양광호 목사)
목적 : 청소년센터 기금마련
초청찬양사역자 : 조하문 목사
은혜롭고, 영광스런 찬양집회를 통해서 드려진 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특별히 페어팩스한인교회의 후원금 포함하여 $5,000 을 워싱턴청소년재단 이사장 이원상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작년에도 교협에서 $60,000 의 후원금을 워싱턴청소년재단에게 전달했고, 올 해 교협에서 전달함으로 전체 $65,000 을 전달하여 청소년을 위한 센터 기금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6. 이민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 2003년 7월 11~13일

장소 : 웰로쉽교회(김원기 목사)

목적 : 이민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복음을 받은 은혜를 다시 미국에 이민 100년 역사 속에서 이민교회를 부흥성장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워싱톤지역에서 파송된 16명의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선교헌금을 전달

주강사 :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1) 첫째날 선교대회

2003년 7월 11일(금) 저녁 6시 30분 ·····
사회: 장세규 목사(한빛지구촌교회)

경배와 찬양 ·····웰로쉽 찬양팀

기도 ····· 윤희문 목사(락빌한인장로교회)

성경봉독 ·· 창세기12:1-3 ····· 사회자

강사소개 ·····양광호 목사(28대교협회장)

설교말씀 ····· 한민족의 한가지 비전 ····· 김상복 목사

헌금인도 및 기도 ····· 김양일 목사(교협 부회계)

헌금특송 ····· 평화선교무용단

선교보고 ····· 몽고선교회(김재호 목사, 윤명호 목사)
탄자니아선교회(박윤석 목사, 한종태 목사)
한국 농어촌 및 아프리카선교(황찬규 목사)

특별찬양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워싱턴감리교회	샬롬중창단
빌립보교회	열린문장로교회중창단	워싱턴지구촌교회

광고 ····· 마중만 목사(교협 총무)

축도 ····· 정인량 목사(27대교협직전회장)

2) 둘째 날 선교대회

2003년 7월 12일(토) 저녁 6시 30분 ·····사회: 홍원기 목사(맥클린한인장로교회)

경배와 찬양 ····· 한빛지구촌교회 찬양팀

기도 ····· 이석해 목사(워싱턴교역자회장)

성경봉독 ····· 딤후3:16-17 ····· 사회자

강사소개 ····· 정영만 목사(교협 부회장)

설교말씀 ····· 균형있는 3 S의 신앙 ····· 김상복 목사

헌금인도 및 기도 ····· 김인호 목사(교협 회계)

헌금특송 ····· 예사모 중창단

선교보고 ····· Christian Friends of Korea(Rev. Dwight Linton
케냐선교(임은미 선교사) 중국 및 탈북자 선교(유창환 선교사)

특별찬양

God's Image Choir	락빌한인장로교회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에벤에셀한인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광고 ····· 지순옥 권사(교협 평신도부회장)

축도 ····· Rev. John Sommerville(한국은퇴선교사)

3) 셋째 날 선교대회

2003년 7월 13일(주일) 저녁 6시 30분 ····· 사회: 김재동 목사(서울장로교회)

경배와 찬양 ····· 웰로쉽 찬양팀

기도 ····· 최용우 목사(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성경봉독 ····· 요1:12-18 ····· 사회자

강사소개 ····· 양광호 목사(28대교협회장)

설교말씀 ····· 두가지 위대한 힘 ····· 김상복 목사

헌금인도 및 기도 ····· 이병완 목사(교협 서기)

헌금특송 ····· 워싱턴장로성가단

선교보고 ····· 은퇴 한국선교사 마을(Rev. John Sommerville)
키르키스탄 선교(Bob & Grace Shim) 러시아(시베리아) 선교(김진은 목사)
국제사랑의 봉사단

특별찬양

페어팩스한인교회	주예수교회	서울장로교회
한빛지구촌교회	워싱턴성광교회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광고 ····· 마중만 목사(교협 총무)

축도 ····· Rev. Dwight Linton(CFK 대표)

4) 넷째 날 선교헌금전달식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7시 장소: Fairview Marriot Hotel, Falls Church, VA
사회: 양광호 목사(교협 회장)

기도 ····· 김종철 목사(24대 교협회장)

성경봉독 ····· 마24:14 ····· 사회자

강사소개 ····· 양광호 목사(28대교협회장)

설교말씀 ····· 교회의 선교적 사명 ····· 이원상 목사(11대교협회장)

선교헌금전달식

격려사 ····· 진교륜 박사(미국평화봉사단 정책기획실장)

축사 ····· 김영근 집사(워싱턴한인연합회장)

몽골선교회(김재호 목사, 윤명호 목사) 탄자니아선교회(박윤석 목사, 한종태 목사)
한국농어촌 및 아프리카선교(황찬규 목사) CGK(인도아 목사)

케냐선교(임은미 선교사) 중국 및 탈북자 선교(유창환, 유정희 선교사)
은퇴 및 한국선교사마을(서의필 목사) 키르키스탄선교(Bob & Grace Shim)
러시아선교(김진은 목사) 미주복음신문(장진우 장로) W.C.R.S(김영호 장로)
땅끝선교회(마효선 회장)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홍은선 선교사)
우즈베키스탄선교(김양호 선교사) 파라구아이선교(김영모 선교사)
탄자니아선교(이영권 선교사)

특송 ..... 이경미 사모
광고 ..... 마중만 목사(교협 총무)
축도 ..... 박관빈 목사(3대 교협회장)

7. 제 29차 정기총회

일시 : 2003년 10월 27일 오후 7시

장소 : 페어팩스한인 교회(양광호 목사)

1부 - 개회예배 : 정영만 목사의 사회로 찬송 138장으로 찬양한 후에 최바울 목사의 기도, 지순옥 권사가 마 5:13~16을 봉독, 김동희 집사의 특송이 있은 후 정인량 목사가 "빛과 소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총회 장소를 제공한 양광호 목사의 인사, 직전회장 정인량 목사와 현 평신도부회장 지순옥 권사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은 후 김인호 목사의 광고, 찬송 456장으로 찬양하고, 이원희 목사가 축도한 후 개회예배를 마치니 오후 7시 50분이다.

2부 - 회무처리

회원점명 : 서기 이병완 목사가 총대 출석인원 53명을 보고하고 회원점명을 하다.

임원선거 : 회장 양광호 목사가 공천위원 5명(김종철 목사, 임종길 목사, 최바울 목사, 정인량 목사, 양광호 목사)을 호명한 후 공천위원의 협의를 위해 정회하다. 공천위원의 협의를 끝내고 회의를 속회해 회장에 정영만 목사를 추천하니 투표 없이 추대하다. 공천위원이 부회장 후보로 김재동 목사와 신동수 목사를 추천하고, 투표에 들어가기 전, 투개표위원을 양광호 목사가 지명하여 이홍근 목사, 박건철 목사, 심대식 목사, 채홍석 목사를 선정하다. 투표를 위해 김석현 목사로 기도케 한 후, 부회장 후보 김재동 목사와 신동수 목사의 신상발언을 듣는 중에 신동수 목사가 사퇴하므로, 투표 없이 김재동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이원희 목사의 동의와 손인화 목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김재동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하다. 평신도 부회장으로 이숙원 집사를 단독 추천하여 이숙원 집사가 평신도 부회장으로 추대되다. 감사를 선정함에 있어 송정식 목사와 안효광 목사를 1년 유임케 하자는 최바울 목사의 안과 함께 동의, 이홍근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신구임원 교체 : 신구임원 교체가 있은 후 회장 정영만 목사가 감사의 말씀과 간단한 소견을 발표하다.

신안건토의 : 총회에 별지로 보고된 회칙 개정 시안을 신임원회에 맡기자는 정인량 목사의 제안을 이원희 목사의 동의와 박인철 목사의 재청으로 신임원회에 넘기다.

폐회 : 잔무처리는 신임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정인량 목사의 동의, 박윤식 목사의 재청으로 폐회를 가결하고, 박관빈 목사 기도 후 폐회하니 동일 오후 8시 45분이었다.

제 29대를 회고하며 - 관계, 협력, 통합 -



제 29대 회장 **정영만** 목사

제가 29대 교협 회장이 되었지만 늘 제 마음은 교협의 총무가 된 그 마음과 정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협의 총무로서 일한 시간들이 많았고, 제가 앞에서 무엇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이전의 회장님들을 도와서 했던 경험들이 많았기에 저절로 몸으로 일하는 회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29대 교협을 돌아볼 때 29대 교협은 관계정립과 협력,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하고,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교협도 여러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교협이 되어야 하기에 가능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영성과 지성을 개발하고, 또 모임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용천역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일에 대하여 워싱턴의 교회 뿐 만 아니라 한인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하나가 된 일은 가슴을 뭉클케 한 일이었습니다.

늘 해왔던 동포복음화 대성회였지만 6일동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두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된 사람도 없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협력해 주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29대 회장 정영만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29대 임원단 (2003~2004년)

† 제 29 대 임원

회장 : 정영만 목사(월드비전교회)
목사 부회장 : 김재동 목사(서울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 이숙원 집사(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총무 : 김인호 목사(프랭코니아침례교회)
부총무 : 채홍석 목사(워싱턴온마을장로교회)
서기 : 이병완 목사(세계로장로교회)
부서기 : 심대식 목사(로고스장로교회)
회계 : 김양일 목사(주평교회)
부회계 : 김화형 목사(락빌침례교회)

† 주요행사

1. 교협관할구역문제

새로운 임원들이 첫 번째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교회협의회를 구성하는 관할 구역 문제였다. 그동안 볼티모어를 중심으로 볼티모어교회협의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던 단체가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로 이름을 개칭하면서 워싱턴교협의 관할 구역에 속하던 교회들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에서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를 버지니아교회협의회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워싱턴교협의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1975년에 창립되어 지난 28년 동안 워싱턴 수도권지역의 복음화와 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계속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워싱턴근교(수도권에서 40마일)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Washington D.C. 지역

메릴랜드 지역 : Anne Arundel County, Charles County, Calvert County, Frederick County, Howard County, Montgomery County, Prince George's County, St. Mary County,

버지니아 지역 : Alexandria City, Arlington County, Fairfax County, Loudon County, Prince William County, Stafford County

2.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03년 11월 30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턴웰로우십교회(김원기 목사)

3.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4년 1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안현준 목사)

4. 리더쉽 세미나

일시 : 2004년 1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주제 : 목회자 리더쉽

강사 : 김희태 목사(한국성서신학교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개혁 신학원(R.T.S) 목회학 박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강, 서울 동광교회 담임)

5. 신학 세미나

일시 : 2004년 1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안디옥침례교회(이선일 목사)

주제 : 십계명의 현재적 문제점

1) 십계명의 유래와 교파간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2) 미국에서 사회적, 법적, 종교적으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강사 : 김윤국 목사(프린스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피츠버크신학대학원 신학박사(Th.D.),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법학박사(J.D.), 장신대구약학교수, 서울영락교회 담임목사, 현 워싱톤기독교방송 이사장)

6.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04년 4월 11일 새벽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회장 정영만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재동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였고, 이숙원 부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서 서울장로교회와 패어팩스한인교회의 연합성가대가 특별찬양을 하였다. 직전 회장인 양광호 목사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선포가 있었다. 이어서 특별기도 시간에는 미국의 안전과 번영 및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홍근 목사가, 한국의 안전과 번영 및 통일을 위하여 신동수 목사가,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병완 목사가, 워싱턴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화목을 위하여 박건철 목사가, 차세대 자녀들의 신앙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하여 최정선 집사가 기도하였다. 헌금을 위하여 김양일 목사가 기도한 후 성기훈 교수가 헌금 특송을 하였고, 김인호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에 정인량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워싱턴여전도연합회가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7. 북한 용천 주민돕기 성금

일시 : 2004년 5월 23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김현준 목사)

2004년 4월 22일 용천 북한의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150명 사망자와 1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8000여 세대의 주택이 파괴되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용천 동포들을 돕는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워싱턴교협이 그 중심에서 모금 활동을 하였다. 교협에서는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용천 동포돕기를 위한 음악회'를 5월 23일 주일 저녁 6시에 김현준 목사가 시무하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출연팀은 열방 찬양팀, 워싱턴기독합창단, 워싱턴기독여성합창단, 워싱턴밀알수화찬양단, 워싱톤장로 성가단, 코람데오 남성중창단 등이 참가하였고 헌금은 $1,337.00, 교협에 접수된 총 모금액은 $ 44,777.81 인데 이 중에는 플로리다 주의 마이아미 교역자회가 보내준 $2,300이 포함되었다.

모금된 금액은 양국주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1200만불의 의약품을 기증 받았는데 이 약품과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사용하였다. 2004년 5월 10일 11시에 메시야장로교회에서 킹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약품의 기증식과 발송식을 가졌다. 먼저 1부 기도회 순서는 김재동 목사의 사회로 김화형 목사가 기도를 하고 정영만 목사가 설교하였으며 정인량 목사가 마지막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하였다.

2부에서는 양국주 대표의 경과보고와 킹 제약회사를 대표하여 매리 레이놀드가 기증서를 전

달하였고, 김영근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김필주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3부에서는 한국과 워싱턴 지역의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취재를 받으며 발송식을 마쳤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영만 목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실시한 북한 용천주민돕기 모금 캠페인을 통해 총 40,950.10달러의 성금을 모았다. 교회협은 지난 19일 1차 27,702.10달러, 2차(6월3일) 13,248달러를 용천 주민을 돕는 한인들의 모임에 전했다. 캠페인에는 와싱톤중앙장로교회 1만 5,885달러 등 30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한빛지구촌교회는 1, 2차로 두 번에 걸쳐 7,000여 달러를 전달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 교회협 성금에는 워싱턴기독교방송국이 모은 3,024달러와 워싱턴여전도회연합회 500달러, 코람데오 중창단 등 단체들이 낸 성금, 교회협 주관 용천돕기자선음악회 수익금 1,337달러도 포함돼 있다.

<캠페인 참여 교회 및 단체>

한빛지구촌교회, 서울장로교회, 저먼타운한인교회, 영광장로교회, 은광교회, 워싱턴주평교회, 예본장로교회, 버지니아아가페침례교회, 워싱턴초대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순복음워싱턴교회, 안디옥한인침례교회, 예수사랑장로교회, 워싱턴성결교회, 볼티모어지구촌교회, 미주제일교회, 벨츠빌연합장로교회, 성광교회, 두란노침례교회, 워싱턴예원교회, 워싱턴선한목자교회, 영원한침례교회, 패어팩스한인교회, 세미한장로교회, 케리사랑의교회, 후레데릭스버그한인장로교회, 워싱턴믿음침례교회, 세계로장로교회, 후렌코니아침례교회, 에벤에셀교회, 워싱턴여전도회연합회, 코람데오중창단, 정진혁

8.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일시 : 2004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턴 크리스챤교회(신동수 목사)

김재동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린 후에 정영만 목사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임원 선출에 대한 회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회칙개정위워회를 구성하였다. 회칙개정위원회는 위원장 : 김택용목사, 서기: 이병완 목사, 위원 : 정영만 목사, 이원희 목사, 최바울 목사, 정인량 목사, 김재동 목사, 김인호 목사로 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임원선출에 관한 내용과 기존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성안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총회는 개정된 내용의 회칙을 통과하였다.

9. 원로목사 위로관광여행

일시 : 2004년 9월 21일-9월 22일

장소 :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성막과 아미쉬 마을, 그리고 대형 성극을 관람

10.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4년 9월 30일-10월 30일

장소 : 워싱턴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이원상 목사)

강사 : 장동찬 목사(뉴저지 베다니감리교회),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11. 제 30차 정기총회

일시 : 2004년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1부 - 개회예배

김재동 목사의 사회로 묵도와 기원이 있은 후 찬송 138장으로 찬양한 후에 신동수 목사의 기도, 이숙원 집사가 요 6:26~29을 봉독하고 양광호 목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총회 장소를 제공한 김재동 목사의 인사, 직전회장 양광호 목사와 현 평신도부회장 이숙원 집사와, 그 외 3명에게 공로패/감사패 증정이 있은 후 김인호 목사가 광고를 하고 찬송 456장으로 찬양한 후, 정인량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니 오후 8시 20분이었다.

2부 - 회무처리

동일 오후 8시 25분에 회장 정영만 목사의 사회로 회무가 시작되다.

1) 회원점명 : 서기 이병완 목사가 총대 출석인원 33명을 보고하고 회원점명 보고를 하니 김재동 목사가 호명없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박건철 목사가 재청함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개회선언 : 회장이 회칙에 따라 성수가 됨으로 제 30차 정기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3) 회순채택 : 회순채택 전에 최바울 목사의 회순처리를 위한 기도 후에 김영근 집사의 동의와 김석현 목사의 재청으로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4) 전회의록낭독 : 서기 이병완 목사가 별지의 서면으로 보고하니 정인량 목사의 동의와 박윤식 목사의 재청으로 서면으로 받기로 하다.

5) 사업보고 : 총무 김인호 목사의 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다.

6) 감사보고 : 감사 송정식 목사의 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다.

7) 회계보고 : 회계 김양일 목사의 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다.

8) 임원선거 : 회장 정영만 목사가 공천위원 5명(임종길 목사, 최바울 목사, 정인량 목사, 양광호 목사, 정영만 목사)을 호명한 후 공천위원의 협의를 위해 정회하다. 공천위원의 협의를 끝내고 회의를 속회해 회장에 김재동 목사를 단독 추천하니, 투표 없이 김재동 목사을 회장으로 추대하다. 공천위원이 부회장 후보로 신동수 목사를 단독 추천하니, 투표없이 신동수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하다. 평신도 부회장으로 최정선 집사를 단독 추천하니, 투표없이 최정선 집사가 평신도부회장으로 추대하다. 감사를 선정함에 있어 박인철 목사와 이한봉 장로를 버지니아지역과 메릴랜드 지역의 감사로 추천하자 전원 박수로 찬성하다.

9) 신구임원교체 : 신구임원 교체가 있은 후 회장 김재동 목사가 감사의 말씀과 간단한 소견을 발표하다.

10) 신안건토의 : 총회에 별지로 보고된 회칙 개정 시안을 신임원회에 맡기자는 정인량 목사의 제안을 이원희 목사의 동의와 정영만 목사의 재청으로 신임원회에 넘기다.

11) 폐회 : 잔무처리는 신임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정인량 목사의 동의, 김석현 목사의 재청으로 폐회를 가결하고, 이홍근 목사로 기도케 한 후 폐회하니 동일 오후 9시 10분이다.

제 30대를 회고하며 - 지성, 영성, 인성 -



제 30대 회장 **김재동** 목사

부족한 사람이 교협회장으로서 워싱턴의 교회들의 연합체인 교협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연합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에 교협도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을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이 교협에 있기에 30대 교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을 삶가운데 열매를 맺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려고 임원들과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였습니다.

30대 교협은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견고한 믿음의 진리를 지키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지 않게 교회를 지키는가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30대 교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지성, 믿음의 이성, 그리고 믿음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들을 남겨둔 것이 많아 죄송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임원들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는 연합과 소통, 사랑과 섬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협이 하나되어 50년간을 이어져 온 것은 그 연합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 욕망이 교협과 교회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 인성보다는 과학기술이 지배할 시대에 더욱 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 겸손으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30대 회장 김재동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0대 임원단 (2004~2005년)

† 제 30 대 임 원

회장 : 김재동 목사(서울장로교회)
목사부회장 : 신동수 목사(워싱턴크리스챤교회)
평신도부회장 : 최정선 집사(서울장로교회)
총무 : 이병완목사(세계로장로교회), **부총무** : 유재유목사(성마가연합감리교회),
서기 : 김양일목사(주평교회), **부서기** : 안효광목사(스태포드임마누엘교회),
회계 : 이석해목사(세광교회), **부회계** : 심대식목사(한무리장로교회),
감사 : 박인철목사(무궁화교회), 이한봉장로(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 주요행사

1.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5년 1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한빛지구촌교회(장세규 목사)
1부 예배
설교 : 김재동 목사(교협회장) “쓰나미피해자를 돕기 위한 교협의 모금실적이 대형교회들이 빠진상태에서도 7만달러에 달했다”면서“교회들이 연합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부 : 윷놀이(후원: 정세권 장로)

2. 기독교 이단, 사이비종교 대책 세미나

일시 : 2004년 1월 24일(목) 저녁 7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김건우 목사)
강사 : 이대복 목사(한국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장)
참석 : 60여명

3. 부활절연합예배

일시 : 2004년 3월 27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워싱턴DC제퍼슨메모리얼 광장

4. 찬양의 밤

일시 : 2005년 5월 29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휄로쉽교회(김원기 목사)
목적 : 워싱턴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하여

5.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5년 8월 18일-8월 21일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
강사 : 이승영 목사(서울송파구 새벽교회)
주제 : '성령적 사고의 위력'
예배찬양: 버지니아청년연합찬양팀, 서울장로교회에벤에셀찬양단, 워싱턴영생장로교회죠이찬양단, 워싱턴지역찬양사역자연합, 워싱턴장로성가단, 맥클린한인장로교회성가대, 청소년재단교향악단, 중앙장로교회 샬롬중창단 등이 특별출연해 감동적인 음악
특별기도 : 북한동포와 탈북자를 위한 특별기도회

6. 워싱턴청소년재단후원금 전달

후원금 : $5,000

7. 교협재정이사회 총회

일시 : 2005년 5월 2일(토) 오전 11시
장소 : 한성옥
내용 : 교협재정이사회 창립(1대 재정이사장 김영근)

8. 신후식 목사 100세수 감사예배

일시 : 2005년 14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주최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공동후원 : 싱턴원로목사회, 워싱턴교역자회, 미주한인장로회수도노회, 워싱턴장신대동문회, 워싱턴계성동문회, 워싱턴신명동문회
1부 예배 : 설교 김윤국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 '백수된 시인의 노래"
축사 : 최병구워싱턴총영사, 양광호미주한인장로회수도노회 부노회장(페어팩스한인교회담임목사), 장세일워싱턴장신동문회장, 정인량(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신목사님은 한평생 교육자이자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셨다"면서 "특히 신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새롭고 미래지향적인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답사에서 " '나의 나된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빌어 나의 신앙고백으로 삼아왔다"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1,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파란만장한 한평생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감사예배후 교회 친교실에서 열린 피로연에서는 신목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계성고등학교와 신명여고 졸업생들이 신목사를 위해 교가를 불렀다.
100세수 감사예배에 참석했던 손인화 목사는 "워싱턴 교계에 신목사님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크게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 31대를 회고하며 - 연합, 섬김, 부흥 -



제 31대 회장 **신동수** 목사

뒤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으로 살게 된 이후부터 나의 신앙좌우명은 "목회는 은퇴해도 사역에 은퇴없다"였다.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1999년에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를 목회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목회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셨다.

교협 회장으로서 늘 함께 있던 동역자들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협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약한 자들을 돕는 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일, 북한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등에 힘을 썼다.

많은 일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재해를 입은 뉴올리온즈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고, 카라비안 선교, 그리고 하이티에 교회를 세웠고, 카라비안동포복음화대성회를 통해서 뜨거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교협의 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했다.

제 31대 회장 신동수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1대 임원단 (2005~2006년)

† 제 31 대 임원

회장 : 신동수 목사(워싱턴크리스챤교회)
목사부회장 : 이병완 목사(세계로장로교회)
평신도부회장 : 김영호 집사(열린문장로교회)
총무 : 박태선 목사(벧엘한인침례교회)
부총무 : 허성무 목사(미문교회)
서기 : 이장연 목사(버지니아한인교회)
부서기 : 유재유 목사(성령의 불꽃교회)
회계 : 손갑성 목사(유니버시티교회)
부회계 : 문석원 목사(에벤에셀교회)

† 주요행사

1.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05년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턴한인장로교회(김태권 목사)

2.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성금 전달

일시 : 2005년 12월 21일

장소 : 뉴올리언즈 방문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동수 목사)는 31대 회장단 취임 이후 한인교회들이 보내온 1만 2,000달러의 성금으로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양국주 대표)'을 통해 27일 시카고에서 구입한 구호품을 이번 주말 컨테이너를 이용해 뉴올리언스로 직접 운송하였다.

신동수 목사는 "워싱턴 한인들의 정성으로 10만달러 어치의 물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뉴올리언스와 미시시피의 한인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물품구호참여교회 :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성마가연합감리교회, 사랑의교회, 갈보리침례교회, 온누리장로교회 뉴올리언스지역교회들과 미시시피한인침례교회, 미시시피제일장로교회

성금모금참여교회 : 영생장로교회, 휄로쉽교회, 샬렘한인감리교회, 유니버시티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워싱턴한인성결교회

신동수 목사는 "이번 구호품은 피해 한인들에게 귀한 성탄 선물이 되었다.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처럼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크리스천이 돼야 한다"고 했다.

3.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6년 8월 25일~27일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

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주제 : 믿음과 생명의 길

1)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2) 믿음을 자손대로 전수하라 3) 기적의 공식을 잡아라

소강석 목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개의 길이 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형벌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이 땅에서 잘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을 걷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기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천국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고, 기적의 공식이다. 이 공식을 자손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신동수 목사 칼럼]

부활절에 감사(눅24:6-7)

얼마 전 인터넷으로 보내온 편지 중에 어떤 고생이나 어려움, 아픔과 고통으로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3일만 기다리라. 3일이 지나면 부활의 기쁨이 온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제사장들의 고발로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로마 병정들이 포악하게 처형할 때 십자가상에 양손과 발목에 녹슨 3개의 못으로 검붉은 피가 쏟아지도록 대못을 박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씌워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옆구리엔 창에 찔려 창자가 터져 나오고 검붉은 피가 쏟아지고 십자가와 땅 바닥이 피로 얼룩지게 하며 결국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절규하셨다. 숨을 멈추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절규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특히 시몬은 도미티안 황제 때 십자가형으로 꺼꾸러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지려다 밧모섬으로 귀향 보내어 죽이고 바울은 무자비하게 구타하다가 죽였으며 아드리아 황제 때는 제논 외에 약 1만 명이나 아라랏 산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며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순교시켰고 사해바다 근처 산중과 암혈과 토굴 속 숨어 살던 카타콤에서는 결박과 옥에 갇혀 순교자들의 무덤이 되었다. 로마 원형 극장에서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 찢겨 죽였고 화형으로 죽어갔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있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기독교의 박해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겪는 아픔의 사건들이 있었다.

6.25 사변 후에도 북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우리는 육체적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 그래서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육신적 아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 인천에서 출항한 진도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 당한 사고로 온 국민과 세계가 울먹이고 있다. 476명 탑승자 중, 구조된 자는 174명, 사망자는 현재 58명으로 20일 발표 하였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매여지며 밤잠을 못 자고 움추린 채 '딸아 한번이라도 내 품에 품어주고 보내줘야지' 하며 절규하는 어느 엄마의 울부짖음, 우리는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과 절규의 소리를 듣는다. 그 아픔은 당사자 외에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주위에 친구만 잃어도 마음 아파하고 자기 사랑하던 동물의 죽음도 마음 아파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을 물속에서 엿새가 지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때에 바다 물속에서 죽지 않고 6일 만에 살아 왔다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영원한 이별이다. 죄 값으로 예수님을 죽여 버리는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관계,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겠는가? 그로 인하여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아픔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그 아들이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체험이요, 감사요, 축복일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내용이라 믿는다.

제 32대를 회고하며 - 성숙, 변화, 다음세대 -



제 32대 회장 **이병완** 목사

아름다운 도시 워싱턴에 와서 350여 한인교회가 소속 되어있는 교회협의회를 섬기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더욱 감사한 일은 성숙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만남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워싱턴교협을 세우셨는데 올해 50주년(희년)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워싱턴교협 역사의 작은 한부분에서 교협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귀한 동역자들과 일했다고 생각하니 영광스럽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교협회장으로 섬기던 때를 돌아보니 임원들과 모일 때마다 함께 자주자주 나누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때문에 교협이 조금씩 더욱 좋아지고 더욱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협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회장 임기를 거의 마칠 즈음에, 교협을 통하여 갓태어나 몇 년 안된 워싱턴청소년재단(Washington Youth Foundation)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많은 역대회장 목사님들이 그러했듯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심정으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려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후원금이 모아져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사장으로 두 임기(4년)을 섬겼지만 워싱턴청소년재단은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워싱턴교협은 다음세대를 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2대 회장 이병완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2대 임원단 (2006~2007년)

† 제 32 대 임원

회장 : 이병완 목사(세계로장로교회)
목사부회장 : 박태선 목사(벧엘침례교회)
평신도 부회장 : 김영근 장로
총무 : 김양일 목사(하나님의 말씀교회)
부총무 :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
서기 : 배현수 목사(워싱턴소망교회)
부서기 : 문석원 목사(에벤에셀교회)
회계 : 안현준 목사(워싱턴연합장로교회)
부회계 : 김성도 목사(워싱턴열방교회)
감사 : 황규영 목사(MD), 심우섭 장로(VA)

† 주요행사

1. 교협 '증경회장연합회' 창립

일시 : 2006년 10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Sandy Point Park Shelter

교협의 증경회장들은 교협회장으로 섬기면서 교협과 교계, 교협의 존재의의, 방향 등 때로는 교협임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자문을 구할 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영적 경험, 영적 지식을 가진 교협안에서 영적 자산과 같은 존재들이다. 교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자문위원의 역할(교협회칙에 의거하여)과 증경회장들간의 영적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경회장연합회' 창립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병완 목사(교협 차기회장)가 증경회장 연합회 창립을 제안하여 중지가 모여지는 가운데 준비위원으로 김택용 목사, 이병완 목사가 추천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김택용 목사가 회칙 초안을 준비하여 창립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일정과 과정을 조율하였다.

마침 2006년 10월 16일은 관례대로 교협 차기임원들이 증경회장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대면하는 날이였기에 그 날로 창립총회일로 확정했다. 대면교제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정대로 총회장소에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증경회장 14명이 모여 1부로 창립예배를 드리고, 2부 회의에서 김택용 목사가 기초한 회칙을 상정하여 심의 검토한 후 회칙으로 채택하였다. 임원선출에서 회장으로 김택용 목사, 서기 김재동 목사, 회계 최윤환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 김택용 목사가 사회를 담당했고, 교협회장 신동수 목사가 설교를, 준비위원이자 교협 차기회장 이병완 목사가 축사를 담당했다.

2.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완 목사)와 서울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홍도 감독) 자매결연

일시 : 2006년 11월 21일
장소 : 세계로장로교회(이병완 목사)

한미 수도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워싱턴교협과 서울기독교총연합는 이날 메릴랜드 락빌에 있는 세계로장로교회에서 결연식을 갖고 모국 안보, 평화통일, 세계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자매결연패를 상호 교환하며 뜻을 모았다. 세계로교회 본당이 가득 메워질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결연예배에서 김홍도 감독(서울 금란교회)은 설교에서 "지금 우리 조국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국의 성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크리스챤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자." 고 전했다.

결연식 참석자들은 설교가 끝난 뒤 ▶ 조국의 안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 한국과 미국의 동맹강화를 위해 ▶ 세계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를 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워싱턴청소년재

단(이사장 이병완 목사)의 워싱턴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 최영권 목사)의 연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또 한국에서 온 유명해 예술선교단의 고전 무용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 중앙일보 장도선 기자)



3.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7년 1월 20일(주일) 오전11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설교 : 노창수 목사
(1부: 신년기도- 이원싱 목사, 찬양: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찬양대, 기도: 윤희문 목사, 축사: 이치원 목사(MD 교협회장), 축도: 이병완 목사, 2부: 국악선교예술단의 특별찬양연주 및 목회자 친교행사)

4.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4월8일(주일) 새벽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설교 : 김원기 목사
(개회찬양: 굿스푼선교회 교회, 찬양: 헬로쉽교회 찬양대, 특별기도: 홍원기 목사, 김영근 장로, 안현준 목사, 문석원 목사, 감사패증정(이병완 목사): 김석현 목사)

5. 워싱턴동포복음화대회

일시 : 10월 18-20일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
강사 : 피종진 목사(주제: 교회와 예배회복)

6. 원로목사회초청 가을 단풍관광

일시 : 10월 15일
장소 : 웨스트버지니아 람니(West Virginia Romney)

7. 워싱턴교회협의회(회장 이병완 목사)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종대 목사)공동으로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 방문 희생자 추모위로 및 장학금 전달식

일시 : 9월 30일
장소 :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
워싱턴지역교회의회(회장: 이병완 목사)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종대 목사), 양 교회협의회는 각각 모은 성금을 합한 7만 1천여불을 공동으로 추모위로및 장학금 명목으로, 버지니아 공대에 2차로 전달하기 위해 박종대 목사와 총무 김양일 목사는(회장 이병완 목사는 한국

부흥회 집회로 출타)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를 방문하여, 챨스 스태거 총장과 티모시 코번 부총장, 존 듈리 부총장을 만나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워싱턴교협은 워싱턴지역한인연합회와 성금을 함께 모금하여 1차로 7만여불을 이미 전달한바 있다.


회장 이취임식


32대 정기총회


신년하례예배사진


원로목사회 단풍관광


버지니아공과대학 방문 성금 및 장학금 전달식


예수전도단 찬양집회





제 33대를 회고하며 - 연합, 사랑, 충만 -



제 33대 회장 **김양일** 목사

교회협의회는 연합공동체입니다. 교협은 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대립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용서해 주어 '녹아지는 촛불처럼 나의 모든 것을 녹이면서 빛을 내서 동포사회를 환하게 비추는 교협'이 되어야 합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나만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는 과거의 선배 증경회장님들이 기초해 두었던 것들을 이어받고, 또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축하음악예배,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동포복음화대성회, 이단대책세미나 등 교협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세계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이 세상의 종말의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세상적인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자신과 교회와 교협이 늘 거듭나야 합니다.

교협 회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겸손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동포사회에 전달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였습니다.

제 33대 회장 김양일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3대 임원단 (2007~2008년)

† 제 33대 임원

회장 : 김양일 목사(주평교회)
목사 부회장 : 김인호 목사(프랭코니아한인침례교회)
평신도 부회장 : 홍희경 장로(페어팩스한인교회)
총무 : 김성도 목사(열방교회) **부총무** :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서기 : 안효광 목사(스테포드침례교회) **부서기** : 조호중 목사(워싱턴지구촌교회부목사)
회계 : 심대식 목사(로고스장로교회) **부회계** : 민철기 목사(버지니아장로교회)
감사 : 노규호 목사(VA) 진 이 집사(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 주요행사

1. 제 6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07년 12월 2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턴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회장 김양일 목사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과 소망의 길을 열기 위해 구세주로 강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워싱턴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돼서 영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이 연합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라는 축복 메시지가 선포되고 울려퍼지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도 목사(교협 총무)의 사회로 워싱턴지구촌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음악예배는 워싱턴성광교회(지휘 : 곽은식, 피아노 : 박유진)의 '주님' 및 '주의 영광', 필그림교회(지휘 : 김정환, 오르간 : 황순희)의 '내 영이 주님께 감사해', 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지휘 : 박용진, 반주 : 홍경화)의 '내 소망 주께 있네' 등으로 이어졌다. 김만풍 목사의 설교(누가복음 2장 10절~11절)에 이어, 어린이들의 귀여운 율동과 찬양이 섞인 갓즈 이미지(지휘 : 조재옥)의 특별공연이 있었고, 올네이션스교회(지휘 : 이철, 오보에 : 신진영)의 '나의 노래 드리리' 등의 공연도 펼쳐졌다.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지휘 : 장운주, 오르간 : 구은희)는 '존귀하신 주', 워싱턴지구촌교회(지휘 : 이성희, 오르간 : 남윤숙)는 '선하신 목자', 교회연합합창대(지휘 : 손형식 목사)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지막 축도는 증경회장인 김석현 목사가 맡았다.

2.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8년 1월 14일(월) 오후 6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메시야장로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한 신년 하례예배는 김양일 목사(워싱턴교협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김양일 목사의 환영사, 심대식 목사의 성경봉독, 오성미 집사(워싱턴기독합창단 총무)의 특송, 김만풍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 이후에는 조국과 미국, 세계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순서로 강정아 전도사(드보라 워십댄스 단장)의 찬양무용이 진행됐다.

2부 식사시간에는 건강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3부 게임 및 친교시간은 안효광 목사(교협서기)의 사회로 윷놀이, 선물/경품 추첨이 있었다.

3.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08년 3월 23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양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인호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 홍희경 장로(평신도부회장)의 말씀봉독, 연합성가대(페어팩스, 올네이션스, 온누리

드림교회)의 찬양, 심대식 목사(회계)의 헌금기도,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의 헌금 찬양, 김성도 목사(총무)의 광고, 정영만 목사(교회협증경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또 박건철 목사(은혜침례교회), 손형식 목사(필그림교회), 윤희문 목사(락빌한인장로교회), 김석현 목사(세계선교교회), 진이 집사(워싱턴여선교연합회 회장) 등 교계 대표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복음화, 차세대의 신앙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병완 목사(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장)는 "예수 부활은 첫 열매로서 모든 인간도 영원히 살수 있다는 증거"라면서 "진리는 잠깐 숨겨질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연합 예배는 워싱턴여선교연합회 등 다수의 봉사자들이 커피와 간식 제공, 차량 안내로 진행을 도왔으며 워싱턴 복음방송국을 통해 지역에 생방송됐다.

4. 워싱턴지역 교역자 세미나

일시 : 2008년 3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페어팩스한인교회(양광호 목사)
강사 : 곽선희 목사(소망교회)
주제 : 설교의 새 패러다임
참석인원 : 50명

교역자 세미나는 교협 회장인 김양일 목사의 사회로 개회기도와 찬송 235장에 이어 최윤환 목사(증경회장)의 기도가 있은 후, 강사 곽선희 목사께서 말씀을 열렬히 전했으며, 모인 목사들이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이어서 총무인 김성도 목사의 광고와 찬송에 이어 신동수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함으로 집회를 마쳤다.

5. 워싱턴지역 목회자 춘계등산모임

일시 : 2008년 4월 22일
장소 : Old Rag Mountain

6.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8년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
장소 : 필그림교회(담임 손형식 목사)
강사 : 이동원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주제 : '치유와 변화'

강사 이동원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담임목사)는 설교 말씀을 '고통과 치유,' '상처와 치유,' '성숙과 변화'로 나누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며 참다운 영적 성장의 길을 안내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통과 상처가 치유된 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며 온전한 자로 거듭나는 영적 성장 과정을 강조했다. 워싱턴여선교연합회(회장 진이)가 안

내를 맡았으며 올네이션스교회, 필그림교회, 워싱턴열방교회의 찬양단이 출연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다. 21일(월)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7. 미얀마 및 쓰촨성 재해 의연금 전달

일시 : 2008년 4월 13일(수)
장소 : 한빛지구촌교회(장세규 목사)
주제 : 힘겨워 하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합창'(A voice for the voiceless)

김희철 지휘자의 지휘 아래 37명의 남녀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주기도', '내가 산을 향하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와 같은 성가곡과 미국 민요 메들리, 뮤지컬 하이라이트 그리고 '앉은 북 춤', '한강수 타령', '진도북 춤', '아리랑'과 같은 한국 전통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양일 목사는 지난 12일까지 워싱턴 일원 교회들의 정성이 모인 미얀마 싸이클론 및 중국 쓰촨성 재해의연금 $20,079을 월드비전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 재해의연금은 지난 1차 모금액과 2차 모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8. 제 34 차 정기총회

일시 : 2008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 후랭코니아침례교회(김인호 목사)

예배는 김인호 목사(교협부회장)의 사회, 정영만 목사(교협증경회장)의 기도, 홍희경 장로(교협부회장)의 성경봉독, 오성미 집사(워싱턴기독합창단)의 특송, 김양일 목사(교협회장)의 말씀, 합심 기도, 감사패 증정, 김성도 목사(교협총무)의 광고, 김석현 목사(원로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현 회장인 김양일 목사가 직전 교협회장인 이병완 목사와 평신도 부회장 홍희경 장로, 오성미 집사에게 증정했다. 또한, 워싱턴청소년재단에서는 이사장인 정인량 목사가 김양일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공천위원회(정영만 목사, 신동수 목사, 김재동 목사, 정인량 목사, 김양일 목사)에서 공천된 김인호 목사, 김성도 목사, 이근선 집사가 각각 회장, 목사 부회장, 평신도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안효광 목사, 신동수 목사가 각각 추천됐다. 신임회장인 김인호 목사(후랭코니아침례교회)는 "앞으로 교협의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마다 증경회장단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면서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 34차 정기총회는 김택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33대 임원회의



Old Rag 등산



증경회장단 자문회의



복음화 대성회



복음화 대성회

제 34대를 회고하며 - 기도, 성실, 영성회복 -



제 34대 회장 **김인호** 목사

워싱턴 교협이 앞으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3대사업은 1) 회원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경제적·영적 어려움) 2) 투명재정을 위한 솔선수범(경비절약) 3) 회원교회의 영적 본질추구(신앙회복)로 정리할 수 있다.

34대 회장 김인호 목사는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회기 결산금액보다 2만 2000여달러 적은 5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은 동포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회장 김인호목사는 "동포사회가 경제적·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많은 기도와 영적인 본질 추구 등 실질적인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임역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호 목사는 "사회가 혼탁해질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교계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강조한 검소함과 겸손함과 성실함을 갖춘 목회자요, 교협회장 이었다.

제 34대 회장 김인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4대 임원단 (2008~2009년)

† 제 34 대 임원

회장 : 김인호 목사(후렌코니아침례교회)

목사 부회장 : 김성도 목사(워싱턴열방교회)

총무 : 배현수 목사(워싱턴소망교회)

서기 : 조호중 목사(워싱턴지구촌교회부목사)

회계 :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 이근선 집사(락빌장로교회)

부총무 : 노규호 목사(버지니아거광교회)

부서기 : 원공석 목사(온누리사랑교회)

부회계 : 한은상 목사(주사랑교회)

† 주요행사

1. 자문위원 및 임역원 간담회

일시 : 2008년 11월 17일

장소 : 한성옥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인호 목사) 자문위원 및 임원 간담회가 지난 17일(월) 정오에 한성옥에서 열렸다. 예배는 배현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도 목사의 기도, 김택용 목사의 설교, 특별기도, 회장 김인호 목사의 인사말, 박관빈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다.

김택용 목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11장 1절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 : 한국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경제문제를 위해서(손인화 목사 기도), 청소년 교육 발전과 신앙성장을 위해서(정인량 목사), 워싱턴지역의 복음화와 이단대책마련을 위해서(신동수 목사)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선교비 $8,000(청소년재단후원 및 단체지원), 구제비 $10,000(재해 및 피해지역), 연합예배 $15,000(성탄축하, 신년하례, 부활절 연합, 복음화 대회 등), 행사비 $3,000(세미나 및 관계모임), 광고비 $5,000(연합예배 홍보), 사무비 $5,000(letter head & Envelope, Stamp 등), 기타 $4,000(예비비) 등 총 $50,000의 예산을 미리 세웠다. 이는 지난 회기 결산액($72,000)에서 30%정도를 감한 액수다.

기타 안건으로는 볼티모어교협이 메릴랜드교협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수도권,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의 대외적 인식이 '워싱턴 DC 교협'으로 축소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오는 11월 25일 필라델피아 그레이스교회에서 열리는 미동부 교회협의회 이단대책위원회 정기총회 참석여부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대외적 인식 문제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처하기로 했으며 이대위 참석여부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임원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 미동부 교회협의회 이단대책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일시 : 2008년 11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 그레이스교회(필라)

3. 워싱톤지구동포간담회

일시 : 2008년 12월 2일 오후 7시

장소 : 우래옥

강사 : 재외동포재단 권영천 이사장

4. 제 7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08년 12월 7일 오후 7시

장소 : 성광교회(임용우목사)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워싱턴 지역에 넘치기를 기원

1부 예배 : 배현수 목사(워싱턴교협 총무)의 사회, 안효광 목사(워싱턴 교역자회 회장)의 기도, 임용우 목사(워싱턴 성광교회)의 설교, 차용호 목사(워싱턴교협 회계)의 헌금기도, 노규호 목사(워싱턴교협 부총무)의 광고, 손인화 목사의 축도

2부 찬양

사회 : 이현애 집사(AM1310)

참여교회 : 올네이션스교회,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새비젼교회, 워싱턴성광교회, 후랜코니아침례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셀라워십선교단, 밀알선교단(수화찬양), 김홍렬 목사(색소폰, 클라리넷 연주), 조혜영 교수(독창)

마지막 연합찬양은 곽은식 장로의 지휘로 "할렐루야"를 찬양

5.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09년 1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맥클린한인장로교회(담임 김정우 목사)

1부 예배는 배현수 목사(교협 총무, 워싱턴소망교회)의 사회, 김성도 목사(교협 부회장, 워싱턴열방교회)의 기도, 이근선 집사(교협 부회장, 락빌한인장로교회)의 성경봉독, 김문용 장로(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의 특송, 김윤국 목사의 설교, 워싱턴여선교연합회의 특송, 신년기도, 김홍렬 목사(후랜코니아침례교회)의 특별연주, 김인호 목사(교협 회장, 후랜코니아침례교회)의 인사, 조호중 목사(교협 서기, 지구촌교회)의 광고, 손인화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합심기도 : 워싱턴지역 교협과 교역자를 위해서(스태포드임마누엘침례교회 안효광 목사), 미국과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하나교회 이희문 목사),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서(센터빌한인장로교회 차용호 목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맥클린한인장로교회 한상우 목사), 워싱턴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워싱턴여선교연합회 김정숙 회장)

2부 : 친교식사(맥클린한인장로교회 준비)

3부 : 친교시간(윷놀이) 사회: 이성수 목사(형제장로교회)

후원 :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김영천)와 글로벌마켓(김종택 장로)

6.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09년 4월 12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예배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총무인 배현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159장 찬송 후 교협 부회장 김성도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평신도 교협 부회장 이근선 집사의 살전 4:16~18의 말씀봉독이 있었고 연합성가대(지휘 문경원 목사)가 특별찬양을 드렸다.

설교 : 김양일 목사(직전회장)

특별합심기도 : 세계평화를 위하여(교협 증경회장 황찬규 목사), 조국의 평화와 통일과 회복을 위하여(하나교회 이희문 목사), 워싱턴지역 교회와 성도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원로목사회

장 손인화 목사), 미국의 경제 안정과 바른 지도력을 위하여(메시아장로교회 한세영 목사), 선교사 가정과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올네이션스교회 홍원기 목사), 2세들의 신앙 부흥과 비전을 위하여(워싱턴여선교연합회장 김정숙 집사) 각각 기도했다.
헌금기도 : 차용호 목사(회계), 축도 : 이병완 목사(32대 회장)

7. 워싱턴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09년 7월 17일(금) ~ 19일(주일)
장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
강사 : 이연길 목사(달라스빛내리교회)
주제 : "말씀과 함께 사는 삶"
17일(금) "요단강에 내려가라(왕하 5:8~14)"
18일(토) "믿음 속에 감추인 비밀(눅 17:1~10)"
19일(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고전 2:9~12)"

8. 부흥2009 –부흥을 예비하는 교회

일시 : 2009년 9월 4일(금) ~ 5일(토)
장소 : 워싱턴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워싱턴성광교회(임용우 목사)
강사 : 김종필 목사

9. 교협 사무실 운영

일시 : 2009년 6월 8일(월) 오전 11시
장소 : 패어팩스한인교회(양광호 목사)
지난 해 10월 3차 성전 입당예배를 드린 바 있는 페어팩스한인교회의 양광호 목사는 전직 교협 회장으로서 사무실도 없이 교회연합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공감하고 선뜻 교회 공간을 내주기로 마음 먹고 당회를 거쳐 교협 사무실 공간을 허락했다.
사무실 입주 감사예배는 김성도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차용호 목사(교협 회계)의 기도, 김양일 목사(교협 직전회장)의 설교, 배현수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김인호 목사(교협 회장)의 인사, 김상묵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10.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5차 정기총회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김제이 목사)
전 회기 부회장이었던 김성도 목사(워싱턴열방교회)는 공천위원회(현 회장을 포함 증경 회장 역순 5인)의 단독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참석자 전원의 박수로 차기 회장으로 인준됐다. 목회자 부회장은 총무를 역임했던 배현수 목사(워싱턴소망교회)가, 평신도 부회장은 지난해 여선교회 연합회장을 맡았던 진이 집사(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가 각각 공천위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인준됐다. 감사는 이병완 목사(세계로교회)와 이장연 목사(버지니아한인교회)가 맡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김양일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주의 일에 힘쓰자(고전 15:57~5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김인호 목사(교협 회장)가 김양일 목사, 이근선 평신도 부회장, 이현애 홍보분과 부위원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했다.


34대 총회


증경회장연합회


증경회장단 자문회의


교협사무실운영

▼ 성탄축하 음악예배



제 35대를 회고하며 - 헌신, 열정, 결실 -



제 35대 회장 **김성도**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어느덧 설립 50주년(희년)을 맞아 이 '50년사'를 편찬발행하게 됨을 축하 드리며 교협을 위하여 수고하신 임원들과 특히 50년사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5대는 마치 군대처럼 승리를 위하여 말씀의 칼과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앞을 향하여 약진하고, 또 약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좁은 교회관과 목회관을 넘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였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영혼과 삶이 그대로 교협에 스며들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중심한 영적성장 프로그램과 교회연합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석했던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체험케 하여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일게 하였고, 전도를 강조했던 복음화대성회 강사의 멧세지를 통하여는 잠들어 있던 전도의 열정이 깨어나 교회에 새로운 전도 운동이 일게도 했습니다. 35대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갖는 교육부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까 고심하며 어린이 찬양축제와, 청소년연합수련회, 청년연합수련회를 가졌고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찬양팀을 초청하여 매릴랜드와 버지니아 두 지역에서 연합찬양집회를 열어주며 '워싱턴청년연합회'를 창립함으로 작은 교회의 교육부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협과 교회, 개체 교회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위하여 교협 웹사이트(ckcgw.us)를 개설하고 우체국 지정 우편함(P.O. Box 1942)도 개설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워싱턴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함께 수고했던 임원들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35대 회장 김성도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5대 임원단 (2009~2010년)

† 제 35 대 임 원

회장 : 김성도 목사(워싱턴열방교회)

목사부회장 : 배현수 목사(워싱턴소망교회)　**평신도부회장** : 진이 집사(VA제일침례교회)

총무 :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부총무** : 문정주 목사(커뮤니티교회)

서기 :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　**부서기** : 윤광훈 목사(워싱턴은샘성결교회)

회계 : 노규호 목사(버지니아거광교회)　**부회계** : 원공석 목사(온누리사랑교회)

재정이사회장 : 이근선 집사(락빌한인장로교회)

† 주요행사

1. 임역원 및 증경회장단 자문위원 간담회

일시 :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설악가든

2. 제 8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09년 12월 6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예배사회 : 이현애 사모(AM 1310 기쁜소리방송국 아나운서), 김성도 목사(워싱턴교협 회장)의 인사, 배현수 목사(워싱턴교협 부회장)의 개회기도, 노창수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가 설교했다.

김성도 목사는 "요한 웨슬리는 '인간이 제일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분이 평안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라며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있기를" 축원했다.

참석교회 : 베다니교회(김영진 목사),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워싱턴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성프란시스&성십자가한인성공회교회(최영권 목사와 한성규 신부), 맥클린장로교회(임철성 목사),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워싱턴성광교회(임용우 목사),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 워싱턴청소년재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최영권 목사) .

연합성가대 합창은 "헨델의 할렐루야!" 곽태우 전도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지휘자)가 지휘했으며 손인화 목사(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에 이어 차용호 목사(워싱턴교협 총무)가 광고를, 김범수 목사(워싱턴교협 서기)가 친교기도를 했다.

3. 제 1회 교회친선탁구대회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 서울장로교회

주최 : 워싱턴한인탁구협회(회장 전종준 변호사),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도 목사),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회장 박건철 목사)

워싱턴탁구협회 전종준 회장은 "현재까지 20여개 교회들이 등록했다"며 "올해는 미국탁구협

회(USATT)에서 사용하는 탁구 경기력 수준 측정법인 '레이팅 제도'를 도입해 공정하고 수준높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교협 김성도 회장은 "탁구를 통해 교회들이 친선을 다지고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4. 교협재정이사회

일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후 7시
장소 : 우래옥
(재정이사 45명 위촉, 이사장 : 이근선 집사),
<재정이사회 회원>
공명호, 김남숙, 김만기, 김성진, 김영호, 김용오, 김정숙, 김제호, 김종택, 김진아, 문남희, 박광연, 박상근, 박희숙, 송상례, 송요찬, 신경섭, 심우섭, 안창규, 오성희, 이근선, 이대우, 이선옥, 이숙원, 이종률, 이한봉, 이현애, 장은수, 전영우, 전용운, 전일웅, 정의경, 정세권, 정한성, 진순세, 진 이, 진정자, 최병렬, 최정범, 최정선, 최재근, 헤롤드 변, 홍대룡, 홍오리, 홍의경
개회예배는 이근선 집사의 사회로, 진이 집사(워싱턴교협 부회장)의 기도, 김인호 목사(직전 워싱턴교협 회장)의 설교, 차용호 목사(총무)의 광고, 정인량 목사(교협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호 목사는 열왕기상 2장 7절을 본문으로 "은총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재정이사회는 박상근 장로(교협 봉사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으며 김성도 목사의 감사의 말씀 및 교협행사 계획 소개, 재정이사 소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5.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10년 1월 4일(월) 오후 6시
장소 : 와싱톤한인교회(김영봉 목사)
예배는 차용호 목사(워싱턴교협 총무)의 사회로, 박건철 목사(워싱턴교역자회 회장)의 기도, 진이 집사(워싱턴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성경봉독,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의 특송, 김중언 목사(뉴욕 후러싱제일교회)의 설교, 합심기도, 김성도 목사의 인사 및 소개, God In Us의 특별찬양, 김범수 목사(워싱턴교협 서기)의 광고, 김상묵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단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중언 목사는 요한복음 21장 15-17절을 본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이후 합심기도 시간에는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와 교역자회를 위해(워싱턴교협 증경회장 김양일 목사), 미국의 영적 부흥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워싱턴교협 부회장 배현수 목사),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여선교회 장학재단 이사장 최정선 권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새빛교회 김용환 목사), 워싱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김정숙 집사) 각각 기도했다.

6. 청년연합찬양집회 (찬양인도 : 예수전도단)

일시 : 2010년 1월 8일(금) 오후 7시, 1월 9일(토) 오후 6시
장소 : 세계로장로교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

7. 워싱턴기독청년연합회 창립총회

일시 : 2010년 2월 28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최용우 목사)
선출된 임원, 회장 : 이홍주, 총무: 이윤주, 서기 : 이재흠, 회계 : 민지현
청년 임원단으로는 이홍주 회장외에 이윤주(총무, 버지니아베델교회), 이재흠(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민지현(서울장로교회) 등 총 4명이 선출됐다.
청년연합회에는 페어팩스한인교회, 서울장로교회, 워싱턴열방교회, 워싱턴예원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가스펠채플, 올내이션스교회, 영생장로교회, 새한장로교회, 버지니아베델교회,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목양교회,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8.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0년 4월 4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토마스제퍼슨기념관
설교 : 김인호목사(교협직전회장)는 '부활의초청'
특별기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허성무 목사), 조국의 평화통일과 회복을 위해(은영기 목사), 워싱턴지역복음화와 2세들의 신앙부흥을 위해(김정숙 집사), 세계복음화와 선교사 가정의 사역을 위해(홍원기 목사)

9. 제 1회 어린이찬양예배

일시 : 2010년 5월 2일(주일) 오후5시
장소 :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후원 : 글로벌 마켓에서는 이미 300개의 선물세트, 꽃마에서는 건강줄넘기 200여개와 2010 인패스 페스티발 케네디 센터 연주회 티켓 10장, 최정선 권사, 고려제과, 하나식품, 기독교문사 등에서 선물 기증
협찬 : 타이거 아이 태권도, 한국자동차, 전종준 변호사, 장순길 장로, 전영우 집사, 사랑의교회, 북버지니아한인회, 워싱턴한인연합회, 설악가든, 함지박, 우래옥
참가교회 :
필그림교회, 워싱턴열방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버지니아거광교회, 감사교회,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온누리드림교회, 코너스톤교회 등이 참여하며 사랑의교회 청소년국악팀, CEF(어린이전도협회), 할렐루야 태권도선교단

10. 워싱턴기독청년연합회 '2010 캠퍼스 워십' 개최

일시 : 2010년 5월 14일(금) 오후 7시
장소 : NOVA, COLLEGE

11. 차세대를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2010년 6월 19일(토) 오후 1시
장소 : 잭슨체이스 골프클럽
목적 : 차세대(어린이·청소년·청년)지도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해 김성도 목사는 "차세대를 위한 사업들의 목적과 취지를 한인사회에 널리알려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골프대회를 구상하게됐다"며 "말로만 차세대를 위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큰격려가 되고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대회는 평신도 부회장 진이 집사와 재정이사 박상근 장로 등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었다.

12. 워싱턴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0년 8월 6일(금) – 8일(주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강사 : 김상현 목사(부광감리교회)
주제 :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설교 첫째 날 '전도란무엇인가(사도행전5:40~42)',
둘째날 '누가전하는가(20:20~24)'
셋째날 '어떻게전할것인가(16:25~32)'

13. 아이티 성금 전달

일시 : 5월 25일, 7월 31일 (두 차례)
장소 : 교협 사무실
전달 기관 :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 **전달 총액** : $31,000
아이티 지진 피해자 돕기참여교회 : 워싱턴지역 40여개 교회 1차 마감분 26,000달러를 국제기아대책기구와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에 각각 13,000달러씩 전달

14. 청소년연합수련회

일시 : 8월 10일(화) – 13일(금)
장소 : Skycroft Retreat Center
강사 : 제이콥 김 전도사(새비전교회)
참가교회명단
뉴호라이즌커뮤니티교회, 델라웨어한인침례교회, 열방교회, 워싱톤추수교회, 큰무리교회, 익투스교회, 브리스토교회, 도버교회, 새창조교회, 로럴침례교회, 새생명교회, 풍성한교회, 호산나침례교회, 웨인스보로침례교회, 은혜감리교회, 기쁨의교회, 형제교회, 버지니아거광교회

15. 청년연합수련회 (장소 : Summit Lake Retreat Center),

일시 : 2010년 8월 18일 – 8월 21일
장소 : 메릴랜드 소재 Summit Lake Retreat Center
주제 : 영적 각성(엡 5:14)
강사 : 최용하 목사(보스턴 밀알 대표), 윤성철 목사(CG선교회 대표), 조원상 교수(경영학 박사, IX Manager) 등이 주강사로 섬겼으며, 김재덕 목사(서울장로교회 청년담당), 노승희 전도사(MD 밝은빛교회), 이동하 전도사(NC 성은장로교회), 이정범 목사(올네이션스교회), 장수철 목사(MD YWAM), 김성진 목사(워싱턴시온교회)
수련회에는 18개교회에서 7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16. 중보기도컨퍼런스

일시 : 2010년 9월 9일(목) – 12일(주일)
장소 : 온누리드림교회(이근호 목사)
강사 : 김종필 선교사
중보기도 세미나는 10일과 11일 각각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중보기도란?', '성경의 중보기도', '중보기도자와 지역교회', '중보기도 예배의 회복',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보기도', '성도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중보기도', '성도의 왕적, 제사장적 직분 중보기도' 등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저녁부흥성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 그리고 13일(월)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은혜와 말씀을 사랑하는 워싱턴지역의 성도들이 워싱턴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다.

17. 원로목사위로회

일시 : 2010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Sandy Point State Park)

18. 증경회장단평가회

일시 : 2010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해리스 CRAB HOUSE

19. 제 36차 정기총회

일시 :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6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제 1부 - 개회 예배

교협 부회장인 배현수 목사의 사회로 1부 개회예배를 드리다. 묵상기도, 찬송가 351장, 그리고 증경회장 이병완 목사의 기도 후 사회자가 시편 24:7~10의 말씀을 봉독하다. 워싱턴여선교연합회의 특송, 증경회장 김인호 목사가 "왕을 모시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 이어 제35차 교협 회장 김성도 목사의 인도 하에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하다. 이어 주미 한국 한덕수 대사가 인사와 연설을 하였다. 이후 직전회장 김인호 목사에게, 평신도 부회장 진이 집사에게, 여선교회 연합회장 김정숙 집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다. 총무 차용호 목사의 광고와 찬송가 442장을 부른 후, 증경회장 손인화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다.

제 2부 - 정기 총회

회장 김성도 목사의 사회로 회무를 시작하다.

회원점명 : 서기 김범수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총대 회원 45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공천위원장인 신동수 목사가 현 부회장인 배현수 목사를 제 36대 회장 단독 후보로 공천하니 투표 없이 박수로 받기로 하고 회장에 당선되다. 또한 공천위원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현 총무인 차용호 목사를 공천하니 투표 없이 박수로 받아 부회장에 당선되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박상근 장로를 단독으로 공천하여 투표 없이 박수로 당선되다. 감사에는 정영만 목사와 김양일 목사를 추천하고 박수로 받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


35대 임원


신년하례예배



예수전도단초청 청년연합찬양집회


어린이 찬양축제


청년연합회 Campus Worship


재정이사회


아이티구제헌금전달


복음화 대성회


중보기도 컨퍼런스


성탄축하 음악예배


청년 연합수련회


청소년후원 골프대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청년연합회 창립총회


교회친선 탁구대회

제 36대를 회고하며 - 연합, 기도, 부흥 -



제 36대 회장 **배현수** 목사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심은 내 인생의 기쁨이었고,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순종, 성실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목회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워싱턴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협의 회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협은 무엇보다도 교협에 속한 250개되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본받아 나라와 교회와 선교가 왕성하고,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목사님들간의 친교, 나라를 위한 기도회, 일본 쓰나미지진으로 인한 구호성금,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한 행사들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여러 교회들과 임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충분히 교협의 행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행사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협 산하 교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36대 회장 배현수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6대 임원단 (2010~2011년)

† 제 36 대 임 원

회장 : 배현수 목사(워싱턴소망교회)

부회장 :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총무 :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

서기 : 문정주 목사(커뮤니티교회)

회계 : 예경해 목사(평안교회)

감사 : 김양일 목사(하나님의 말씀교회)

재정이사장 : 진 이 권사(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평신도부회장 : 박상근 장로(올네이션스교회)

부총무 : 한세영목사(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부서기 : 정재호 목사(워싱턴제일교회)

부회계 : 문광수 목사(워싱턴예원교회)

부회계 : 정영만 목사(기둥침례교회)

† 주요행사

1. 제 16 회 워싱턴지역 한인교회 대항 친선탁구대회

일시 : 2010년 10월 30일(토) 오전10:00

장소 :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단체 1등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A팀, 2등: 늘사랑교회 A팀, 3등: 늘사랑교회 B팀

개인 우승 : 필립(늘사랑교회), 2등: 장순길 장로(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3등: 박종희 목사(늘사랑교회)

단체전참가팀 : 늘사랑교회 4개팀,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및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2개팀 등 총 20개 팀

개인전참가자 : 121명

2. 구국미스바 기도회

일시 : 2010년 11월 28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휴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연평도, 민간인 지역에 포탄을 발사한 무력도발행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전쟁도발위기를 맞아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였다. 배현수 목사의 사회와 이원상 목사의 "여호와여! 우리 땅을 고쳐 주소서!(대하 7:11~16)" 설교, 김성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후원기관으로는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워싱턴지역교역자회, 워싱턴지역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위싱턴목회연구원, 국제성경연구원, 워싱턴지역예비역기독군인연합회, 워싱턴여선교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

기도제목

1. 한반도에 6. 25와 같은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 김택용 목사(국제성경연구원장)
2.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 박덕준 목사(워싱턴지역예비역기독군인 연합회)
3.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 최윤환 목사(워싱턴지역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4. 포격으로 인해 슬픔을 만난 가족들과 연평도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 – 문광수목사(워싱턴교협 부회계)
5.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지혜로운 판단력과 지도력과 위해 – 정재호목사(워싱턴교협 부서기)
6.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 이해갑 목사(워싱턴지역 교역자회)
7. 이민교회와 사회가 한 마음으로 조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 홍원기 목사(올네이션스교회)
8. 국군 포로 및 납북자들이 속히 귀환되도록 – 박윤식 목사(훼어팩스침례교회 담임)

나라와 민족과 남북통일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

우리가 듣고자 했던 소리는 무서운 포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소리는 회개

하고 돌아오는 북한 동포들의 찬송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남북이 갈라진 이후 60년 이상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기다려 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렵니다.

슬픔과 고통을 맞고 있는 서해 연평도 가족들, 군인으로서 젊음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워싱턴에 살고 있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여 나라와 민족과 남북통일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모두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로마서 2장 4~5절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이무리 미운 원수라도 그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셋째,지금 우리 모두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곡사포나 다른 어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불의와 정의는 구별될 것이고, 악인과 선인은 심판될 것이며,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지금 우리 모두는 항상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우리의 감정과 분노는 잠간의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대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칼과 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우리 모두는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적은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랑과 평화를 세워야 합니다!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워싱턴지역 한인교회를 대표하여 나라와 민족과 남북통일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 제 9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0년 12일 5일(주일) 저녁 6시

장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

1부 예배는 김범수 목사(총무)의 사회, 배현수 목사의 인사말, 이해갑 목사의 개회기도, 박성일 목사의 설교, 각 교회의 성탄 축하 음악 발표, 예경해(회계) 목사의 헌금기도, 문정주 목사(서기)의 광고, 은영기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음악예배 : 사회: 이종관 목사(음악분과위원장)

참가교회: 올네이션스교회(올네이션스 성가대), 워싱톤한인장로교회(할렐루야 찬양대),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셀라 몸 찬양),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합창단, 워싱턴 장로성가단, 테너 솔로 곽신국(워싱턴 솔로이스트 앙상블), 바이올린 독주 도성수 집사, 한빛지구촌교회(모리아 성가대), 워싱턴성광교회(주사랑 찬양대), 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싱톤연합찬양대) 연합합창단(지휘: 곽은식 장로)의 '헨델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었다.

4. 신년하례예배

일시 :2011년 1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1부 예배: 사회 김범수 목사(워싱턴교협 총무), 기도 이해갑 목사(워싱턴지역교역자회 회장), 성경봉독 박상근 장로(워싱턴교협 평신도 부회장), 설교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의 설교(디모데후서2:6-7)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합심기도, 배현수 목사의 내빈 소개, 헵시바 바디 워십, 광고 문정주 목사(워싱턴 교협 서기), 축도 황수봉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순서에는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 최정범 워싱턴한인 연합회장, 정세권 미주한인재단 직전 총회장, 이은애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회장, 메릴랜드교협 회장 신동식 목사

5. 비영리기관(교회)관련법규및회계 재정관리 세미나

일시 : 2011년 1월15일 (토) 오전 9시반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 올네이션스 교회 영어예배 성전

대상 : 워싱톤지역 교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협찬 : CBMC (기독실업인회) 워싱톤디시 지회(회장 – 김영호)

CBMC (기독실업인회) 동부연합회(회장 – 박상근)

워싱톤지역한인교회협의회 재정후원이사회 (이사장 – 진이)

6.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1년 4월 24일 오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예배는 김범수 목사(총무)의 사회, 차용호 목사(부회장)의 기도, 박상근 장로(평신도 부회장)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지휘 이철 강도사)의 찬양, 김성도 목사(직전회장)의 설교, 특별기도, 예

경해 목사(회계)의 봉헌 기도, 조영상 형제(커뮤니티교회)의 특송, 배현수 목사의 인사말, 김인호 목사(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찬양대는 올네이션스교회, 워싱턴소망교회, 센터빌장로교회, 워싱턴동산교회, 커뮤니티교회, 평안교회 등에서 참여했다.
김성도 목사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7. 제 2 회 어린이찬양예배

일시 : 2011년 5월 8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참가교회 : 감사교회 어린이 찬양대 "My life is in You, Lord," "Mighty is our God", 베다니장로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의 찬양,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어린이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율동곡)", "손(성극)"
올네이션스교회 어린이찬양대 "천 년이 두 번 지나도," "Standing on the solid Rock"
패어팩스한인교회 어린이찬양대 "Jesus I love you," "I want the world to know"
필그림교회 어린이 찬양대
특별순서 : 김민지, 김태규의 국악 찬양 "할렐루야 아멘," "나같은 죄인 살리신"

8. 일본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 구호금 전달

일시 : 2011년 5월 30일
장소 : 일본대사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배현수 목사)와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 메릴랜드한인회 (회장 최광희)가 오후 DC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고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 구호금 5만 8,441달러 97센트를 전달했다. 워싱턴 교협 회장 배현수 목사는 성금을 전해 받은 히데오 스즈키 총무공사에게 "한인회와 교회협의회 등 워싱턴의 한인들이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모금한 것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의미 있게 전달하게 돼 기쁩니다"고 말했다.
히데오 공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일본의 지진 지역을 방문해 음식을 들며 안전함을 보여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 한국인은 결혼식도 미루고 일본을 도와주러 달려오는 등 애정을 갖고 도와준 한인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한인들의 도움의 손길에 거듭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금은 두 한인회와 교협이 한 달 가량 모금한 것이며, 성금 전달에는 워싱턴 교협 회장 배현수 목사, 부회장 차용호 목사, 회계 예경해 목사, 워싱턴 한인연합회 데이빗 한 부회장, 이재억 사무총장, 메릴랜드 한인회 미쉘 김 사무총장,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 등이 참여했다.

9. 청소년집회

일시 : 2011년 6월 26일 – 29일
장소 : 피터스버그 소재 버지니아 주립대학

주제 : "열방을 향한 꿈(Hope for the Nations, 이사야 51장 5절)"
강사 : Bob Hartley 목사, Shin Kim 목사, Carlos Reyes 목사, Stephen Chandler 목사, Andrew-Brunson 선교사, Kyle Wilson 선교사 등이 참여하며, 워십은 Grace Retreat Praise Team, Joey Wandler(Leader of "Kings"), Tree Tops Burning (Praise Team in MD) 등이 담당했다.
참가교회: 메시야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락빌한인장로교회, 열방사랑교회, 호산나교회, 워싱턴동산교회, 가나교회, 천사교회,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H.O.P.E. 교회(영어독립교회, MD)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등 총 4개 주의 44개 교회
그레이스 수련회는 지난 2001년 미국장로교(PCUSA) 대서양한미노회와 중대서양대회의 협력으로 첫 번째 연합수련회를 가진 이후 꾸준히 참석율이 늘고 있다. 첫 해에는 9개 교회에서 총 130여 명의 학생과 리더들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열린 제10회 연합수련회에는 미국장로교 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뉴저지 등 44개 교회에서 600여명이 참석했다.

10. 제 1 회 사모수양회

일시 : 2011년 6월 5일 – 6월 6일
장소 : 버지니아 랭케스터 소재 열린문장로교회 수양관
주제 :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요 14:27)"
강사 : 김원기 목사와 김혜정 사모(휄로쉽교회), 김만풍 목사(지구촌교회), 이성자 목사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박진욱 목사(한사랑장로교회)
첫째 날 저녁엔 Holy Band와 사모 합창단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김원기 목사가 개회예배를, 김혜정 사모가 "사모의 정신건강"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사모의 자리는 아름답다."는 주제로 그룹토의를 한 후, 김만풍 목사가 "사모의 스트레스 조절"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오후에는 "제 1회 사모올림픽"을 진행한 후 푸짐한 저녁 식사로 친교를 나누었다. 밤에는 ICCC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성자 목사가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주제로 일일 부흥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박진욱 목사가 "행복한 사모,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폐회 예배를 드렸다.

11.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1년 7월 29일(금) – 7월 31(주일) 오후 7시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강사 : 최삼경 목사(빛과 소금교회)
주제 : "건강한 교회,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첫째 날(29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갈 5:22~24)", 둘째 날(30일)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람(행 3:1~10)", 셋째 날(31일) "달란트의 사람(마 25:20~21)"
* 성회기간 중 노방전도(7월 28일(토)
인도 : 평신도 부회장 박상근 장로

협력 : 기독실업인회(CBMC) 동부지회(회장 박상근 장로)
발대식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12. 목회자세미나

일시 : 2011년 8월 1일
장소 :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주제 : "한국교회 이단의 실태와 대책"

13.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성회

일시 : 2011년 9월 9일부터 11일
장소 : 워싱턴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강사 : 한기홍 목사(남가주은혜한인교회)
주제 :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자!"
첫째날(9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행3:1-10)." 둘째 날(10일) "환난을 극복하는 기도(시5:1-5)", 셋째 날(11일) 왕상 2:7~15 말씀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땅끝까지(왕상2:7-15)" 12일(월)에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딤후 1:1~8)"를 주제로 워싱턴지구촌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14. 37차 정기총회

일시 : 10월 31일(월) 저녁 7:00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차용호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양일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기도, 엔젤 크로마하프찬양단(비비나 양)의 특별연주, 김성도 목사(직전 교협회장)의 설교, 강정아 전도사(드보라 워십댄스찬양선교단 단장)의 특별 워십댄스,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한 합심기도, 감사패 증정, 한철우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제 37차 정기총회는 5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임 임원진에는 전형위원(현 회장과 증경회장 역임순으로 5명)들이 추천한대로 회장에 차용호 목사, 목사 부회장에 김범수 목사, 평신도 부회장에 정세권 장로가 각각 인준됐다. 감사로는 이병완 목사와 김성도 목사가 추대됐다.
회계보고에 의하면 지난 회기 총 55개의 교회가 회비를 납부했으며, 총수입은 $114,905.46, 총지출은 $109,322.88 이었다.
신안건 토의시간에는 이단대책위원회와 회칙수정위원회 등을 신설하자는 안건이 나왔으며, 이는 임원진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청소년 수련회


중보기도성회


제9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연합지휘 곽은식 장로


제 9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원로목사회 위로회


2회 어린이찬양축제


36차총회



36차총회





제 37대를 회고하며 - 섬김, 기도, 전도 -



제 37대 회장 **차용호** 목사

37대 회장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37대 교협을 섬기면서 한 신앙인으로서, 한 목사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교협을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듯이, 한 교회를 담임하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37대 교협을 회고해보면 섬김(Service), 기도(Spirit), 전도(Spread)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협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부딪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죄송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교협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협은 전도하는 교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설득해서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37대 회장 차용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7대 임원단 (2011~2012년)

† 제 37 대 임원

회장 :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목사부회장 :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
평신도 부회장 : 정세권 장로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총무 : 김위만 목사(감사교회)
부총무 : 안성식 목사(목양교회)
서기 : 문정주 목사(Horizon Community Church)
부서기 : 이광은 목사(우리주님의 교회)
회계 : 김영술 목사(보배교회)
부회계 : 박상섭 목사(예닮교회)

† 주요행사

1. 제 10회 '글로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1년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
주제 : 글로벌성탄축하음악예배(찬양으로 하나되는 글로벌찬양예배)
글로벌찬양대참여성가대 : 인도네시아 찬양팀, 와싱톤 몽골교회 성가대, 나이지리아 찬양팀, 아랍교회 성탄인사
참가교회 및 찬양팀 : 엔젤 크로마하프 찬양선교단, 열린문장로교회, 나오미 찬양팀, 워싱턴그레이스 사모합창단, 워싱턴해오름교회 , 연세 4중창, 올네이션스교회 , 워 싱턴 장로 성가단, 페어팩스한인교회 성가대,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성가대, 헨델의 할렐루야 전체 합창
사회 : 이현애 아나운서(AM 1310 기쁜소리방송) 김범수 목사(워싱턴교협 부회장)의 개회기도, 차용호 목사(워싱턴교협 회장)의 설교, 김영술 목사(워싱턴교협 회계)의 헌금기도,한철우 목사(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김위만 목사(워싱턴교협 총무)의 광고, 문정주 목사 (워싱턴교협 서기)의 친교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2. 신년 하례예배

일시 :2012년 1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워싱톤순복음제일교회(최용우 목사)
예배는 김위만 목사(교협 총무)의 사회, 경배와 찬양(인도 이광국 전도사), 최용우 목사의 기도, 정세권 장로(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성경봉독, 크로마하프 찬양선교단(단장 양비비나)의 특송, 이원상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원로목사, SEED 선교회 국제대표)의 설교, 한덕수 대사(주미한국대사)의 축사, 최정범 장로(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의 축사, 신년기도, 차용호 목사의 인사 및 소개, 드보라 워십댄스 팀(강정아 전도사)의 특별공연, 문정주 목사(교협 서기)의 광고, 손인화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상 목사는 사무엘상 7장 3~11절을 본문으로 "미스바 성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축사순서에는 주미 한국대사인 한덕수 대사,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회장 최정범 장로가 담당했고, 그 외에도 약 20여명의 지역단체장들이 예배에 참석해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3.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2년 4월 8일(주일) 새벽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예배는 김위만 목사(교협 총무)의 사회, 김범수 목사(교협 부회장)의 기도, 정세권 장로(교협 부회장)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지휘 최신일 장로)와 라티노 찬양단의 찬양, 배현수 목사(교협 직전회장)의 설교(요 20:24~31,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특별 기도, 김영술 목사(교협 회계)의 봉헌 기도, 워싱턴그레이스 사모합창단(지휘 이철 강도사)과 엔젤크로마하프선교단(단장 양비비나)의 봉헌 특송, 차용호 목사의 광고 및 인사, 김성도 목사(교협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

행됐다.

4.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2년 7월 27일(금) – 29일 주일 오후 6시

장소 : 게이더스버그 소재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 벧엘교회(진용태 목사)

강사 : 김하중 장로(전 중국대사)

공동주최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차용호 목사)와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회장 권덕이 목사)

후원 :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

설교제목 : 7월 27일(금) 7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7월 28일(토) 오후 7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라"(엡 4:1~3)

7월 29일(주일) 오후 6시 "영적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삶"

목회자세미나 : 7월 30일(월) 오전 10시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5. 청년연합컨퍼런스

일시 : 2012년 7월 2일 – 4일

장소 :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이성자 목사)와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주제 :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

찬양인도 : 강명식 찬양사역자와 이유정 목사

설교 : 오성달 목사(미주꿈이있는교회, VA), 강명식 찬양사역자, 정일남 목사(소명교회, MD)

6. 목사사모수양회

일시 : 2012년 6월 24~26일

장소 : 워렌톤 소재 에즈라 선교센터 수양관

주제 : "열방을 향하여 울라!(눅 23:28)"

개회예배는 정대은 전도사의 찬양인도, 차용호 목사의 사회, 이은숙 사모의 기도, 차정애 사모의 특송, 홍원기 목사(올네이션스교회)의 설교, 김위만 목사(워싱턴교협 총무)의 광고, 김낙중 장로(에즈라 선교센터 수양관)의 인사말, 홍원기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워싱턴 밀알선교단 사역소개 및 기도회(정택정 목사), 수화 찬양 배우기(이은숙 사모), 10명 이상을 알아가는 짝기도, 크로스 공동체 광야사역 소개 및 기도회(나운주 목사), 실내 레크리에이션(박대성 전도사), 성경암송 세미나(방해식 목사, 방국희 사모)를 진행했고, , 셋째 날인 26일에는 미니 올림픽, 기도제목 나누기, 폐회예배 등이 진행됐다.

후원교회 : 열린문교회, 워싱턴성광교회, 지구촌교회,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한빛지구촌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훨로쉽교회, 헤세드 세계선교센터, 지구촌마트

7. 제 38차 정기총회

일시 :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김범수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인호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기도, 배현수 목사(교협 직전회장)의 설교, 교계와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을 위한 합심기도, 감사패 증정(배현수 목사, 정세권 장로, 손형식 목사, 한세영 목사, 이현애 사장에게), 김위만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신석태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제 38차 정기총회는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으며, 김성도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기도, 문정주 목사(교협 서기)의 서기 보고, 김위만 목사(교협 총무)의 총무 보고, 김성도 목사(감사위원)의 감사 보고, 박상섭 목사(교협 부회계)의 회계보고, 임원선거, 김양일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임원선거는 전형위원들(현 회장과 증경회장 역임순으로 5명, 위원장 김양일 목사)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신임 회장으로는 부회장이었던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가 단독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목사 부회장으로는 최인환 목사와 안효광 목사가 추천됐으나 안효광 목사가 사임해 최인환 목사(콜롬비아한인침례교회)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평신도 부회장으로는 단독 추천된 공명호 장로(열린문교회)가 선출됐다. 감사로는 김위만 목사(VA)와 정영만 목사(MD)가 추대됐다.

회계보고에 의하면 지난 회기 총 36개의 교회가 회비를 납부했으며, 총수입은 $49,230.69, 총지출은 $45,306.37 이었다.

신임 회장 김범수 목사는 "워싱턴교협도 연합체이기 때문에 회원들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원로목회자, 담임목회자, 평신도들로부터 많이 들을 계획이며, 서로 하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복음화대성회, 교회전도부흥세미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년간계획을 발표했다.



신년하례예배





청년연합 컨퍼런스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연합성가대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목사 사모수양회



동포 복음화

제 38대를 회고하며 - 연합, 소통, 상생 -



제 38대 회장 **김범수** 목사

38대 회장으로서 교협이 워싱턴지역사회에서 교회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8대 교협은 '연합', '소통' 과 '상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협의 행사였던 '신년하례예배', ' 부활절새벽예배',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어린이찬양예배', '성탄축하음악예배', '증경회장단 및 원로 목사들의 한국초기선교사위로방문(North Carolina)',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위로예배', '청소년찬양축제' 행사외에 '워싱턴지역각기관장간담회의'와 '전부하나 워싱턴 세미나'를 추가했습니다. 기관장 간담회의의 목적은 워싱턴지역의 교회들과 기관들이 하나된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부하나 워싱턴 세미나'는 '전도와 부흥으로 하나된 교협'을 마음에 담아 각 교회의 목회사역과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제로 워싱턴지역의 각 곳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하여, 교회들의 이야기가 교협의 이야기가 되도록 했던 행사였습니다.

제 38대 회장 김범수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8대 임원단 (2012~2013년)

† 제 38 대 임 원

회장 :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
목사 부회장 : 최인환 목사(콜롬비아한인침례교회)
평신도 부회장 : 공명호 장로(열린문장로교회)
총무 : 노규호 목사(그레이스라이프한인교회)
부총무 : 박상섭 목사(예닮교회)
서기 : 문정주 목사(커뮤니티교회) **부서기** : 예경해 목사(평안교회)
회계 : 김정호 목사(워싱턴초대교회) **부회계** : 임낙길 목사(국제선교교회)
감사 : 정영만 목사(워싱턴기둥교회), 김위만 목사(감사교회)
재정이사회 이사장 : 정세권 장로(와싱톤중앙장로교회)

† 주요행사

1. 제 11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12월 2일(주일) 오후 6:00
장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
참가교회수 : 25교회(연합찬양대 포함)
목적과 의미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및 예수님의 사랑 전파
연합찬양대참가교회 : 워싱턴동산교회, 워싱턴베다니교회, 워싱턴소망교회, 예닮교회, 커뮤니티교회, 워싱턴초대교회, 콜롬비아침례교회, 평안교회, 국제선교교회
1부 예배 : 김범수 목사(회장)의 인사, 공명호 장로(부회장)의 기도, 박성일 목사(워싱톤한인장로교회)의 설교
2부 사회 : 이현애 사모(AM1310), 최영민(열린문장로교회) 애국가 독창(최윤환 목사님의 손자) 백유진(워싱턴영광장로교회) 양의 전주, 페어팩스한인교회 어린이 찬양단(지도 박성국), 메시야장로교회 벧엘찬양대(지휘 권진석, 반주 박유진), 후레드릭한인침례교회(지휘 노성희, 반주 김진경), 열린문장로교회 나오미 찬양대(지휘 김순애, 반주 한계복), 와싱톤중앙장로교회(지휘 오흥주, 반주 구자혜, 이봉실), 서울장로교회(지휘 이용복, 반주 박정애), 메트로폴리탄여성합창단(지휘 김승철, 반주 계수미), 헌금 기도 김정호 목사(회계), 헌금 특주 콜롬비아한인침례교회(바이올린 : Aaliyah Booker, Hannah Choi, 피아노 : Larry Allen), 커뮤니티교회 Youth Group(지도 최원), 올네이션스교회(지휘 이철, 피아노 최정원, 장구 김은수), 페어팩스한인교회(지휘 허인수, 반주 진수현), 교회연합찬양대(지휘 손효숙, 반주 박우철)의 '성탄축하메들리' 맥클린한인장로교회(지휘 이영주, 반주 채성내), 필그림교회(지휘 김정환, 반주 이지혜), 워싱턴그레이스 사모합창단(지휘 이철, 반주 손희라), 워싱톤한인장로교회(지휘 도성수, 오르간 김성희, 피아노 김경숙), 노규호 목사(총무)의 광고, 전체합창(지휘 도성수), 이원희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 워싱턴지역 각교단 기관장 간담회

일시 : 12월 10일(월) 오전 11시
장소 : 맥클린장로교회(임철성 목사)
목적 : 워싱턴지역의 각 교단장과의 대화를 통한 워싱턴지역의 소통과 연합 워싱턴선언문 발표
참석한 교단 및 기관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KPCA) 수도노회장 윤종만 목사, 워싱턴노회장 함상권 목사, 미국장로교(PCA) 한인 수도노회장 홍원기 목사, 미국장로교회(PCUSA) 대서양한미노회(AKAP)장 이쌍석 장로, 해외한인예수교장로회(KPCA) 수도노회장 민철기 목사, 미주연회워싱턴지방회 감리사 김성도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워싱턴 대표 최윤환 목사, 미주성결교중부지방회(KECA) 중부지방회장 윤광훈 목사, 워싱턴감찰회장 최승운 목사, 하나님의 성회 북미총회 동묵부지방회 최용우 목사, SBC 수도침례교회협의회, 워싱턴교협증경회장연합회장 , 워싱턴지역여선교회연합회장(이선옥 권사) , 워싱턴청소년재단 이사장(이병완 목사), 워싱턴지역기독장학재단이사

장, 국제성경연구원장(김양일 목사),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장(안현준 목사),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장(심현찬 목사), 워싱턴밀알선교단장(정택정 목사), 크로스공동체 대표(나운주 목사)

워싱턴선언문 발표

"워싱턴지역 산하 각 교단과 기관 대표자 및 교회협의회는 오늘 2010년 12월 10일에 즈음하여 워싱턴 지역의 영적부흥과 말씀중심적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서로 소통, 교류하며 교단 및 교회 안과 밖에서 도전해 오는 여러 불신앙적인 악한 세력을 이겨내고, 서로 하나되어 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세계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3. 임역원 및 증경회장단 자문위원 간담회

일시 : 11월 3일(화) 오전 11:00
장소 : 설악가든
목적 : 교협 증경회장들로부터 교협 행사와 방향에 대한 자문 청취

4. 신년하례예배 및 애국기도회

일시 : 2013년 1월 7일(월) 오전 1시
장소 : 워싱톤순복음제일교회(최용우 목사)
주제 : 국가와 민족, 감사와 축복
예배전 태극기와 성조기의 입장과 애국제창을 부른 후 예배를 드리다.
노규호 목사(교협 총무)의 사회, 공명호 장로(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기도, 김정호 목사(교협 회계)의 성경봉독,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단장 홍희자, 지휘 김승철)의 특송, 정인량 목사(워싱턴영광장로교회 담임, 교협 증경회장)의 설교(예수를 되 찾읍시다, 눅 2:41-50), 예경해 목사(교협 부서기)의 헌금기도, 헤세드세계선교센터(대표 강정아 목사) 드보라워십댄스선교단의 헌금찬양, 애국기도회, 북미주 CBMC 동부연합회(회장 신승철) 회원들의 특송, 김범수 목사의 새해 인사 및 내빈 소개, 최용우 목사의 인사말, 박상섭 목사(교협 부총무)의 광고, 오광섭 목사(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다.
이날 예배 헌금 전액은 한국군선교(워싱턴지회: 손인화 목사)와 논산 훈련소 예배당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5. 사모수양회

일시 : 2월 11일(월) - 12일(화) 1박 2일
장소 : 오션시티(모 호텔)
목적 : 목회 사모님들의 영적충전과 교제
제 3회 '목사 및 사모 수양회'가 2월 11일(월)부터 12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메릴랜드주 오션시티에서 있었다.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2)"는 주제로 주강사로는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진 목사와 김윤옥 사모가 참여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회(시편 37:1~11)"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 섬김과 대접(마태복음 7:12)"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황금율 가운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기도와 사랑과 윤리를 이루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은 남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온전한 헌신이요 순종"이라고 강의했다.

6.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3년 3월 31일(부활주일) 새벽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이 됨을 다짐
예배는 최인환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트럼펫 연주(양어부 목사와 방성수 집사), 박상섭 목사(교협 부총무)의 부활 선포, 공명호 장로(교협 부회장)의 기도, 문정주 목사(교협 서기)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 찬양, 차용호 목사(교협 직전회장)의 설교, 임낙길 목사(교협 부회계)의 인도로 특별합심기도, 김정호 목사(교협 회계)의 봉헌 기도, 김범수 목사(교협 회장)의 부활절 인사, 예경해 목사(교협 부서기)의 광고, 노규호 목사(교협 총무)의 부활의 증인 선언문 낭독, 배현수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인패스 시니어 앙상블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연주

7. 증경회장단 및 원로목사들의 한국 초기선교사 위로방문

일시 : 2013년 4월 15일(월) - 4월 17일(2박 3일)
장소 : Black Mountain, NC

8. 청소년집회

일시 : 2023년 4월 27일(토) 오후 6:00
목적 : 청소년들의 영적부흥과 전도
장소 : 온마을장로교회(김재덕 목사)
주제 : 3R"(Return, Restore, Remember)

9. 워싱턴청소년재단과 협력유지

일시 : 2013년 2월 7일(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워싱턴청소년재단 사무실(Rockville, MD)
참석자 :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이병완 목사) 상임자문위원 정인량 목사, 부이사장 김성도 목사, 이사회 서기 정영만 목사, 재무이사 폴 박, 총무대행 이재민, 프로그램 디렉터 박상원

10. 제 3 회 어린이찬양축제

일시 : 5월 5일(어린이주일) 오후 6:00

장소 :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목적 : 어린이들을 향한 신앙교육과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1 부 예배

양어부 목사와 방성수 집사의 팡파레, 김축복 어린이(그레이스라이프한인교회)의 선창으로 애국가 제창, 노혜연 전도사(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의 기도, 밥 게이 목사(필그림교회)의 설교, 찬양제, 김범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

2 부 찬양축제

참가교회 : 필그림교회, 올네이션스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메시야장로교회, 서울장로교회, 온누리드림교회. **초청** : 워싱턴소리청 김은수 명창

11. 청소년연합 수련회

일시 : 2013년 6월 23일 -26일
장소 : Virginia State University
목적 : 워싱턴 교협 산하 교회들의 청소년들의 영적부흥과 신앙성장
강사 : 김규형 목사(대서양한미노회, HOPE 교회), Chad Dedmon 목사, Carlos Reyes 목사, Steven Chandler 목사

12.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3년 7월 26일(금) 오후 7:30 – 7월 29(월) 오전 10:30분
장소 :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 워싱턴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목적 : 워싱턴지역동포 복음전도와 신앙부흥
강사 :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주제 :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26일(금)에는 메릴랜드 락빌의 베다니장로교회(담임 김영진 목사)에서 김인중 목사는 로마서 4장 18~24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27일(금) 오후 7시30분 워싱톤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기도의 능력", 28일(주일) 오후 6시에는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역전의 능력"이란 제목, 29일(월) 오전 10시30분에는 열린문장로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이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의 세 교회에서 성회를 가짐으로 가까운데 사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13. 2013년 '전부하나(전도, 부흥, 하나됨) 워싱턴 세미나

주제 :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Church!
일시 : 세미나 9월 13일(목요일) ~ 14일(주일) 오전 10:00 – 오후 4:00 저녁 부흥회 오후 7:00
장소 : 세미나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저녁부흥회 :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목요일 저녁), 올네이션스교회(금요일), 필그림교회(토요일), 메시야장로교회(주일)
강사 : 저녁 부흥집회 – 이성자 목사, 홍원기 목사, 손형식 목사, 한세영 목사
• 전도 프로그램 강사 : 김만풍 목사(아노덴 전도훈련)
•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 페어팩스한인교회(양광호 목사), 포도원장로교회(김성택 목사), 열린문교회(김용훈 목사), 은혜공동체(안형준/이해갑/한상우/최우성 목사)
• 새벽 설교 : 김미혜 목사, 정선영 목사, 안성식 목사
평가 : 워싱턴의 교회들과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와 부흥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워싱턴 대 세미나의 첫 장을 마련하였다.

14. 워싱턴원로목사회 위로회

일시 :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1부 예배는 최인환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공명호 장로(교협 부회장)의 기도, 김범수 목사의 설교, 노규호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오광섭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위로 감사 잔치는 위명희 전도사(포도원교회)와 임낙길 목사(교협 부회계)의 사회, 제38대 워싱턴교협 임원진의 중창, 김택용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감사 기도, 찬양과 율동, 콜럼비아한인침례교회의 최한나(바이올린)와 윤평화(피아노)의 기악 연주, 이철 목사(올네이션스교회)의 플룻 연주, 드보라워십댄스선교단(단장 강정아 목사)의 공연, 임낙길 목사의 만담과 웃음치료, 김범수 목사의 인사말, 선물증정, 한철우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회장)의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15. 차세대 지원 및 장애우 돕기 골프대회

일시 : 2013년 5월 25일(토) 오전 10:00
장소 : 버지니아 옥스 골프클럽,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범수 목사) 재정이사회(이사장 정세권 장로)와 워싱턴한국대학동창회협의회(회장 김기옥)가 공동주관
총수입 $20,075.00, 총경비 지출 $10,872.20 총순익 $9,202.80
후원금 전달 : 한미장애인협회(KADPA MD, VA), 밀알선교단(단장 정택정 목사),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이병완 목사), 워싱턴지역기독장학재단(이사장 박상근 장로), 워싱턴기독청년연합회

16. 증경회장단 교협 평가회

일시 : 10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 Harris Crab(Grasonville, MD)

17. 한국기독교 군선교 후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범수 목사)가 '2013년 신년하례예배 및 애국기도회' 시간에 모아진 헌금 $1,438을 지난 1월 25일(금)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워싱턴지회(지회장 손인화 목사)에 전달했다.

한국의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중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군선교연합회 워싱턴지회는 "한국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혹한속에서도 초소경계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온차 나누기'에 헌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 39대 정기총회

일시 : 10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콜럼비아침례교회(최인환 목사)

예배는 최인환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그렉 로워 목사(Columbia Baptist Church)의 환영사, 김성도 목사(35대 교협 회장)의 기도, 바리톤 박요셉 교수의 특송, 차용호 목사(37대 교협 회장)의 설교, 교계와 미국과 한국 지도자를 위해 합심기도, 감사패 증정, 노규호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오광섭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37대 회장인 차용호 목사, 38대 평신도 부회장 공명호 장로, 38대 재정이사장 정세권 장로에게 각각 증정됐다.

임원선거 : 회장 최인환 목사(콜럼비아한인침례교회), 목사 부회장 노규호 목사(그레이스라이프한인교회), 평신도 부회장 김영천 집사(후랜코니아교회), 감사로는 정인량 목사(VA)와 이병완 목사(MD)가 각각 공천된 후 만장일치로 박수로 선출하였다.

회계보고 : 41개의 교회가 회비납부, 총수입은 $93,492.29, 총지출은 $91,341.29



38대 임원사진



부활절새벽연합예배



39대 총회사진



전부하나 세미나



기관장 회의



복음화 대성회 열린문교회



어린이찬양축제



신년하례예배



38대 임원 성탄축하음악예배



2013! 전부하나 워싱턴컨퍼런스



11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제 39대를 회고하며 - 연합, 나눔, 섬김 -



제 39대 회장 **최인환** 목사

미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덧 나를 보니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여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지도 못한 사람을 교협을 섬길 수 있도록 섭리하신 은혜가 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파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것이라는 말처럼 기회는 내가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에 교협 회장으로서의 기회를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교협의 증경회장단들과 함께 하는 임원들의 조언과 협력을 받았습니다.

제39대 목표는 연합(교회 연합, UNION), 나눔(은혜 나눔, SHARING), 섬김(사랑 봉사, ATTENTIVE, 영어로 USA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워싱턴의 교회들 앞에서 항상 하나되고, 겸손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임원수칙은 '목사답게, 종답게, 제자답게'로, 주제 성구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에베소서 4:1)로 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덕을 가지고, 사명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39대 회장 최인환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39대 임원단 (2013~2014년)

† 제 39 대 임 원

회장 : 최인환 목사(콜럼비아한인침례교회)

부회장 : 노규호 목사(그레이스라이프한인교회)
부회장 : 김영천 권사(후랭코니아침례교회)
총무 : 박상섭 목사(예닮교회)
부총무 : 정일남 목사(소명감리교회)
서기 : 이태봉 목사(예드림교회)
부서기 : 이정범 목사(메릴랜드열방교회)
회계 : 홍덕진 목사(제자선교교회)
부회계 : 김현성 목사(한우리교회)

† 주요행사

1. 임원 및 증경회장단 간담회 및 자문회의

일시 : 2013년 11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 팰리스식당

1부 예배는 노규호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영천 집사(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기도, 정일남 목사(교협 부총무)의 말씀봉독, 한철우 목사(증경회장연합회 회장)의 설교, 임낙길 목사(교협 부서기)의 합심기도(한국, 미국 및 교계와 교협을 위해) 인도, 박상섭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이원희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한철우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17~24절을 본문으로 "오직 선교 일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시간에는 회장 최인환 목사가 제 39대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교협 임원진을 소개했다. 최 목사는 "제 39대 목표는 연합(교회 연합), 나눔(은혜 나눔), 섬김(사랑 봉사)이다. 영어로 하면 Union, Sharing, Attentive, 즉 USA다. 임원 수칙은 '목사답게, 종답게, 제자답게'로, 주제 성구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에베소서 4:1)로 정했다"며, "선배 목사님들과 회원 교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3년 12월 8일(주일) 오후 6:00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최한나, 최나실 양의 중창, 김영천 집사(교협 평신도 부회장)가 기도한 후, 노규호 목사(교협 부회장)가 설교했다. 노규호 목사는 마태복음 1장 18~25절을 본문으로 "예수의 나심"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성탄축하음악예배는 백유진 양의 바이올린 독주, 올네이션스교회 성가대(지휘 이철 목사, 반주 최정원), 와싱톤제일연합감리교회 성가대(지휘 한미영, 반주 임은빈), 워싱턴몽골리안교회와 은혜교회 연합합창단(지휘 톨가 도르찌, 반주 오양가), 홍덕진 목사(교협 회계)의 헌금 기도, 드보라워십댄스 선교단(단장 강정아 목사), 워싱턴그레이스사모합창단(지휘 이철, 반주 손희라), 워싱턴베다니교회 찬양대, 페어팩스한인교회 성가대(지휘 허인수, 반주 진수현), 워싱턴침례대학교 찬양팀(지휘 임지혜, 반주 김희정), 연합 성가대(지휘 조혜숙, 반주 송연석), 박상섭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전체 합창, 김인호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내레이션은 이선희 집사가 맡았으며, 헌금위원으로는 워싱턴여선교연합회(회장 김환희 집사) 회원들이 섬겼다.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렸다.

3. 신년하례예배

일시 : 2014년 1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

예배는 박상섭 목사(총무)의 사회, 노규호 목사(부회장)의 기도, 홍덕진 목사(회계)의 성경봉독, 박요셉 교수의 특송, 이병완 목사(증경회장)의 설교, 김범수 목사(직전회장)의 헌금 축복기도,

CBMC 북미주 동부연합회(회장 신승철)의 특송, 김인호 목사의 합심기도 인도,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지휘 김승철 전도사)의 특송, 이태봉 목사(서기)의 광고, 류응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헌금위원은 워싱턴여선교회연합회(회장 김환희) 임원들이 담당했다. 이병완 목사는 시편 144편 15절을 본문으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통일, 국군장병을 위해(한미애국총연합회 총재 전용운 장로), 세계 평화와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재정이사장 정세권 장로), 미주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원로목사 유흥태 목사), 워싱턴 동포사회의 연합과 축복이 임하기를(증경회장 김성도 목사),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증경회장 배현수 목사), 워싱턴지역 복음화를 위해(증경회장 차용호 목사), 워싱턴 여선교회 사업과 연합, 일치를 위해(회장 김환희 집사) 각각 기도했다. 신년 하례식은 양국가 제창, 최인환 목사의 환영사, 강도호 워싱턴 총영사와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린다 한 회장, 교협증경회장단 회장 이원희 목사의 축사, 노규호 목사의 내빈소개, 박석규 목사(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복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4. '2014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예배'

일시 : 2014년 1월 19일 오후 7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공동주최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적 : 한인이민의 정신과 삶을 기억하고, 후대에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알림
예배는 박상섭 목사(워싱턴교협 총무)의 사회, 김영천 집사(워싱턴교협 부회장)의 기도, 정인량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의 설교, 특별기도, 드보라워십댄스선교단(단장 강정아 목사)의 특별찬양, 홍덕진 목사(워싱턴교협 회계)의 헌금기도, 이태봉 목사(워싱턴교협 서기)의 광고, 최윤환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5. 워싱턴지역 여성목회자 간담회

일시 : 2014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우래옥
목적 : 워싱턴지역의 여성 목회자들과의 연합과 소통과 사역나눔

6. 워싱턴지역 기독언론인 간담회

일시 :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우래옥
목적 : 기독 언론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동포사회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함

7.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4년 4월 20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목적 : 예수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자!

이날 예배는 부회장 노규호 목사의 사회, 양어부 목사와 방성수 집사의 트럼펫 연주, 부총무 정일남 목사의 부활 선포, 평신도 부회장 김영천 집사의 기도, 부서기 이정범 목사의 성경봉독,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찬양대의 찬양, 직전 회장 김범수 목사의 설교(고전 15: 12~20 "예수 부활, 내 부활"), 서기 이태봉 목사의 부활의 증인(마태복음 28:19~20) 낭독, 합심기도, 헌금(워싱턴여선교연합회),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합창단의 헌금 특송, 회계 홍덕진 목사의 봉헌기도, 회장 최인환 목사의 부활절 인사, 총무 박상섭 목사의 광고, 제 37대 증경회장 차용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최인환 목사는 "워싱턴교협 회원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번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통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과 세계가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새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라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하자"고 했다.

8. 제 4회 어린이 찬양예배

일시 : 2014년 5월 4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필그림교회(손형식 목사)
어린이 찬양축제는 위명희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필그림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커뮤니티교회, 소명감리교회, 청교도교회, 온누리드림교회의 어린이들과 에벤에셀팀이 출연하여 합창, 연주, 워십댄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갓스이미지 합창단과 워싱턴소리청 김은수 명창의 특별 순서가 마련되었고 이민사회 한인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의 선창으로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도 가졌으며 지구촌 마켓(대표 김종택 장로)이 어린이들을 위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준비했다. 특별히, 김은수 명창은 "예수님 처럼만 살아라!"는 제목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락을 지도해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워싱턴지역 주일학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한인교회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는 기초가 되었다.

9. 워싱턴지역 동포 복음화 대성회

일시 : 2014년 5월 29일(목) – 6월 1일(주일)
장소 : 워싱턴지구촌교회,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필그림교회
강사 :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10. 영적 대각성 부흥회

일시 : 2014년 7월 18일–7월 20일
장소 : 워싱턴성광교회(임용우 목사)
주제 :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 19)
강사 : 박성근 목사(LA 한인침례교회)

11. 교협 재정이사회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오후 7시

장소 : 우래옥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 제 39대 재정이사회가 12월 17일(화) 오후 7시 우래옥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노규호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영천 집사(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기도, 김범수 목사(교협 직전회장)의 설교, 이태봉 목사(교협 서기)의 광고, 정영만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배현수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식사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12. 필리핀 구호성금(태풍 하이엔) 및 구호성금 전달

일시 : 2014년 1월 22일 -30일

장소 : 필리핀 타클로반과 사말지역, 세부, 민도르섬

초대형 대풍 '하이옌'(Haiyan)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워싱턴지역한인 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는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 워싱턴중앙일보(사장 이상묵)와 구호 성금 모금 공동 캠페인을 11월 15일~12월 31일까지 펼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최인환 목사는 "6.25 한국전쟁 시 군대를 파견해 준 우방국인 필리핀이 지난 11월 8일 태풍으로 인해 가옥과 주요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어 사망자만 1만여 명에 달하고, 약 428만 명이 피해를 입고, 34만 2천 명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공동 캠페인 관계자들이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결산 보고에 의하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성금 총액은 $66,291.63이다. 워싱턴교협 회장 최인환 목사, 김영천 구호위원장(평신도 부회장), 부회장 노규호 목사로 구성된 구호팀은 지난 2014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타클로반과 사말지역, 세부지역, 민도르섬 등을 방문해 쌀과 라면 등의 구호식량 전달, 교회 및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 전달, 다바오 신학교 신학생 생활비 지원, 어린이를 위한 구호품 전달, 현지 선교사 지원(GMS 이종백 선교사, 송호일 선교사, 정대섭 선교사, 이모세 선교사, 손인성 선교사, 신태식 선교사, 원주민 교회 및 목회자), 지역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세부 3개 교회) 등 알찬 구호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13. 제 40 차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총회

일시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 그레이스라이프한인침례교회(노규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열고 제 40대 임원진으로 노규호 목사를 회장으로 박상섭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인환 39대 회장이 사회를 맡은 총회에서 김성도 목사가 위원장을 맡은 공천위원회는 노규호 목사를 단독 회장후보로 추천했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노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상섭 총무의 총무 보고와 정인량 목사, 이병완 목사의 감사 보고, 이태봉 목사의 서기 보고, 홍덕진 목사의 회계 보고가 서면으로 통과됐다. 39대 임원진은 지난 1년간 총수입 12만9491.40달러와 총지출 12만6342.41달러를 기록, 3148.99달러를 잔액으로 남겼다. 노규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저를 회장

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명예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위해 열심히 신실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김범수 목사는 '승리하는 목회'를 주제로 설교했고 교협은 38대 회장을 지낸 김범수 목사와 39대 평신도 부회장인 김영천 집사와 재정이사장인 정세권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예경해 워싱턴교역자회장과 류응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필리핀태풍 하이앤 구호성금모금



40차 총회



부활절예배



부활절예배



부활절예배



부활절예배



성탄축하음악예배



자문회의



40차 총회

제 40대를 회고하며 - 화합, 능력, 확장 -



제 40대 회장 **노규호** 목사

교협 역사에서 한 회기를 맡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할 수 있는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신 사명과 은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협의 화합과 성장과 부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참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바울을 긍휼이 여기사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에게 주신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교협이 더욱 더 하나되고, 능력있게 일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협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교협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40대 회장 노규호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0대 임원단 (2014~2015년)

† 제 40 대 임 원

회장 : 노규호 목사(그레이스라이프한인교회 Grace Life Korean Church)
부회장(목사) : 박상섭 목사(예닮교회)
부회장(평신도) : 샘 정 집사(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
총무 : 손기성 목사(은혜장로교회) **부총무** : 양승원 목사(우리침례교회)
서기 : 한 훈 목사(갈릴리 순복음교회) **부서기** : 안현준 목사(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
회계 : 장호열 목사(리버뷰 침례교회) **부회계** : 이상수 목사(버지니아한인장로교회)
재정이사회이사장 : 김영천 권사(프랭코니아한인침례교회)

† 주요행사

1. 임역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

1차 회의 : 2014년 11월 8일(화), 2차 회의 : 2015년 2월 18일(목), 3차회의 : 8월 13일(목)
장소 : 워싱턴 목양교회(안성식 목사)
임시총회를 겸했던 이날 모임에서 공석이었던 평신도 부회장에 샘(워싱턴대한체육회장)이 추천돼 인준됐으며 다음 달로 다가온 성탄축하음악 행사 등 2015년 사업들이 발표됐다. 회장 노규호 목사는 “내년 6월 워싱턴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사흘간 워싱턴에서 미주체전이 열릴 예정임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를 돕는 차원에서 교협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한인교회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토의에 앞서 부회장 박상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이원희 목사(증경회장)가 ‘인정받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인환 목사(직전회장)의 기도, 김환희 여선교회연합회 회장의 성경봉독, 서기 한훈 목사의 한인교계 및 커뮤니티를 위한 기도, 총무 손기성 목사의 광고, 박석규 목사(12대 증경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2. 40주년 제13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4년 12월 7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홍원기 목사)
음악총감독 : 이 철 목사, 지휘 : 유 일 전도사, 반주 : 피아노 – 김희성 오르간 – 김정신
협연 : 피바디 기독학생회 오케스트라
참가팀 : 백유진(바이올린), 워싱턴 소리청(단장 김은수), Christian Women Singers(지휘 : 한미영/ 반주 : 김희성), 올네이션스교회(지휘 : 이철/ 피아노 : 최정원), 워싱턴침례대학교 찬양단(지휘 : 심주안/ 피아노 : 이지영), Loving Inspiring Sharing Choir (LISC, 지휘 : 유일/ 피아노 : 김희성), 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지휘 : 한미영/ 피아노 : 권순미), 메릴랜드 기독합창단(지휘 : 김승철/ 피아노 : 이성미), 열린문장로교회(지휘 : 이병희/ 오르간 : 이안나/ 피아노 : 홍현주), 와싱톤중앙장로교회(지휘 : 김영수/ 피아노 : 홍지나), 연합 찬양단(지휘 : 유일/ 오르간 : 김정신/ 피아노 : 김희성/ 피바디 기독학생회 오케스트라)
연합찬양단 : 46개 교회들로 구성, 40주년 기념창작곡 “하나되어”(김기영 작곡, 김범수 목사 작사)를 초연했고, 성탄축하음악예배에 드려진 헌금($2,413.00)은 워싱턴지역 미자립 교회에 사랑 나눔으로 사용되었다.

3. 40주년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일시 : 2015년 1월 5일(월) 오전 11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설교 : 김성도 목사(열방사랑교회)
1) 40주년, 공로자 표창(이숙원 장로, 박상근 장로, 김종택 장로, 신승철 장로, 이근선 집사, 최정선 권사, 진 이 권사)

2) 축사 :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
3) 40주년 창작곡 “하나되어”(작곡: 김기영, 작사: 김범수 목사)
4) 신년 감사예배, 헌금($2,128.00)은 워싱턴지역 미자립교회에 사랑나눔으로 사용됨
이날 예배는 총무 손기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애국가제창과 미국국가(권기선 집사)그리고 찬송가 296장을 부른후 샘정 집사(평신도 부회장)의 기도 테너 심용석 집사의 축가, 스카렛 혜경집사(여선교회 부회장)의 성경봉독후에 워싱턴 복음선교합창단(단장 김양식 목사, 지휘 심용석 집사, 반주 한성희 집사)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성도 목사(35대 회장, 열방사랑교회)의 설교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말씀제목으로 설교가 있었고 헌금후에 김영천 권사(재정이사장)의 헌금기도, 헌금 특별찬양으로는 메트로 폴리탄 여성합창단(단장 홍희자 권사, 지휘 김승철 반주 김은혜)이 있었고 특별 합심기도가 있었다. 특별합심기도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통일, 북한동포를 위해(손형식 목사) *미국의 부흥과 회복, 세계선교(이성자 목사) *교협의 연합과 섬김(김위만 목사) *여선교회 사업과 연합(김환희 집사) *경제회복과 직장에 은혜 임재(유시완 집사) *동포사회 성결과 가정의 평안(정영길 목사) *워싱턴동포 복음화(박성일 목사) *미주체전 성공과 동포사회 화합(안형준 목사) 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어 교협40주년 창작곡 ‘하나되어’를 함께 부른 후에 증경회장 연합회 회장 오광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 감사예배를 마치었다. 이날 설교를 한 김성도 목사는 어려서 자신의 이름 성도 때문에 격은 에피소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쉬워보이면서도 어렵다”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독교인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할 교회가 상한 생선냄새를 내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이유가 목회자에 실망하거나 언행일치가 안되는 교인들의 삶 때문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라며 “예수의 삶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바로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교협의 김영천 재정이사장이 이숙원·신승철·박상근·김종택 장로와 이근선 집사, 진 이·최정선 권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주동포사회에서 한인교회가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과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계와 한인단체들이 협력해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노력하자”고 인사하였고 워싱턴 소리청의 공연과 류응렬 목사의 환영인사와 이원상 목사의 폐회기도와 차용호 목사(37대 회장의 오찬 감사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치었다.

4. 미주 한인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출판기념회

일시 : 2015년 1월 18일 오후 5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주최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미주한인전국재단

5.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5년 4월 6일(주일) 새벽 6시

장소 : 7개 지역교회(메시야 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필그림교회, 휄로쉽교회)
1) 역사와 전통의 예배장소였던 워싱턴 DC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광장에서 각 지역교회로 옮겨 분산 개최하므로, 약 60개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참석
2)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헌금($13,502.00)은 워싱턴지역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에 사랑 나눔으로 사용됨

6. 40주년, 미국 대각성운동과 부흥의 유적지 탐방

일시 :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2박 3일
장소 : 뉴잉글랜드지역, Northampton First Church(Jonathan Edward), Dwight L Moody 생가와 무덤(Mt. Hermon, Northfield), Haystock Monument(건초더미 기도처, William College), 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Providencs, RI), Puritan Plantation(Plymouth)
1) Northampton First Church(Jonathan Edward)에서 증경회장단 주관으로 한인교회 최초로 예배드림(설교 : 이병완 목사)
2) 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Providencs, RI)에서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주관으로 한인 목회자 최초로 예배드림(설교 : 이원희 원로목사회장)
3) Dwight L Moody 생가와 무덤(Mt. Hermon, Northfield), Haystock Monument(건초더미 기도처, William College)에서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두 차례 가짐.
4) 재정이사(샘정, 김영천, 공명호, 정세권, 이인천, 김영호, 신승철, 송영성, 김정숙, 최정선, 이근선, 김재국)들의 특별 재정후원과 탑여행사, 뚜레쥬르제과 협찬
5) 참가인원 : 정인량 증경회장 외 44인

7. 제18회 미주체전

조직위원장 : 평신도부회장 샘 정 집사
주관 : 워싱턴대한체육회
협력 일시 : 2015년 6월 19(금)~21일(주일)
장소 : Herndon 지역(VA)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산하 10개 교회에서 워싱턴지역 여선교연합회(회장 김환희 집사)와 공조하여 3,000여 명의 선수단의 식사 지원

8. 네팔 지진 참사 이재민 구호성금모금

구호위원장 : 재정이사장 김영천 권사 –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투만두 지역에 7.9의 강도로 인한 80년 만의 지진 참사가 일어나 8,000여명의 사망자와 수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 **모금액** : US $75,143.70
전달기관 : 네팔 한인선교사 지진 참사 구호대책본부(대표 어준경 선교사) 외 네팔 선교사들에게 노규호 목사(40대 회장)와 김범수 목사(38대 회장)이 현지를 방문하여 구호성금을 전달하였다.

9.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5년 7월 21일(화)~27일(월)

장소 : 7개 교회 :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필그림교회, 휄로쉽교회, 올네이션스교회(목회자세미나)

강사 : 김범선 목사(인천 수봉산교회), 최창섭 목사(뉴욕 에벤에셀선교교회)

10. 제 41대 정기총회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는 26일 예닮교회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상섭 목사, 목사부회장에 손기성 목사, 평신도 부회장에 김영천 권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5명의 증경 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는 현 부회장 박상섭 목사(예닮교회)를 회장으로 단독 추천하고, 회원들은 투표 없이 박수로 회장선출을 마쳤다. 목사 부회장 선거는 현 총무 손기성 목사(은혜장로교회)와 김위만 목사(감사교회)가 후보로 추천돼 무기명 투표 끝에 손기성 목사가 71대 38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평신도 부회장은 유시완 후보(CBMC 동부연합회 회장)의 자진사퇴로 김영천 후보(40대 재정이사장)가 당선됐다. 박상섭 회장은 "지역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협의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선배 목사님들을 위해 공평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손기성 목사 부회장과 김영천 평신도 부회장도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습으로 내년 한 해도 성실히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총회는 회장을 뺀 목사 부회장과 평신도 부회장 선거가 경선구도로 치뤄지며 회원과 투표 자격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총회 전 사회를 맡은 노규호 목사(40대 회장)는 "회칙에 의거해 총회를 진행 하겠다"며 "회비를 낸 교회 만 총회 대의원 자격이 되니 교회 규모에 맞게 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목회자이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회비를 내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관례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투표권 부여 여부가 회비 납부 여하로 옮겨져 한동안 논쟁이 계속됐으나 워싱턴교협 등록 회원교회 출석자, 각 교회당 목회자 1인, 평신도 2인 등 최대 3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일단락 짓고, 총 121명의 목회자, 평신도가 총대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재정은 총수입 18만197.84달러, 총지출 17만9,690.05달러, 잔액 507.79달러가 보고됐으며 김양일, 김범수 감사는 이상 없음을 발표했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회칙개정안이 발의돼 임원회에 회칙개정위원회 구성을 일임하기로 가결했다. 총회에 앞서 박상섭 목사의 인도로 열린 예배는 김범수 목사의 기도, 이철 목사의 플롯 연주, 최인환 목사(39대 회장)의 설교, 합심 기도, 감사패 증정, 손기성 목사의 광고, 이원희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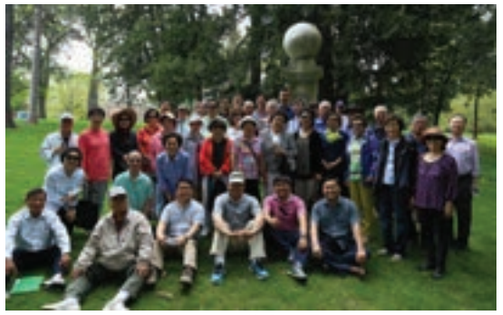
감사패는 최인환 목사, 샘 정 집사(평신도 부회장), 김영천 재정이사장 등 40대 임원들과 워싱턴여선교회연합회 김환희 회장에게 수여됐다.



네팔 지진피해 기금 재정보고서


성탄축하음악예배1


미국대각성유적지방문


D.Moody 생가와 무덤방문



미주체전 후원


복음화대성회 강사


정기총회


신년하례예배



복음화대성회 광고


복음화대성회 베다니교회

제 41대를 회고하며 -교협정체성확립, 나눔, 섬김, 연합 -



제 41대 회장 **박상섭** 목사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제 41대 교협은 '교협의 정체성 확립' 이란 핵심가치로 교협 내의 공동체인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과 원로 목사회 및 어르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41대 임원들은 '워싱턴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라는 사명아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선교를 통해 증인되는 공동체, 돌봄을 통해 치유하는 공동체, 섬김을 통해 하나되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신실하고 진실한 겸손함으로 예배, 선교, 돌봄,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증인, 치유,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이사야 32:8)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협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천국갈때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협이 되어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교협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 41대 회장 박상섭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1대 (2015–2016년)

† 제41대 임원

회장 : 박상섭 목사(예닮교회)
목사부회장 : 손기성 목사(은혜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 김영천 권사
총무 : 이정범 목사(에벤에셀장로교회) **부총무** : 한 훈 목사(갈릴리순복음교회)
서기 : 장호열 목사(리버류한인침례교회) **부서기** : 한세영 목사(메시야장로교회)
회계 : 김재학 목사(예수마을교회) **부회계** : 이태봉 목사(예드림교회)
재정이사장 : 이근선 집사(락빌한인장로교회)

† 주요행사

1. 제 14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5년 12월 4일(주일) 오후 6:00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제 14회 성탄축하음악예배가 2015년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14회 성탄축하음악예배의 주제는 '복음과 선교'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다시금 되새기는 성탄축하음악예배였다. 이번 축하예배에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단에서 '창세기에서 부활까지'라는 주제로 태권도 연기를 보여 주었고, 워싱턴 성극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의 짧은 연극으로 감동을 주었다. 이 날 순서는 Inpass 청소년 Orchestra(지휘 곽태조, 단장 정인숙), Christian Women's Singers(지휘 한미영, 반주 정희성), 복음선교합창단(지휘 심용석, 반주 한상희, 단장 홍장춘), Washington Korean Wind Ensenble(지휘 김홍렬) , 필그림 교회(지휘 김정환, 반주 김정신, 오르간 황순희), 그레이스 사모 합창단(지휘 이철, 반주 손희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지휘 박영애, 반주 주미향), 심주안(테너), 올네이션스교회(지휘 이철, 반주 손희라), 연합성가대(지휘 이 철, 반주 손희라)가 출연하였다.

2. 신년 하례예배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예배에는 사회 총무 이정범 목사, 기도 평신도 부회장 김영천 권사, 특송 메트로 폴리탄 여성합창단(단장 홍희자 권사), 헌금 특송 워싱턴 Wind Ensenble 단장), 합심기도 김범수 목사 인도, 기도담당자 김택용 목사, 김성도 목사, 배현수 목사, 최인환 목사, 김정숙 권사(벧엘청소년선교회 이사장), 문정주 목사(교역자회장), 축도는 이원희 목사, 2부로 신년하례식에는 사회 손기성 목사(부회장), 축사 박문규 목사(원로목사회 회장), 정영만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회장), 김용훈 목사의 환영사, 박상섭 목사(교협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올해 신년하례예배는 워싱턴교계의 영적부흥을 위한 도전이 있었던 신년하례 예배였다.

3.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6년 3월 27일(주일) 새벽 6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필그림교회, 메시야장로교회,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올네이션스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에서 동시에 열렸다.

박상섭 목사는 "새벽연합예배는 토마스 제퍼슨 광장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같이 각 지역 8개 교회에서 열린다"며 "예배시간은 동일하며 설교자와, 축도는 증경회장단이 맡고 사회는 각 교회 담임 목사가 진행한다"고 말했다.

4. 구국기도회

일시 : 6월 4일(토) 오전 11시

장소 : Thomas Jefferson Memorial Park(DC)

미국과 한국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촉구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6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섭 목사)가 이날 토마스 제퍼슨 기념광장에서 마련한 구국기도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와 함께 영적 각성이 촉구됐다.

박상섭 교회협 회장은 "한국의 현충일을 맞아 특별 구국기도회를 마련했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천 평신도 부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이원상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원로목사는 '여호와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1620년 102명의 청교도에 의해 기독교 이념위에 세워진 미국은 4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되기도 한다"면서 "미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제헌국회 첫 모임은 기도로 시작됐지만 현재의 한국은 축복의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서 "한국이 영적으로 회복되길 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목사(워싱턴 동산교회)는 합심기도를 이끌었고,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열정을 다함께 합심하여 기도했고, 이어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는 '한인사회 동포복음화 교회의 연합', 김영배 목사(킹스타운 침례교회)는 '대한민국의 복음화 평화통일', 서옥자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워싱턴 회장은 '한국과 미국 등 세계지도자들과 세계평화', 문정주 목사(커뮤니티교회)는 '한인동포 2세들과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성자 목사(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손형식 목사(필그림 교회)는 '미국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또 워싱톤 한인 윈드 앙상블(지휘 김홍렬 목사)은 특별찬양, 스칼렛 혜경 여선교연합회 부회장이 특송을 했다. 그리고 김택용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원로목사(전 교협회장)가 축도를 했다.

5. 예루살렘 성지 순례

기간 : 5월 10(화) 부터 – 5월 20일(금) 까지

순례지 : 요르단, 이스라엘(예루살렘, 갈릴리, 사해바다, 쿰란, 가이사랴빌립보, 유대광야, 느보산, 므깃도), 탑여행사의 후원과 인도로 13명이 참석하였다. 교협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해외 성지순례이었으며, 예수님의 발자취와 영적인 고향을 밟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욱 느끼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 박상섭 목사 부부, 고일찬 목사 부부, 이병완 목사, 김범수 목사, 이정범 목사, 김영숙 목사, 서은봉 목사 부부, 남상수 목사 등 13명(Top Travel 협조)

6.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워싱턴 교계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2016년 동포복음화 대성회'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 일원 교회를 순회하며 열렸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섭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성회에는 중국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출3:1-5)'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비즈니스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엄기영 목사는 매년 비즈니스 선교 BAM 운동 조직체인 IBA(International BAM Alliance) 서울포럼의 시작인 상하이 포럼을 조직했다. 2002년부터 담임을 맡고 있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3,0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며 중국 복음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선교사, 코스타(KOSTA,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 국제 강사로도 활동했다.

복음화 대성회는 28일(목) 오후 7시 30분 메릴랜드의 워싱턴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와 29일(금) 오후 7시 30분에는 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에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어 30일(토) 오후 7시 30분에는 버지니아의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에서 있었으며, 마지막 집회는 31일(일) 오후 6시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가졌다.

이번 복음화대성회에서 설교제목은 설교 주제는 28일(목)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29일(금) '가인의 문화에서 천국백성으로 살기', 30일(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31일(일) '거룩한 땅에서의 자유함'이었다.

한편 목회자 세미나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휄로쉽교회 버지니아캠퍼스(김대영 목사)에서 열렸다.

박상섭 교협 회장은 "이번 집회에서 강사인 엄기영 목사님을 통해 이민목회의 현장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라고 했고, "많은 성도들께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되고 교회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7. 제 42차 정기총회

42대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회장에 손기성 목사(은혜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는 31일 버지니아의 은혜장로교회에서 제 42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형위원회(위원장 차용호 목사)의 공천을 받은 손기성 교회협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통과시켰다.

1년 동안 교협를 이끌게 된 손 목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42대 협의회의 캐치프레이즈를 '대동단결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협'으로 정하고 출발하려 한다"며 "임기동안 지역 커뮤니티와 교회가,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로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이어 "교협이 지역 사회와 비교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목사 부회장에는 한세영 목사(메시야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에는 문선희 집사(은혜장로교회)가 단독 입후보해 박수로 인준됐다. 서기에는 류광현 목사(꿈이 있는 교회), 회계 한훈 목사(갈릴

리순복음교회), 부총무에 김영배 목사(킹스타운 침례교회)가 선임됐다. 총무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는 최인환 목사(버지니아)와 김범수 목사(메릴랜드)가 각각 선출됐다.

박상섭 교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장호열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및 서기보고, 이정범 총무의 총무보고, 이병완 김양일 감사의 감사보고, 김재학 회계의 회계보고, 임원선거, 신구 임원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학 회계는 제 41대 회계보고를 통해 총수입 8만 941.76달러, 총지출 8만 611.13달러, 잔액 230.27달러를 보고했다.

총회에 앞서 예배는 김범수 목사 대표기도, 워싱턴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인 스카렛 혜경 집사의 특송, 김택용 목사의 말씀, 교계와 미국, 한국 교회 및 위정자들을 위한 특별기도, 이병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한식요리연구원의 장재옥 원장은 이날 총회 참가자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했다.

한편 교협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12월 4일(일) 오후 6시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마련한다.



42차 총회사진



"교계 영적 부흥 위해 함께 힘쓰자"

신년하례예배



성탄축하음악예배



구국기도회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나라 돼야"

워싱턴교회협 주최 동포복음화대성회 성황
엄기영 목사, 생활 속에서의 신앙실천 강조

복음화대성회



복음화대성회





성지순례



제 42대를 회고하며 - 대동단결 그리고 부흥 -



제 42대 회장 **손기성**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탄축하음악예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찬양과 율동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450여 출연진들이 펼쳐낸 아름다운 공연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린 감동의 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드린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참석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교협의 연합과 소통, 미국 부흥과 세계선교, 한국 안정과 북한동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워싱턴 DC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예배는 예수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모인 교인들은 부활 찬송을 부르며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승리한 예수의 기쁨이 모든 교인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지역 교회와 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한인사회가 도움을 받는 소수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동참하고 함께 극복을 이루어가는 미국의 한 주류 민족으로 긍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이블 뮤지움 건립 기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신 워싱턴중앙장로교회를 비롯 여러 한인교회와 이민사회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게하신 우리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권유해주신 김장환 목사님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이사장 최정선 권사, 평신도 부회장 문선희 집사, 그리고 재정 이사로 섬겨 주신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 42대 회장 손기성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2대 (2016–2017년)

† 제 42 대 임원

회장 : 손기성 목사(은혜장로교회)

부회장 : 한세영 목사(메시야장로교회)

부회장(평신도) : 문선희 집사(은혜장로교회)

총무 : 이 범 목사(워싱턴만나교회)

부총무 : 김영배 목사(킹스타운침례교회)

서기 : 류광현 목사(꿈이있는교회)

부서기 : 심대식 목사(로고스찬양교회)

회계 : 한 훈 목사(갈릴리순복음교회)

부회계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재정이사 이사장 : 최정선 권사(제자들의 교회)

† 주요행사

1.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 EM 워십센터

성탄절을 3주 앞둔 4일, 예수 탄생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합창과 몸찬양의 대축전이 열린문 장로교회 EM 워십센터에서 열렸다.

음악예배에는 와싱톤 중앙장로교회, 열린문 장로교회,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휄로쉽 교회, 올네이션스 교회, 메시야 장로교회 찬양팀과, CCS(Christian Classica l Singers), LISC, LISYO,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합창단, 워싱턴 베다니 찬양단 등 10개 교회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가합창과 몸찬양, 연주 등으로 음악예배를 수려한 선율로 물들였다.

찬양제에 앞서 교협의 이범 총무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진이 봉사위원장의 기도에 이어 차용호 전 회장이 '소통'을 주제로 설교했다.

손기성 회장은 "이번 음악예배는 총감독 이철 목사와 준비위원들, 그리고 400여 출연진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장엄한 음악 예배"라며 "개인과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은 이 때에 음악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 '희망의 복음 메시지'가 울려 퍼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06 워싱턴중앙일보 인용)

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일시 : 2017년 1월 9일(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와싱톤한인교회(김한성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손기성)가 9일 버지니아 맥클린의 와싱톤한인교회(김한성 목사)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열고, 동포사회 복음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김영진 목사(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는 설교를 통해 "새해 동포사회가 성경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워싱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진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서 겸손해지게 하는데, 이유는 거만해지면 넘어지고 교만하면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동포사회 복음화와 이민사회 경제회복, 교협의 연합과 소통, 미국 부흥과 세계선

교, 한국 안정과 북한동포를 위해 합심기도했다.
신년하례식에서 손기성 회장은 "교계와 한인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펼쳐 나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년사를 밝혔다. 손 회장은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과 이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야장로교회, 베다니교회, 워싱턴성광교회, 올네이션스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와싱톤한인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필그림교회, 휄로쉽교회도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기 워싱턴 총영사는 "이민사회가 성장한 비결을 조사해보니, 핵심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며 "역경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천 회장은 "새해 교협이 동포사회와 미국사회에 기도의 불씨를 던지길 바란다"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소망을 제시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싱톤한인교회 김한성 담임목사는 환영인사에서 "새해 '스마일' 캠페인을 함께하자"며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고 당부했다. (2017.01.10 워싱턴중앙일보 인용)

3.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일시 : 2017년 4월 26일(주일) 오전 5:30
장소 : Thosmas Jefferson Memorial Park(DC)(준비위원장: 이 범 목사, 한 훈 목사, 박엘리사 목사, 이성자 목사, 권일도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손기성)가 16일 워싱턴DC 토머스제퍼슨 광장에서 부활주일 연합 새벽예배를 열고, 예수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다. 워싱턴지역 교인들은 이른 새벽 애난데일과 센터빌, 실버스프링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토마스 제퍼슨 광장으로 이동, 오전 5시 30분부터 예배를 가졌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광장에 모인 교인들은 부활 찬송을 부르며 2000년 전 새벽에 부활한 예수를 되새겼다.
이성자 목사의 예수 부활 선포로 시작된 예배는 문선희 교협 부회장 기도와 스칼렛 혜경 여선교회연합회장 성경봉독에 이어 교협 연합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박상섭 전 교협 회장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예수의 제자인 도마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계속 의심하다가 예수의 몸을 직접 만져본 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며 "우리도 까칠하게 따지며 의심하는 면이 있는데, 도마처럼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배 교협 부총무가 "살아난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도 매일 다시 살아난 예수의 증인이 되자"고 선언했다. 합심기도 순서에서 차용호 29대 교협 회장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 대표기도 했고, 홍희경 교협 재정이사는 워싱턴지역 교회부흥과 지역복음화, 이호진 프래션 선교회 이사장은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 한 훈 교협 회계는 바른 목회와 교회, 서옥자 한미국가조찬기도회장은 한국의 안정과 세계평화, 박성환CBMC 동부지회장은 이민사회와 직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레이스사모합창단 특송, 최정선 교협 재정이사장 헌금기도에 이어 손기성 회장은 "다시 살아나고 승리한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도는 이병완 32대 교협 회장이 했다. 새벽예배에는 김동기 워싱턴 총영사와 정세권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들도 참석했다. 김정숙 벧엘청소년선교회 이사장과 워싱턴베다니교회 청년들은 행사장 전기 시설 설치와 간식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7.04.16 워싱턴중앙일보 인용)

4. DC Bible Museum 건립 모금 캠페인

일시 : 2017년 8월 23일
장소 : 워싱턴 DC 성경박물관 건축 현장
참석자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손기성 목사, 이사장 최정선 권사, 재정이사 홍희경 장로 등
지난 8월 23일,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손기성 목사는 이사장 최정선 권사, 재정이사 홍희경 장로 등의 임원들과 함께 워싱턴 D.C. 성서 박물관 건축 현장을 방문해 3차 모금액과 기부자 명단을 전달했다.
성서 박물관의 회장인 캐리 서머스 목사는 성서 박물관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한인교회에 감사를 표했으며, 기부자 명단을 박물관의 1백만 이름 벽에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특별 기부자 명단에 한인교회들을 대표해 제42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를 명기하여 한인교회가 보여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3차 모금액 31,020불과 1,951명의 기부자 명단을 전달했으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한 3,375명과 61,517불에 대한 전달 확인서를 교환했다.
캐리 서머스 목사는 오는 11월 17일의 박물관 개관식에 워싱턴한인교협 임원들을 초대했으며, 앞으로 한인교회들이 박물관 시설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성서 박물관 건립 모금 캠페인을 마감한 손 목사는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손 목사는 "개관 후 3,375명의 후원자 명단을 성서 박물관 벽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박물관을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박물관 체험을 통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에 개관하는, 4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성서 박물관(Museum of Bible)은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두 블록, 의사당에서 세 블록 떨어진 지역에 있다. 홈페이지에는 "독창적이고, 국제적이고, 교육적인 기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성서의 역사, 내용, 그 영향 등을 체험토록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2017.08.25 크리스찬저널인용)

5.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사절단 강원기독총연합회와 MOU

일시 : 2017년 5월 15일
장소 : 우래옥(버지니아 애난데일)
참석자 : 손기성 회장, 서석근 단장, 워싱턴지역 교계 대표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기독교 홍보사절단(단장 서석근)이 13~15일 워싱턴지역을 방문해 한민족 캠페

인 및 기도회를 연다. 홍보사절단은 14일(일) 오전 11시 워싱턴성광교회(목사 임용우)에서 기도 요청과 홍보를 하고, 15일(월) 오전 11시에는 우래옥에서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손기성)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캠페인은 강원도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회장 서석근) 주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회장 전영현)가 주최하고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손기성)가 주관한다. (2017.05.11 워싱턴중앙일보 인용)

6.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7년 7월 26일 ~ 30일
장소 : 성광교회, 휄로쉽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필그림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초청 강사 : 강진상 목사(한국 평산교회 담임)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손기성 목사)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2017 동포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다. 26일에는 성광교회, 27일에는 휄로쉽교회, 28일에는 열린문장로교회, 29일에는 오전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오후 필그림교회, 30일에는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초청 강사는 한국 평산교회의 담임 강진상 목사였다. 강 목사는 1988년 무속 신앙이 강했던 경남 양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개척 당시 마을 주민은 교회에 돌을 던지고 분뇨를 끼얹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 평산교회는 선교원과 노인대학, 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나눔 커피숍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다.
마지막날, 강 목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0-37)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목회 비전이 교회 리더 몇 명의 한정된 비전이 아닌 전 성도의 비전이 되도록 오픈하고 나누어야 한다. 훈련된 평신도 리더와 함께 실천하는 섬김의 비전이 사역의 큰 원동력이 됐다. 쉬지 않고 배우며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세상과 분리된 목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집회를 주최한 워싱턴교협 회장 손기성 목사는 "집회를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않고 6개 교회에서 나누어 개최했기 때문에, 집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각 교회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어서 주의 은혜로 잘 마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협조해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7.08.02 크리스찬저널 인용)

7. 허리케인 하비 이재민 돕기 모금

일시 : 2017년 8월 31일
장소 :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 지역 한인 교회들
주최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내용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텍사스 휴스턴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지역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을 모아 피해지역을 위해 기금을 전달하였다.

모금액 전달식

일시 : 2017년 10월 29일
장소 : 워싱턴 DC 소재 미국 적십자사 본부
참석자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및 지역 단체 대표자들, 미국 적십자사 게일 맥거번 총재 등
내용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모금된 9만 5000달러의 허리케인 하비 수재의연금을 미국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게일 맥거번 총재는 한인사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8. 목회자 부부 힐링트립

일시 : 2017년 10월 2일(월) – 5일(목)
장소 : 멕시코 캔쿤
힐링트립은 제정이사장 최정선 권사의 정성어린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동포복음화대성회 강사이신 강진상 목사도 1천 불을 후원하며 진행되었다. 이 힐링트립은 목회자 부부 20여 가정이 참여했으며, 다녀온 분들은 이 힐링크립을 통해 큰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9. 비상시국 기도회

일시 : 2016년 11월 18일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손기성 목사)는 18일 메시아장로교회(한세영 목사)에서 고국의 안녕과 회복을 간구하는 비상시국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교협 증경회장단, 원로목사회, 프레션, 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 등 22개 단체와 성도들은 국가적 위기에 놓은 고국을 위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 동포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도우심을 부르짖었다.
이병완 목사(32대 교협 회장)는 '파수꾼 입니다'(사62:6-7)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어 한훈 목사(교협 회계)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대한민국의 종교지도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에 무관치 않음을 고백하며 목회자와 성도 구별 없이 먼저 회개하며 주의 사하심을 구하고(김양일 목사, 국제성경연구원장), 고국의 이 사태가 어떤 단체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옳지 못한 계획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간구하며(유시완 집사, CBMC 동부연회 전 회장), 정치적 목적을 나라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파국적 행위가 일체 중단 되게 하시고(서옥자 권사,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사태의 전말에 대한 조사가 바르게 이뤄져 국가의 안녕과 국가 경제와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게 하시고(혜경 스칼렛 집사, 워싱턴여선교회연합회장),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최정선 권사, 42대 교협이사장), 대통령 선거 갈등 국면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국을 기억하시고 굽어진 복음의 의

미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도록(최춘식 목사, 기독군인회 회장) 통성으로 기도했다. 교협은 이날 사용된 기도문이 세계중보기도센터의 기도문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2016.11.18 만나24 인용)

10. 제 43차 총회

일시 : 10월 30일(월) 오전 11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지난 30일 애난데일 소재 메시야장로교회에서 열린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제43대 총회에서 한세영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 선거에서 투표 참여가 가능한 대의원 수가 105명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정작 집계된 투표 수는 113표였던 것. 한 훈 목사 60표, 김재학 목사 53표였다. 의장이었던 손기성 목사는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 한 훈 목사의 부회장 당선이 공식화됐다. 그러나 다수의 대의원들은 "투표 결과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한 총대의원 숫자를 8표나 넘기는 수가 개표됐다면 당연히 그 선거는 무효이고 그 자리에서 재투표가 실시됐어야 한다"며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또 김재학 목사에 대한 징계가 공식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투표를 앞두고 자격에 큰 흠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상황은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증경회장들을 비롯한 교계 원로들은 43대 총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검토해 재발생을 막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등 규칙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크리스찬타임스 (http://www.kctusa.org)



평창동계올림픽



총회사진



총회사진



김동기 총영사 임원초대 상견례



목회자부부힐링트립 참가 목회자부부



바이블뮤지움 공사현장 방문



부활절연합새벽기도회-토마스제퍼슨 광장에서



자문위원간담회



동포복음화대성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제 43대를 회고하며 - '연합, 섬김, 부흥' -



제 43대 회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3대 회장으로 섬기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이에 저는 미국의 중심인 수도 워싱턴지역의 한인교회들과 한인사회를 어떻게 영적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워싱턴 지역의 영적부흥을 위해 힘써야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임원들과 어느 회기보다 더 많은 부흥회와 행사들을 계획하며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적부흥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하신 임원들과 협력해주신 지교회들을 통해,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교회사역만으로도 바빴던 저에게 워싱턴교협의 일까지 맡기셨음에도 아프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고, 교회 또한 부흥케 하셨다는 사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기관이나 교회연합기관을 섬긴다는 것은 명예이전에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는 십자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시며, 헌신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워싱턴 지역의 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연합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밴스 해브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더 많은 독창적인 솔리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더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워싱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 43대 회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3대 임원단 (2017~2018년)

† 제 43 대 임원

회장 : 한세영 목사(메시야장로교회)
목사부회장 : 한 훈 목사(갈릴리순복음교회)
평신도부회장 : 유응덕 집사(서울장로교회)
총무 : 이 범 목사(만나교회)
부총무 : 이규혁 목사(메시야장로교회부목사)
서기 : 임헌묵 목사(라이프교회)
부서기 : 김광근 목사(발자국교회)
회계 : 노대준 목사(새한장로교회)
부회계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재정이사장 : 문선희 집사

† 주요행사

1. 제 43대 임역원 및 자문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17년 11월 20일
장소 : 우래옥

증경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42대 사업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문위원단은 43대 교회협의회 임원들이 성실하게 지역교회를 섬겨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한세영 회장은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역교회를 섬길 것을 약속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며, 많은 지도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총무 이범 목사는 43대 사업으로 ▷제 16회 성탄축하음악예배(12월 3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신년감사축복예배 및 하례식(1월 8일,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한 포럼(2월 27일, 메시야장로교회) ▷ 조정민 목사 초청 복음화 대성회(3월 22일,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4월 1일, 메시야장로교회) ▷성지순례(4월 16-28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선교사마을방문(7월 30일, Black Mountain, NC) ▷목회자부부 힐링트립(8월 13-14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 협력, Middleburg 수양관) ▷임현수 목사 초청복음화 대성회(10월 16-18일) ▷워싱턴청소년 멘토링 컨퍼런스(10월 26일, 메시야장로교회) ▷제 44차 정기총회(10월 29일,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등을 소개했다.

2.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 영화관람 및 시사회 참석

일시 : 2018년 12월 3일
장소 : AMC Hoffman Center 22 (Alexandria, VA)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한국명 서서평) 미국인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12월 3일 개봉을 하며, 워싱턴지역교회협의회 임원들을 초청하고 시사회를 가졌다. 기독교 다큐 영화 사상 최단기간 1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서서평'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워싱턴 성도들에게도 '성공이 아닌 섬김'의 참 의미를 되짚어 보게 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서 선교사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 그리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전한다. 그는 성공이 아닌 섬김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제 16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7년 12월 3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주제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1부 예배는 사회 이 범 목사, 기도 유응덕 집사, 설교 류응렬 목사(제목 : 할렐루야(시 150))
2부 성탄축하음악예배 사회 : 이현애 사모(AM 13:10)
참여교회명단
△올네이션스교회(지휘 이철) '높이 계신 주께 영광'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지휘 장란주) '그가'와 '왕의 왕, 마음의 주님' △우리교회(지휘 김승철) '주는 내 목사시니'와 '주께서 함께 하리라' △LISC 합창단(지휘 유일) '주를 보게 하소서'와 '우리 위해 오신 주님' △메시야장로교회(지휘 최현실) '오 러브'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Washington Mongolian Church and Grace Church (반주 Uyanga) Deediin Deed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합창단(지휘 이철) '어린아기 예수'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열린문장로교회(지휘 이병희) '빛의 사자 들이여', '하늘 높은 곳에 영광' △와싱톤중앙장로교회(지휘 오홍주) '노래하세 크리스마스'와 '예수' △휄로쉽교회(지휘 성현창) '넉넉히 이기느니라'와 '오직 예수'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LISYO 유스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싱어롱'을 연주와 연합성가대(600명 : 참여교회 성가대와 참여한 성도 모두) 헨델의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늘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병완 목사(교협 32대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4. 6.25 참전용사 감사오찬

일시 : 2017년 12월 22일 오후 12시
장소 : 설악가든
제 43대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에서는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6. 25 참전용사 30여명을 초청하여 설악가든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5. 워싱턴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마련 협력시작

일시 : 2018년 1월 5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설악가든
워싱턴교협은 한인커뮤니티센터건립을 위한 기금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각 한인교회들에게 비치할 모금함 60개를 커뮤니터 건립준비위원회(간사 황원균)로부터 전달받아 지역교회에 전달하였다. 황원균 건립위 간사는 "워싱턴 한인사회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으며, 모금한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기 총영사도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과정 또한 뜻깊다"며,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 함께 공간을 일구고 소중히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6.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한 포럼

일시 : 2018년 2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주제 : 한인이민사회의 현실과 대응방안
이 포럼에서는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가 '이민 교회를 위한 설교',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는 '이민 교회 차세대를 위한 목회', 김영진 목사(베다니장로교회)는 '창조적 목양을 통한 부흥과 위기관리', 김영봉 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가 '성품의 공동체를 위하여', 허종욱 교수(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가 '평신도가 본 이민교회와 목회자상'의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또 이후 순서로는 김택용 목사(워싱턴신학교 총장), 정인량 목사(워싱턴북한선교회 이사장), 손형식 목사(필그림교회), 김성도 목사(열방사랑교회)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열린 예배는 한세영 목사(교협 회장)의 인도로 김택용 목사가 '위기해결의 주역 에스라'(에스라 7:10)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김광근 목사의 헌금기도, 오광섭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7. 재정이사회 모임

일시 : 2018년 3월 25일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재정이사장 : 문선희 집사
재정이사위촉 :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세영)가 9일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에서 재정이사 모임을 열었다.
교협은 제43대 재정후원이사장에 문선희 집사를 위촉했다. 재정이사는 김영호, 김영천, 김종택, 김홍, 박한신, 신승철, 신천성, 샘정, 양동출, 오금희, 오일웅, 윤봉희, 이현애, 임소정, 진이, 채완재, 최민석, 최정범, 최정선, 한정숙, 헤롤드변, 혜경스칼렛, 홍희경, 안나유, 피터델레닉, 랜짓체리앤, 로버트캐배노우, 셰리호 쓰씨가맡았다.
위촉식에 앞서 열린예배는 한훈 목사 사회, 노대준 목사 기도, 손기성 목사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손목사는 '재정이사의 삶과 누릴 복'을 주제로 말했다.

8. 제1차 워싱턴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8년 3월 22-25일
장소 :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정명섭 목사)
강사 :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주제 :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왜 예수인가?", "왜 구원인가?", "왜 기도하는가?", "왜 성령인가?", "왜 교회인가?", "왜 일하는가?"라는 설교제목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세상사람들과 같이 존재적 비관에 빠진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신앙인들에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9.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18년 4월 1일 오전 6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임헌묵 목사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예수부활선포로 시작된 예배는 인터내셔날 갈보리 교회 이성자 목사가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이어 합심기도가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으로 진행됐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의 영적부흥과 지역복음화(김양일 목사) ▷미국의 영적부흥과 청교도 신앙회복(프레션 조차희 사무총장) ▷한국교회의 회복과 한국의 안정 및 복음화(한미 국가조찬기도회 서옥자 회장) ▷차세대와 차세대 목회(문정주 목사)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 선교사들(북미주 CBMC 총연합회 박상근 회장)

10. 성지순례

일시 : 2018년 4월 16-28일(13박 14일)

참석인원 : 6명의 목회자 10명의 평신도

방문장소 :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집트 박물관, 시내산, 이스라엘 주기도문교회, 승천교회, 눈물교회, 겟세마네 동산, 만국교회, 시온문,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가묘, 베드로 통곡교회, 스데반문, 베데스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성, 분묘교회, 통곡의 벽, 맛사다 요새, 엔게디 황무지와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여리고, 요단강 세례.가이사랴, 갈멜산, 므깃도,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 가나혼인잔치 기념교회 갈릴리 가버나움,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 갈릴리 호수 유람선 탑승,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 요르단 펠라, 이벨 므홀라와 그릿시내와 디셉 있는 길르앗 산지, 마다바, 느보산, 와디럼, 페트라, 데가볼리 제라쉬, 원형극장과 제우스신전, 디오니 소스 신전, 아르데미 신전

11. 센터빌 노인아파트 화재돕기 성금전달

일시 : 2018년 5월 18일, 29일, 6월 19일

장소 : 한국일보

워싱턴교협은 워싱턴 한국일보와 복지센터와 함께 공동주관한 버지니아 센터빌 노인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위한 구호기금에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총 16개 교회가 참여하면서, 5월 18일 1차분 5000달러, 5월 29일 2차분 1만 400달러, 6월 18일 3차분 1,200달러를 한국일보에 각각 전달하였다.

12. 선교사마을 방문

일시 : 2018년 7월 30일

장소 : Black Mountain, North Carolina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세영 목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전도와 봉사활동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선교사들이 모여살고 있는 노스캐롤라

이나 주의 작은 마을 블랙 마운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1가정의 선교사님들 묘지를 들러 헌화하고 현재 살아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직도 북한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식을 나누며 교제했으며, 교협은 선교사들에게 꽃다발과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곳은 일제해방부터 길게는 20-30년 이상 교육과 의료를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그 간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8명 가까이 생존해 있으며, 그들의 가족 등 20여명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현재 선교사 마을에는 북한의 결핵퇴치와 간염예방 등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Christian Friends of Korea(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대표 하이디 린튼, CFK)와 북한의 우물파기 사업에 중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는 '웰스프링(WellSpring)'이 지속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1900년대 초 한국에 복음을 전한 유진 벨 선교사의 외증손으로, 4대에 걸쳐 온 가족이 북한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그의 맏형이자 유진 벨 재단의 대표인 스티븐 린튼 박사는 미국 5대 대북지원 단체 중 하나인 CFK를 함께 이끌기도 했다.

13. 제2차 워싱턴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18년 10월 16-18일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세영 목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의 책임 지구촌 복음화'를 주제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를 초청해 2018워싱턴지역 복음화 대성회를 가졌다. 북한선교에 앞장서던 임현수 목사가 지난 2015년 1월 북한당국에 의해 최고존엄모독죄와 특대형 국가전복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31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첫날 대성회는 김범수 목사의 인도로 최정선 권사의 기도, 설교 임헌묵 목사의 헌금기도, 워싱턴글로리아크로마하프찬양단(단장 그레이스 박 사모), 이범 목사의 광고, 정영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14. 청소년 멘토링 컨퍼런스

일시 : 2018년 10월 26일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성도 목사)이 26일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에서 10월 'Washington Youth Conference'를 열고 '가슴을 열고 꿈을 꾸고 세계를 품으라!' 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를 가졌다. 청소년재단 사무총장(김범수 목사)은 "청소년재단과 교협간에 협력관계를 통해 워싱턴의 기독청소년들에게 지도력개발과 자아성취를 위한 목적을 위한 이 행사를 열었다" 고 했다. 첫 번째 멘토로 나선 문정주 목사(커뮤니티교회)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꿈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 관계, 확신, 미래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내딛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멘토 조차희 박사(미해군 연구소 근무)는 지도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경험

을 토대로 참석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 제 44차 정기 총회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예배는 한 훈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배현수 목사(36대 회장)의 기도, 한훈 목사의 교계와 미국과 한국교회 및 위정자들을 위하여 합심기도, 김상묵 목사(9대 회장)는 '교회의 표상'(롬5:14)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한세영 목사는 워싱턴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휄로쉽교회,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올네이션스교회, 손기성 목사(42대 회장), 재정이사장 문선희 집사, 평신도부회장 유응덕 집사, 재정이사 김영천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부 총회에서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44대 신임회장에 한 훈 목사와 부회장에 김재학 목사, 평신도 부회장에 진 이 권사가 각각 선출됐다.

44차 정기총회에서는 현 부회장 한 훈 목사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의 박수로 선출됐다. 이어진 부회장 선거는 이 범 현 총무와 김재학 목사가 경선하여 김재학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서기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회계 박희숙 목사(조이풀 선교네트워크)를 회장이 임명하였고, 감사는 버지니아 지역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메릴랜드 지역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를 공천하여 임명하였다.



44차 정기총회


43대임원


44차 정기총회



증경회장단 자문회의


복음화대성회 장종택목사


복음화대성회강사 장종택목사


증경회장단 평가회



복음화대성회강사 조정민목사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복음화대성회강사 임현수목사


신년감사예배

제 44대를 회고하며 - 힐링, 교육, 교제 -



제 44대 회장 **한 훈** 목사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봉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신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증경회장님들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믿음과 기도로 단단한 반석 위에 교협을 세우신 것에 존경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44대 교협 회장 이하 임원들은 교협을 세우시고 지켜오신 전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44대에는 목회자의 영적 재충전과 교제, 그리고 목회하면서 당하는 영적 고통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협에 봉사하면서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알지 못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강에서 노를 젓다가 큰 바다를 범선으로 항해하는 큰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와 함께 한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동거 동락하며 같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주신 임원들은 저의 새로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모든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동안 앞서 수고하신 증경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서 지역에 모범이 되며 영적 진리로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44대 회장 한 훈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4대 (2018–2019년)

† 제44대 임원

회장 : 한훈 목사(갈릴리순복음교회)
부회장 : 김재학 목사(예수마을교회)　**평신도 부회장** : 김진이 권사(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총무 : 이범 목사(만나교회)　**부총무** : 김국민 목사(알링턴한인침례교회)
서기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회계 : 박희숙 목사(한길선교교회)　**부회계** : 정진영 목사

† 주요행사

1. 워싱턴교협 임역원 및 자문위원 간담회

일시 : 2018. 11. 20.
장소 : 워싱턴신학교(이사장 문선희)

이 날 예배는 배현수 목사의 기도, 김성도 목사의 '고난의 축복'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서 김성도 목사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비판을 이기며,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다.

말씀을 전한 김성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댓가를 치룰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자기의 희생, 외로움, 비판, 피로 그리고 가족의 희생을 말한다고 전했다. 증경회장 정인량 목사는 12월 정기총회를 알리며 한 해 동안 아름답고 조화롭게 성장을 이루어 감사하며, 새 증경 회원인 한세영 목사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44대 회장인 한 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44대 교협 임원진은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을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며, 증경회장단의 많은 격려가 기둥과 보호막이 되도록 도움 주기를 당부했다.

2.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18. 12. 2 오후 6:00
장소 : 워싱턴 필그림 교회(손형식 목사)

워싱턴 교회들이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일제히 알렸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 훈 목사)가 2일 버지니아 버크 소재 워싱턴필그림교회에서 마련한 제 17회 성탄축하음악예배는 6개 교회, 4개 찬양단이 참석해 공연했다.

축하 예배에서 10명의 소년, 소녀 학생들로 구성된 꾸미꾸미 중창단은 소고와 부채, 율동으로 '원더플 코레아'를 부르며 관객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다. 또 우리교회는 4명의 소녀 코러스단이 리드하는 '주만 따르리(Altman Arthur)'란 곡에서는 특유의 흑인성가 분위기를 내면서 객석과 호흡했다. 참석자들은 워싱턴 필그림교회 찬양대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부를 때 절로 손뼉을 움직였고, 메시야 장로교회가 '영광, 영광'의 마지막 하이 피치를 울릴 때는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연합 합창대가 헨델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전원이 기립했다.

김재동 목사는 "성육신의 의미"로 말씀을 전했으며, 예배 헌금 순서에서는 33명의 워싱턴 몽골교회 청년들이 몽골찬송인 어린 아기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유진씨가 '하늘가는 밝은 길이', '천사들의 노래가'를 연주했다.

한 훈 목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축하예배에 많은 교회들이 참석해 영광 돌린 것에 감사한다"며 "교협은 계속해서 교회들이 협력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나가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3.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식.

일시 : 2019. 1. 7. 오전 10:00
장소 : 워싱톤순복음제일교회(윤창재 목사)

예배는 애국가와 미국국가 제창으로 시작했다. 이어 신승철 탑여행사대표가 “열성을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음을 회개한다”며 “새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말씀안에 거하고, 선교에 앞장서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축사에서 김동기 워싱턴총영사는 “워싱턴한인사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선행을하고, 용서하고, 남을 정죄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말려야한다”며 “신앙의 가정을 꾸리고, 한인 1세들의 신앙을 차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도 힘써달라”고말했다.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찬양 뒤 류응렬과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는 ‘나의 힘줄 여호와’를 주제로 설교했다. 헌금 찬양뒤 참석자들은 미국교회 부흥과 선교, 워싱턴한인교회와 한인사회, 대한민국교회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 한훈 교협회장은 한세영 43대 교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병완 목사 축사에 이어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엘림콰이어가 축하송을 불렀다.

4. 목회자 부부 mentoring camp

일시 : 2019. 2월 18일 – 2월 20일(2박 3일)
장소 : holiday inn hotel and suites ocean city.
목사부부의 참여로 말씀을 나누며 영적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과 해변의 바람을 가슴깊이 들여 마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새롭게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 부부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이하 교협)와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서울장로교회 등 지역교회들과 교협 평신도 부회장 진 이 권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전체 임원들의 협력 가운데 총무 이범 목사가 총진행을 맡았고,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찬양 인도는 이규혁목사, 김국민 목사, 곽재경 목사가 담당하였고, 기도 모임은 윤창재 목사가 인도하였다. 이들의 헌신으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개회 예배 및 찬양 모임은 이규혁 목사, 김국민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였다. 회장 한훈 목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캠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서로 배우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을 권면하였다.

5. 부활절 연합 예배

일시 : 2019년 4월 1일
강사 : 한세영 목사(메시야 장로 교회)
장소 : 메시야 장로 교회
2019년 부활절 주제는 ‘부활의 기쁨, 워싱턴복음화’로 정하였다.
한세영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예배 사회는 부회장 김재학 목사, 박엘리사 목사의 부활의 선포, 평신도부 회장 진 이 권사의 기도, 여선교회 회장 홍광순 집사의 성경봉독, 메시야연합찬양대의 찬양, 회계 박희숙 목사의 부활의 증인 선언, 합심기도, 그레이스

사모합창단의 봉헌 특송, 재정이사장 문선희 집사의 봉헌 기도, 총무 이 범 목사의 광고, 전 교협 회장 김재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6. 목회자 워크샵.

일시 : 2019. 4. 19.
강사 : 김용훈 목사.
장소 : 열린문 장로교회.
0대, 40대을 중심으로 선교와 전도 전략 강의

7. 강원도 산불 이재민 구호 성금.

일시 : 2019. 5. 30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훈 목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 구호성금 6,128달러를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회장 성호경 목사) 산하 산불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철재 장로)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소식을 접한 워싱턴 교협은 한국일보와 함께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마련된 성금은 지난달 14일 교협 부회장 김재학 목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전달했다.

8. 교회협의회 특별기획 세미나.

일시 : 2019. 5. 23 오후:4:00
강사 : 최윤식 박사(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장소 : 올네션스 교회.
미래 학자의 통계와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으로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제시함으로 신앙을 반석위에 올려 놓으며 기본적 생활을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면서 혼돈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9. 교회협의회 특별 세미나.

일시 : 2019. 6. 18. 오전: 11:00
강사 : 박성균 교수(나인+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 광신 대학교 초빙 교수)
장소 : 메시야 장로 교회.
주제 : “자녀의 성격이 보이면 미래을 준비할 수 있다”

10. 교회협의회 특별 세미나.

일시 : 2019. 7. 6. 오전 11:00
제목 : 킹덤 처치 세우기 세미나.
강사 : 이종필 목사(세상의 빛교회 담임)
장소 : 올네션스 교회.
교회의 중간세대를 세우는 목회전략을 주제로 5가지 중요사역을 강조한 세미나였다. 그 5가지

는 첫째는 설교, 둘째 소그룹모임, 셋째 기도회, 넷째 봉사, 다섯째 제자훈련이다.
"젊은이들이 쉽게 납득하고 받아 들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경각심을 갖게하는 세미나였다.

11. 붕어 빵 전도와 박봉남 장로 초청 전도 및 집회.

일시 : 2019. 8. 3. 오전 11:00
강사 : 박봉남 장로.
장소 : 코이너스 영생 장로교회(정명섭 목사)
전도의 방법보다는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모습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전도의 능력

12. 복음화 대성회.

일시 : 2019. 9. 12 -14. 오후 7:00
강사 : 이만호 목사(뉴욕 순복음 안다옥 교회)
장소 : 메시아 장로교회(한세영 목사)
부흥회 마지막날인 14일 이만호 강사는 기적체험과 전도를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에 80만명이 출석하는 세계최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공업고등학교를 중퇴한 조 목사님이 그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했기 때문"이라며 "목회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3. 증경회장 평가회

일시 : 2019. 10. 17. 오전 11:00
장소 : 강촌식당(센터빌)

14. 워싱턴 지역 교회협의회 정기 총회.

일시 : 2019.10.28. 오전 11:00
장소 : 워싱턴지구촌교회(임 광 목사)
예배는 차용호 목사(37대 회장)의 기도, 최윤환 목사(10대 회장)의 '크리스찬에게 불어치는 파라독스(역설)' 를 주제로 한 설교, 노규호 목사(40대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임종길 목사(25대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임원선거에서는 회장 김재학 목사, 부회장 이범 목사, 평신도 부회장 조한자 권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 전부터 뜨겁게 달아온 부회장 선거는 총대 확인부터 투표용지 배부까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번의 투표용지 배부 끝에 진행된 투표는 총대 171명이 참여해 45대 임원진은 총무 이정범 목사, 부총무 이택래 목사, 서기 임헌묵 목사, 부서기 김찬영 목사, 회계 박희숙 목사, 부회계 양경욱 목사, 감사 차용호 목사, 안효광 목사 등이다.

감사보고에 의하면 10월 20일 현재, 입금 67,008.97달러, 지출 65,318.86달러, 잔액 1,607.00달러이다.

부활절 메세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한훈 목사


제 44대 교협회장 한 훈 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베드로전서1:3-4)
죽은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소망있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거듭난 생명을 허락하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부활절새벽연합예배(메시아장로교회)



총회사진


총회사진


44대증경회장자문회의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신년하례예배



목회자워크샵


신년하례예배


복음화대성회



신문 기사



복음화대성회광고


멘토링캠프


멘토링캠프

제 45대를 회고하며 - 치료, 회복, 다시시작 -



제 45대 회장 **김재학** 목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45대의 임기는 44대 기간에 발생한 팬데믹이 제가 시작한 45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44대보다는 조금 원활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교회와 사회적인 모임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교협이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임원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45대가 목표로 했던 것은 치료, 회복, 그리고 다시시작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남긴 흔적들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방황, 사회적인 고립, 경제불황, 그리고 교회의 영적침체들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대한 것 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갖는 실망감과 낙심은 심각한 정신적인 방황으로 사회적인 큰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13:3) 이 말씀이 45대 교협을 대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칭찬보다는 비판을, 협력보다는 외면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45대 회장 김재학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5대 임원단 (2019~2020년)

† 제45대 임원

회 장 : 김재학 목사(예수마을교회 & 블레싱교회)
목사부회장 : 이 범 목사(워싱턴만나교회)
평신도부회장 : 조한자 권사(로녹한인침례교회)
총 무 : 안효광 목사(마하나임교회)
부총무 : 이택래 목사(린치버그한인교회)
서 기 : 임헌묵 목사(라이프교회)
부서기 : 김찬영 목사(워싱턴비전교회)
회 계 : 박희숙 목사(한길선교교회)
부회계 : 양경욱 목사(크라이스트커뮤니티교회)
재정이사장 : 문선희 이사장

† 주요행사

1. 워싱턴연합기도회

일시 : 11월 14일
장소 : 올네이션스 교회 오후 7시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협을 세우기위해 워싱턴의 기도 동역자들과 기도기관들, Prassion,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워싱턴교역자회, 워싱턴여선교회연합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도하였다. 워싱턴 교협이 주최하여 연합기도회를 주도하는 기도회였다.

2. 제 18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12월 1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열린문교회(김용훈 목사)
주제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탄자니아에 전하자!
아기예수님의 사랑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전하는 선교 성탄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참가 교회는 열린문 장로교회, 우리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카르페디엠 합창단(단장 임지혜), 그레이스오토하프단(단장 임지혜), 테너 심용석, 소프라노 바베즈, 피아니스트 김애자,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말씀에는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감사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3. 45대 교협 출범 감사예배 및 증경회장 자문회의

일시 : 2019년 12월 8일, 오전 11:00
장소 : 워싱턴신학교(이사장 문선희)
예배는 안효광 목사의 사회, 유관일 장로의 기도, 이정범 목사의 성경봉독, 정인량 목사의 설교 "그 영광을 보라(요1:1-14), 테너 심용석, 양어부 목사의 특별연주, 김재동 목사(증경회장단 회장), 김성도 목사(워싱턴청소년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격려사, 정우용 목사(세계예수교장로교회 부총회장), 조차희 집사의 축사, 임종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회장 김재학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협"이 되도록 충성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4. 재정이사회 워촉

일시 : 12월 20일 오전 11:00
장소 : 워싱턴신학교(이사장 문선희)
예배는 사회 이범 목사, 한세영 목사의 기도, 홍광순 집사의 성경봉독, 김영란 사모의 특별연주, 한훈 목사의 '나를 통해서(마5:1-16)의 설교, 총무 안효광 목사의 광고, 이병완 목사의 권면, 차용호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재정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헌묵 목사의 합심기도, 최윤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재정이사회는 100명의 재정이사회원을 세우는 폭넓은 재정이사회원 확장을 계획하였다.

5.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일시 : 1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 와싱톤한인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주제 :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협

설교 류응렬 목사 "나의 심장(몬1:12)", 합심기도, 한상우 목사 고유경 목사, 김범수 목사, 박상섭 목사, 문선희 집사의 합심기도 후 김재학 회장이 큰 절을 올리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협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천 전 교협 평신도 부회장, 임소정 패어팩스 시의원, 정세근 동부 CBMC 회장의 축사,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이사장 변성림, 사무총장 조지영의 복지센터의 소개가 있었다.

6. 목회자 부부 멘토링 캠프

일시 : 2월 3일 -5일

장소 : 오션시티

목적 : 목회자 가정의 위로와 회복과 교회 부흥은 사랑

후원교회 : 베다니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등 지역교회들과 교협 문선희 집사(기도&재정이사장), 조한자 권사(평신도 부회장)

개회예배는 사회 임헌묵 목사, 부회장 이범 목사의 기도, 김영진 목사(베다니교회 담임)의 설교, 총무 안효광 목사의 광고가 있었다. 김영진 목사는 "참사랑을 말씀하며 주님의 참 사랑으로 회복된 목회를 해나가자."고 전하였다.

첫날 저녁 멘토링은 김용훈 목사가 "목회자는 자기 목소리로 설교해야 된다고 했고, 황경애 사모의 멘토링 시간에는 고난후에 유익한 축복이 온다고 위로를 주었고, 윤호영 목사(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전하였다. 김윤옥 사모(베다니장로교회)는 겸손으로 성도를 섬길 때 그 섬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다. 다음 번 캠프가 기대 된다.

이번 목회자 부부 캠프에서는 사랑과 헌신, 믿음과 인내, 섬김과 용서가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에 큰 부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7.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4월 12일(주일) 새벽 6시

장소 : 비대면 zoom 예배

Covid 19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계획되었던 부활절새벽연합예배는 줌으로 드리게 되었다. 이 줌 예배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겪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교협도 갑자기 일어난 Covid19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있는가에 대한 숙제를 주었고, 결국 사회적, 국가적인 정책에 따르는 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비대면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범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김재학 목사(회장)의 부활의 선포, 찬송150장 '무덤에 머물러'에 이어 임헌묵 목사(서기)의 기도, 박희숙 목사(회계)의 성경봉독[요한복음 11장 17-26절]에 이어 김재학 목사의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김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성경구절을 전하면서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합심기도로 COVIC-19 감염자. 가족. 의료진들을 위하여 김찬영 목사(부서기), 워싱턴지역 교회와 한인사회를 위하여 안효광 목사(총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하여 양경욱 목사(부회계), 미국, 전세계나라를 위하여 이택례 목사(부총무), 워싱턴 교협과 선교사를 위하여 문선희 집사(기도&재정이사장) 등이 기도 하였다. 안효광 목사(총무)의 광고에 이어 찬송가159장 '할렐루야 우리예수'를 부른 후에 김재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8. 워싱턴지역동포복음화대성회 및 구국기도회

일시 : 2020년 10월 1일 - 10월 3일

장소 :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이성자 목사), 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주제 : 말씀으로 위기극복과 하나님의 축복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재학 목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동포복음화 대성회 및 연합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첫날은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에서 이성자 목사를 강사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2일에는 베다니장로교회에서 김영진 목사를 강사로 "이제 곧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류응렬 목사가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복음화대성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함께 진행된 구국기도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의 소멸과 치유,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김재학 목사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지만 그럴수록 더욱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치유와 회복의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9. 제 46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10월 26일,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이하 워싱턴교협)는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담임)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제46대 회장에 이범 목사, 부회장에 임헌묵 목사를 선출했다.

1부 예배는 배현수 목사(제36대 회장)의 기도,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단장 김영란 사모)의 특별 연주, 이원희 목사(제21대 회장)의 설교, 김동운 목사(워싱턴쥬빌리구국기도회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제38대 회장), 이정범 목사(워싱턴한인교역자회 회장), 문선희 집사(기도&재정이사장), 한상우 목사(프레시안 지도목사)의 특별 기도, 감사패 전달, 안효광 목사(총무)의 광고, 이병완 목사(제32대 증경회장단 회장)의 축도순으로 진행됐다.

이원희 목사(제21대 회장)는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한다. 소금의 사명은 맛을 내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총회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문제(과거이력)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새 회장의 가부를 묻는 투표에서 총대 80명 중 47표의 찬성을 받아 이범 목사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 투표에서는 임헌묵 목사가 당선됐다.

COVID-19로 교협 임원 및 순서자만 참여하는 온라인 줌(Zoom) 정기총회를 준비해 왔으나 부회장 후보가 2명이어서 경선을 위해 대면 총회로 전환했으며, 총대 115명이 참가했다.



46차 정기총회



임원사진



부활절새벽연합예배zoom



신년하례예배



목회자부부멘토링



목회자부부멘토링



복음화대성회



재정이사회



자문회의 및 임원출범예배



성탄축하음악예배

제 46대를 회고하며 -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협 -



제 46대 회장 **이 범** 목사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46대 회장으로 섬길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코비드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46대를 접어들며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저희들에게 소망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신말씀에 근거하여 표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협"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제가 42, 43, 44대 회장님들과 총무로 3년간 섬기면서 노하우를 배운점도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3년동안 많은 지역교회 목사님들, 지역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로목사 월례회에 매달 차편으로 봉사 해 드리면서 주님사역에 헌신하셨던 선배목사님들로부터 신앙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어권 청소년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청소년들이 은혜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Covid-19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심신을 각성하기 위하여 단축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게 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협력교회와 이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46대교협"으로 마무리할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송구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 46대 회장 이 범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6대 임원단 (2020~2021년)

† 제46대 임원

회장 : 이 범 목사(워싱턴만나교회)
부회장 : 임헌묵 목사(라이프교회)
총무 : 심대식 목사(로고스찬양교회)
서기 : 최재종 목사(애난데일한인장로교회)
회계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재정이사장 : 문선희 이사장
평신도 부회장 : 홍진성 장로(서울장로교회)
부총무 : 김택수 목사(컬페퍼한인침례교회)
부서기 : 정영길 목사(워싱턴한인침례교회)
부회계 : 이영희 목사(물댄동산교회)

† 주요행사

1.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20년 12월 6일 오후 6:00
장소 : 온라인(Youtube)
회장인 이범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음악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한다"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성탄의 기쁨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예배에서는 김양일 목사(증경회장단 회장)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이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했다.
올해로 19회째인 이번 예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특별히 지난 18년 동안 성탄축하음악예배에 참가한 각 교회별 찬양 영상을 모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열린문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올네이션스교회, LISC합창단, 메시야장로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몽골교회, 복음선교합창단, 휄로쉽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그레이스사모합창단, 우리교회,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필그림교회 찬양이 영상으로 방송되었고, 연합합창으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쳤다.

2.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식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 비대면 예배(Youtube와 Zoom)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 범 목사)는 4일 2021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하며 워싱턴교계와 한인사회가 주 안에서 하나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임헌묵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문선희 집사(재정이사장)의 기도, 이영희 목사(부회계)의 성경봉독, 설교, 최재중 목사(교협 서기)의 특별찬양, 박엘리사 목사(회계)의 헌금기도, 합심기도, 심대식 목사(총무)의 광고, 김양일 목사(증경회장단 회장)의 축도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 범 목사는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회개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수 있다. 묵은 것 옛것을 뒤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베풀며 살아가는 승리의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인사했다. 김재동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 8:28)이라는 설교로 코로나는 하나님의 쉼표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자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차용호 목사(37대 회장)의 인도로 ▷한국과 미국을 위해 서옥자 교수(한미국가조찬기도회 회장) ▷For Revival of Korean-American Church 권단열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청소년과 다음세대를 위해 김성도 목사(35대 회장/ 워싱턴청소년재단 이사장) ▷세계 선교와 워싱턴지역교회들을 위해 윤창재 목사(워싱톤순복음제일교회) ▷ For Recovery from Covid-19 Pandemic 데이빗 장 목사(열린문장로교회)가 합심기도했다.
이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하례식에서 권세중 총영사는 동포사회에 영혼의 안식과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오심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스티브 리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장은

우리 동포사회의 교인들과 동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더욱 발전하는 워싱턴교계와 한인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오쾌한 목사(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장)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자고 축사했다.

3.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시 : 2020년 4월 4일(주일) 오전6시
장소 : 서울장로교회(강선웅 목사) 비대면예배(Youtube와 Zoom)
교협의 대표적인 행사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었으나 올해는 대면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양광호 목사(페어팩스 한인교회)가 '부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박상근 장로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문선희 집사가 워싱턴교협과 선교사를 위해, 김택수 목사가 교회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서옥자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 그리고 한상우 목사가 북한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하였다.
예배는 유튜브(youtu.be/EAv74o5UVxc)와 줌(zoom)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4. 목회자 세미나

일시 : 2021년 6월 14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오건 목사)
강사 :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
주제 : 바른 목회자상
세미나에서 이용걸 강사는 "목회자들이 좀더 소명감이 분명하고 목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가 목회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스스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목회자야 말로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목회에는 지름길이 없다. 목회는 이론이 아니다. 목회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목회자가 먼저 희생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순교를 각오하고 선을 넘어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에 미쳐라. 변명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등이다.
박종교 장로(영생교회 원로장로)의 간증 '가본 목회자상'에 이어 전도 훈련 소개의 시간이 김경원 장로(초대 목훈 위원장)의 '전도폭발훈련'에 대해 있었고, 김요셉 장로의 '생명훈련' 프로도 진행됐다.

5. 영어권 청소년 부흥회

일시 : 2021년 7월 30일 – 7월 31일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영어권 청소년 부흥회는이범 목사의 인도로 Jay Ahlemann목사의 설교와 Mark Dewayne Moseley 전 워싱턴 레드스킨 풋볼 선수이자 NFL MVP수상자가 간증에 나섰다. 이들 두 강사의 메시지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오늘 이시간 믿지 않은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라는 초청이었다. 이어 31일 워싱턴신학대학/ 대학원(이사장 문선희)에서 지미 채와 티미 조 DTS 열방대학 리더들은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로 참석자들의 영혼을 깨웠다.
지미 채 리더는 먼저 우리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차세대를 잘 보호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또한 광야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함께 선교단체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지금 부흥이 오고 있다.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교회와 젊은이들이 준비되길 바란다.

6. 단축마라톤대회

일시 : 2021년 7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버크 레이크 공원
협력 : 워싱턴마라톤클럽
이날 20명의 등록자 중 18명이 완주를 했다. 특히 참가자의 안전과 완주를 위해 마라톤클럽의 페이스 메이커들이 함께 참여해 40여명이 시계방향으로 달리고, 비슷한 인원의 사람들이 반대방향으로 걸으며 이른 아침 버크레이크 공원을 걷고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상은 여성참가자는 5등(아나 황, 이수지, 이소진, 노은영, 에스더 황)까지, 남성 참가자는 9등(김택수, 최정근, 이준, 장수덕, 김영준, 이범, 권세중, 염은호, 스캇 황)까지 수여했다.

7. 증경회장 평가회

일시 : 2020.10.19.. 오전 11:00
장소 : 한강식당
이범 목사는 코비드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46대 교협은 특별히 화목했다. 부족한 저를 도와 교협을 이끈 임원들과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증경회장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한훈 목사(증경회장단 총무)의 인도로 손기성 목사(42대 회장)의 기도에 이어 김양일 목사(증경회장단 회장)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롬8:28)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차용호 목사(37대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증경회장단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았다"며 "마지막까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8. 원로목사회 초청 오찬예배

일시 : 2021년 10월 5일
장소 : 서울장로교회(강선웅 목사)
이범 목사는 "원로 선배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그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원로목사회장 오쾌한 목사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이범 목사에게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가자"며 고령의 회원들을 격려했다.

9. 워싱턴 지역 교회협의회 제 47차 정기 총회

일시 :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필그림교회(오중석 목사)

총회 예배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박석규(제 12대 회장) 목사가 설교하였고, 총회에서는 이범 목사의 사회로 배현수 목사의 기도, 버지니아소리교회, 하나로교회, 워싱턴생명나무교회의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고, 최재종 목사의 회원 점명, 이범 목사의 개회 선언후 서기, 총무, 감사, 회계 보고와 임원 선거의 순서와 김재동 목사의 폐회 기도로 총회를 마쳤다.

차기 회장 후보가 되는 부회장 선거는 심대식(로고스서머나 교회, 현 교협 총무) 목사와 이태봉(예드림 교회, 현 워싱턴한인교역자회장) 목사가 경선했고 심대식 목사가 선출되었다. 임헌묵 회장은 락빌 한인장로교회 이성훈 장로를 평신도 부회장으로 추천했고, 공천위원회에서는 회계 감사로 버지니아는 배현수 목사, 메릴랜드의 정영만 목사를 인준했다. 46대 교협의 재정은 전년 이월액 1,052.00달러이고, 총 수입 166,757.88달러 그리고 총 지출 162,353.21달러로 잔액은 5,456.67달러를 보고했다.





46대 재정이사회



재정이사회 예배



46대 임원



증경회장단 평가회



증경회장단



목회자세미나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영어권청소년집회



지역교회후원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지역교회 오만불후원전달식



원로목사초청오찬



단축마라톤대회



재정이사 위촉장 전달(왼쪽부터 회장 이범 목사, 재정이사장 문선희 집사, 이사 정세권 장로)

재정이사회위촉패증정



제 47대를 회고하며 - 연합, 섬김, 부흥 -



제 47대 회장 **임헌묵** 목사

"임목사님, 워싱턴교협이 정말 있어야 합니까?"라는 젊은 목회자의 질문에 "대표성이라고 할까요"라고 답을 하면서도 언젠가 들었던 한 노 목사님의 "임 목사, 우리 교협은 이민 1세대의 그리움과 2세대의 꿈을 모두 품어야 합니다"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인 우리가 있지요.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50년이라는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본 교협은 지역 한인 교회들의 신앙적 유대와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47대 회장으로서 교협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New-Normal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른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임원으로 섬기신 모든 동역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7대의 표어 "교회가 힘을 얻는 워싱턴교협"은 빌립보서 2장 1절 (아가페쉬운성경)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질문은 47대 교협이 교회와 성도님들께 힘이 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을 묻는 메타포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성을 일깨우는 영적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전체를 행동 지침으로 삼고, 모든 운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5절) 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적 속성에 근거한 행위와 사상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교회의 하나님과 교협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 관점으로 모든 사역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둘째, "모든 운영은 (회의, 결정, 재정, 모든 면에서) 오픈(open)으로 한다." 투명성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신앙적 다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모두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신뢰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7대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다채롭게 펼쳐지길 꿈꾸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모자이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 47대 회장 임헌묵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7대 임원단 (2021~2022년)

† 제 47 대 임원

회장 : 임헌묵 목사(라이프교회)
목사 부회장 : 심대식 목사(로고스서머나교회)
평신도 부회장 : 이성훈 장로(락빌한인장로교회)
총무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부총무** : 김택수 목사(컬패퍼한인침례교회)
서기 : 최재종 목사(훼어팩스장로교회), **부서기** : 정영길 목사(피플스교회)
회계 : 김찬영 목사(워싱턴비전교회), **부회계** : 전찬선 목사(벧엘한인침례교회)
재정이사회 : 재정이사장: 문선희 이사장, **재정 부이사장** : 김봉묘 목사
행사후원이사장 : 홍진성 장로

† 주요행사

1. 제 20회 성탄감사예배 및 축하음악회

일시 : 2021년 12월 5일(주일) 저녁 6시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1부 성탄감사예배 박엘리사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문선희 재정이사장의 기도로 깊이 있게 열렸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온유하심으로 이 땅을 채우소서'라는 기도는 북한과 복음이 닿지 않은 땅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어졌다. 정인량 목사는 "영광과 평화의 성탄" (눅2:11-14)을 주제로 설교하여, 20년간 이어진 성탄감사예배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2부 성탄축하음악회 주옥임 집사(음악분과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소프라노 정세영 교수, 피아노 이경미 교수, 바이올린 백유진, 테너 진철민 등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LIS Choir와 연합성가대가 함께 한 성탄 칸타타 "사랑으로 오셨네"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축제가 되었다. 임헌묵 회장의 감사와 알림, 그리고 김용훈 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준비와 헌신, 그리고 사역 최재종 목사(서기)는 성악 전공자로서 LIS Choir와 교협 간의 협력을 이끌며 음악회의 코디 역할을 잘 수행했다. 지휘자 유일 전도사는 연합성가대를 구성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휘자 유일 전도사는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LIS Choir와 LIS Youth Orchestra 중심으로 연합성가대를 조직해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1월 첫째 주부터 러빙힐 처치에서 매주 연습을 이어가며 성탄 칸타타를 완성했고, 모든 연습과 공연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됐다. 음악분과위원장 주옥임 집사는 성탄감사예배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며 행사 운영에 이바지했다.

2021년의 성탄절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눅 2:14)를 찬양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날이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준비된 찬양은 하늘의 기쁨을 땅에 전하는 깊은 감동으로 남았다.

2.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식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1부 신년 감사예배 심대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워싱턴글로리아크로마하프단(단장 김영란 사모)의 연주로 은은하게 열렸다. 이성훈 장로(평신도 부회장)의 기도로 마음을 모은 후, 주종식 집사와 김연진 집사가 특별 찬양 '기도'가 울려 퍼지며 예배의 분위기를 더욱 은혜스럽게 만들었다.

배현수 목사(36대 교협 회장)는 "원점으로 돌아가기"(계1:4-7)라는 제목으로 신년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죄 용서와 영생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귀한 기다림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예수님의 피로부터 해방의 은혜를 되새기며, 새해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원점으로 시작하자고 권면했다. 헌금기도는 문선희 이사장이 드렸으며, 헌금송 '축복하노라'가 은혜스럽게 울려 퍼졌다. 이어 합심기도는 각각의 제목으로 이석해 목사, 서옥자 교수, 윤병남 목사, 차용호 목사, 나운주 목사가 인도했으며, 임종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2부 하례식 박엘리사 목사의 사회로, 스티브 리 회장(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과 권세중 총영사(주미대사관 워싱턴)가 축사를 전했다. 임헌묵 회장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3부 선물의 시간 이종택 장로(지구촌 마켓)가 준비한 쌀과, 이성훈 장로의 선물팩과 오찬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범 목사의 감사기도와 함께 참석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의 새해를 축복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다.

섬김과 헌신 이성훈 장로는 첫 임원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모임마다 식사와 후식을 도맡아 제공했다. 재정 지원은 47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임원들과 깊은 교류를 이어가며 격의 없이 섬기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에 큰 귀감이 되었다.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운영에도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대급 눈 폭풍으로 인해 준비한 만큼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모임을 위해 발걸음 한 모든 이들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다.

3. 목회비전 캠프

일시 : 2022년 3월 21일 – 23일

장소 : SkyCroft Conference Center (Baptist Convention of MD/DE)

강사 :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VA), 최병락(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 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 TX)

참석인원 : 등록 84명(부분 참석인원 포함 100명 이상)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 류응렬 목사는 "바울에게 목회를 배운다"(골1:28-29)라는 메시지로, 바울이 예수님의 목회를 이어갔듯 오늘날 목회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락 목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시스템과 사역"을 주제로 현장 목회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인사이트를 나눴다.

둘째 날 이은상 목사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세미한교회 사역 경험을 공유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는 여정을 나눴다. 류응렬 목사는 "종교개혁가에게 설교를 배운다"에서 루터와 칼빈의 설교관을 통해 '성경 앞에 선 설교자'의 소명을 일깨웠다. 조장원 목사 사회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목회 철학과 미래 방향에 관한 질문이 활발히 오갔다. 이후 최병락 목사는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통해 경청과 실질적 해결법을 제시했고, 이은상 목사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강의에서 세미한교회의 핵심 가치(WORLD Ministry)와 실천 전략을 소개했다.

셋째 날 최병락 목사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 후 3년 사역과 열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열매를 맺은 경험을 진솔하게 전했다. 폐회예배에서 "다시 시몬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명 회복과 풍성한 목회를 기도했다.

준비와 헌신 임원진은 두 차례 수양관을 미리 점검하며 각별한 준비로 임했고, 특히 박엘리사 목사는 행사 코디와 회계까지 맡아 투명한 재정 관리와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 정영길 목사는 잔잔히 부서기로서 최선을 다하며 협조했다. 김봉묘 목사의 위트 있는 일 처리는 캠프의 윤활유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건 단순한 캠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생생한 목회 경험, 현실적인 조언, 진심 어린 교제가 더해져 목회자들에게 실제적 해답과 다시 출발할 힘을 준 시간이었다. 이제 목회비전 캠프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시 : 2022년 4월 17일(주일) 오전 6시

장소 :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이성자 목사)

예배 박엘리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부활이 선포되고, 이성훈 장로의 기도와 김봉묘 목사의 성경봉독, ICC 성가대의 찬송이 이어졌다.

한세영 목사는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주제로, 부활이 수많은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고, 믿음을 통해 잃어버린 소망과 부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와 치유를 언급하며, 부활의 믿음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이석해 목사의 "부활의 증인 선언" 후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조상래 목사는 COVID-19 회복을, 심대식 목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을, 노규호 목사는 미국, 한국,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 문선희 이사장의 봉헌기도 후, 김정선 사모가 헌금송 "Forever"를 올려드렸다.

임헌묵 회장은 감사와 인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예배 장소와 아침식사를 제공한 ICC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예배는 이성자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부활의 희망이 우리의 오늘을 바꾼다'라는 메시지처럼, 이번 새벽예배는 참석자 모두에게 생명의 확신과 새로운 용기를 선사했다.

친교 예배 후, 이범 목사(46대 회장)의 감사기도와 함께 참석자들은 ICC 친교위원회와 권사회가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국밥과 떡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섬김과 사역 이번 부활절 예배는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자리였다. 과거 43대 회장이었던 한세영 목사가 담임인 메시야장로교회에서 이성자 목사가 설교한 데 이어, 이번 47대에서는 이성자 목사가 담임인 ICC 교회당에서 한세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섬김이 이어졌다. 예배당은 가득 찼고, 로비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는 풍경은 모든 이의 열정과 섬김의 결실이었다.

심대식 목사의 탁월한 코디네이팅은 이번 행사를 빛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초교파 선교단체와 목회자 단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47대 교협의 사역을 원활하고 풍성하게 이끌었다.

5. 베트남 선교탐방

일시 : 2022년 9월 6일 (화) – 15일 (목) 9박 10일

장소 : Vietnam (월남)

준비와 계획 처음에는 필리핀과 서아프리카를 고려했지만, 비라카미선교회 장요나 선교사의 사역을 접한 후 베트남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선교사를 통해 개척된 12개 베트남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회원교회에 일정과 후원 요청을 공지했다. 항공권은 개별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교협이 감당했다. 장 선교사로부터 받은 물품 목록을 바탕으로 임원들이 정성껏 12세트의 선물 꾸러미와 12 헌금봉투를 준비했다.

선교탐방 일정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공산국가의 특유의 분위기를 체감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예배가 금지돼 호텔 방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김봉묘 목사, 김수아 목사, 김택수 목사/사모, 문선희 이사장, 박엘리사 목사, 이행준 목사/사모, 임헌묵 목사/사모, 전찬선 목사/사모로 총 12명이 방문한 12교회는 순서대로 ① 구찌교회, ② 미토교회, ③ 까이랑교회, ④ 껀득교회, ⑤ 벤고교회, ⑥ 쭝히유교회, ⑦ 브락교회, ⑧ 아가페 기도원, ⑨ 수어이끼엣교회, ⑩ 롱칸교회, ⑪ 딘꽌교회, ⑫ 아가페 호치민 센터였다.

교회 간 이동이 많아 강행군이었지만, 그만큼 베트남 전역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이동 중 마주친 한국 기업 간판을 보며 자부심도 느꼈다. 각 교회에서 개척 과정과 현황을 듣고 함께 예배와 합심기도를 드렸고, 준비한 선물과 헌금을 전달했다. 대접받은 신선한 과일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공산치하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이곳은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옵니다'라는 현지 목사의 말에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평양의 대부흥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준비와 섬김, & 여정 이번 선교탐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깊은 감동과 영적 도전의 시간이었고 장요나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감탄과 감사를 남겼다. 문선희 이사장의 재정지원과 전폭적인 협조는 이번 베트남선교탐방을 가능케 했다. 워싱턴 지역에서 존경받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Washington Theological Seminary를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를 통해 전문인을 길러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베트남선교탐방에 함께 다녀온 일은 은혜와 추억으로 자리할 것이다.

김택수 목사는 코디로 준비와 일정 진행을 철저히 조율했고,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성광교회(임용우 목사)와 글로벌마켓 김종택 장로 등 여러 후원자의 재정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6.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대성회



일시 : 2022년 9월 23일 – 25일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금), 선한목자교회(토), 워싱턴지구촌교회(주일)

강사 :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한국)

예배 순서와 담당: 3일간의 영적 여정: 십자가 복음에서 만난 치유와 소망

첫째 날 송태근 목사는 욥기의 "신정론적 질문"을 중심으로, 욥이 회복받은 것 중 자녀는 두 배가 아닌 동일한 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을 상징하는 깊은 메시지로, 고통의 중심에서도 복음만이 진정한 해답임을 역설했다. 그의 깊은 해석에 강단은 숙연해졌다.

둘째 날 애굽 포로기의 '말씀 회복 운동'을 주제로, 지혜서 속 두 창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설명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 포기하듯,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두셨다"라고 말하며, 팬데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강조했다.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뿐'이라는 외침에 회중은 큰 감동을 받았다.

셋째 날 송 목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세가지 선교원리"를 나누었다. '선교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만이 선교를 가능케 한다'고 역설했다. 이 메시지는 선교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는 깊은 통찰로 다가왔다.

준비와 헌신, 그리고 사역 송태근 목사는 류응렬 목사의 추천으로 초청됐으며, 그의 별명처럼 '말씀 안에서 화합과 연합을 이끄는 목회자'답게 교협 목회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평신도를 깨우며, 십자가의 복음을 힘 있게 선포했다.

임헌묵 회장은 '이번 대성회는 팬데믹으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며, 워싱턴 지역 교단과 지역을 고려해 세 곳에서 분산 개최한 것도 그 배려의 일환이었다고 전했다.

7. 목회자 격려 및 지원 프로그램

일시 :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전달 장소 : 클리프턴한인침례교회(이기중 목사)

진행 예배 후, 권이석 목사는 교회에서의 장비 사용과 소프트들을 소개했다. 이어 전달식이 있었고, 모두 함께 오찬 장소로 떠났다.

준비와 감사 47대 워싱턴 교협은 2021-2022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며, 목회자를 위한 격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랩톱이나 영상장비에 집중했으나, 점차 교회 재정까지 돕는 장학금 형태로 확장되었다. 특히 익명 신청도 받지 않지만, 무기명 후원금도 받지 않는 원칙을 지켰다.

선정된 18명에게는 랩톱컴퓨터 (8명), 데스크톱 컴퓨터 (1명), 태블릿 (2명), 영상장비 (2명), 장학금 $500.00 (5명)이 전달됐으면, 총지원금은 $11,000.00이었다.

전찬선 목사는 프로그램 코디로 공개 신청, 공개 선정, 공개 전달의 3단계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따뜻한 지원이라는 47대 운영 철학을 입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교회가 힘을 얻는 워싱턴교협"이라는 47대의 표어가 한차례 또 실현되었다.

뒤돌아 다시 회고해 보니, 모든 것을 우리 앞서 준비해 놓으신 크고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임헌묵 회장은 고백하며 글을 끝낸다.



목회비전캠프광고


목회비전캠프


목회비전캠프 강의 류응렬 목사


신년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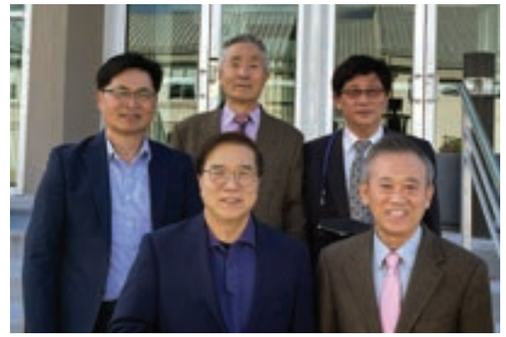

베트남선교탐방 미토교회기도



베트남선교탐방 수어이끼엣교회


목회자 격려 및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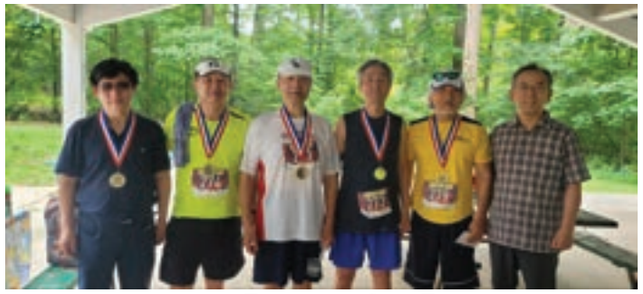

복음화대성회임원


열린문장로교회 방문


복음화대성회 지구촌교회쉐퍼드합창단



정기총회 신구임원 교체



마라톤대회 시니어 우승자들



목회비전캠프 임원인사



성탄축하음악예배 연합성가대

제 48대를 회고하며 - 존중과 배려 영적 재무장 -



제 48대 회장 **심대식** 목사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부터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된 마음으로 일념 목회에 전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사명을 받아 신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로서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한 은혜를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교협 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주셔서 교협 회장이 되어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장으로서 교협을 보니 교협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더 성숙한 교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교협이 임원선거를 할 때 생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워싱턴 동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마다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연합적인 교협이 되어야 하는데 불화와 대립, 이해보다는 오해가 생겨 교협이 동포사회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침체된 모습을 볼 때 저 자신 또한 회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협은 교회들을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역 목회자와 원로 목사님들간의 유대강화와 자립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들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 때 교협은 더욱 더 튼튼한 영적 군대와 같은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섬기는 동안 부족했지만 여러모로 함께 해준 임원들과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48대 회장 심대식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8대 임원단 (2022~2023년)

† 제 48 대 임 원

회장 : 심대식 목사(로고스서머나교회)
부회장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교회)
총무 : 전찬선 목사(벧엘한인침례교회)
부총무 : 최문종 목사(새소망교회)
서기 : 최재종 목사(페어팩스장로교회)
부서기 : 정영길 목사(피플스교회)
회계 : 노대준 목사(캐피탈커뮤니티교회)
부회계 : 김봉묘 목사(버지니아장로교회)
재정이사장 : 김영천 권사

† 주요행사

1. 제 21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워싱턴필그림교회(오중석 목사)
주제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의 선물
예배는 김택수 목사(총무)의 사회로 최재종 목사(서기)의 기도에 이어 오중석 목사는 '선물'(마 2:10-11)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성탄축하 음악회는 남녀 이중창으로 무대를 꾸민 워싱턴성광교회의 메조 소프라노 최지영, 바리톤 신종우, 반주 손희라 씨가 '오 거룩한 밤'으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웰로쉽교회는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왕이 나셨다'를 많은 대원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레이스 사모합창단은 우아한 드레스에 악보없이 등장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마리아의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은혜의 무대를 꾸몄다. 이날 음악예배는 진행자 없이 영상과 조명으로 각 교회가 등장해 무대를 꾸며 담백하게 진행됐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축제의 팡파르'를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로 수준있는 무대를 꾸몄다. 이어진 헌금 시간에는 전찬선 목사(교협 총무)의 기도와 워싱턴 소리청(단장 김은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는 국악찬양으로 새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날 워싱턴몽골교회(황필남 목사) 성도들이 전통복장으로 등장해 피아노 반주자가 창작한 'Follow the star'와 우리 귀에 익숙한 'Silent night' 두 곡을 몽골어로 찬양했으나 참석자들에게는 더 없이 은혜로운 무대였다. 워싱턴필그림교회는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의 주'를 웅장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 마지막 무대는 교협의 시그니처 무대가 된 연합찬양단이 헨델의 메시아중 "할렐루야"를 참석자 전원이 기립해 찬양했다.
심대식 목사는 "예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예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란다."고 축원하며 "아직은 코비드로 여파로 교회별로 성가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성탄찬양을 시작으로 코비드를 극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롭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찬양예배는 김재동 목사(30대 회장)의 축도 후 기념촬영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2. 임역원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 간담회

일시 : 2022년 11월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한강
사회 : 총무 김택수 목사, 기도 이범 목사, 설교 이병완 목사(레위기6:8-13; 제목: 제단의 불, 나의 불), 합심기도 한훈 목사, 축도 김양일 목사
교협회장 심대식 목사는 교회들을 연합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협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힘껏 나아가겠다"고 했다.

3.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일시 : 1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맥클린한인장로교회(고현권 목사)
주제 :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
박 엘리사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배현수 목사(교협 36대 회장)의 기도, 문선희 재정이사(교협 47대 재정이사장)의 성경봉독, 이영준 목사와 김성은 사모의 특별 찬양(선한 능력으로)으로 시작됐다.
설교를 맡은 김영진 목사(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사야 43:18; 46:9)을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예배는 김택수 목사(총무)의 광고와 김상묵 목사(교협 9대 회장)의 축도로 폐회했다. 예배 후에는 회장 심대식 목사가 신년사 및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신년하례식을 인도했다. 축사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이지호 참사관은 120년 전 미국에 정착한 백 여 명으로 시작한 한인사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목사님들과 교회의 섬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미대사관도 파트너로서 잘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숙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은 워싱턴교협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 중 하나로서 한인 사회의 신앙적 위상을 널리 전했다며, 교협이 곧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존경하고 더욱 협력하고 싶은 교협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례식은 교협 48대 임원 소개와 차용호 목사(교협 37대 회장)의 폐회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이후 김영천 재정이사장(중앙일보사 워싱톤지부 사장)이 제공한 오찬에서 한인봉사센터 조지영 사무총장, 태아생명존중운동 '아름다운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가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전도간증집회

일시 : 3월 6-8 (월-수) 저녁 **강사** : 이영희 전도사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후원** : 디모데 목회훈련원(이용걸 목사)
목적 : 전도의 사명을 다시 깨워 전도의 생활화
40년동안 전도를 쉬지 않았던 생활 전도사인 이영희 전도사를 모시고 전도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전도사는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헌신과 희생이 많은 전도를 하게 했다"며 "전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5.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일시 : 4월 9일 새벽 6시
장소 : 서울장로교회(한상인 목사)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는 9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 소재 서울장로교회(담임목사 한상인)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회 박엘리사 목사, 대표기도 김양일 목사, 성경봉독 문선희 이사, 찬양 오성미 권사, 설교 김재동 목사, 헌금기도 노대준 목사, 특송 그레이스 사모합창단, 광고 전찬선 목사, 축도 이병완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교회와 신학교, 동포복음화를 위해 정병완 목사가 기도했으며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윤필홍 회장은 한국과 미국을 위해, 박엘리사 목사는 튀르키예 피해복구와 복음전파를 위해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의 대표 행사 가운데 하나로 과거에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함께 워싱턴 DC 제퍼슨 기념관 앞에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으나 점차 참석자가 줄면서 지역 교회로 장소를 옮기게 됐으며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열기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인교회들을 대표하고 연합하는 '교회협의회'라고 해도 다시 그러한 행사를 주최하기에는 대표성도 리더십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는 "보다 많은 분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왠지 위축되고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며 "보다 실질적인 교회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75년 설립된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는 5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6. 장경동 목사 초청 부흥회

일시 : 10월 1일-10월 2일

장소 : 워싱턴신학교(이사장 문선희)

목적 :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깨우침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와 워싱턴신학교(총장 이억섭)는 지난 1~2일 장경동 목사를 강사로 부흥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경동 목사는 첫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4명의 부자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회개한 부자 삭개오의 이름만 나온다"며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를 살자"고 당부했다.

다음날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집회에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며 "큰 목회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목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목회비젼캠프

일시 : 4월10일(월) -12일(수)　　**강사** : 김성수목사, 김대영목사

주관 :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장소** : 매릴랜드 Skycraft 침례수양관

주제 : 영성뇌건강과 생명력있는 복음의 증인

강사 김성수 박사(새들백 코리아 사역, 남침례신학교 조직신학박사), 그레이스 김 의대교수(뉴욕 Albany 의과대학 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대영 목사(휄로쉽교회)

이번 비전캠프는 다시금 우리의 영적생활에서의 생명력이 삶에서 육신적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욱 더 영성생활에 능력과 활력이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은혜로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미셔날처치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8. 워싱턴지역 동포복음화 대성회

일시 : 6월 2일(금) 오후 7:30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주제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강사 :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이번 성회는 찬양팀의 찬양, 유승희 권사(임마누엘교회)의 기도, 이수맹 권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의간증, 한현석권사(wjm총무)의 간증 후에 류응렬 목사(와싱톤 중앙장로교회 담임)의 사회, 유기성 목사의 설교(마태복음14:22-33), 기도로 집회를 마쳤다.

유기성 목사는 우리의 교회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며 예수동행운동을 하자고 독려했다. 예수동행운동은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운동이며, 이 운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했다.

짧은 복음화대성회였지만 예수동행운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고, 동포복음화대성회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반성과 숙제를 갖게 하는 대성회였다.

9. 교협50주년기념 50년사 편찬위원회 발족

8대 교협은 교협 50주년(희년)을 맞이하면서 교협 50년사를 기록하고, 감사하며, 교협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함께 용서와 화해, 사랑과 평화, 축복과 번성을 위해 '교협 50주년 기념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교협은 이병완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모든 일정과 행사를 준비위원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10. 교협 49차 총회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코너스톤교회(최성민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30일 코너스톤교회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 부회장 박엘리사 목사를 회장으로, 총무 전찬선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49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 목사는 "2017년부터 교회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간 6명의 회장을 섬겼다"며 "이제 직접 회장에 출마해 더욱 섬기는 것을 배우고 보다 주도적으로 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그는 또 "팬데믹 동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예배 장소가 없어 흩어지는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었다"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는 말씀에 따라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원사진


신년하례예배


목회비전캠프


장경동목사집회


부활절예배


정기총회사진


21회성탄축하음악예배



목회비젼캠프광고

제 49대를 회고하며 - 영적승리와 협력과 복음증거하는 교협 -


제 49대 회장 **박엘리사** 목사

교협 회장으로서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했고, 또한 빌립보서 4:19의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늘 붙들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우리 워싱턴 이민사회가 새롭게 다시 일어서려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었던 느헤미야처럼 워싱턴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회협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전도서 4:12)을 의지했습니다.

교협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지만 세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교회의 연합이 이 세상의 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교회는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교협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49대 회장 박엘리사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49대 임원단 (2023~2024년)

† 제 49 대 임 원

회장 : 박엘리사 목사(새생명 교회)
목사부회장 : 전찬선 목사(벧엘한인침례교회)
평신도부회장 : 김진이 권사(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총무 : 최재종 목사(페어팩스 장로교회)
서기 : 노대준 목사(캐피탈 커뮤니티교회)
부서기 : 최문종 목사(새소망 교회)
회계 : 배길수목사(버지니아새생명교회)
부회계 : 김봉묘 목사(버지니아장로교회)
재정이사장 : 최정선 권사(올네이션스 교회)

† 주요행사

1. 22회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2023년 12월 3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윤창재 목사)

주제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하와 사랑전파 그리고 평화

금년 성탄축하음악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두가 다 함께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로 최재종 목사(총무)의 사회로 진행됐고 최정선 권사(재정 이사장)의 기도 윤창재 목사(워싱톤순복음제일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2부 성탄 축하음악회는

*박선규(소프라노 솔로,반주 손희라) 주기도문, 오 거룩한 밤,

*워싱톤 순복음 제일교회(지휘 유은경, 반주 구은희, 이기실) 송축해 내영혼, 오 해피데이,

*그레이스사모합창단(지휘 이철, 반주 손희라) 은혜, 더 메리크리스마스 폴카,

*와싱톤중앙장로교회(지휘 이영주, 반주 구자혜, 정수영, 플룻 이윤영) 그날 밤, 강 같은 평화,

*헌금(기도 배길수 목사 회계)특송 새생명교회 이중창(강현정, 김광호, 반주 박국희),

*워싱턴몽골리안교회(반주 에데네줄) 베들레햄의 별, 오래전 베들레햄,

*워싱턴신학교(지휘 박요셉, 반주 서은애) 사랑이 오셨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메릴랜드 기독합창단(지휘 안영수, 반주 권기선) 학 더 헤랄드 엔젤 싱,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연합합창(지휘 이영주, 반주 구자혜, 정수영) 헨델의 할렐루야를 하고 박엘리사 목사(회장)의 인사와 광고, 김재동 목사(30대 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다.

2. 임역원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 간담회

일시 : 12월 13일(수) 오전 11:30

장소 : 센터빌 강촌식당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엘리사 목사)는 지난 13일 센터빌 강촌식당에서 임원·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교협회장 박엘리사 목사는 전직 회장들에게 49대 임원들을 소개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월 8월 신년하례예배, 2월 팬데믹으로 문닫은 교회 실태조사, 3월 부활절 연합예배, 4월 교역자 세미나, 6월 마라톤 대회, 7월 성지순례, 8월 복음화 대성회, 9월 자문위원 간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3. 신년감사하례예배

일시 : 2024년 1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이성자 목사)

주제 : 신년감사와 서로간의 화합과 축복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엘리사 목사)는 8일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담임목사 이성자)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열었다. 올해의 신년하례예배의 주제는 신년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되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계획했다.

이날 예배는 전찬선 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 박상근 장로, 성경봉독 김진이 권사, 특별찬양 오성미 권사, 말씀 김용훈 목사, 헌금기도 최정선 권사, 특송 박예은 집사, 합심기도, 광고 최재종 목사, 축도 이원회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후회없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설교한 김용훈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일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알려준다"며 "우리 삶의 주연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목사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싸워서 이겨야한다"며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면서 세상의 평가에 벌벌 떨며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면서 "낮아짐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 조연의 역할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4.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시 : 2024년 3월 31일(주일) 오전 6:00

장소 : 서울장로교회(한상인 목사)

주제 : 예수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로인해 그 부활을 날마다 어느곳에든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자.

이날 예배는 총무 최재종 목사의 사회, 문선희 이사의 대표기도, 박국희 이사의 성경봉독, 사모합창단의 찬양, 합심기도 인도로 최문종 목사, 정승욱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진이 평신도 부회장 등이 기도 했다. 최정선 평신도 이사장은 봉헌기도를 오성미 권사의 헌금특송, 박엘리사 목사의 광고후에 한상인 목사의 축도, 김양일 목사의 축도, 이범 목사의 친교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다'를 주제로 설교를 맡은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는 "<예수부활 내 부활>이라는 말씀제목으로 서로 만나면 안부를 묻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면 서로 당신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라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5. 목회비젼캠프

일시 : 4월 1일(월) -3일(수)

장소 : Skycroft Conference Center, MD

강사 : 고석희 목사(예수서원)

목적 : 목회자의 영적재충전과 기독교 세계관 수립

이번 목회비전캠프는 고석희 목사(예수서원 원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인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에게 진리를 더욱더 연구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넓혀 주고자 한다 등의 목적으로 열렸다.
정성민 목사(익투스교회) 찬양인도와 박엘리사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택래 목사(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 회장) 기도, 장재웅 목사(워싱턴 하늘비전교회 담임) 설교, 정우용 목사(메릴랜드 교협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목회자 은퇴 세미나에서 CPA 김형주 집사(CBMC 미주회장) 목회자와 평신도의 은퇴준비에 대해서 강의했다.
마지막날 정성민 목사 찬양인도와 부회장 전찬선 목사의 시작된 폐회예배는 배길수 목사(회계) 기도, 고석희 목사 설교, 배현수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6. 그리스와 튀르키예 성지순례

일시 : 4월 21일(주일) -5월 4일(토)
장소 : 그리스와 튀르키예(소아시아 7 교회)
참석인원 : 28명
목적 : 성지 순례를 통한 영성회복과 충만
사도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한 경로를 따라 사도바울 당시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성지를 순례하는 워싱턴의 목사들과 순례자들에게 임하여 순례를 하는 동안 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달으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적각성을 했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
주요 방문지 : 이스탐불, 고린도, 아테네, 베뢰아, 밧모섬, 버가, 루스드라, 안디옥, 파묵칼레, 올림포스, 갑파도기아,

7. 인터페이스 세미나

일시 : 7월 22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 리빙교회(곽재경 목사)
목적 : 지역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략수립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서 지역 교회의 선교를 돕기 위해 목회자 대상 INTERFACE세미나를 7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리빙교회(담임 곽재경 목사)에서 개최하였다.
인터페이스 세미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고 구비되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 세미나는 현재 112개국에서 35개 언어로 카이로스 훈련을 진행하는 Simply Mobilizing 프로그램이다. 분명한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또한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함께 생각하게 하는 세미나이다.

8.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초청 버지니아주 지역 목회자 간담회 참석

일시 : 8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 리치몬드 법무부 회의실

참석자 : 회장 박엘리사 목사, 부회장 전찬선 목사, 회계 배길수 목사

9.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일시 : 8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 워싱턴 신학교(이사장 문선희) 4층 강당
주제 : 교협 50주년 기념을 위한 기념위원회 발족
참석자 : 기념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 기획위원회 : 정영만 김재동 김성도 배현수 차용호 손기성 이 범 심대식 전찬선 이택래 김광근 김영천 문선희 최정선 김영호 정승욱, 실행위원 : 현 교협 임원들
1부 순서로 김범수 목사(교협 38대 회장)의 사회로 정인량 목사(교협 28대 회장)의 개회기도, 김대영 목사(휄로쉽교회 담임목사)의 메시지, 2부 순서는 손기성 목사(교협42대 회장)의 사회로 박엘리사 목사(49대 교협회장)의 환영인사, 이병완 목사(교협 32대 회장)의 임원 및 조직소개, 손기성 목사의 취지 및 목적 설명, 질문 및 답변, 김택용 목사(2대, 8대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대영 목사는 메시지에서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통하여 세계선교를 이뤄간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크리스찬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인교회를 통해 미국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은 마지막때에 전세계를 동시적으로 일으키신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자"고 전했다.
박엘리사 목사는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해서 감사하다"고 했고 손기성 목사는 "한인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모여 있다. 이번 희년을 통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자"고 했다.
이병완 목사는 "지난50년동안 교협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50주년을 맞아 최고의 사랑의 해인 희년을 교회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삼자. 기도하며 협력하여 일을 해가자"고 했다.
이번 창립5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은 이병완 목사,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 손기성 목사, 명예고문 이동원, 이영훈, 상임고문 김택용, 정인량, 대외고문 류응렬, 김영진, 김용훈, 50주년 후원회 후원회장은 최정선, 문선희 등이다.
예정사역으로는 교협50년사 발간, 교협희년(교협50주년맞이)감사영광예배, 감사영광음악회, 포럼(교회론-예배와 선교), 교협을 빛낸 20-30인 선정 등 교협희년맞이 정신에 걸 맞는 행사를 준비한다. 행사 중 모든 행정창구는 통합이메일 wkcc50@gmail.com으로 사용한다. 한편 워싱턴해리티지대학은 장소와 식사를 제공했다.

10. 워싱턴 복음화 대성회: 강사 고석희 목사, 총 참석 연 인원: 약 300여명

일시 : 8월 30일(금) – 8월 31(토)
장소 : 금요일: 펠로우쉽교회(김대영 목사), 토요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주제 : 믿음과 말씀 그리고 복음증거
예수서원 원장 고석희 목사(사진)를 강사로 30일(금) 오후 7시 30분 휄로쉽교회(담임목사 김대영), 31일(토) 오후 7시 30분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에서 열렸다.

교협 회장 박엘리사 목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예수 믿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며 “인문학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바쁘고 힘든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말씀 중심, 신학중심, 인문학 중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마치 고기를 씹는 그런 깊고, 오묘한 말씀과 신학과 일반 인문학의 조화가 참가한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11. 미자립교회 돕기 격려금 및 선물 나누기

일시 : 10월 28일 오전 11:00

대상 : 워싱턴교협 산하 미자립교회

교협의 하나됨과 연합을 목적으로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함으로 지치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식을 가졌다.

12. 제 50 차 정기총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10월 28일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12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 전찬선 목사(벧엘한인침례, VA)가 신임 회장으로, 이택래 목사(린치버그한인)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서 회장직을 맡게 된 전찬선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교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랑과 배려, 돌봄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환경,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총회에서는 교협 회칙 2장 5조의 “관할지역”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 회칙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가 있어 오랜 토론이 있었고, 이 토론 후 투표로 이택래 목사가 선출되었다.




증경회장단자문회의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성탄축하음악예배


50주년기념위원회


인터페이스


50주년기념위원회


목회비전캠프


복음화대성회



워싱턴지역-복음화대성회_poster

제 50대를 회고하며 - 회고, 진단, 전망 -



제 50대 회장 **전찬선** 목사

워싱턴교협이 설립 50년을 맞는 영광스러운 해에 부족한 사람이 회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회자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더 목회가 훌륭하고 대외적인 관계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회장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50년의 교협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에 책임을 맡기신 것이라 믿고 순종했습니다.

50년의 교협을 회고하고, 현재의 워싱턴교협을 진단하고, 미래에 다가올 시간들을 준비하며, 전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협이 그동안 잘해 온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생각에 머물 뿐 행동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영적자원이 다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내에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완전한 수준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협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 있고, 그리스도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워싱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교협이 되도록 연합하고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도운 임원들과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50대 회장 전찬선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제 50대 임원단 (2024~2025년)

† 제 50 대 임 원

회장 : 전찬선 목사(벧엘한인침례교회)
부회장 : 이택래 목사(린치버그한인교회)
총무 : 권이석 목사(반석교회)
서기 : 장재웅 목사(하늘비전교회)
부서기 : 오영란 목사(마하나임교회)
회계 : 배길수 목사(새생명교회)
부회계 : 황성철 목사(워싱턴크리스찬대학)

† 주요행사

1. 성탄축하음악예배

일시 : 12월 1일 주일 오후 6시
장소 : 올네이션스교회(오건묵 목사)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는 지난 1일 올네이션스교회(담임목사 오건묵)에서 '성탄·감사·찬양·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권이석 목사의 사회로 민용목 목사의 기도에 이어 최시영 목사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시 24:7-10)라는 말씀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2부 찬양은 워싱턴하늘비전교회(소프라노 장은경), 메시야장로교회 남성중창단(카르페-디엠), 버지니아아가페인터내셔널침례교회(지휘 민경동), 올네이션스교회(지휘 위명희), 페어팩스한인교회(지휘 허인수), 새생명교회 이중창(소프라노 강현정, 베이스 김광호), 워싱턴몽골교회(리더 Munkhbold), 그레이스사모합창단(지휘 이철), 휄로쉽교회(지휘 차은정), 워싱턴헤리티지대(지휘 박요셉), 와싱톤중앙장로교회(지휘 도성수) 등 11개 팀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마지막으로 헨델의 메시야를 합창했다.

교협 회장 전찬선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늘로 울려 퍼지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기쁨이 전해지길 기도한다"고 성탄인사를 했다. 이어 박엘리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은 내년 1월 7일(화) 오전 11시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에서 열린다.

2. 신년감사예배

일시 : 2025년 1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 주관 2025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7일 오전 11시부터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권이석 목사(워싱턴반석교회, 교협 총무)의 인도로 진행되었고 쉐키나찬양팀(인도 유성현 목사)의 찬양과 경배, 안성식 목사(워싱턴 목양교회)의 기도, 성경봉독(마태복음 4장 18-20절, 이영희 목사, 물댄동산교회), 찬양(린치버그한인교회 청년부)으로 '은혜', 류응렬 목사의 말씀(와싱톤중앙장로교회)'천명', 합심기도(인도 장재웅 목사,와싱턴하늘비전교회), 헌금특송(장은경 사모-축복하노라), 봉헌기도(배길수 목사, 버지니아새생명교회, 교협 회계), 광고에 이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과 임헌묵 목사(교협증경회장, 라이프교회)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전찬선 회장의 인도로 신년사 및 교협 임역원 소개, 유재유 목사(MD교협회장)의 신년인사, 조기중 총영사의 신년인사, 류응렬 목사의 환영인사 후에 하례가 있었다. 오찬 친교기도는 이석해 목사(원로목사회 회장)로 2부순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출처:워싱턴한국일보)

3.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일시 : 2025년 2월 23일(주일)~25일(화)

장소 : 워싱턴하늘비전교회(장재웅 목사)

4. 미주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후원

일시 : 3월 16일(주일)~22일(토) 7:30PM

장소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주최 : 다니엘기도회(한국)

5. 강원도 산불 긴급 재해 구호 기금 모금 캠페인

일시 : 4월 13일(주일) ~ 5월 4일(주일)

6.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일시 : 4월 20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 워싱턴필그림교회(오건묵 목사)

2025년 4월 20일 오전 6시, 워싱턴지역 한인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예배는 버지니아 버크에 위치한 필그림교회(담임 오중석 목사)에서 열렸으며,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가 주관했다.

예배는 워싱턴교협 부회장 (린치버그한인교회의 이택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고, 이어 찬양과 마태복음 28장 1~11절의 성경봉독, 조재영 목사(빛과소금교회)의 기도 등이 이어졌다.

설교를 맡은 정우현 목사(주님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소란스럽게 선포하신 희망의 선언이었다"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란스럽게 알리고 계셨습니다'라는 말씀제목으로 어둠을 뚫고 찾아온 새벽의 빛처럼 부활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선포했다.지진과 천사,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전하려 달려나온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이 명확히 증거되었음을 강조했다.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 합창단의 '십자가를 참으신' 특별 찬양과 색소폰·피아노 연주로 꾸며진 'Amazing Grace', '무덤에 머물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활의 감격으로 채우기에 충분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안정과 영적 회복, 지역 복음화, 그리고 한국 산불 및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도가 뜨겁게 이어졌다. 박엘리사 목사(새생명순복음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는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손형식 목사(워싱턴필그림교회 원로목사)의 축도와 배길수 목사(버지니아 새생명교회)의 친교기도로 예배는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른 아침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이어갔다.

7. 미셔널처치포럼워싱턴포럼 후원

일시 : 5월 19일(월) ~ 21일(수)

장소 : 워싱턴헬로쉽교회(김대영 목사)

8. . 미자립 교회 지원과 연합 모임

일시 : 9월 중

목적 : 나눔, 섬김, 세움

9. 제 51대 정기총회



신년하례예배



"산불·지진 피해 이재민에 희망을"

워싱턴한인교회협
성금 모금 캠페인

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불 재난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한국과 미얀마의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은 물론 각 교회의 동참을 호소하며 성금은 체크(Payable to CKCCW)로 보내거나 벨(Zelle: CKCCW500@gmail.com)로 송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모금 캠페인은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되며 본보가 특별 후원한다.

문의 (571)445-0091(권이석 목사)
주소 PO Box 3942
Annandale VA 22030

(취재팀 기자)

한국산불미얀마지진구호성금모금기사



여성리더십컨퍼런스





MISSIONAL CHURCH



다니엘기도회



미셔널처치



성탄축하음악예배한국일보



부활절새벽연합예배2025



제 4 장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및 행사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기자 간담회
증경회장 원로 간담회
목회자 및 증경회장단 오찬 기도회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예배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음악회
목회와 교회론 포럼
미자립(미래자립)교회 및 해외선교 후원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교협"50년사" 출판예배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 위원회
교협 50년사 편찬위원회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기자 간담회

종교 Religion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한국일보 A8

"희년은 회복이며 새로운 시작"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 기념위원회 발족
내년 50년사 발간·포럼·기념음악회 등 준비

1975년 결성된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앞두고 '50주년 기념위원회'가 조직돼 28일 워싱턴에큐메니컬대학교 워싱턴신학대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기념위원회는 이병완 목사를 위원장으로 사무총장 손기성·김범수 목사가 실무를 담당하고 교협 임원들과 전직 회장 등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무간사 본선희 이사, 재정간사 최종산 권사 그리고 상임위원 김택용·정인량 목사, 대외고문 류응렬·김영진·김용훈 목사 그리고 워싱턴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원·이영훈 목사를 명예고문으로 선임했다.

교협 회장 박 엘리사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임원들을 소개하며 "성경적으로 50주년은 희년(禧年)을 의미한다"면서 "희년은 돌아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손기성 목사는 50주년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한인 이민역사와 워싱턴 지역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룬 성과를 기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희년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외자문위원 김대영 목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우리는 이미 50년 전부터 교회들이 연합해 활동하고 있고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기념위원회는 "희년을 맞이하는 내년은 연중 다양한 행사로 보다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협 50년사 발간, 50주년 기념음악회, 50주년 포럼, 교협을 빛낸 인물 선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원 기자)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 기념위원회 이병완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워싱턴교협은 2025년에 맞이하게 될 50주년(희년)을 준비하면서 김택용 목사의 제안으로,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에 설악가든 회의실에서 발족예배(사회: 박엘리사 목사, 기도와 광고: 전찬선 목사, 설교: 심대식 목사, 축도: 김택용 목사)를 드렸다. 50주년 기념위원장에 이병완 목사, 고문에 김택용 목사를 위촉했으며, 조직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50주년(희년) 준비위원회는 기념행사와 조직을 준비하여, 2024년 8월 29일 오전 11시에 워싱턴헤리티지 대학교(WHU)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교계와 동포사회에 알렸다.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성경적 희년 정신을 교협에 속한 온 교회와 함께 구현하기 위해 감사, 영광, 회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2025년 워싱턴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조직과 기념행사내용을 발표했다.

사회는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가, 개회기도는 상임고문 정인량 목사가, 설교는 대외자문위원 김대영 목사가 담당했다. 환영인사는 49대 회장 박엘리사 목사가, 축도는 상임고문 김택용 목사가 담당했다.



2025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 기념위원회

1. 조직

| 위원장 | 이병완

| 명예고문(워싱턴출신) | 김상복 이동원 이영훈 | 상임고문 | 김택용 정인량

| 대외고문 | 류응렬 김영진 김용훈 | 법률고문 | 박상근 윤유식

| 증경회장자문위원 | 김택용 김상묵 최윤환 박석규 황수봉 허중호 이원희 지선묵 오광섭 김종철 임종길 정인량 양광호 정영만 김재동 이병완 김양일 김성도 배현수 차용호 김범수 최인환 노규호 손기성 한세영 한 훈 김재학 이 범 임헌묵 심대식 박엘리사

| 대외자문위원 | 김대영 김요셉 박승진 임용우 박석규 이원희 임종길 이석해 손형식 이성자 이광현 김영봉 한상인 고현권 박성일 오 건 안현준 문정주 **(지역교단대표)** 최시영 윤창재 권일두 이해갑 황성철 안성식 이영호(무순)

| 특별협력위원 | 백 순 김종택 정세권 김영호 홍희경 헤롤드변 공명호 이근선 최정범 이은애 이인천 조지영 스칼렛혜경 이정실 (무순)

|사무총장 | 김범수

| 행정위원 | 서기 정승욱 | 재무위원 | 회계 박희숙 부회계 박지나

| 기획위원회 | 정영만 김재동 김성도 배현수 차용호 김범수 이택래 이 범 심대식 전찬선 이택래 김영천 문선희 최정선 김영호 정승욱

| 50주년후원회 |

후원회장 문선희 **(후원위원)** 교협 전 평신도부회장 및 재정이사장 전원

| 실행위원회 | (현 교협임원)

| 50년사 편찬위원회 |

편집인: 이병완 편집총무: 김범수

서기: 한세영 회계: 박희숙 박지나 편찬위후원회장: 정인량

위원: 김택용, 최윤환, 정영만, 김성도, 배현수, 허성무, 정승욱, 문선희

| 교회 및 유관기관 선정위원회 |

위원장: 정영만

|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위원회 |

위원장: 김택용 부위원장: 박석규

위원: 최윤환, 이원희, 정인량, 정영만, 이병완, 김성도, 김범수

| 홍보위원회 | 한 훈

| 협력유관단체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전찬선), 워싱턴지역교역자회(회장:양경욱),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이석해), 워싱턴목회연구원(원장:전정구),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이사장:문선희), 버지니아크리스찬대학(총장:이광현), 버지니아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총장:장만석), Washington Jabez University(이사장:박엘리사),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김범수), 처치클리닉(대표:손기성), 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정승욱), 한미나라사랑기도회(회장:방해식), 프레션(대표:김대영), 워싱턴기도연합(대표:송제오), 한미기독장학재단(이사장:김택용), 워싱턴기독장학재단(이사장:이인천), 워싱턴밀알선교회(대표:정진정), 워싱턴북한선교회(이사장:신덕수), 굳스푼(대표:김재억), 광야선교회(대표:나운주), 메릴랜드상록회(회장:이광운), 안나산기도원(원장:김영창), 워싱턴여교역자회(회장:박희숙), 비라카미선교회 미주지역본부(대표:문선희)

| 대외협력언론 | 미주워싱턴한국일보 미주워싱턴중앙일보 만나24뉴스 HIUSAKOREA

※이상 무순, 존칭생략

2. 행사계획

1. 교협 50년사 발간
2. 증경회장 원로 간담회
3. 목회자 및 증경회장단 오찬 기도회
4.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예배
5.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음악회
6. 포럼: 목회와 교회론(예배와 선교)
7.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
8. 미자립 교회 및 선교지 후원





증경회장 원로 간담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2025년을 50주년(희년)을 맞이하면서 3월 10일 오전 11시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워싱턴신학교, 이사장 문선희)에서 '교협 50년사 편찬'을 앞두고, 그간 50년동안 교협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협을 인도하셨는가를 회고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5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가 교협 회장을 역임한 원로 증경회장들, 김택용 목사, 최윤환 목사, 박석규 목사, 이원희 목사, 임종길 목사, 정인량 목사, 정영만 목사, 김재동 목사와 사진홍보를 위해 한 훈 목사를 초청하여 이전 회장들의 교협 활동과 인물과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앞서 기념위원회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가 소개 및 인사를 한 후 기념위원회 위원장과 출판위원장인 이병완 목사가 "참석하신 원로 증경회장들은 교협 50년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들로서 교협역사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주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와 간담회 취지 설명을 한 후 정인량 목사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인량 목사는 지난 50년간 교협 회장을 지내면서 기억나는 일들과 생각나는 인물들에 대한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갔다. 정인량 목사는 워싱턴에 기라성같은 귀한 목사님들로 인해서 교협이 영적인 기초뿐 만 아니라 신학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2대와 8대 회장이었던 김택용 목사는 교협보다 교역자회가 먼저 있었고, 후에 교회협의회가 조직되어 교역자회와 함께 활동하다가 정용철 목사가 1대 회장을 지냈고, 당시 교회가 4개 밖에 없었던 관계로 행사중심의 교협보다는 관계중심의 교협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시의 목사님들은 정용철 목사, 황재경 목사, 김성



50주년(희년) 기념위원장 이병완 목사

덕 목사, 장일형 목사, 박관빈 목사님들이었다고 했다.

당시 주미 한국대사였던 함병춘 대사는 교회와의 관계가 돈독해서 교회의 행사나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친밀감을 보였던 모습들이 교회와 동포사회의 기관들과의 연합과 관계가 이민사회에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고 했다. 덧붙여서 현재 한국의 자살율이 높아지고,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협이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대 교협 회장을 지낸 최윤환 목사는 당시 김용식 대사가 Seven Corner 모 식당에 25명의 목사들을 초청한 일과 마샬 고등학교에서 복음화대성회를 한 일과 1984년에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하례예배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또 빌리그래함 목사가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고, 함께 온 전도팀들이 각 교회에 찾아가서 전도세미나를 했다고 했다. 또한 워싱턴의 이단교회들에 대하여 교협이 즉각적으로 신문과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가 위협받지 않게 적절하게 대처한 일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12대 교협 회장을 지낸 박석규 목사는 미국교회협의회와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이원상 목사님이 내가 부회장하면 회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교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일이나 교협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은혜로운 교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참석한 증경회장들은 교협이 대립과 경쟁보다는 이런 연합과 신뢰, 관계성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17년만에 워싱턴으로 와서 교협활동을 보니 총회때 임원선거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7대 회장 정인량 목사


2대, 8대 회장 김택용 목사


10대 회장 최윤환 목사


12대 회장 박석규 목사

21대 회장을 지낸 이원희 목사는 부활절새벽연합예배에 이흥섭 장로가 피아노를 운반하여 제퍼슨 광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가슴뭉클한 헌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당시에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온 교회가 교통을 제공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던 워싱턴지역의 교회들의 부흥기를 돌아보면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위축된 교회가 믿음과 헌신으로 부흥의 불길을 태워야 한다고 했다. 주미 대사였던 박건우 대사가 대사 관저로 목회자 100명을 초청하여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교회협의회와 정부, 그리고 교포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회장 이원희 목사


25대 회장 임종길 목사

25대 회장 임종길 목사는 처음으로 컴퓨터 교실을 열어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했고, 매주 30여명이 컴퓨터 초급과 중급반을 운영했다고 했다. 교회가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필요에 접근하면서 간접적인 복음전도의 방법도 중요하다고 했다.


29대 회장 정영만 목사

29대 회장 정영만 목사는 교협총무와 서기를 3년이나 하면서 교협의 목사님들과 관계를 많이 맺었고, 그로 인해서 교협의 중요한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협조를 부탁해서 교협의 일하는 총무로서 칭찬도 받았고, 때로는 원망을 들었던 때도 있었다고 했다. 정인량 목사가 행사를 많이 한 결과로 총무가 해야 할 일을 많이 했는데, 정인량 목사가 회장 때 '성탄축하음악예배'를 처음 시작하였고, 워싱턴청소년재단을 설립하였고, North Carolina Black mountain에 위치한 초기 한국 선교사 마을을 방문하여 선교사님들께 한국선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일이다. 청소년재단은 2001년에 이원상 목사님의 후원으로 설립하였는데, 지금까지 재단이 유지된 비결에는 교회협의회가 틈틈이 협조와 펀드레이징과 개인과 교회가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이라고 했다.

31대 회장을 지낸 김재동 목사는 교협이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교포사회와 교회 성

도들이 교협 회장은 워싱턴의 300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목회와 삶에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병완 목사는 워싱턴청소년재단은 교협을 통하여 세워진 첫 번째 모범적인 기관이기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관심과 후원은 물론 또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사회를 위해 계속적인 교협의 비전과 꿈들을 함께 뜻을 모아 다음 세대, 다음 목회를 위해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택용 목사의 기도로 간담회를 마치고, 워싱턴신학교(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이사장 문선희)에서 제공한 오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협은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나와 교포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들간의 상호유대강화, 목사들간의 신뢰와 존경, 헌신과 열심이 교협을 교협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았다.


31대 회장 김재동 목사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

사회: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
진행: 정인량 목사
대담기록: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
사진촬영: 한 훈 목사(홍보 담당)



뒤줄 왼쪽부터 임종길 목사 김재동 목사 김범수 목사 정영만 목사 한훈 목사
앞줄 왼쪽부터 이원희 목사 김택용 목사 정인량 목사 이병완 목사 최윤환 목사 박석규 목사

목회자 및 증경회장단 오찬 기도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교협 증경회장단 및 목회자 초청 오찬기도회가 페어팩스 소재 해리티지 유니버시티 워싱턴신학교(이사장 문선희)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성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묵상 기원에 이어 찬송과 교독문 낭독, 배현수 목사의 기도, 박희숙 목사의 시편 37편 37절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김영진 목사(워싱턴 베다니장로교회 담임)는 '화평한 자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신실한 사역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이후 5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가 환영 및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세영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진행됐다. 기도 제목으로는 △감사영광예배 △교협 50년사 발간 △교협 50주년 교회론 포럼 △워싱턴지역 한인교회 △교협 미자립 교회 후원 및 선교 △교협의 미래 부흥과 성장 △미얀마 지진 및 대한민국 의성, 안동 산불 재해민을 위한 기도 등이 포함되었다. 한훈 목사, 이범 목사, 이택래 목사, 안현준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교협 50대 회장 전찬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선배들의 헌신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협이 세워졌으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의 광고 후 김재동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2부 순서는 인사와 목회자 삶 나눔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범수 목사가 맡았으며, 문정주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후 린츠버그한인교회 이택래 목사, 메시야장로교회 한세영 목사, 성도교

회 주명식 목사, 예드림교회 이태봉 목사, 한인예루살렘침례교회 문정주 목사, 올네이션스교회 오건묵 목사가 각 교회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해 목사(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장)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오는 4월 6일 오후 5시 30분 워싱턴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에서 50주년 희년 감사영광예배가 드려질 예정이다. 주소는 9524 Braddock Rd. Fairfax, VA 22032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기자



오찬기도회 예배담당자들


50대 교협회장
전찬선 목사


기념위원장 이병완 목사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


김성도 목사


김영진 목사


김재동 목사


문정주 목사


박희숙 목사


배현수 목사


안현준 목사


오건묵 목사


이 범 목사


주명식 목사


한 훈 목사


한세영 목사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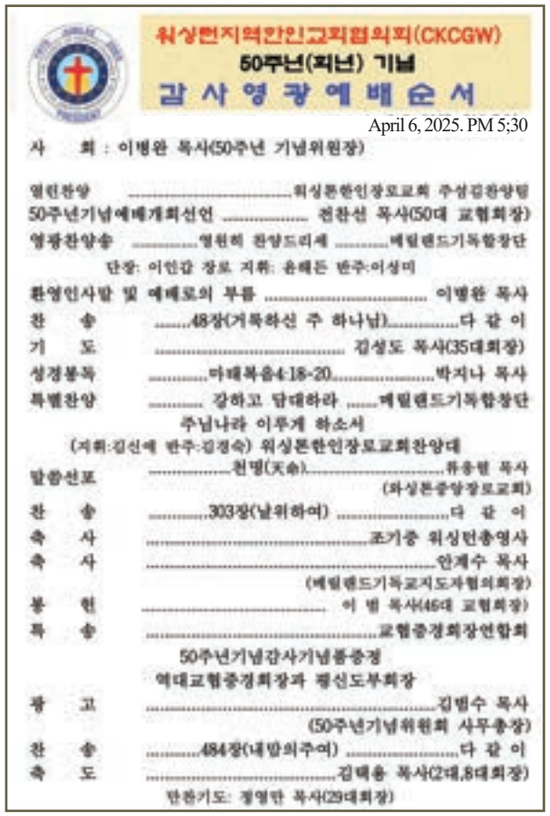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 이하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2025년 4월 6일 오후 5:30, 워싱톤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박성일)에서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예배를 드렸다.



사회자 이병완 목사(교협50주년 기념위원장)

예배는 주섬김 찬양팀의 열린 찬양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50대 교협회장 전찬선 목사의 개회 선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문을 열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CKCGW)
50주년(희년) 기념
감 사 영 광 예 배 순 서

April 6, 2025. PM 5:30

사 회 : 이병완 목사(50주년 기념위원장)

열린찬양 .....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주섬김찬양팀
50주년기념예배개회선언 ..... 전찬선 목사(50대 교협회장)
영광찬양송 ..... 영원히 찬양드리세 ..... 메릴랜드기독합창단
단장: 이인갑 장로 지휘: 윤태든 반주:이성미
환영인사말 및 예배로의 부름 ..... 이병완 목사
찬 송 .....48장(거룩하신 주 하나님).....다 같 이
기 도 ..... 김성도 목사(35대회장)
성경봉독 .....마태복음4:18-20.....박지나 목사
특별찬양 ..... 강하고 담대하라 .....메릴랜드기독합창단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지휘:김신애 반주:김정숙) 워싱톤한인장로교회찬양대
말씀선포 .....천명(天命).....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찬 송 .....303장(날위하여) .....다 같 이
축 사 .....조기종 워싱턴총영사
축 사 .....안계수 목사
(메릴랜드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
봉 헌 ..... 이 병 목사(46대 교협회장)
특 송 .....교협증경회장연합회
50주년기념감사기념품증정
역대교협증경회장과 평신도부회장
광 고 .....김범수 목사
(50주년기념위원회 사무총장)
찬 송 .....484장(내맘의주여) .....다 같 이
축 도 .....김태용 목사(2대,8대회장)
만찬기도: 정영탄 목사(29대회장)



전찬선 목사(50대 교협회장)



메릴랜드기독합창단

이어 메릴랜드기독합창단의 영광찬양송이 울려 퍼지고, 이병완 목사의 환영인사말이 있었다.

"오늘 '교협 50주년(희년)기념 감사영광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0주년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교협이 희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희년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근본적인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년제도를 정하셨는지? 왜 교협을 50년전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협과 회원 교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자성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협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어 한 단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감사 영광'이라는 두 단어를 다 사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두 단어가 다 사용될것입니다. "오늘 '50주년 희년기념감사영광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도 목사
(35대 교협회장)



박지나 목사
(여교역자회 부회장)



워싱톤한인장로교회찬양대

이어 김성도 목사의 기도와 박지나 목사의 성경봉독(마태복음 4장18-20절)의 순서가 있은 후, 특별찬양으로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찬양대와 메릴랜드기독합창단의 영광스런 찬양이 있었다.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이어서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가 '천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 설교제목 : 천명(天命) -

"하나님께서 교협을 세우시고 한결 같은 사랑으로 지난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의 생명 역사에 사용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탄생시킨 예수님입니다. 우리 워싱턴지역교협산하 모든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천명을 가슴에 새기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使命)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고 살아갔던 평범한 베드로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무장하여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불태우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주님의 천명을 받고 사명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기꺼이 삶을 드리는 순명(順命)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번 주어진 삶을 고결하게 불태우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가슴에 천명, 사명, 순명이 새겨져서 한번의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결하게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그를 훈련시켜 구원역사에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조기중 워싱턴총영사

이어 조기중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축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 축사 : 조기중(워싱턴 총영사)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설립 50주년을 맞게됨을 축하드립니다.

반세기 동안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고, 나눔과 화합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오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워싱턴교협이 희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 었습니다. 50년동안 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교협을 후원하고 연합에 힘쓰신 교협 산하 지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단합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교협이 보여준 변함없는 신념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했던 여러분의 노력은 동포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5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워싱턴교협이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 교회 간 협력과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회복, 공정과 정의라는 희년의 각별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워싱턴교협이 중시했던 가치와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협이 '50년사' 발간하게 됨을 다시금 축하드리며, 50년(희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님과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그리고 기념위원회와 편찬위원회원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책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교협과 교계에 목적과 방향에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싱턴교협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미한국대사관 조기중 –

이어 안계수 목사(메릴랜드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는 워싱턴교협과 메릴랜드교협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과거에도 이단대책에 대해 함께 연합하여 교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협력했다고 했고, 워싱턴교협이 50년을 맞아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교협이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새로운 시간을 맞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계수 목사
(메릴랜드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



이범 목사
(교협 46대회장)



교협 증경회장단 특별찬송(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봉헌기도는 제46대 회장인 이범 목사가 담당했고, 봉헌특별찬송은 역대 교협 증경회장단이 담당했다..

이어서 역대 교협증경회장들과 평신도부회장들에게 교협5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이 담긴 기념패를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가 증정했다.

김범수 목사(교협50주년 기념위원회 사무총장)은 교협 1대부터 50대까지 회장단 50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교협을 위해 수고하신 역대 회장들의 헌신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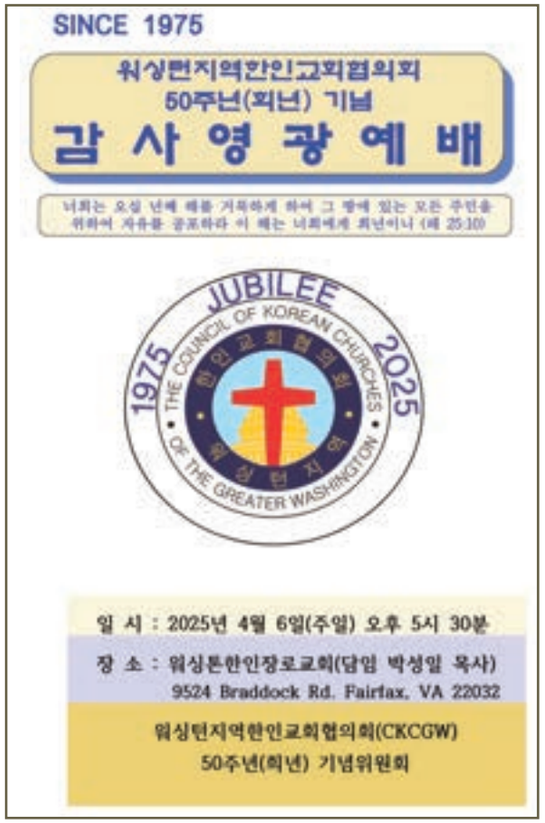
예배는 상임고문 김택용 목사(워싱톤한인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증정했고, 기획위원 정영만 목사의 식사기도 후 풍성한 만찬교제를 가졌다.



김범수 목사
(50주년 기념위원회 사무총장)



축도 김택용 목사
(2,8대 교협회장)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음악회



워싱턴교협의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7월 12일(토) 오후 6:30분,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에서 50주년 기념 감사영광음악회를 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116:12-14)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협을 50년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영광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도 감사할 뿐이다.

교협이 50주년을 맞는 해에 함께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다. 이것이 역사의 순간이고, 또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었다. 이런 감사와 영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 '감사영광음악회'는 마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드리는 웅장하고도 감동적인 음악회와 같고,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축하음악회와 같은 다정하고, 소박한 행복이 흐르는 그런 음악회였다.

교협이 5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교협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본 후 워싱턴교협회장(50대) 전찬선 목사의 개회기도로 음악회는 시작되었다, 김홍렬 목사(반주 문한나 집사)의 경쾌하고도 즐겁고, 깊은 색소폰의 연주, 소프라노 오성미 권사(반주 이고은 집사)의 어지신 목자, 주의 기도를 부르는 동안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과 들, 그리고 광야로 다니시는 목자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했으며, 이현재 목사(워싱턴휄로쉽교회)는 마치 최고의 음식점에서 부드럽게 녹아지는 음식을 먹는 것같은 편하고, 아늑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이경미 교수가 피아노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 예수사랑하심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연주는 마치 천진난만하게 환한 웃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한 청년같은 믿음으로 장성하고, 장년의 인생에서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 했다.

메릴랜드기독합창단(단장 이인갑 장로 지휘 안영수 집사 반주 이성미 집사)이 악보도 보지 않고 부르는 세련됨과 노련함에서 나오는 강약의 화음, 균형된 박자가 참여한 청중의 시선과 귀를 한데로 모았다. 강하고 담대하라, 영원히 찬양드리세는 지나간 50년의 교협의 역사속에서 많은 일들가운데서도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된 교협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같았다.

감사영광음악회 준비위원장 한세영 목사는 감사영광음악회를 통해서 후원된 기금은 교협에 속한 많은 교회와 해외선교를 후원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헌금을 하였다. 워싱턴한인색소폰앙상블(단장 김광수 지휘 장 걸)의 주만 바라볼찌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연주될 때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앞장세우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감사영광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금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성령의 경고하심으로 들렸다. 워싱턴글로리아하프찬양단(단장 김영란 사모)의 내 주를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연주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멀리 길 떠난 아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기도소리처럼 들렸다. 워싱턴그레이스사모합창단(지휘 이철 목사 반주 김성은 사모)은 연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단위에 섰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고, 목사 사모로서 지내온 그 길을 까맣게 잊은 채 마치 시골의 순결한 아리따운 봄처녀같이 사랑의 열매, 주님의 음성을 불렀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겸손히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길 잃어버린 양들을 보살펴온 사모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곱고,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부르는 찬양은 사모들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박지은(소프라노) 교수의 축복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양처럼 그릇행하여 이리저리 철없이 방황하는 어린 양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팔로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목자되시는 예수님의 깊고, 넓고, 높고, 영원한 사랑을 온 몸과 영에 이슬처럼 젖어드는 은혜를 받게 했다.

청년대학생들처럼 보였던 분들이 무대에 섰을 때 그 모습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오래 걸어온 시니어 합창단이라는 것에 놀라게 한 메릴랜드 상록회 합창단(단장 이광운 장로 지휘 이낭우 사모 반주 이성미 집사)의 고운 진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하얀 바지, 그리고 하얀 구두를 입고 선 모습들이 시원한 바다에서 날개짓하는 갈매기의 생동감을 느끼게 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해도, 내가 산을 향하여는 지난 세월 그 어떤 위대한 경력과 이력,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생의 진리를 간증하는 듯했고, 앞으로 남은 삶에 어려운 고비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다짐이었다. 오랜 시간 서 있기도 힘이 들텐데 피곤한 여색이 없이 강건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상록회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세밀히 관리했는가를 보여 주었다. Washington Herigtae University(이사장 문선희, 지휘 박요셉 목사, 반주 김성은 사모) 합창단은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주님 나를 인도해를 찬양했다. 박요셉 목사의 마음에서부터의 지

휘가 손끝으로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후배양성을 위해 힘쓰는 교수님들과 임직원, 그리고 선한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대원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감사영광음악회 준비위원장 한세영 목사의 지휘로 연합성가대가 헨델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음악회 마지막 순서로 합창하였다. 할렐루야 합창은 그 어떤 곳에서 함께 불렀고, 듣고 보았던 할렐루야 찬양보다 더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 누린 천국의 백성들의 합창이었다. 언제나 할렐루야를 들을 때마다 온 몸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은 헨델의 영감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들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목회자로서만 아니라 음악가요, 지휘자로서 한세영 목사의 음악성과 듬직한 팔로 지휘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여실히 보여졌다.

김범수 목사(50주년 기념위원회 사무총장)이 짧은 광고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서로 서로 '수고하셨습니다."로 인사를 나누게 한 후 이병완 목사(5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음악회를 마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았고, 모두가 한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사진의 얼굴들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증명사진이었다.

하나님께서 50년동안 교협을 지켜주신 은혜와 축복을 교협이 감사영광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정말 카네기홀과 같은 더 넓고 웅장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풍성한 순서로 100주년 기념때에는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다시금 지금까지 50년동안 워싱턴교협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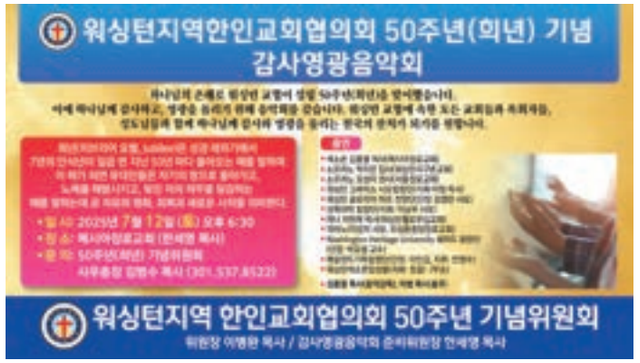


축도이병완목사



개회기도전찬선목사







Programs

- 개회기도 ····· 한세영 목사
  (워싱턴지역교협 50주년(희년) 기념감사영광음악회 준비위원장)
- 메시야장로교회 — 색소폰. 김홍렬 목사 / 반주. 윤한나 집사
  신령한 노래 배들리(Luther Henderson 편곡)
- 서울장로교회 — 소프라노. 오성미 권사 / 반주. 이고은 집사
  여지선 목사(김두환 곡) / 주의 기도 (Malotte 곡)
- 웰로십교회 — 테너. 이현재 목사 / 반주. 이경미 교수
  생명의 양식(C. Franck 곡)
  왜 날 사랑하나 (R.Harkness 곡)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 피아노. 이성미 교수
  변찮는 주님의 사랑, 오신실하신 주
  내 평생에 가는 길(이경미 편곡)
- 메릴랜드기독합창단 — 지휘. 안애수 집사 / 반주. 이성미 집사
  단장 이임갑 장로
  강하고 담대하라(권은미 곡)
  영원히 참양드리세(백승남 곡)
- 한금기도 ····· 권창원 목사
  (제 50대 워싱턴지역교회협의회 회장)
- 워싱턴한인색소폰앙상블 — 단장. 김광수 / 지휘. 장겸
  주만 바라볼지라(박성호 곡)
  하나님의 나팔소리(James Milton Black 곡)
-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 찬양단 — 단장. 김영란 사모
  내 주를 가까이 (Lowell Mason 곡)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고형원 곡)
- 워싱턴 그레이스 사모합창단 — 지휘. 이철 목사 / 반주. 김성은 사모
  사랑의 열매(김규환 곡), 주님의 음성(이수인 곡)
- 지구촌교회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 소프라노. 박지은 교수 / 반주. 이고은 집사
  축복하노라 (신상우 곡)
  어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곡)
- 상록합창단 — 단장. 이광은 장로 / 지휘. 이남우 사모 / 반주. 이성미 집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Josep M. Martin 곡)
  내가 산을 향하이(신상우 곡)
-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합창단 — 지휘. 박요셉 목사 / 반주. 김성은 사모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J. Varley Roberts 곡)
  주님 나를 인도해 (Mary Mcdonald 곡)
- 연합합창 — 지휘. 한세영 목사 / 반주. 이경미 교수
  할렐루야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색소폰김홍렬목사


피아노이경미교수


소프라노박지은교수


소프라노오성미권사


테너이현재목사


광고김범수목사


연합합창대지휘한세영목사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메릴랜드기독합창단


메릴랜드상록회합창단


워싱턴그레이스사모합창단


워싱턴글로리아하프찬양단


워싱턴한인색소폰앙상블


연합성가대

목회와 교회론 포럼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요일) 오전 10:00
장소 :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강사 : 김의원 박사(전 총신대학교총장)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와 교회회복"
최고센 박사(NYSKC World Mission 대표)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와 예배회복"
장요나 선교사(비라카미선교회 대표)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와 선교회복"

MINISTRY FORUM

50주년 희년정신구현을 위한 미자립교회 및 선교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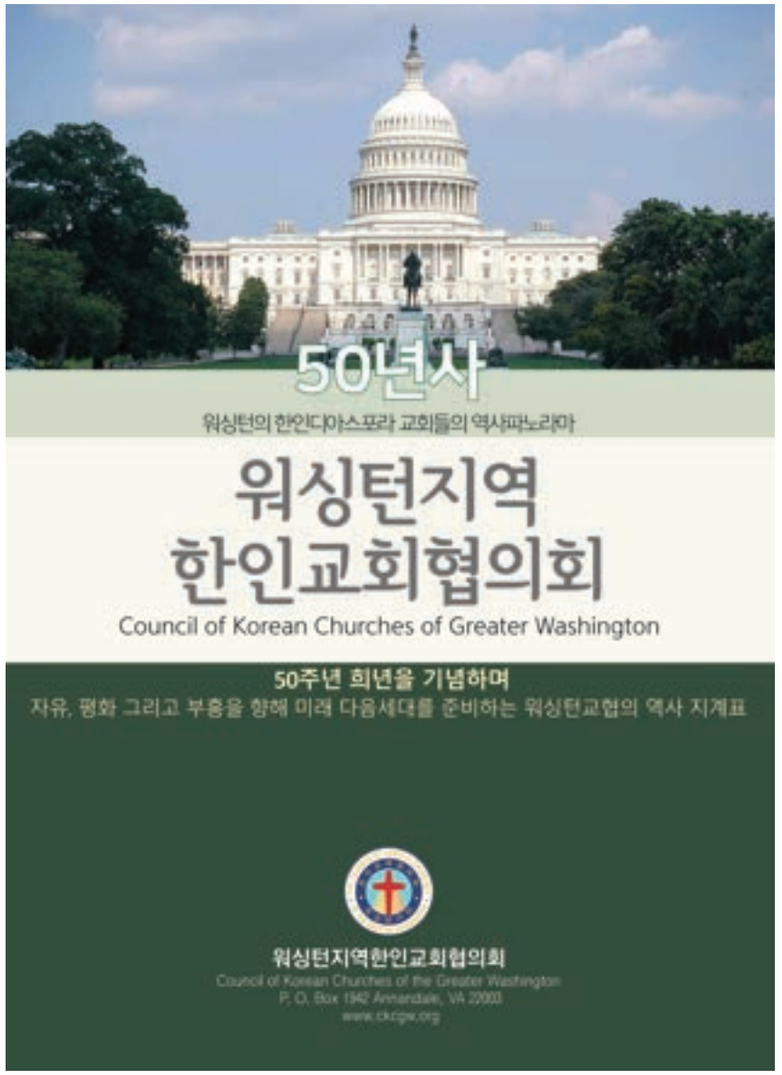
목적: 교협 50주년(희년)을 맞이하여 희년정신구현을 위하여 1)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2) 교회의 부흥 3)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의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미자립교회들과 해외선교지역에 사랑과 기도로 후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교협 '50년사" 발간예배

교협 설립 50주년(희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협을 사랑하셨고, 사용하셨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더할 나위없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교협 50년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우리 교협에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50년사를 기록하여 출판하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50년사'를 통하여 지나간 50년의 교협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50년의 미래역사를 미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 위원회



3차회의

목 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운데 워싱턴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워싱턴교협을 이루고, 그 교협은 50년 동안 워싱턴지역의 교회들과 지역사회를 섬겨왔다. 교협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일치와 교회연합에 힘을 다하였다. 그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힘을 합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 봉사, 섬김, 드림의 결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왔다. 사람들이 모여 일하기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복음정신으로 힘쓰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이기에 지금까지 달려 올 수 있었다. 완전한 사람을 말함이 아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연합사업을 최선을 다해 섬기신 분들을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하여 교계와 다음 세대에 전하여 귀감이 되게 함이다. 또한 앞으로 교협을 섬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함이 목적이다.

조 직

위원장 : 김택용 목사 **부위원장** : 박석규 목사

위 원 : **장로교위원** : 김택용 목사 정인량 목사

기타교단위원 : 최윤환 목사

침례교위원 : 이원희 목사 정영만 목사

감리교위원 : 박석규 목사 김성도 목사

임원위원 : 이병완 목사 김범수 목사

선정기준

1. 50인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교협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2. 목회자, 평신도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선정할 수 있다.
3. 고인이 되신 분이나 현존하는 분도 구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4.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이나 타지로 이주하신 분도 구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5. 워싱턴교협 임원을 한 분이나 하지 않은 분도 구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6. 워싱턴에서 세평이 어떠한가도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7. 선정위원도 추천받을 수 있다.
8. 50인을 선정함에 있어 선정위원들이 무기명 무제한으로 추천하여, 그 추천된 분에 한하여 무기명 무제한으로 투표하여, 공정하게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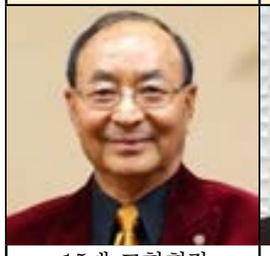


2차회의



4차회의

교협을 빛낸 50인 명단

정용철 목사	김택용 목사	박관빈 목사	김종선 목사
			
1대 교협회장 워싱턴연합 장로교회	2,8대 교협회장 워싱톤한인 침례교회	3대 교협회장 우리침례교회	7대 교협회장 동부장로교회
김상묵 목사	**최윤환 목사**	**이원상 목사**	**박석규 목사**
			
9대 교협회장 맥클린장로교회	10대 교협회장 여정교회	11대 교협회장 와싱톤중앙 장로교회	12대 교협회장 워싱턴감리교회
손인화 목사	**황수봉 목사**	**한철우 목사**	**김석현 목사**
			
15대 교협회장 버지니아 장로교회	16대 교협회장 북버지니아 장로교회	17대 교협회장 수정교회	19대 교협회장 세계선교교회
황찬규 목사	**이원희 목사**	**임종길목사**	**정인량 목사**
			
20대 교협회장 대성침례교회	21대 교협회장 신생침례교회	25대 교협회장 워싱턴 제일교회	27대 교협회장 영광장로교회

양광호 목사	정영만 목사	김재동 목사	신동수 목사
			
28대 교협회장 페어팩스 한인교회	29대 교협회장 월드비전교회	30대 교협회장 서울장로교회	31대 교협회장 워싱턴순복음 제일교회
이병완 목사	**김양일 목사**	**김성도 목사**	**배현수 목사**
			
32대 교협회장 세계로장로교회	33대 교협회장 하나님의 말씀교회	35대 교협회장 열방사랑교회	36대 교협회장 워싱턴소망교회
차용호 목사	**김범수 목사**	**최인환 목사**	**한세영 목사**
			
37대 교협회장 센터빌한인 장로교회	38대 교협회장 워싱턴동산교회	39대 교협회장 콜럼비아한인 침례교회	42대 교협회장 메시야장로교회
안병국 목사	**신석태 목사**	**조영진 목사**	**손형식 목사**
			
안디옥침례교회	원로목사회장 락빌한인 침례교회	와싱톤한인교회	필그림교회

김만풍 목사	김용훈 목사	임용우 목사	김영진 목사
			
워싱턴지구촌 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워싱턴성광교회	워싱턴베다니 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이성자 목사**	**이동원 목사**	**이영훈 목사**
			
와싱톤중앙 장로교회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워싱턴지구촌 교회	워싱턴순복음 제일교회
홍원기 목사	**정택정 목사**	**최정선 권사**	**김영호 장로**
			
올네이션스교회	워싱턴밀알선교단장	30대 평신도 부회장	31대 평신도 부회장
이근선 집사	**박상근 장로**	**정세권 장로**	**김영천 권사**
			
34대 평신도 부회장	36대 평신도 부회장	37대 평신도 부회장	39대 평신도 부회장 미주워싱턴중앙일보

문선희 집사	김종택 장로
	
43대 평신도 부회장 WHU 이사장	열린문장로교회 Global Food



교협 50년사 편찬위원회



1차 편찬위원회(장소: 미주워싱턴한국일보)

I. 편찬위원회 조직

편집인 : 이병완 목사

편집총무 : 김범수 목사 **서기**: 한세영 목사 **회계** : 박희숙 목사, 박지나 목사

편집위원 : 김택용 최윤환 정인량 정영만 김성도 배현수 한세영 허성무 (이상 목사),
정승욱 문선희

II. 1 차 편찬위원회

일시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 미주워싱턴 한국일보 회의실

편집인 이병완 목사가 빌립보서1:6을 봉독한 후 개회기도, 인사말과 편찬위원들을 소개했다. 편찬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계획을 설명하다.

– 결정사항 –

1) 편찬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50주년 편찬위원회”로 결정하다.
2) 편찬위원회의 후원회장을 정인량 목사로 정하다.
3) 교협 50년사 발간은 2025년 10월 총회 즈음으로 계획하다.
4) 50년사에 기록될 교회 및 유관기관 선정 책임자를 정영만 목사로 정하다.
5) 김광근 편집간사에게 편집디자인을 위임하는 것을 다음 회의때 결정하기로 하다.
6) 예산계획안을 통과하다.

7) 자료수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잠정 계획하고 위원들이 협력하기로 하다.
가. 각 해당 년도 회장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나. 행사 목록 및 행사사진 및 언론사 기사자료
다. 신년하례예배, 부활절예배,복음화대성회,
라. 성탄축하음악예배 순서지
마. 해당년도 주소록
바. 해당교협의 행사 및 특징 설명 :
사. 레터사이즈로 1페이지(11폰트크기)
아. 총회촬요
자. 회장 인사(사진과 함께)
차. 행사 포스터 및 전단지
카. 특별행사(재난헌금모금 및 후원)
8) 편찬위원회의 회계에 박희숙 목사 박지나 목사로 정하다.

II. 2 차 편찬위원회 2차 회의록

일시 :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미주 워싱턴중앙일보 회의실

편집장 이병완 목사의 이사야 26:3을 봉독한 후 개회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총무 김범수 목사가 서기 한세영 목사를 대신하여 회의록을 보고하다.

– 결정사항 –

1)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서 편찬위원회는 편집장과 편집총무의 주관하에 진행되도록 하고, 특별사항이 있을 때에 편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다.

III. 3차 편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연합회의

일시 :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이병완 목사가 시편 20:1-4 성경봉독 후 개회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이병완 위원장이 기획위원회와 편찬위원회가 함께 모인 이유를 설명하다.

– 결정사항 –

1) 50주년(희년) 기념감사영광예배를 위한 증경회장 및 목회자초청 오찬기도회를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이사장 문선희)에서 갖기로 하다.
2) 50주년(희년)기념 감사영광예배를 위한 오찬기도회를 4월 6일(주일) 오후 5시 30분 워싱턴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에서 갖기로 하다.
3) 50주년(희년) 기념 포럼을 9월 중에 갖기로 하다(주제: 목회와 교회론).

4) 한세영 목사를 50주년(희년) 기념 감사영광음악회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다. 음악회는 6월 1일에 갖기로 결정하다.
5) 희년정신 구현을 위해 미자립교회 및 해외선교 후원을 하기로 하다.
6) 50년사에 기록될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IV. 50년사 편찬방향과 편집계획

교협 50년사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교협에 속한 교회, 목회자, 성도님들의 역사이다. 가능한 50년의 역사에서 자취를 남긴 사람들과 행사들을 수록하되, 단순한 시간적, 사건적인 기록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편찬위원회는 4차회의에서 편집인 이병완 목사와 편집총무 김범수 목사에게 재량권을 50년사 편집 전반에 걸쳐 위임하여 편찬위원회의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만 편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50년사 편집의 순서는 축사, 초기 워싱턴교협과 교회들의 역사, 워싱턴성서대학, 원로목사회의 역사, 잊을 수 없는 사람들, 50대까지의 교협 회장들의 역사, 각 교회들의 역사, 유관기관들의 역사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회들과 기관들, 사업처의 광고를 넣기로 하였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는 내년 50주년을 준비하며 지난 2023년 8월 17일 기념위원회(위원장 이병완 목사)를 발족했고, 2024년 8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위원회는 "희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교협 50년사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병완 목사가 편집인을 맡았으며, 편집총무 김범수 목사, 편집위원 김택용, 최윤환, 정인량, 정영만, 김성도, 배현수, 한세영, 허성무, 문선희(WHU이사장), 정승욱(KUNPB회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18일 본보 회의실에서 열린 편찬위원회에서 예산과 일정, 자료수집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내년 50주년 행사를 비롯해 각 교회와 유관기관의 자료,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에 대해 의논하였다.

1975년부터 2025년까지, 1대부터 50대까지 50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교협 50년사는 416페이지 분량으로 700권을 출판할 계획이다. 편찬위원회는 정인량 목사를 출판을 위한 후원회장을 맡아 교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출판기념예배는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다. (출처: 미주워싱턴한국일보 류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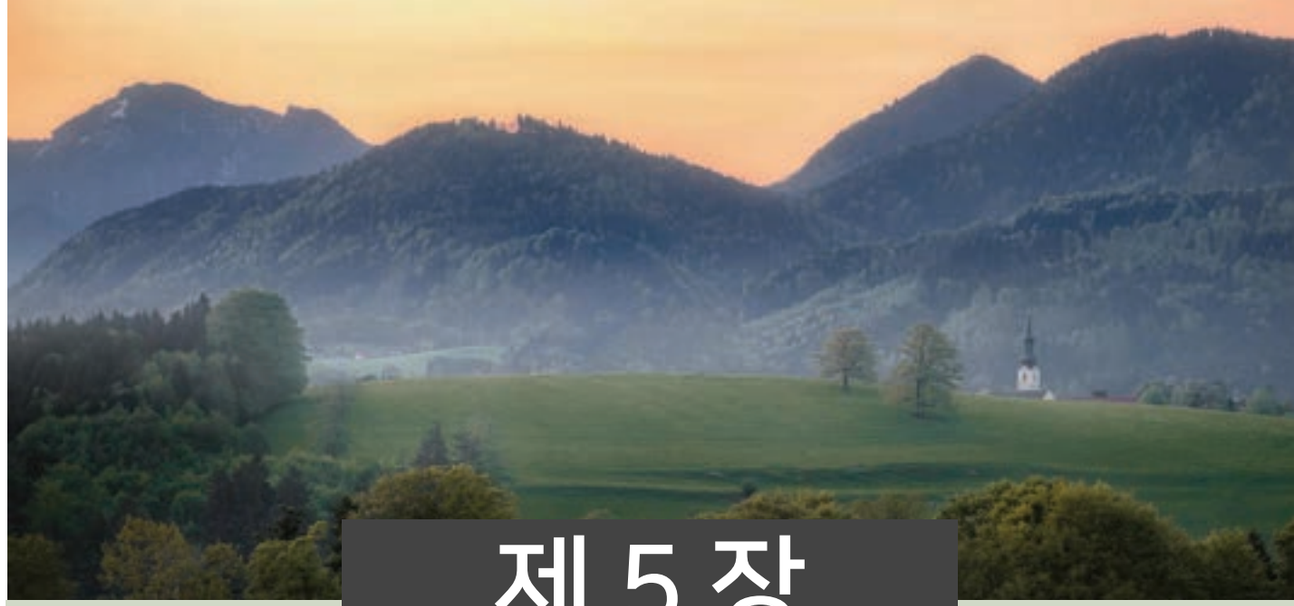








3차 편찬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연합회의(메시아장로교회)



제 5 장

교회협의회 회원교회들의 역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워싱턴성광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워싱턴세계로장로교회
워싱턴서울장로교회
린치버그한인교회
워싱턴동산교회
열방사랑교회
워싱턴휄로쉽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와싱톤한인교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 윤명호 1대 담임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워싱톤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윤명호 목사가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관을 가진 목회를 하기 위해 1973년 11월 4일 믿음 안에서 뜻을 같이한 20명 가까운 성도와 함께 윤명호 목사댁에서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11월 말에는 '한인중앙교회(Korean Central Church)'로 교회 명칭을 정했고, 12월 23일부터 알링턴의 트리니티장로교회(Trinity Presbyterian Church)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드렸다. 이후 1974년 12월 22일에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명칭을 '와싱톤중앙장로교회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로 변경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성장하던 교회를 뒤로하고 윤명호 목사는 1977년 하반기에 사임했다.

● 이원상 2대 담임목사 부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이원상 전도사를 청빙해 1977년 12월 첫 주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는데, 당시 교회 출석 성도 수는 30명에 불과했다. 그는 매일 빠짐없이 전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심방도 자주 해 친밀한 분위기 안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주력해 성장해 갔다. 1978년 6월부터는 맥클린에 있는 루인스빌장로교회로 장소를 옮겨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이원상 목사가 2:7 제자훈련 클리닉에서 훈련받고 이것을 도입해 다음 해에 2:7 제자훈련 1권을 직접 인도했다. 또, 1982년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도입했는데, 두 훈련은 중앙장로교회 평신도를 영성화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원상 목사는 성도 개개인과의 영적 교제를 중요시해 심방과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성심껏 수행했다. 모든 교인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각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담임목사와 성도 개개인 간의 깊어진 영적 교제가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을 심방의 날로 정해, 새교우 가정을 중심으로, 환자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를 심방했다.

교회 설립 후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왔던 선교가 1987년부터 직접 국외로 나가는 단기선교로 본격화했다. 단기선교는 1987년 7월에 3명이 파라과이에서 한 달 동안 사역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했다. 또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문적인 한인 선교단체 설립의 필요를 절감해 1990년 중앙선교회(CMF)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했고, 이를 통해 2000년까지 매년 한 가정씩 열 가정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0년 12월 박신욱 선교사 가정을 초대 선교사로 아르헨티나로 파송했다. 2000년 6월 중앙선교회(CMF)는 뉴욕장로교회에서 세운 선교 기관인 ROW(Reach Out the World)와 통합해 SEED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해 교회 파송 선교사와 미주의 3천여 한인교회를 섬기며 2세 선교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실현했다. 또한, 국가별 선교의 제한성을 개선한 미전도종족에 관한 개념이 도입돼 2002년에 캄보디아 잠족, 2003년에는 쿠르드족을 입양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늘어나는 성도 때문에 빌려 쓰던 루인스빌교회 사용이 어려워져 1980년에 구매한 비엔나 소재 3.5 에이커 대지에 새 성전을 건축해 1985년 12월 7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10년간 교회가 급진적으로 성장해 매 주일 4,0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출석해 부족한 예배 처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비엔나 부지의 건축 허가가 어려움을 겪어 센터빌 부지로 교회를 옮기는 계획을 진행했다. 2001년 80에이커의 대지를 구매해 2010년 7월에 17만 5천 스퀘어피트의 센터빌 성전을 완공했다.

1986년 3월에는 오전 9시 45분에 장년을 위한 영어 예배가 시작됐다. 영어권 성도의 증가로 1992년에는 독립적 영어 목회를 위해 1세와의 긴밀한 관계로 통일성을 유지하되 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의 영어 목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 2000년에는 교회학교를 Promiseland로 개칭했고, 한어 중등부(Agape), 영어 중·고등부(AS & JG) 그리고 한어 대학청년부와 영어 청년부(S&L)로 개인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 사역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1994년 노인학교로 시작된 시니어 사역은 와싱톤 지역의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모범적인 커뮤니티 사역으로 크게 성장했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1998년에는 중앙노인학교를 중앙씨니어센터로 개칭하고, 비영리단체로 인가받았다. 2013년에는 시니어사역원이 발족해, 시니어의 육체적, 정신적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목적으로 6개의 자치회를 구성했다.

● 노창수 3대 담임목사 부임

이원상 목사는 25년 9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65세 정년이라는 교회 내규에 따라 2003년 9월 30일에 은퇴했다. 이원상 목사는 1987년 6월에 교육 전도사로 부임해 1990년까지 2세 교육과 영어 예배 사역을 했던 노창수 목사를 후임으로 천거했고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인준돼 2003년 9월 27일에 이원상 목사 원로목사 추대와 함께 노창수 목사 담임목사 취임 예배가 열렸다.

노창수 목사는 센터빌 성전 건축이란 커다란 과제를 안고 새로운 센터빌 시대를 향한 청사진을 품고 취임했는데, 모든 성도가 새 성전을 짓는 것과 함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짓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모든 건축 과정을 진행했다. 2003년 4월 건축위원회가 조직되고 2007년 기공 예배를 거쳐 2010년 6월에 성전 건축이 완공됐다.

또한, 기도와 말씀 중심의 동부 최대 교회로 성장한 교회를 변화시킬 새로운 도전으로 훈련을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제자훈련을 도입했다. 2004년 가을에 당회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제자훈련을 2005년부터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해 2025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총 2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현재까지도 교회 내

외에서 영적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통적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순모임 중심의 '소그룹의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구역 예배와 선교회를 폐지해 '순'이라는 새로운 소그룹을 구성했다. 우선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 리더를 키울 수 있었고, 소그룹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소그룹 인도자 훈련과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008년 10월 17일에 순모임을 정식으로 시작했으며, 17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성도의 영적 성장에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사역의 활성화와 장로 임기제, 교회 말씀 묵상집 발행, 컴패션, 개척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등 새로운 시도를 실시하고 공동체와 Blessing을 사역 비전으로 삼았던 노창수 목사는 2012년 7월 1일에 10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 류응렬 4대 담임목사 부임

2013년 4월에 부임한 류응렬 목사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닌 '한 사람'에 있으며 영혼이 변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목회의 초점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국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10년을 가르친 대로 성경적 목회할 것을 천명하고,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목회 정신을 따라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취임 이후부터 줄곧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 사람을 제자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다양한 소그룹 모임과 제자훈련을 통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빛 된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를 지향했다.

류응렬 목사는 '한 사람' 비전 외에 예수님처럼 보냄 받은 'The SENT'의 삶을 사역 비전으로 강조해 왔다. Spiritual Warship (예배하는 교회)에 맞춰 전통 방식과 현대식 방식을 통한 예배 형식에 다양한 변화를 줬고, 최첨단 예배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예배가 가능하게 했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 4월에는 KCPC ON이라는 온라인 교회를 출범해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의 모습을 표현했다.

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를 통해서는 로컬과 글로벌을 품는 글로컬 교회로서, 와싱톤 지역 커뮤니티에 교회를 오픈해 'Stop Hunger Now', 체계적 노숙자 사역 등 다양한 지역 행사를 실시했고, 한인 시니어 섬김과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한국학교와 크리스천 학교인 The Sent Christian School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또한, 2013년 7월에 시작한 '한사람 생명축제' 등을 통해 태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생명 탄생의 열매를 거두기도 했다.

Nurturing the Saints (제자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훈련할 다양한 훈련법을 모색해 일대일 제자양육, XEE 영어권 전도폭발 훈련, 바이블 아카데미, 중앙음악 아카데미 등 전문적이면서 평신도가 참여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모색, 발전시켜 평신도 양성에 힘써 왔다.

Together in Christ (함께하는 교회)로 성도가 함께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성경통독 2000독, 성경필사 등을 통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왔고, 기도에도 힘써 팬데믹 기간에도 주

차장 금요비상 기도회. 문고리 심방, Passion 12 등을 통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기쁨을 누리게 했다.

다음 세대 비전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과의 상생을 지향하는 비전에 따라 2025년에는 교회 내 부지를 '블레싱 파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건축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과거를 굳히고 현재를 살리며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74년알링톤트리니티교회푯말설치



1974와싱톤중앙장로교회명칭변경


19781202이원상목사위임식


19840505기공예배



1992교육관선교관기공식


3대담임목사노창수목사이미영사모



4대목사 류응렬 목사



4대류응렬목사



류응렬 목사 위임예배



2025미주워싱턴다니엘기도회



열린문장로교회



열린문 장로교회는 과거 한인정통장로교회(KOPC: Korean Orthodox Presbyterian Church)란 이름으로 1984년 1월 1일에 드려진 창립예배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제1대 목사인 차문제 목사는 알링턴(Arlington)에 위치한 미국교회(Calvary Gospel Church) 예배당을 빌려 68명의 장년 성도, 50여 명의 자녀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다. 차목사는 1924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 옥고를 치루었던 불굴의 신앙인이었다. 이에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민교회에서 성경에 기초한 정통적인 신앙을 세워나가고자 교회 이름을 '정통장로교회'로 지었던 것이다.

교회 태동기의 힘든 여건에도 차문제 목사는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생활을 가르치고, 성실한 심방사역을 통해 이민자들을 위로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지속했다. 주일예배와 삼일기도회, 그리고 토요집회로 모이기를 힘쓰며 남녀 전도회와 청년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1986년에는 220여명, 교육부서는 120여명을 넘어섰다. 교회 창립 초기부터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모임이 활발했는데, 차문제 목사의 장남 차태욱 전도사(현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가 중고등부를 맡아 섬겼을 당시 열린문 자녀들은 버지니아 지역교회 청소년 연합기도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미래의 리더들로 준비되어 갔다.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일로에 있던 1987년 새해, 차문제 목사는 직장암 선고를 받고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원로목사로 추대되며 은퇴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1988.2.4). 이어서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병원 목사는 당시 고신대 학장의 신분으로 1988년 1월 10일 주일설교를 하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차문제 목사는 같은 고신교단의 신앙노선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여겨 그를 담임목사로 추천했다. 이에 김병원 목사는 1월 31일 공동의회의 만장일치 가결을 통해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아, 8월 3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김병원 목사는 14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사임하여(1989.10.9) 부산 대신동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그의 복음주의 강해설교와 체계적인 성경공부 사역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심어 훗날 제3대 목사를 통해 큰 열매를 거두었던 제자훈련 사역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김병원 목사는 이후 고신대학교 대학원장, 총장을 역임하고 2001년 퇴임하여 현재 열린문교회 협동목사로 함께 하고 있다.

제3대 담임목사인 김태권 목사는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부터 제1대와 제2대 담임목사의 공백기를 메우며 성실히 섬겼던 목회자로,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공부 중 교회의 부름을 받아 1990년 10월 29일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가 소속한 PCA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젊은 나이에 담임목회를 시작한 김태권 목사는 두 가지 뚜렷한 목회적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제자훈련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타협없는 순종과 정직한 삶을 가르쳤다. 그는 교회의 젊고 성숙한 리더쉽을 양성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시니어를 섬기는 일에 대해 당회의 협조를 구하고, 3040세대를 중심으로 철저한 제자훈련 사역을 이어 나갔는데, 주일성경공부, 수요성경공부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자훈련의 성과를 계기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한편, 기존 전도회 체제에서 60세 이상의 갈렙회와 40세 이상의 남성 바울전도회, 여성 에스더 전도회, 30세 이상의 남녀 그룹의 마가, 디모데 전도회로 교회 성장에 발맞추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

둘째, 김태권 목사는 중고등부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했다. 오전에는 장년예배와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패밀리 워십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점차 굵직한 영어부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청년부와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선교의 인식이 확장되기도 했는데, 1987년부터 시작된 단기선교 사역에서 1990년 파라과이 평신도 선교사 파송(유정웅, 이미선 선교사), 그리고 점차 선교사 후원을 늘려가면서 젊은 세대 중심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교회는 또 하나의 큰 도전과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알링턴에서 예배공간으로 사용하던 미국교회의 요구에 의해 급히 새 예배당을 맥클린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교회 재정으로는 새성전을 매입하기 위한 융자를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우들의 3분의 1이 연대보증을 서는 등 큰 헌신과 희생으로 마침내 1991년 4월 21일 맥클린의 성전에서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991년 9월 22일 김태권 목사는 북한선교에 대한 헌신과 목회수련의 필요를 위해 부임 2년만에 사임했고, 1991년 10월 시카고에서 영어예배 담당 목회자로 왔던 김용훈 목사가 임시담임목사로 한어와 영어 예배를 인도하며 섬기다, 1992년 5월 10일 공동의회를 통해 제4대 담임목사로 위임되었다. 이듬해 교회는 교회 운영상 독립교회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공동의회를 통해 1993년 10월 10일 PCA노회를 탈퇴했다.

김용훈 목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설교준비와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은혜라는 한 단어로 집약될 수 있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갔다. 1991년 맥클린 성전에서의 총 출석인원인 360명에서, 1998년에는 700명으로, 2001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이 고도의 성장기에 많은 말씀과 양육사역들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교인들은 교회 번역위원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한 '주님과 만남' 소책자로 매일 묵상을 이어가는 한편, 당회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김용훈 목사의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함으로 교회 성장에 이바지할 일꾼들이 많아졌다. 2001년 이후엔 김용훈 담임목사가 '알파의 삶', 이경렬 목사가

'제자의 삶'을 그리고 '사역자의 삶'은 김요셉 목사가 맡아 제자 양육에 힘을 쏟았다.교회학교도 점점 체계화되고 사역자들도 부임하여 교회가 한층 더 활발한 사역을 이어나갔다.

교인수가 자연히 늘어감에 따라 2001년 12월 드디어 현재의 예배당인 헌던의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에 차세대를 어우르는 개명 안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교인들의 공모와 투표를 통해 열린문(Open Door)으로 결정하게 되어, 2002년 5월 26일부터 '열린문장로교회'란 이름이 새겨진 주보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입주 초기에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는데 입주 2년만에 다시 증축공사를 하게 되어, 2006년 1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근 호텔들을 돌아다니며 예배하고, 평일 새벽예배는 잔디밭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며 교회생활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교회는 1세대 한어권과 2세대 영어권 회중의 자연적이고 균형있는 성장과 더불어 "상호의존형 교회"(Interdependent Church)의 이상을 품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영어권 회중은 차태형 제1대 담임목사의 리더십 아래 독립된 교회형태로 발전함과 동시에 2002년 ODPC(Open Door Presbyterian Church)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에 동의하게 되었고, 한어권과 함께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주일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했다.

2010년 1월 24일에는 세명의 영어권 장로를 세우며 당회를 결성하여 교회운영에 한어권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체제를 이루고, 2011년 6월에는 푸른 인조잔디 너머에 영어권 새 성전(Worship Center)이 건축되고, 최종적으로는 2011년 12월 11일 '상호의존교회' 내규 수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이를 명문화했다. 이 내규에 따라 열린문 교회는 공동의회, 당회, 여러 사역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연합 공동의회'와 '연합 당회'가 새로이 조직되어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었다. 특히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기독교 교육 위원회,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 연합당회의 지도아래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에는 "상호의존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컨퍼런스(2012 i3 summit: Interdependent, Intergeneration, Intercultural)를 통해 30년의 인내와 협력으로 일군 상호의존교회의 의미를 다른 이민교회에 공유하는 뜻깊은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열린문 ODC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격년으로 열리게 되었다.

2024년 4월 28일(주)에 열린문장로교회 4대 김용훈 원로목사와 5대 김요셉 담임목사의 이, 취임예배를 드렸다. 2,000여명이 넘는 인파로 교회는 넘쳐났고, 이, 취임 예배를 통해서 김용훈 원로목사의 33년 동안의 사역을 축하하며, 김요셉 담임목사의 사역을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응원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40주년을 맞이한 열린문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2025년 41주년의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열린문 장로교회를 이끌어 주셨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월요 팟캐스트, 매일기도회, 금요 열린기도회, 은혜로 여는 토요새벽기도회, 주일예배를 통해 매주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은혜 공동체에 속한 오이코스들의 교제와 여러 사역원에 속한 팀들의 동역으로 더욱 은혜가 넘쳤으며, 멀리 해외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으로 다가온 선교 대상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다가올 50주년,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열린문 장로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지역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1대차문제담임목사



2대김병원담임목사



3대김태권담임목사



4대김용훈담임목사



4대 김용훈 담임목사와 열린문장로교회 주일예배

워싱턴지구촌교회(구 워싱턴제일한인침례교회)



역대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 : 김현칠 목사, 1974년 11월 ~ 1983년 1월
2대 담임 목사 : 이동원 목사, 1983년 8월 ~ 1991년 12월
3대 담임 목사 : 김만풍 목사, 1992년 1월 ~ 2016년 7월.
4대 담임목사 : 임광 목사, 2017년 11월~2022년 11월.
5대 담임목사 : 박승진 목사, 2023년 11월~현재.

워싱턴지구촌교회(구 제일한인침례교회)는 1974년 11월 10일, 김현칠 목사를 모시고 메릴랜드 켄싱턴침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사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회 창립 1주년 만에 자체 건물을 구입하였고, 외적인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1976년에는 버지니아 폴스 처치 지역에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이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탁아원, 제일한인학교를 설립하는 등 이민사회를 위한 섬김을 확장해 나갔다.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며, 1978년에는 등록교인 150세대, 성인 250명, 어린이 130명에 이르게 되었고, 예배당과 교육관 시설이 비좁아져서 자연 스럽게 교회건물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0년 1월에 사무총회에서 성전건축안이 채택 되었고 그 해 2월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9개월 후인 11월에 17900 SQFT 의 새 건물을 준공하고 감격적인 창립 6주년 예배를 드렸다.

1983년 1월 23일에 김현칠 목사는 남침례회 남가주 주총회 언어선교부 조정관 사역 제안을 받아들여 가게 되었고, 10년을 사역하던 중에 1994년 6월 30일에 은퇴하였으며, 1997년 4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82년 5월에 워싱턴지구 복음화 대회 강사로 왔던 이동원 목사의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은 김현칠 목사는, 말씀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동원 목사가 교회를 맡아 주기를 권하였고, 당시 서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동원 목사는 우여곡절 끝에 1983년 8월 5일부로 부임하였고, 8월 27일에 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동원 목사는 취임 직후부터 안수집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갈증난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사모하듯,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며 성숙한 지도자와 동역자로 성장해 갔다. 선교와 구제에 목회 방향을 둔 이동원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도록 도전하였고, 청년 대학생들이 반응하여 1984년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36일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한국으로 단기선교팀 MET'84 (Mission Explosion Team)을 파송하였는데, 이는 미주 한인교회 최초의 단기선교팀이었다.

1986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 1회 북미 유학생 수련회(KOSTA)를 개최하였고, 1987년에는 미주 한인교회 최초로 전도폭발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3월 31일에는 교회 선교지 '땅끝까지'를 창간하였다. 1989년 9월에는 지도자반 과정으로 목자 훈련을 시작하였다. 1991년 3월 3일에는 교회 안 영어가족을 위한 커버넌트 채플을 시작하였고, 1991년 10월 1일에는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동원 목사 부임 당시 500여 명이었던 등록 가정이 1년 만에 1000명이 되었고, 1988년에는 14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2차 성전 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9년 5월 14일에 주차장, 예배당 확장, 대강당, 교실 및 회의실, 개인 기도실, 게스트룸 등을 포함하는, 총공사비 350만불 50,000sf 규모의 증축 기공 예배를 드렸고, 3차에 걸친 공사 끝에 1992년 11월 2일에 완공하였다.

창립 이래 3000명의 교회로 성장한 교회는, 1993년, 선교 명령과 교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 2000을 수립하게 된다. 비전 2000은 두 명의 담임목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목회 방향을 가진 두 교회를 공동으로 섬기는 사역을 말하며, 1993년 9월 19일 임시사무총회에서 참석자 95%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1993년 11월 7일, 공동 사역 담임목사로 이동원, 김만풍 목사가 취임하였고, 1993년 11월 11일, 이동원 목사는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 1994년 1월 1일부로 제일한인침례교회를 남침례회 워싱턴지구촌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 1월 9일에 한국 지구촌교회는 설립예배를 드렸다. 1994년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첫 교차 사역이 시작되었고, 매년 3차에 걸쳐 교차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교차 사역은 2009년 12월로 마감하였다.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만풍 목사는 교육과 훈련으로 부흥과 확장을 경험한 성도들을 성숙과 변화의 길로 이끌어 세계 선교 현장에 연결하였다. 미국 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와 북미선교부와 더불어 동반자 관계를 맺고, 북미 남침례교 한인총회와 협력하면서 국내외 선교와 교회 개척의 결실을 맺으며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추구하였다.

2000년을 눈 앞에 둔 1999년, 창립 25주년에, 김만풍 목사는 비전 201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10년까지 5,000 성도, 500 평신도 사역자, 50 파송선교사, 5 개척 교회를 목표로 하고, 지구촌비전센터를 짓는 새 천년의 첫 10년을 위한 중장기 교회 비전이었다. 여기에는, 영어사역과 국제사역도 포함하며, 한인교포 자녀 및 한인과 타민족 간에 결혼한 가정들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다민족을 복음화하고자 하였다. 비전 2010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전교인을 셀교회에 소속시켜 가정 같은 교회와 교회 같은 가정 및 일터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 사역을 전문화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

1998년 3월 1일에는 장세규 목사를 파송하여 버지니아 지구촌교회를 창립하였고, 이후 한빛지구촌교회가 되었다. 2000년 12월 17일에는 조승규 목사를 파송하여 볼티모어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였고, 2002년 8월 17일에는 김성수 목사를 파송하여 씨애틀지구촌교회를 개척하였다. 1995년 12월 17일 국제선교부를 통해 이정현/정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2004년까지 8개국 22유닛 3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2004년 9월에 비전 2010의 일환인 비전 센터 건립을 위해 프레드릭/몽고메리 카운티에 126만불을 들여 120 에어커의 부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진입 도로 허가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2016년 10월 6일 사무총회에서 건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만풍 목사는 사무총회의 결의로 2016년 7월 31일부로 23년의 담임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였다.

2009년부터 부목사로 섬겼던 임광 목사가, 담임목사 대행을 하다가, 2017년 11월 12일 4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예배, 성령, 말씀, 교육, 선교, 복음의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지구촌 비전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기존의 양육훈련 체계를 제자훈련, 바이블 아카데미, 미셔널 라이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자훈련은 양육반, 성장반, 훈련으로, 기존의 성경공부반들은 바이블 아카데미로, 스패니시 클래스, 컴퓨터 클래스, 중보기도 클래스, 독서 북클럽들은 미셔널 라이프로 묶어 정리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1996년부터 계속되었던 셀 사역을 목장 사역으로 전환하였다. 2020년부터는 팬데믹 상황이라 적극적인 사역들을 펼쳐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및 컨텐츠 제작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앙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역에 노력을 기울였다. 임광 목사는 2022년 11월 6일로 5년 간의 담임목회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한국의 꽃동산교회 동사 목사로 섬기고 있다.

1년 간의 담임목사 공백 후 2023년 11월 12일, 박승진 목사가 5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라는 비전 하에 사명 선언문과 10가지 핵심 가치를 선포하며, 온 교회가 같은 비전과 사명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였다. 고령부터 시작하여 전교인 심방을 진행 중이고, 2024년 1월부터 어린 아이부터 노년과 영어 회중까지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생명의 삶 큐티 세미나를 열고, 1년 정기구독을 독려하였다. 매년 1월에는 직분자 산상수련회, 8월에는 목자 산상수련회를 열어 교회의 직분자들과 목자/마을장들의 영성을 고취시키고 마음을 모아 동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주에 한 번 모이는 정기 토요 목자 모임과 2-3달에 한 번 모이는 정기 마을 모임 (마을별 목자 모임)을 시작하였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2024년에 워싱턴지구촌교회는 50주년 주제를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믿음: 과거를 기리며 미래를 포용하다"로 하였고, 이 주제에 따라 9월에 전교인 피크닉(600여명 참석), 10월에 전교인 걷기대회 및 지역 청소 / 찬양축제 / 할렐루야 나이트, 11월에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 및 기념예배 (강사: 이동원 목사)/ 파송 및 은퇴 선교사 Reunion, 12월 13일에 헨델의 메시아

음악회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 대원들 190명)까지 모든 예배와 행사마다 전 성도들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2024년에 3유닛의 파송 및 후원 선교사를 허입하였고, 향후 5년 간 매년 3-4유닛의 선교사를 허입할 계획이며, 파송 또는 후원 선교사가 있는 사역지로 단기선교팀을 보내기로 하였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 양육훈련 과정을 "양육훈련 필수 - 양육훈련 선택 (바이블 아카데미 & 미셔널 라이프) - 평신도 사역 및 선교 훈련 - 세미나 및 집회"로 개편하고, 양육훈련 필수과정을 새가족반, 일대일 동반자반, 제자반, 사역반과 같이 4단계로 수립하고, 기존의 클래스들은 양육 선택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워싱턴지구촌교회는 안으로는 다음세대 자녀 선교, 밖으로는 국내외 선교를 지향하며, 2025년에 교회 예산의 20% 이상을 이 일을 위해 흘려보내는데, 앞으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선교로 흘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어권과 영어권, 어린아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한 교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 영적 부흥과 수적 성장이 균형있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워싱턴지구촌교회로 비상할 것이다.















워싱턴성광교회



비전센터 조감도

Shining Star Community Church

2001년 1월 하나님의 섭리로 30명으로 시작해 현재 1천여 명 규모로 성장한 성광교회는 세계 55개국에 93명의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고 59명의 협력 선교사 및 12개 선교단체와 동역하고 있다.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평신도였던 임용우 현 담임목사에게 '내 양을 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너희 교회 이름은 성광(星光)교회이다. 하시며 성경 단12: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 특히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워싱턴 성광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밖으로는 해외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라는 슬로건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5대 사역 비전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차세대를 위한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영적·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교회"를 세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교회 모임(Cell Church)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 양육하고 그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한다. 특히 평신도에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임용우 목사는 평신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사역 비전을 평신도의 영성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교회 사역의 핵심 사역을 맡아 끌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이 사역이 결실을 보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양육훈련팀, 전도폭발팀, 선교의 카이로스팀 등을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끌어 가고 있으며 6대 사역원 안의 각 팀이 서로 모임을 가지며 왕성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목회자는 기도와 함께 이들을 보조하고 있다. 현재 성광교회는 전문 목회자는 숫자가 많지 않으며 그 대신 목양사역을 목양팀장과 목자들이 맡아 매주 보고되고 있으며 교구 사역자들이 종합하여 사역자 모임에서 기도와 함께 심방 등을 하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지역 선교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매년 350만 달러의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50% 이상을 해외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년 남은 예산의 10%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사회와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역 한인 단체와 기관에 총 33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연례 지역사회 후원금 전달



성광 선교부흥 세미나

선교하는 교회

워싱턴 성광교회는 현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전도, 구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75%까지 사용하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선교사 직접 파송은 교회 설립 6년 차에 처음으로 남미 볼리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창립 10주년이 되던 2011년에는 기도대로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으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는 1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성광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모두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달 혹은 순간순간마다 이메일과 카톡으로 선교지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며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첫 새벽예배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부터 먼저 한다. 그 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통성으로 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역이다. 선교는 뒤에서 도와주

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동역이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함께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교는 기도와 물질의 동역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기에 동역이 맞다.

2006년 제1차 성광세계선교대회를 시작으로 계속되어 제6차 성광세계선교대회는 선교사님들 118명을 초대되었는데 모든 비용은 각 셀 목장 자체에서 선교사님의 비행기표 숙식 관광 선물비를 부담하였고 오히려 모금한 것이 남아 교회 선교 기금으로 비축되기도 했다. 이 행사를 본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의 5만 교회 미주 3천 교회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한 개교회가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기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다.

2007년 SBC 버지니아 남침례 주총회에서 주관하는 21세기 컨퍼런스에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교회 Top 6 교회 중에 워싱턴 성광교회를 남침례회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선택되어 버지니아 1,600개 교회에 CD를 만들어 전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킴넷 10주년 선교대회가 "역동적 선교를 위한 커넥션"이라는 주제로 샬롯장로교회에서 열렸고, 워싱턴 성광교회가 선교교회 모델로 제시되고 담임목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사역 소개가 되었다. 2021년에는 제40차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초청 강사로 펜데믹 기간에도 부흥하는 교회를 나눔으로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였다.



제6차 성광 세계 선교대회



제 7차 성광 세계 선교대회



가는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Virtual Choir

차세대를 위한 교회

성광교회는 처음부터 차세대의 믿음의 양육이 없이는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없음을 알고, 자녀들을 선교하는 자세로 투자하고 양육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 슬로건(대체어:강령)이 밖으로는 해외선교 안으로는 자녀선교이다. 자녀는 선교 차원으로 투자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모두가 실패했다.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간 유럽이 그랬고 현재 미국도 실패했으며 더욱이나 한국도 청소년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라고 하니 실패한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계속하여 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믿음이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특히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새벽은 자녀들과 함께 Family Worship을 드림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새벽에 나온 자녀들을 강대상으로 모두 올라오게 해서 전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한 기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미국의 대법관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인류에 이바지하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재들이 나오게 하소서'를 낭독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한 후 교역자들이 새벽에 출석한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기도하고 있다



2024 VBS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차세대의 믿음의 전수와 앞으로 크리스찬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심으로 인해 성광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되었다. 동네 안에 위치하여 건축할 수 없다는 예상을 깨고 Public Hearing에서 카운티 심사위원의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곧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펜데믹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성광비전센터 건축헌금 1차 약정 600구좌는 차고 넘쳐 851구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마치 모세의 성막이 지어질 때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

성경공부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 교인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력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이다. 임용우 목사는 목장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양육과 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되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성광교회의 교육과정은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새가족 7주 과정을 통해 담임목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함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말씀의 확신, 교회가 무



100인 찬양대의 찬양

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등으로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의가 있고 그 후로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세퍼드라이프, 마드와이즈, 전도폭발, 카이로스 선교훈련, 중직자들을 위한 제자훈련, 안수집사 사관학교 등 양육 과정을 제공함으로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돕고 있다.

영적·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교회

변치 않는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에 축복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복의 사람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신앙생활 하며 영적으로도 충족되어야 하며 범사에도 복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

2024년 성광이야기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두란노) 출간되었다. 저자인 임용우 목사는 성광이야기가 출간된 이후 '내가 매일 기쁘게' CTS와 극동 방송에 출연하여 사역을 나누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19로 연기된 8차 세계선교대회가 비전센터가 완공되는 2년 후에는 세계 각국에 파송된 파송 및 협력 선교사 160여 명 모두 초청해 그들을 격려하고 성도에게도 재도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차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은 샤이닝 스타 크리스찬 학교다.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학교이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고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교사들은 최고로 뽑도록 하고 교회적으로 최대로 투자하며 3년이 넘어서는 자체 운영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24년 동안 성광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와 함께 열심히 뛰어준 30-40세대가 이제는 50-60세대가 되었다. 50-60세대는 성광교회의 성장과 변화에 쓰임 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제 30-40세대가 교회의 영향력 있는 일꾼의 주역이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이끌어 준다. 새 일꾼의 주역이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불편함을 감사로 여긴다. 이제 우리는 더욱 역동적인 교회로 쓰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배사역원 수련회

페어팩스 한인교회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1976년 부활주일에(4월 18일) 김영용 목사와 몇몇 가정을 중심으로 알링턴 소개 미 나사렛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독립교회로 있던 동 교회는 1977년 7월 첫 주일을 기해 미 나사렛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고, 김영용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했다. 1979년 4월 8일에는 VA 지역 나사렛 교단의 정회원 교회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8월 6일 2대 담임 목사로 양광호 목사가 위임 되기까지 교회는 정체되어 있었고 그 후 교회는 교회 건축과 함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4년 6월 현 교회의 위치에(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교회 건축 부지를 매입하였다. 1996년 8월 성전 건축 부지에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회 건축 허가 결정이 나며 건축이 시작되었다. 1998년 8월 16일에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관계를 정립했다. 영어권 회중은 그동안 소속되었던 나사렛 교단으로 또, 발전적인 한어권 목회를 위해서 한어권 회중은 장로교단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회의 명칭은 한인 나사렛교회에서 페어팩스 한인교회로 개명했다. 1999년 12월 12일 1차 소 친교실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2002년 6월 9일에 2차 입당예배를 드리며,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된 친교실을(250석) 건축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26일에 3차 입당예배를 드리며 450석의 예배당과 7500 S/F의 교육 시설을 건축하게 되었다. 교회는 2001년 3월 미주한인장로회 춘기 수도노회에서 회원 교회로 가입하였다.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축복의 근원", "행복한 가정"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인 이민자들의 신앙을 선도해 왔다. 교회는 1992년부터 목회 상담실을 통해 미 시민권시험 교육 및 실시, 시민권 신청 대행 업무를 비롯해 초기 이민자들의 이민 정착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근래에는 정착된 이민자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예배와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있다. 선교 사역은 2011년 도미니카에 선교 훈련원, 2012년 네팔 루드롭에 교회를 건축했고, 2013년 태국에는 고아원을 건축하였다. 2009년부터 일본 동경의 아야세교회의 개척을 돕고, 평택대학교의 중국 신학 유학생, 논산 애육원과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 협동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민 교회의 미래를 보며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영어 예배를 2013부터 분기별로 드리고 있다. 2017년 1월 KPCA 교단을 나와 현재까지 독립장로교회로 사역하고 있으며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와(WAIC 설립자:박조준목사) 2019년 1월부터 함께 하고 있다.

2024년 부활주일에 워싱턴성문교회와 통합한 후, 최일승 목사가 동사목사로 사역했으며 2025년 8월 10일에 양광호 목사의 33년 목회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최일승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2023년 10월 교회의 건축 모게지를 상환한 후 2024년 5월 19일 교회의 헌당식이 있었다. 1994년 11월에 개설된 무지개 한글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계속하며 정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의 미국 장로교 PCA 교회인 New Hope Church가 건물을 사용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 영어권은 Kristy Baik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다. 자체 성전과 Youth & EM 을 위한 교육관을 보유한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현재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기공예배



2대담임양광호목사취임







임직식



부활절예배찬양



페어팩스 한인교회 헌당감사예배



페어팩스한인교회헌당예배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교회의 시작과 설립 정신

메시야장로교회는 1989년 10월 1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 동부 버지니아 에넌데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민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몇 가정이 "말씀 중심의 교회,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작은 가정 예배로 시작된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품었습니다. 화려한 외형보다는 복음의 기초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순수한 열망이 36년의 세월 동안 교회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련 속에서 자란 뿌리

설립 초기 몇 년간은 고정된 예배 장소 없이 여러 공공장소를 전전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운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장소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이민사회 안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긴장과 열정이 뜨겁게 타오른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메시야교회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절에 형성된 영적 DNA 때문입니다.

목회적 전환점과 성숙한 성장

2006년, 현 담임목사님의 부임은 교회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심의 예배, 교리 중심의 교육,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목회의 핵심으로 삼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야장로교회는 단순히 사람 수가 늘어나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서 '내용 있는 성장'과 '성숙한 제자화'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부임 이후 지금까지 교회는 꾸준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에넌데일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숙을 동시에 추구해온 균형 잡힌 목회의 철학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교회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교육과 훈련에 깊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유스 그룹, EM을 비롯한 다음 세대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여름철 섬머스쿨은 단순한 학습 보조를 넘어 말씀과 예배, 공동체 훈련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신앙교육의 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학업은 물론 신앙과 인성까지 균형있게 돌보는 교육 철학으로 지역 내 많은 가정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운영되는 한국학교는 다음 세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한국어, 한국 역사, 전통놀이와 음악을 배우는 이 프로그램은 교회 내 자녀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다민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배려

시니어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원은 메시야교회가 전 연령대를 품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활용법부터 영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라인댄스와 한방건강체조, 그리고 사군자, 민화 등의 미술 강좌와 기타, 바이올린, 색소폰, 장구, 하모니카, 트럼펫, 크로마하프 등 다양한 악기 강좌까지 제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서 고령의 이민자들이 미국 생활에 더욱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 세대가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역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

2008년부터 본격화된 선교 사역은 메시야교회가 자기중심적 공동체를 넘어 세계를 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한 사역입니다.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기선교팀 파송, 현지 교회 지원, 선교사 후원 사역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며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부서가 '보내는 선교사' 또는 '가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정신은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를 위한 선교적 마음'으로 이어져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건강한 교회 시스템

메시야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교회의 중요한 제직으로 세우며, 제자훈련, 리더십 세미나, 직분자 교육을 통해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자들을 위

해서는 조직신학 기반의 임직자 훈련을 통해 직분론, 성경론, 조직신학, 성경개론, 교회사, 선교학, 리더십,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등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진행하면서, 직분자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 중심이 아닌 전체 성도가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경적 교회론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

최근 전교회적으로 도입한 '생명의 말씀' 묵상은 개별 성도들의 영성과 교회 전체의 영적 일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학기마다 운영되는 주중 성경공부와 새신자를 위한 메시야반 등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성도 개개인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이루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모든 자원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야장로교회 교우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삶의 방향을 찾고, 상처를 치유받고, 꿈을 키우며, 서로를 격려하는 '영적 가정' 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메시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외형적 성취를 추구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말씀 안에서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메시야장로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메시야장로교회는 과거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의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나갈 것입니다.

메시야장로교회 (Messiah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전화: (703) 941-4447
웹사이트: www.mpcow.org















워싱턴세계로장로교회



워싱턴세계로장로교회(SEGEROH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병완(Pastor Paul Byung Lee)
4401 Muncaster Mill Rd, Rockville, MD 20853
(301) 924-3006, (301) 538-3451 I www.wspc.org

세계로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되어 복음에 헌신하자"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2020 세계비전(Vision2020)에 순종하며 행복한 미래를 창조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교회는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건강한 패러다임을 열어 드립니다. 우리교회는 당신의 생명과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제자훈련의 길로 가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또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계로 가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이웃의 손을 붙잡아주며, 세상에 꿈과 소망을 심어주어, 모든 가정에 축복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는 꿈을 실현해 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계로장로교회 연혁과 목회철학

교회의 시작

세계로교회는 산정현교회의 이름으로1991년 5월 19일에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이병완 목사외 2가정이 중심이 되어 11612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에 위치한 Saint Stephen Lutheran Church를 빌려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미주동부노회에 소속하여 교회창립 이듬해에 메릴랜드 주정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개척초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평신도제자훈련과 셀사역에 집중하며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기초를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개척 후 6년, 1997년 4월 20일에 당시 담임목사가 공석 중에 있는 같은 노회소속, 랜함(Lanham)에 위치한 워싱톤시온성장로교회(교인대표: 주영환 장로, 가건물성전, 3에이커)가 교회통합을 요청해와 미주동부노회의 주관으로 교회합병예배를 드려 감사가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새성전에 입당하다

교회가 설립된지 10년쯤인 2002년 9월 27일에 새 성전(4401 Muncaster Mill Rd., Rockville, MD 20853, 6에이커의 약 450명 규모의 본당)을 구입하여 2004년에 Montgomery County로부터 Building Permit을 받아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2007년에 새 성전에 입당하여 세계로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기가 되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교회합병을 계기로 교인총회에서 새롭게 결정한 교회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교회비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동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방향조사 [로]를 붙이고, 땅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비전을 성실히 이루기 위해 [세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교회 'VISION 2020'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2220세계비전을 이루는 교회"이며, 교회표어는 "평신도를 깨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그 당시 목회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의 저서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님은 그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를 14년 만에 개정하면서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1998년 발행하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감사하게도 세계로교회가 미주에서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제자훈련의 목회철학과 교회론에 입각하여 성장하는 7개 교회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의 평신도제자훈련과 성경적인 교회론, 그리고 멘토링에 영향을 입어 이병완 목사의 목회비전은 평신도를 깨워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와 가정에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로 깨우기 위해, 평신도 제자훈련, 영혼구원과 변화에 촛점을 맞추는 평신도훈련과 양육과 전인적 셀사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힘쓰다

또 한편 세계로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축복하실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꿈꾸며, 평신도제자훈련을 통해 온 성도가 예배회복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가운데 나이스크 예배회복운동(NYSKC Movement,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에 30여년 전부터 실무회장으로 참여해 섬기는 가

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꿈을 가슴에 품고, 매해 열리는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NYSKC Family Conference)에 참여하여 섬기며, 예배회복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계로장로교회의 목회방향

***우리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하나되어 복음에 헌신하자!"

***우리교회 사명선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평신도제자훈련과 예배회복을 힘쓰는)가 되어 **사랑 대계명**(Great Commandment, 마22:37-40)과 **전도 지상명령**(Great Commission, 마28:19-20)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이룬다"



***우리교회 목회비전 및 전략**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교회(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1) 첫째기둥: 예배의 감격과 축복을 회복하기

2) 둘째기둥: 영적교제(쎌목장)를 통해 삶의 나눔실천하기

3) 셋째기둥: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 닮은 제자로 거듭나기

4) 넷째기둥: 봉사의 현장에 주역으로 참여하기

5) 다섯째 기둥: 전도선교에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세계로 교회는 성도들이 축복된 영적 패러다임을 열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에 힘쓰는 교회, 자녀들을 이민사회에 바르게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 전도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며, 오늘도 세계비전2020을 이루기위해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꿈을 갖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서울장로교회



역대 담임 목사

원로목사: 김재동 목사
담임목사: 한상인 목사

교회의 특색

서울장로교회는 1977년 9월 18일에 창립되었으며, '서울장로교회'란 명칭은 미국의 수도권인 워싱턴 지역에 세워진 한인교회로서 한인 이민자들(Korean Americans)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수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의 신앙적 열망을 담고 있다. 본 교회는 한국의 장자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신앙노선을 따르며,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하고자 애쓰고 있다. 본 교회는 말씀사역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신앙을 토대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즉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목회의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2세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실내체육관을 겸비한 비전센터를 건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하드웨어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회학교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이끌고 갈 영적 리더들을 양육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의 미래는 다음세대에게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어권 장년(EM) 사역과 한어권 청년사역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울한국학교'를 통해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Elpis[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다.

서울장로교회 장년사역의 두 축은 마을(구역)과 선교회이다. 지역별로 조직된 마을 모임과 연령별로 조직된 선교회라는 두 축과 두 그물망을 통해 성도들 간의 더욱 더 긴밀한 연합, 유대관계

를 맺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과테말라 9개 교회와 온두라스 1개 교회, 한국영광교회(장애인) 등 중남미 국가에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 언어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본 교회는 올해에 표어인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이웃"(고전 15장 1-2절)을 실천하는 교회로 쓰임 받고자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비전센터 2층에 카페를 운영하여 이웃들이 쉽게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순례길과 서울 농장, 동물원을 준비함으로 세상과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교회 안내

서울장로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본 교회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신앙을 잘 계승하는 교회, 제자답게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네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서울장로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약칭 KPCA)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신앙의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본 교단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 해외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근본으로 하여 세운 복음적 교단이다. 본 교단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분부를 지상명령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과 연대하는 폭넓은 신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 교회들과 협력하며 복음전파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KPCA는 현재 20개 노회, 420 개 교회, 1,040명의 목사, 그리고 세례 교인수 5만4천 명이며, 미국교회협의회(NCC USA)에 속해 있고, 한국 예장 통합(PCK)과 선교협정을 맺고 교단 간의 목회자 이동을 허락하고 있으며, 미국장로교회(PCUSA)와 언약관계(Covenant Relationship)를 맺고, 교단 간에 목회자 이명을 하고, 2009년부터 PFC(Presbyterian Federal Chaplaincies) 회원교단으로서 미군목을 파송하고 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노회에 속해 있으며, 수도노회 산하의 5개 시찰회 중 버지니아 시찰회에 속해 있다.

서울장로교회의 출신 가운데 자랑스러운 분들 중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나채운 교수(1986년)'가 계신다. 나채운 교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 번역, 개정 위원으로, 한국찬송가공회에서 가사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우리말 주기도/사도신경 개정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셨던 '김도일 교수(1995년)'도 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 김도일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장, 기독교 교육 연구원장, 교육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주요행사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선교기금마련 걷기대회, 하반기 특별저녁예배, 과테말라 단기선교, 기도원 집회, 부흥회, 가을 바자회, 성지순례, 할렐루야 나이트, Amazing Grace 특별 저녁집회, 성탄축하예배 등이 있다.











린치버그한인교회



1. 교회설립

린치버그한인교회는 1995년 5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완재 성도 외 8명이 나치순 성도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상철 목사(현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담임)를 임시목사로 모시고 시작된 예배는 적지만 열정적인 신앙공동체였습니다.

설립 동기와 창립자

1990년도 초에 린치버그(VA) 도시에 있는 Liberty University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각주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100여명의 교포가 거주하는 작은 소도시이지만 린치버그 지역에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하나님나라 교회”가 절실하다는 소망과 공동의 기도 속에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2. 교회 성장과 비전의 전환

역사

1995년 5월 #15 Wadsworth St. Lynchburg VA 24501에 위치한 상가건물(1200sq)을 임대하여 예배 시작

1996년 10월 #7 Wadsworth St. Lynchburg VA 24501에 위치한 상가건물(1600sq)로 이전

1999년 8월에는 2411 Judith St. Lynchburg VA 24501에 위치한 옛 병원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입,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 속에서 예배처소로 리모델링 작업

2003년 8월 본당 2층 증축공사, 사무실동 목회사무실 및 유아방 공사, 사무실동 지붕개조 시작

2005년 5월 본당 내부출입구 공사를 마침으로 성전공사를 완료하고 입당

2012년 10월 2409 Judith St. Lynchburg VA 24501 사무실 건물 지붕공사

2015년 10월 본당 가름막 철거 및 강단 일부 리모델링

2016년 6월 창고 증축 및 중고등부실 개설

2017년 7월 사무실 건물 측면 시멘트 포장 작업
2019년 5월 본당 뒷면 출입구 개조하여 방송실 증축 개설
2025년 4월 유아실 및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자모실을 개설을 하는 등 점진적인 예배당 건물 개 보수 확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역대 담임목사

1995년 08월 송상철 목사가 임시목사로 섬겨 주었고,
1996년 2월 제1대 김형기 목사,
2000년 4월 제2대 최우인 목사,
2011년 4월 제3대 이택래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교회는 매 시기마다 부흥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다민족 청년·대학생 부흥 및 성장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택래 목사는 다민족 청년·대학생 증대라는 현상 속에서, 교회의 사역 방향을 선교 중심, 특히 캠퍼스 선교와 일반인 대상 사역 두 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캠퍼스 선교 및 연합활동

린치버그 지역에는 리버티대학교, 린치버그대학교, 랜돌프대학교, 스윗브라이어대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등 5개 메이져 대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버지니아 중부지역의 6개 대학교 버지니아공과대학교(VT), 버지니아대학교(UVA),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교(VCU), 조지메이슨대학교(GMU), 제임스매디슨대학교(JMU)와 협력하여 신앙부흥 성장을 위한 청년·대학생 연합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년부(GCL)의 여러 사역

God's Covenant Love(하나님의 언약의 사랑)로 불리는 교회 청년·대학부는 교회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금요일 예배· 소그룹 모임· 캠퍼스 단기선교· 언어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워싱턴지역한인교회연합회와의 협력

공동행사와 참여

린치버그한인교회는 워싱턴지역한인교회연합회와 연을 맺고 연합새벽기도회, 연합체육대회, 연합찬양발표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참여 및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협력

캠퍼스사역 중심의 다민족 청년대학생 교회로 미력하지만, 적극적으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연합회 사역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특히 청년·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섬김으로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의 본

린치버그한인교회는 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의 몸과 지체가 되어 한 생명이 되어 "진실과 성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의 본을 보입니다. 린치버그한인교회는 무엇을 하던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서로 주를 대하듯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자 힘쓰는

교회입니다. 각 단체와 연합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 시비가 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며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교회 정체성과 현황

지역 및 한인 현황

린치버그 지역의 총 인구는 약 37만 명, 그중 한인은 100명, 한인 유학생은 90여 명입니다. 지역내 리버티 대학교 등 5개 대학교의 학생수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약 16만 5천 명입니다.

교회 구성

총 재적 성도 수는 다민족 청년·대학생 140명, 일반인 45명,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20명으로 100여명이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 및 사역 팀 구성

담임목사, 부목사 2명, 군목 1명, 선교목사 1명, 전도사 1명, 간사 2명,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권사 4명 등 풍성한 사역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린치버그한인교회 출신 6명의 목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실천 지향 7가지

1) 일생 동안 성경 11회 이상 읽기(매 주일 주보)
2) 하루 일곱번 기도·찬양하기(하루 일곱 번 기도, 찬양표)
3) 머리와 몸의 거룩한 질서를 따른 행복한 가정 세우기(결혼학교)
4) 진리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 교육 및 양육하기(성경학교)
5) 하나님나라 천국복음 전파와 예수제자 삼기(제자학교)
6) 전문지식과 선교적 신앙을 병행하는 듀얼 크리스찬 키우기(직장선교사 파송)
7) 빛과 소금 되어 실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소그룹 모임)

5. 미래 비전 – '작지만 충성된 생명공동체'

린치버그한인교회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작지만 충성된 생명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교회와 캠퍼스,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며 다민족 다음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계속 매진해 나갈것입니다.

6.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지역사회 향한 다짐

린치버그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 연합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충성하고자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합회 안에서 진실과 성실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일예배 이택래목사


주일예배


찬양대


수련회


금요예배


청년연합집회

워싱턴동산교회



사랑과 평화의 동산

1. 설립 비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워싱턴동산교회라 이름하였다.

교회의 비전 표어는 영어로 교회이름의 첫 글자를 인용하여 1)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Worship) 2) 말씀으로 제자삼는 교회(Discipleship) 3) 성령으로 선교하는 교회(Preaching) 4)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Community)로 정하였고, 평생 생활실천은 1) 주일성수(Worship) 2) 믿음헌신(Discipleship) 3) 생활증거(Preaching) 4) 희생사랑(Community)으로 결정했다.

2001년 11월 11일에는 IRS에 501(C)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교회의 성경구절은 예배, 말씀,선교, 교제를 예언하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고 모여들 것이라"(이사야2:2)로 정하였다.

2. 예배처소구입

2001년 3월 4일 Montgomery County Civil Center(14625 Bauer Rd. Rockville, MD 20852)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한 달후 10701 Old Georgetown Rd, Rockville, MD 20852에 위치한 Saint Mark Presbyterian Church로 예배처소를 옮겼다. 랜트비의 계속적 인상으로 재정 운영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11815 Seven Locks Rd, Potomac, MD 20854에 위치한 Saint James Episcopal Church로 예배처소를 다시 옮겼고, 예배처소를 구입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2010년 2월에 2.5 에이커의 땅에 주택을 가진 지금의 예배처소를 구입하였다(7408 Muncaster Mill Rd. Gaithersburg, MD 20877).

하루 빨리 자체 예배처소를 갖기를 원하는 성급한 마음에서 조금 더 넓은 예배공간이 있는 예배처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3. 존귀한 성도들

교회의 머리와 몸은 그리스도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 어느 누구도 구별없이 다 똑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기억되고, 감사하고, 존귀히 여겨야 할 성도들의 이름을 되내어 본다.

이민온 성도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황치원 장로 황성숙 권사,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지어 여름철마다 성도들에게 김치와 고추 장아찌를 나누어 주시던 이종송 장로 이봉순 권사, 교회 처소마련을 위한 헌금 $100,000을 아낌없이 드린 이종남장로 이옥경 집사와 그 가정 식구들, 목사의 가정을 섬기신 고석열 집사 고인순 집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늘 좋은제안을 주셨던 한지선 장로 한희임 집사, 영어회중들에게 바쁜 가운데서라도 영어로 설교를 해 주셨던 임병무 장로 허인주 집사, 어린이들을 가르친 홍민숙 집사,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뒤에서 교회봉사를 자원하며 성도들을 섬겼던 전영애 집사, 동산교회를 24년동안 교회를 섬겨온 박상렬 장로 박미성 권사, 미국에 이민와서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준 정미화 권사, 기러기 엄마가 되어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느라 애썼던 임강순 집사, 교회의 행사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신 오윤숙 권사, 첫 만남을 의리로 헌신하신 문병량 집사 최명욱 권사, 마음보다 몸이 먼저 더 빨랐던 노린다 집사, 삶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김금주 권사 김도균 교우, 동역자가 되어 교회사역을 도우신 서은봉 목사 최경심 사모, 그리고 영어회중을 대표해서 장로가 된 김의현(Justin Kim)장로 김제넷 부부, 그리고 영어회중의 자녀들, 특히 김지현, 박성은, 박다은,이준서, , 목회은퇴하신 후 함께 출석하신 박노영 목사 박사라 사모, 목사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목사 사모 김옥주, 담임목사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함께 사역한 배동주 전도사, 장금자, 우금순, 서영자 홍종길 권사 등 이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기만 하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깨닫는다.

25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들이다. 그런 가운데 사랑과 미움,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색함과 껄끄러움이 교차되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다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하다. 그 어느 누가 지혜로운 자 없고, 또 어느 한 사람도 필요없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꼭 이 땅에 필요하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4.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백했듯이, 넘치는 것도, 모자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미가(Micha)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고백할 것이 있다면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것을 회개할 뿐이다.

과거는 현재를 부르고, 현재는 미래를 부른다는 말처럼 교회를 설립 후 두 번째 주일 주보에 실린 칼럼을 다시 기억하면서 미래의 워싱턴동산교회를 그려본다.

목자의 마음(목회칼럼2003년)

목사안수를 받은지 벌써 11년이 되었다.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목사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가운데 "목사와 교사"(엡4:11)라는 말씀에서 "목사"라는 말이 원래는 목자라는 말이다. 그러기에 목사는 목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잠언27:23절에 인상적인 말씀이 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목사란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에 마음을 두은 것이다.

동산교회가 주일예배를 드린지 2주가 지났다. 그럼에도 마치 2년이 지난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느낀다. 그만큼 동산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기 까지 여러면으로 분주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동산교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까지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있기에 그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오면 반갑고, 한 사람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걱정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벌써 내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열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고맙기만 하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떼들의 삶을 함께 하라는 말로써 들려진다.

아직은 신선한 야채와 같이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의욕으로 가득차 있다. 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동산을 만들고 싶다. 어느 누구에게도 꺼리끼지 않는 마음이 여유롭고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많은 목자가 되고 싶다. 동산교회의 성도님들이여! 우리 서로 도와 줍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의 형편을 살펴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좋은 동산이 되도록 힘씁시다.(3/11/2001)



2023년 김의현장로임직



















열방사랑교회



1. 교회의 시작

2005년 2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에 4827 Twinbrook Rd. Fairfax, VA 22032에 위치한 김성도 목사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어린이를 포함 1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참석하여 격려하며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워싱턴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 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 하였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들이 주택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2005년 8월 21일에 10185 Main St Fairfax, VA 22031에 있는 미국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두 달 후 2005년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 대내외 손님들을 초청하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해 성탄절에 첫 세례식이 있었는데 박수영 자매, 김현순 자매가 세례를 받았다.

2. 성전 이전

두 차례의 성전 이전이 있었는데 처음은 2010년도에 원공석 목사가 담임하던 온누리 사랑교회와 통합하면서 4100 Elmwood St. Chantilly, VA 20151로 이전 하였다. 그 때 교회 이름을 바꾸었는데 워싱턴열방교회에서는 "열방"을 온누리사랑교회에서는 "사랑"을 따서 "열방사랑교회"라고 지었다. 원공석 목사는 한국 경기도 부천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떠났고 그곳에서 "열방사랑교회"를 세웠다. 미국의 통합한 교회에서는 매월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14310 Sullyfield Circle #350 Chantilly, VA 20151로 이전 하였다.

3. 교회 선교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 초기에는 도시빈민 선교를 위하여 굿스푼 선교회와 평화나눔 공동체를 도왔고 탈북 어린이를 위하여 Rainbow Children's Fund를 도왔으며 장애우를 위하여는 밀알 선교단을 도왔다. 지금은 본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라오스 선교를 나간 홍성실 선

교사가 운영하는 “라오스 엘드림 학교”를 돕고 있다.

4. 교회 교육

교육은 정기적으로 세례자반, 직분자반, 성경공부반, 제자반, 셀 인도자반, 기도 교실을 가지고 있고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결혼학교, 음악교실, Vision Trip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매년 어린이여름성경학교를 가진다.

결혼학교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청년, 대학생이 많아서 그들이 잘 교제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2006년 1월 15일 주일 오후에 첫 번째로 가졌다. 이 날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도 많이 참석 하였는데 주제는 “만남, 결혼 그리고 행복한 가정까지”였다. 결혼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음악교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음악 교사를 초청하여 본인이 관심을 갖는 악기를 배우게 한다. 음악교실을 통하여 청소년 밴드와 작은 합주단이 결성 되었다.

기도교실에서는 주로 모임에서 대표기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을 교육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나 모임에서 대표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가르친다.

셀 인도자 교육은 불어나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모임을 보다 신앙적이며 영적으로 갖게 하기 위하여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하여 교육하고 있다.

성경공부반은 주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권마다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제자반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교리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친다.

직분자 교육에서는 직분 받을 장로, 권사, 집사에게 어떤 자세로 교회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5. 교제

감리교회는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소그룹은 속회로 모이지만 본 교회는 셀모임을 소그룹 모임으로 하여 평신도 지도자가 잘 이끌고 있다. 봄철의 야외예배와 가을철의 가족수양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가 된다.

6. 교회 표어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예배), 2)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교육),

3)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교제), 4)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선교)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2005년에 시작된 열방사랑교회는 어느듯 교회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었던 초기의 교인들은 어느새 결혼을 하여 짝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아 교회의 핵심적

인 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다. 첫 번째 임직식은 2006년 10월 29일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때에 가졌는데 권사 1명, 집사 4명에게 직분을 주었다. 그 후에 몇 차례의 임직식이 있었지만 2021년 창립 16주년에는 1명의 명예장로, 2명의 명예권사, 7명의 신천권사, 11명의 신천집사를 세웠다. 이들은 대부분 통합한 두 교회의 창립 초기에 수고한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인 이들이다. 현재 담임목사는 교회를 설립한 김성도 목사이며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 성도들로 하여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과 2) 교회의 기본 기능인 예배, 교육, 친교, 구제, 선교가 균형 잡히게 하는 것과 3) 이민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3대가 함께하며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성장 과정에서 팬데믹을 만나 삶의 터전을 옮겨 떠난 이들도 있고 신앙이 깊지 못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무엘의 고백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다.



성전이전감사예배



교회첫예배



가족수양회



임직식



교회통합감사예배



청소년 음악교실



여름성경학교



야외예배

워싱턴웰로쉽교회

HISTORY OF
웰로쉽교회

1990년

• 김원기 제1대 담임목사 교회 창립

웰로쉽교회는 1990년 9월 9일, 메릴랜드 베세스다에 위치한 WALTER JOHNSON HIGH SCHOOL에서 약 80여 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리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원기 담임목사의 인도로 영어예배와 한국어 예배가 각각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4일 첫 금요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11월 18일에는 제1기 새가족반 수료식이 열려 53명이 수료하는 등 교회의 기초가 탄탄히 세워졌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금식기도회, 전교인 수양회, JOHNS HOPKINS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교회 개척과 (볼티모어 GRACE LIFE CHURCH) "TRUE LOVE WAITS" 순결 사역 캠페인 등 다양한 영적성장과 훈련 사역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사역 기틀이 확고해졌습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목사 및 집사 안수식과 국내외 선교사 파송, 보스턴 지교회 창립(CAMBRIDGE COMMUNITY FELLOWSHIP CHURCH), 그리고 GERMANTOWN 대지 구입 결정 등 교회의 성장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예배 장소를 WATKINS MILL HIGH SCHOOL로 이전하고, 창고 건물을 매각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오이코스 사역자 수양회를 비롯한 다양한 리더십훈련을 통해 교회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멕시코 유카탄 단기선교 파송, 성찬 기공식, 지도자 안수식 등 선교와 제자훈련 중심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교회 내외의 사역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에는 부목사로 섬기던 김병한 목사의 인도로 버지니아 웰로쉽 교회가 창립되었고, 제1기 여성 드레스 디아스 수련회가 개최되어 선교와 제자 훈련 사역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웰로 쉰스
고등학교에서의 예배





교회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
함께 모인 목회자들

2001년

GERMANTOWN 건물로 입당하다

2001년 2월 18일, 웰로쉽교회는 GERMANTOWN 건물로 입당하였고, 이어 4월 15일에는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해 4월 29일에는 어빈영 목사의 안수식과 함께 김세지나, 김인목, 서인숙, 이경숙, 정유수 권사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5월 6일에는 영어회중 장로(김경봉, 김성준)와 집사(김성종 및 8명)의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02년 1월, 교회는 전략 기획 워크숍을 통해 2020년 교회 비전과 사명선언문을 제작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정습니다. 이어 5월에는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장하였고, 11월에는 VA 캠퍼스에서 4부 예배가 시작되며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2003년 YWAM 선교사로 원종호/남연희 부부와 박금순 전도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의 열매가 이어졌습니다. 5월에는 진수한 목사를 유스팀 지교회로 파송하여 교회의 확장을 이루었고, 9월에는 COVENANT CHRISTIAN SCHOOL을 설립하여 교육 사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4년 선교와 영성 중심의 사역은 계속되어, 8월에는 김철수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 선교 각성 집회를 열었고, 바이블 아카데미와 씨니어 센터 개설 등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2005년, 웰로쉽교회는 대규모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였으며, 제1회 FINE ARTS FESTIVAL과 음악가 비전 수련회를 통해 사역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습니다. 2006년에는 김원기 목사와 성도들이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진행했고, VA 캠퍼스에서는 제3회 NEW LIFE FESTIVAL이 열리며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버지니아 캠퍼스 창립 5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영어 대학부 수양회, 목사 및 장로 안수식이 진행되며 지역별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 'MAKE BIG PEOPLE'이라는 표어 아래 사순절 특별새벽부흥회와 다윗어 릴리킨, 아프리카, 중국, 에콰도르, 자메이카 등 국내외 다양한 지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며 선교 중심 교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JUST IMAGINE'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부흥회, 유럽 4개국 성지순례, 멕시코 유카탄 단기선교 등 글로벌 선교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사역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고난주간 부흥회, 40일 금식기도, 가을부흥회와 같은 영적 훈련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인도 단기선교를 통해 아시아 선교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6월에는 김원기 담임목사의 송별예배가 거행되었으며, 이후 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한교인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연말에는 10명의 안수집사 임직식을 통해 교회의 조직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
김원기 목사는 웰로쉽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설립과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의 목회는 무엇보다 선교와 영적 부흥에 중점을 두었으며, 릴리킨, 아프리카, 중국, 에콰도르, 자메이카 등 세계 곳곳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교회의 글로벌 선교 사역을 견인했습니다.. 2013년 6월, 김원기 목사님은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했으나, 그의 헌신과 비전은 웰로쉽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견고하게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HISTORY OF

웰로쉽교회









2014-2020년

• 김대영 제 2대 담임목사 부임 및 사역 비전

김대영 목사는 2014년 12월 웰로쉽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래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를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라는 다섯 가지 사명에 기반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의 사명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다양한 민족이 함께 드리는 다민족 예배, 그리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세대 공동체 예배를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교제의 사명은 말씀 안에서 회복과 사랑이 넘치는 오이코스 공동체, 인생의 단계에 맞춘 생활훈련학교,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양육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평신도 훈련,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성경대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봉사의 사명은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한 구제와 장학사역, 선교단체 굿 스푼(GOOD SPOON)과의 협력 사역으로 진행되는 식료품 나눔(FOOD DISTRIBUTION), 그리고 ESL, 방과후 프로그램(AFTER SCHOOL)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선교의 사명은 미전도 종족, 교육, 비즈니스, 전문인, 디아스포라 난민 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형체지며, 특히 21세기 들어 한 세계적으로 증가한 난민 문제에 주목하여 워싱턴 지역의 아프가니스탄 및 미전파 난민들을 섬기고 그들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5년, 김대영 목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 30일 새벽 기도회를 열어, 성경 66권을 함께 살피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지역 섬김의 일환으로는 토요 가족 극장을 통해 「제자 목한름」, 「DROP BOX」 등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9월에는 장대장, 청명절, 여광절 장로가 장립되었습니다. 또한 WELLBEING & HAPPY ENDING SCHOOL을 통해 시니어 성도들의 삶에 영적 도전을 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구약 개론을 시작으로 '웰로쉽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지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ESL 수업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어권과 영어권 목회자 및 장로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중을 향해 웰로쉽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2017년에는 유진형, 차주건, 이진사 장로의 7명의 안수집사, 10명의 권사 임직식이 진행되었고, 4월에는 심연희 사모를 모시고 MD와 VA 캠퍼스가 연합하여 여성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10월에는 디아 함을 조청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AFTER SCHOOL TUTORING 사역이 시작되었고, 영어권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세션명 축제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였고, 5월에는 권영복 목사를 초청하여 중보기도셀리더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신임된 전도사를 모시고 청년 중심의 찬양집회를 열었으며, 11월에는 영키즈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는 교회 인근 커버넌트 빌리지 입주자들을 위한 만찬을 마련, 4월에는 처음으로 비즈니스 선교(BAM)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해, 오랜 시간 한 지붕 아래 함께하던 버지니아 캠퍼스를 '버지니아 웰로쉽교회'로 공식 분립하였으며, 당회와 재정 등 모든 행정적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고, 8월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첫 목표였던 인도네시아 두아노(DUANO) 종족 마을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11월에는 DMV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가을 부흥 집회를 연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 팬데믹으로 인해, 3월부터 영상 예배를 시작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COVID-19 극복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함께 드렸습니다. 9월부터는 매주 지역을 위한 FOOD DISTRIBUTION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10월에는 주차장에서 HYBRID 방식으로 FALL FESTIVAL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정관에 따라 김대영 담임목사의 6년 사역을 마친 시점에서 재신임 투표가 있었고, 12월에는 웰로쉽 장학위원회가 조직되어, 교회 안팎의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HISTORY OF

웰로쉽교회

2021-2025년

• 선교적 교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

2021년, 김대영 담임목사는 교회 창립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갖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육체적·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 선창영의 말씀처럼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온 교인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제2기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안식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김대영 목사는 선교적 교회를 향한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프레젠 기도회'를 통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초보기도하며, 워싱턴 DC가 단지 행정 수도를 넘어 영적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민교회가 세상의 신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5년 현재까지 세 차례의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 교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웰로쉽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 사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부가 'NEVER BE SHAKEN'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가졌고, 구제부에서는 교회 내에 FOOD PANTRY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영어권 회중에 이정식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했으며, 9월에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난민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에는 조의환 교수를 초청해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열었고, 7월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부지역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9월에는 비즈니스 미션을 위한 ET WORKSHOP을 갖게 되었고, 한인사역팀과 함께 난민 사역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예배가 9월부터 시작되었고, 12월에는 3명의 장로(신상목, 이준철, 황유성)와 7명의 안수집사, 5명의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웰로쉽 워십 스쿨을 통해 더 많은 워십리더들을 세웠고, ETI 영어 교습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어를 통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10월에는 고석희 목사를 초청하여 제2회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열었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피크닉을 즐기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연말에는 '동호인의 밤'을 개최하고 VIP 초청예배와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더 크라운 싱어즈'가 지역 섬김을 위한 찬양 음악회를 열었고, 시니어 수련회와 함께 한인 대상 HEALTH FAIR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도왔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양춘길 목사(뉴욕 힐크림 선교교회),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송병주 목사(LA 선한청지기교회), 이상문 박사(미성대 총장), 신상문 목사(C3 MINISTRY 대표), 김대영 목사(웰로쉽교회)가 강사로 함께한 '미셔널 처치 고잉 워싱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기존의 컨퍼런스를 넘어 미셔널 처치를 향한 더 깊은 방향성과 실천을 제시하며,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담임목사의 한식년과 제2기 사역을 거치며 웰로쉽교회는 미셔널 처치로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지역과 세계를 향한 선교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연합, 사랑과 한신으로 세워진 웰로쉽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웰로쉽교회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워싱톤한인장로교회



1965년 7월 4일 – 강경옥 장로(후에 목사 안수 받으심)를 중심으로 김순복 씨 댁에서 11명이 교회 설립의 뜻을 모아 첫 예배를 드리다.

1965년 7월 11일 – Howard University Chapel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다. 강경옥 장로가 초대 교역자로 시무하시다(1966년 8월 사임, 13개월 시무. 1967년 6월 고국 귀국).

1965년 9월 14일 – 백악관 근처의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다.

1966년 9월 4일 – 제 2대 교역자로 안상엽 목사가 부임하시다. (1970. 4. 사임)

1970년 5월 23일 – 제 3대 교역자로 김택용 목사가 부임하시다. (2000.4.16 은퇴, 2001.4.8. 원로목사 추대)

1975년 9월 14일 – 알렉산드리아의 마운트 버논 애비뉴에 위치한 Alexandria Bible Protestant Church를 구입하여 12월 14일에는 입당 예배를 드리다.

1978년 12월 10일 – 노스 캐롤라이나, Fayetteville에 첫번째 개척교회를 설립하다. '훼잇빌한인장로교회' www.kpcfnc.org

1979년 6월 30일 – 새 성전 구입을 위하여 알렉산드리아 교회당을 매도하고 알링톤에 위치한 클레어랜돈 장로교회를 임시로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되다.

1981년 1월 1일 – 버크 (4925 Twinbrook Road Burke, VA)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로부터 성전을 구입하여 입당하다. ($550,000)

1982년 1월 23일 – 버지니아 웃브릿지에 제2의 개척교회인 워싱톤 남부장로교회를 설립, 박중석 목사를 교역자로 파송하다.

1986년 2월 13일 – 미국 장로회 (PCA) 한인 동부노회의 설립과 함께, 본 노회의 회원교회로 가입하다.

1996년 7월 1일 – 단기 선교팀이 중국 단동과 연길등을 방문하고 이통에 위치한 성광교회를 재정지원하여 새 교회당을 건립하다.

1998년 5월 26일 – 페어팩스 (9524 Braddock Road Fairfax, VA)에 위치한 Fairfax Baptist Temple의 교회 건물(1971년 준공)을 그 교회가 새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할 때까지는 교회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다.

2001년 5월 13일 – 구 교회 건물(4925 Twinbrook Rd. Burke, VA)을 매도하고, 새로 구입한 건물(9524 Braddock Rd. Fairfax, VA)로 이전하다. (7월 8일 – 교회설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입당예배를 드리다.)

2003년 1월 19일 – 제4대 담임목사로 김현준 목사가 부임하시고, 4월 15일에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다 (2005.4.3 사임).

2005년 9월 15일 – 제5대 담임목사로 김태권 목사가 부임하시고, 11월 6일에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다 (2008.6.22 사임).

2009년 3월 29일 – Paul Bang 목사를 영어부 담당 보조목사(assistant pastor)로 임명하다.

2009년 4월 27일 – 제6대 담임목사로 박성일 목사가 부임하시고, 5월 31일에 PCA 한인수도노회 주관으로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다.

2009년 7월 17일 – 2009년 워싱턴동포복음화대성회 (강사: 이연길 목사, 달라스 빛내리교회)

2009년 9월 6일 – 유재규 전도사를 유년부 전도사로 임명하다 (2012.5.27 사임).

2010년 9월 12일 – 임성철 목사를 보조목사(assistant pastor)로 임명하다(2014.8.3 사임).

2011년 6월 12일 – 교회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오픈하다. www.kpcw.net

2011년 10월 9일 – 임지혜 집사(후에 전도사)를 찬양사역자로 임명하다(2012.10.28 사임).

2012년 6월 3일 – 유수진 전도사를 초등부 전도사로 임명하다. (2020.1.26 사임)

2012년 7월 1일 – 선교주일 이종도 선교사(케냐 나이로비 Bridgeworld College 총장) 본 교회에서 후원선교사로 지원하기로 하다.

2012년 7월 8일 – 김동우(Jacob Kim) 전도사(후에 목사)를 유스(Youth) 그룹 담당 전도사로 임명하다.

2012년 7월 8일 – 정치영 & 정현정 선교사(이디오피아 의료 사역)를 협력 선교사로 임명하다.

2013년 1월 20일 – 이규혁 목사를 1/20일부로 찬양사역자로 임명하다. (2016.6.5 사임)

2013년 4월 8일 – PCA 한인수도노회 제42회 정기노회에서 박성일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다.

2013년 5월 25일 – 전교인수양회 5/25(토)~27(월), 장소:EMU. (강사: 박성일 목사, 박우철 강사)

2013년 7월 27일 – 2013 워싱턴지역 동포 복음화 대성회를 가지다. (토) 오후7:30, 본당, 강사: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2013년 10월 7일 – PCA 한인수도노회 정기노회를 본 교회에서 모이다.

2014년 3월 28일 – 봄 부흥회(3/28-30) 강사: 최정권 목사 (필라델피아 챌튼햄장로교회)

2014년 5월 24일 – 전교인 수양회 5/24-26 (강사: 황승기 목사) EMU

2014년 9월 28일 – 이혜수 집사를 유아유치부 디렉터로 임명하다.

2014년 10월 24일 – 가을 부흥회(10/24-26) 강사: 서창권 목사(시카고 한인교회)

2015년 3월 20일 – 2015 봄 부흥회 3/20-22 강사: 손원배 목사(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2015년 5월 23일 – 전교인 수양회. 5/23-25. (강사: 강송중 목사,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EMU

2015년 10월 16일 – 2015 가을 부흥회 10/16-18, (김영진 목사, 메릴랜드 베다니장로교회)

2016년 5월 22일 – 김동우(Jacob Kim) 목사 안수식. 2017년부터 중고등부와 영어부 담당 보조목사

(assistant pastor)로 임명하다.
2016년 5월 28일 – 전교인 수양회 5/28-30 EMU (강사: 김은찬 목사)
2016년 6월 19일 – 김기환 목사를 찬양팀, 행정, 청년부 담당 보조목사(Assistant Pastor)로 임명하다.
2016년 7월 24일 – 신주혜 사모를 유치부(Pre-K) 디렉터로 임명하다.
2016년 10월 21일 – 2016 가을부흥회. 강사: 송영재 목사 (10/21-23) 주제: 사랑을 믿기까지.
2017년 2월 5일 – 온세상/한평생 선교사를 2017년 2월부터 협력선교사로 후원하기로 하다.
2017년 5월 27일 – 전교인 수양회. 강사: 김문배 목사(그랜드래피즈 한인은혜교회) 일시:5/27-29. 장소:EMU. 주제: 기독교 영성 (Christian Spirituality)
2017년 10월 8일 – 정시영 전도사를 영어부 인턴전도사(후에 목사)로 임명하다.
2017년 10월 20일 – 가을 부흥회 10/20-22 강사: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주제: 믿음으로 가는 여정
2018년 5월 26일 – 전교인 수양회, 일시:5.26-28, 장소: EMU, 강사: 김경훈 목사(좋은나무교회)
2018년 6월 3일 – David Bae 목사를 영어부 보조목사(EM assistant pastor)로 임명하다.
2018년 10월 7일 – Julianne Chang을 영어 1부예배 Nursery Director로, Hanna Heou를 1부 예배 Toddler Ministry Director로 임명하다.
2018년 10월 8일 – PCA 한인수도노회 53회 정기노회를 본 교회에서 개최하다.
2018년 10월 19일 – 가을부흥회. 일시:10.19-21. 강사: 심수영 목사(PCA MNA 한인 코디네이터, 아틀란타 새교회 원로목사), 주제:"The Power of Grace"
2019년 4월 8일 – PCA 한인수도노회 제54회 정기노회에서 박성일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다.
2019년 5월 25일 – 전교인수양회 (5.25-27) EMU, 강사: 김진세 목사(워싱턴 크리스천 상담교육원)
2019년 8월 4일 – 백인기 목사(유진벨)를 후원선교사로 돕기로 하다.
2019년 10월 25일 – 가을 부흥회. 10/25-27. 이영호 목사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2020년 1월 26일 – 이혜수 집사를 유초등부 디렉터로, 정인선 집사를 유초등부 뮤직디렉터로 임명하다.
2020년 7월 5일 – 임명: Andrew Chung(정진영) 전도사를 영어부 Pastoral Intern으로 임명하다.
2021년 8월 1일 – 임명: 정시영 전도사를 유초등부 담당 교역자로 임명하다.
2021년 12월 19일 – 임명: Kathleen Ahn을 2022년 1월 1일부로 1부 Pre-K & Kinder 디렉터로 임명하다.
2022년 4월 10일 – 임명: 강휘후 전도사를 영어부 인턴으로 임명하다.
2022년 7월 3일 –임명: 김신애 박사(Doctor of Music Art)를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하다.
2023년 3월 6일 – 안식년(연구년)으로 담임목사 부부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3/6-16)
2023년 4월 30일 – 김택용 원로목사 구순 생신 축하 잔치
2023년 8월 6일 – 임명: Hanna Heou를 유초등부 디렉터로 임명하다.
2023년 9월 3일 – 협력선교사: Jeff & Cheryl Norbie 선교사(콜빌 미국 원주민 사역)를 9월부터 협력선교사로 후원하기로 하다.
2024년 1월 7일 – 임명: 정시영 목사를 영어부 전임 보조목사(assistant pastor)로, 최성경(Paul Choi) 전도사를 영어부 인턴 전도사로 임명하다.

2024년 5월 25일 – 전교인수양회를 갖다. 기간:5.25(토)-5.27(월), 장소: EMU, 강사: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
2024년 7월 19일 – 선교부흥회: 7/19(금)-7/21(주일), 강사: 이희열 선교사(HOPE 선교회, 국제풀뿌리선교회), 이희열 선교사(HOPE, 국제풀뿌리선교회)를 협력선교사로 매달 후원하기로 하다.(8월 18일)
2025년 3월 2일 – 선교사 후원: 임해균/임정현 선교사(에콰도르 끼또, 한국기아대책)를 협력선교사로 하고 매달 후원하기로 하다.
2025년 4월 7일 – PCA 한인수도노회 제 66회 정기노회에서 박성일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다.
2025년 6월 1일 – 연재형(Jae Hyong Yeon) 전도사를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하다.
2025년 7월 13일 – 김한호 목사를 전임 보조 목사(assistant pastor)로 임명하다.



















와싱톤한인교회



교회의 시작(1951)

1951년 10월 14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Foundry 감리교회 예배실에서 '화부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지역 첫 한인 이민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0여 명의 한인 교포들이 모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목회자들은 정규 직업을 가지면서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무보수로 봉사하며 이민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데 힘썼습니다. 1955년에는 교회의 이름을 '와싱톤 한인교회'로 변경하고 워싱턴 시정부에 정식 등록하였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에 힘든 시기도 있었고 잠시 중단될 위기도 있었으나, 교포들에게 믿음과 생명의 안식처를 제공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련과 은혜(1957–1976)

1957년부터 1976년까지, 와싱톤 한인교회는 '광야의 시련과 은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제직회, 성가대, 여선교회, 교회학교 등 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 건물 마련의 소망으로 건축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여선교회가 교회 운영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실 부족으로 개인 주택을 구입해 '우리 집'이라 부르며 모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교회 사역이 활성화되었고, 1967년부터는 교회 소식지를 발행하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968년 이민법 개정으로 한인 이민자가 늘면서 교인 수와 재정이 성장하여 교회 사역이 확장되었으나, 이민자들은 낯선 땅에서의 정착 어려움, 인종 차별, 세대 갈등 등의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협동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교회 운영 체계를 세웠지만, 재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으로(1977-1981)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와싱톤한인교회는 후임 목사 청빙, 예배당 건물 매입 등 여러 문제와 의견 차이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설립 이후 초교파 교회이지만 장로교 운영체제를 따랐던 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가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미국 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 연회에서 선윤경 목사를 첫 담임목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체 건물이 없어 교인들의 신앙적인 사기가 저하되고 예배 출석도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으며, 27년간 사용해 온 Foundry 감리교회를 떠나 워싱턴 조지타운의 성 누가교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에는 수요 성서 연구, 성경 통신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 누가교회 시설 사용 및 관리 문제로 인해 자체 건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좇아(1982-1999)

1982년, 와싱톤 한인교회는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한 윌리엄 워터스 감리교회와 주택을 포함한 5에이커 부지를 45만 달러에 매입하며 30년 만에 자체 건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1983년, 그리스도의 비전을 분별하고 교회의 내적 성장을 위한 장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 사역 활성화, 구역 확장, 성인 교육 체계화, 단기 선교 사역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1차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1984년에 완공하며 마침내 자체 예배당을 마련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985년에는 교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오랜 숙원이었던 2세들을 위한 영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교회는 계속 확장되었고, 1990년 2차 건축, 1998년 3차 건축을 완성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교 사역의 방향도 해외 단기 선교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신도 사역 팀이 50개를 넘고 교인 수도 1,000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며(2000)

2000년, 와싱톤 한인교회는 21세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비전과 함께 평신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 조직 개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체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행정 체제 역시 미래 비전 방향에 맞춰 개편되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는 멕시코,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중국 북만주 지역의 연화 마을에 조선족을 위한 중장기 선교지를 개척하여 외국 땅에 처음으로 선교지를 설립하고 장애인 생활관, 양로원 생활관, 예배당을 건축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멕시코 선교 역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2007년에는 유까탄 반도의 까깔첸 마을에 선교관을 세웠고, 2012년에는 학교를 설립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2005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5차 장기 계획 목표 아래 교회의 성숙한 성장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교회개척위원회를 통해 지교회 설립을 계획하여, 2007년 매나사스에 첫 지교회를 세

우고 전도, 영적 성장, 공동체 내에서의 사귐과 섬김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며(2019-2025)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월부터 교회의 정규적인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교회 운영 역시 비대면 시스템에 의존하며 영적인 사기가 저하되는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와싱톤 한인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진해 오던 웨슬리 윙 증축 공사가 기적적으로 완성되어, 7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 8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10월 10일에는 헌당 예배를 드리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2021년 6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에는 몇 년간 중단되었던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했으며, 그동안 침체되었던 영어 목회와 성인 목회도 점차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 교우들이 꾸준히 늘고 전체 교인 수도 증가하며 교회 전체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충성과 헌신을 다한 성도님들의 헌신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담임목사 1951-2024 현재

초대 김태묵 목사 (1951~1953), 2대 오창희 목사 (1954~1955), 3대 (협동 목회) 황재경 목사 (1955~1977), 김성덕 목사 (1955~1973), 4대 선윤경 목사 (1977~1981), 5대 박종렬 목사 (1981~1983), 6대 조영진 목사 (1983~2005), 7대 김영봉 목사 (2005~2016), 8대 김한성 목사 (2016~2019), 9대 김영훈 목사 (2019~2022), 10대 김유진 목사 (2023~현재)















제 6 장

유관기독교단체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
워싱턴목회연구원
워싱턴청소년재단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Washington Jabez University
워싱턴기독장학재단
한미기독장학재단
국제성경연구원
워싱턴여교역자회
워싱턴밀알선교단
메릴랜드상록회
미주성경통독선교회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Washington Korean Pastors Councill)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이하 한인교역자회)는 워싱턴지역(Washington Metropolitan)에 거주하는 정통교단에서 안수 받은 한인 목사들의 친교 및 교류하는 단체로 워싱턴지역에서 조직된 최초의 기독교 단체이다.

본 한인교역자회 제 10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택용 목사가 기고한 제 27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지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인교역자회의 창립은 1971년 7월 5일에 당시 5개 교회에서 시무하던 황재경 목사, 김성덕 목사, 정용철 목사, 장일형 목사, 박관빈 목사, 김택용 목사 등 6인의 목사가 모여 이루어졌으며, 이 후 교역자 및 교회의 친선은 물론이며 교회간 연합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활절연합예배는 매 년 개최하기로 하는 등 크고 작은 연합활동을 시행하던 중 교회의 연합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역자 와 교회 신도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1975년 10월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를 발족하여 교회의 연합활동을 주관하게 하고 한인교역자회는 교역자간의 친선 사업을 위주로 활동을 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교협을 창설하여 교회 연합사업을 이관하고 교역자회 본연의 친목 사업에 주력하던 본 한인교역자회는 정례적으로 매년 초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주로 5,6월경에는 야외예배를 겸한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버지니아지역 교역자 대 메릴랜드지역 교역자로 팀을 구성하여 친교를 다지는 한편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시는 선배 목회자에 대한 섬김이 이어졌으며, 12월에는 한 해의 목회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송년 예배를 드리는 등 전통을 이어

나갔으나 1990년대 초반에 와서 함께 기도하던 세미나 개최가 돌연 중단되었고, 중반에는 친선체육대회 마저도 중단되었는데 아마도 메릴랜드지역 교역자회의 설립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측한다.

하여튼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27회 (회장 정인량 목사) 때인 1997년에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이때부터 해마다 5월이면 원로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섬기는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교협에서도 가을에 원로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섬기는 행사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야외예배를 겸한 버지니아지역 대 메릴랜드지역 교역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던 행사가 중단된 이후 버지니아지역 교역자와 메릴랜드지역 교역자간의 교류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001년도에 메릴랜드 교역자회 (현 메릴랜드 목사회)에서 봄에는 메릴랜드 교역자회 에서 주최하고, 가을에는 워싱턴 교역자회에서 주최하는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시작된 두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체육대회라는 매개체로 서로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간헐적이나마 동부지역 목사회(뉴욕 목사회, 필라델피아 목사회, 뉴저지 목사회, 메릴랜드 목사회)와도 체육대회를 통해 교류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선수로 참가하는 교역자 외에 지역의 많은 교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폭 넓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메릴랜드지역 교역자와의 친선 체육대회가 있은 후 2002년(제31회 회장 장시춘 목사) 3월부터 교역자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를 매월 갖기로 하고 모여 축구를 하게 된 이후 한인교역자회 산하 축구동우회가 발족되어 매주 월요일에 모여 축구로 체력을 단련할 뿐 아니라 친교도 나누던 중 한인교역자회와 축구동우회간 갈등이 발생하여 부득불 한인교역자회에서는 축구 동우회를 해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축구동우회는 독자적으로 매주 모임을 갖고 있는바 당시의 갈등이 해소된 지금 교역자간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한인교역자회의 산하에 소속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종목도 개발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교역자회 초기부터 행하여 오던 행사가 있으니 교역자 송년예배이다. 초기에는 12월 말에 개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역자간 친목을 나누었으나 이후 목회의 일정 등으로 연말의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12월 10일을 전후하여 모여 친교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모임을 위하여 해마다 워싱턴지역여선교연합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참석하는 교역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의 손길이 있는바 지면을 통하여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들을

소개합니다.

1대	(1971~1972)	황재경 목사	2대	(1972~1973)	황재경 목사
3대	(1973~1974)	김성덕 목사	4대	(1974~1975)	정용철 목사
5대	(1975~1976)	박관빈 목사	6대	(1976~1977)	장일형 목사
7대	(1977~1978)	김승학 목사	8대	(1978~1979)	신대식 목사
9대	(1979~1980)	안병국 목사	10대	(1980~1981)	김택용 목사
11대	(1981~1982)	김현칠 목사	12대	(1982~1983)	송문섭 목사
13대	(1983~1984)	황수봉 목사	14대	(1984~1985)	이태구 목사
15대	(1985~1986)	박석규 목사	16대	(1986~1987)	한철우 목사
17대	(1987~1988)	고원실 목사	18대	(1988~1989)	김석현 목사
19대	(1989~1990)	오광섭 목사	20대	(1990~1991)	박태환 목사
21대	(1991~1992)	최승우 목사	22대	(1992~1993)	문경원 목사
23대	(1993~1994)	주성봉 목사	24대	(1994~1995)	임종길 목사
25대	(1995~1996)	김종철 목사	26대	(1996~1997)	정인량 목사
27대	(1997~1998)	최호택 목사	28대	(1998~1999)	윤정태 목사
29대	(1999~2000)	김재동 목사	30대	(2000~2001)	김양식 목사
31대	(2001~2002)	장시춘 목사	32대	(2002~2003)	이석해 목사
33대	(2003~2004)	박건철 목사	34대	(2004~2005)	이홍근 목사
35대	(2005~2006)	이성수 목사	36대	(2006~2007)	양광호 목사
37대	(2007~2008)	최용우 목사	38대	(2008~2009)	안효광 목사
39대	(2009~2010)	이해갑 목사	40대	(2010~2011)	박건철 목사
41대	(2011~2012)	박인철 목사	42대	(2012~2013)	박인철 목사
43대	(2013~2014)	문정주 목사	44대	(2014~2015)	예경해 목사
45대	(2015 -2016)	안태선 목사	46대	(2016-2017)	엄주성 목사
47대	(2017-2018)	최일승 목사	48대	(2018-2019)	문정주 목사
49대	(2019-2020)	이정범 목사	50대	(2020-2021)	이태봉 목사
51대	(2021-2022)	조상래 목사	52대	(2022-2023)	김찬영 목사
53대	(2023-2024)	이택래 목사	54대	(2024-2025)	양경욱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설립 50주년(희년)을 맞이하여 교협 50년사를 발간하게됨을 축하드리며, 금번 기회에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큰 기쁨입니다. 교역자회가 교협의 역사보다 오래되었지만 워싱턴교계의 구조와 형편상 교역자회의 사역과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워싱턴지역의 교역자들과 소통과 대화, 연합과 상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교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교협 역사 100년에는 교역자회와 더불어 함께 상생과 공존하는 워싱턴의 명실상부한 워싱턴 교계의 두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송년예배


교역자회임원


2022송년예배


2013년송년잔치


교역자회배구팀


2013년송년예배


5개주체육대회2024



2024년송년예배

워싱턴목회연구원(Washington Ministry Institute)



1. 역대 원장


1대
김상묵 목사
(1985–1987)


2대
이원상 목사
(1987–1989)


3대
한철우 목사
(1989–1991)


4대
최윤환 목사
(1991–1993)


5대
황수봉 목사
(1993–1995)


6대
윤정태 목사
(1995–1996)


7대
김택용 목사
(1996–1997)


8대
임종길 목사
(1997–1998)


9대
정인량 목사
(1998–1999)


10대
박노영 목사
(1999–2000)


11대
지선묵 목사
(2000–2001)


12대
조남홍 목사
(2001–2002)


13대
이석해 목사
(2002–2003)


14대
서보창 목사
(2003–2004)


15대
양광호 목사
(2004–2005)




16대
윤여천 목사
(2005–2006)


17대
채홍석 목사
(2006–2007)


18대
윤여천 목사
(2007–2008)


19대
정영만 목사
(2008–2009)


20대
이병완 목사
(2009–2010)


21대
김성도 목사
(2010–2011)


22대
노규호 목사
(2011–2012)


23대
안현준 목사
(2012–2013)


24대
손갑성 목사
(2013–2014)


25대
김범수 목사
(2014–2015)


26대
조동수 목사
(2015–2016)


27대
허성무 목사
(2016–2017)


28대
박상섭 목사
(2017–2018)


29대
한세영 목사
(2018–2019)


30대
박진욱 목사
(2019–2020)


31대
최일승 목사
(2020–2021)


32대
김재학 목사
(2021–2022)


33대
이택래 목사
(2022–2023)


34대
문정주 목사
(2023–2024)


35대
전정구 목사
(2024–2025)

2. 40년 역사 이후의 역사정리

워싱턴목회연구원(Washington Ministry Institute)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본 워싱턴목회연구원과는 무관한 '목회연구원'이란 단체가 있었다. 본 원은 1985년 11월 11일에 윤정태 목사, 우수명 목사, 민대식 목사 등이 발기인이 되어 시작하였으며, 동년 12월에 윤정태 목사 댁에서 총회를 열어 초대 원장에 김상묵 목사, 총무에 우수명 목사, 서기에 윤정태 목사, 회계에 민대식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후 이원상, 김택용, 최윤환, 황수봉, 한철우, 김철, 황찬규, 이원희, 박대균, 배석휘, 박윤석, 김재동, 정창은, 이병구, 장세일, 이희문, 서일환, 김인호, 최훈진 목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였다. 본 원은 워싱턴 지역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른 교회관과 바른 목회관을 정립하는 데 애쓰는 가운데 설립 초부터 지금 40년이 되는 2025년에 이르기까지 연초에 목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어오고 있다.

2005년까지의 중요한 신년세미나를 보면 이러하다. 장국원 교수 '성서배경사','김중기 교수'목회자와 신학','김계용 목사'나의 설교준비와 방법론','옥한흠 목사'강해설교의 중요성과 그 방법론','김상복 목사'나의 설교 방법론','조영진 목사'체례준비의 갱신','변제창 박사'성경공부 소그룹 인도법','데이비스 도슨(David Dawson)'제자훈련 세미나 고급반','이연길 목사'성경공부를 통한 교회성장','김의환 교수'미국사회속의 한인 목회','은준관 교수'설교 커리큘럼','김경렬 박사'교회 경영 관리','황창기 교수'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오덕교 교수'청교도의 신학과 목회','김경섭 목사'프리셉트 귀납법적 성경연구','최창옥 목사'성공적 목회의 문빗장'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윤영탁 교수, 홍성철 교수, 정장복 교수, 김재성 교수, 서정운 교수 등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자의 세미나를 열어 워싱턴지역의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의 일시와 장소, 강사는 년간행사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워싱턴목회연구원은 매해 년초에 신년세미나를 열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정기모임으로 정하고 일년 12회를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정기모임 중에 매년 5월과 10월에는 봄과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신학강의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회원들간의 교제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봄과 가을 수양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신년세미나처럼 워싱턴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은 오전 10:30분에 시작하여 1부 예배 2부 주제발표 3부 정기회의를 열고 모든 회무가 끝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예배의 설교자는 역대원장의 순으로 설교순서를 담당하고 강의는 각 분과별로 지정된 담당 목사님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다. 각 분과는 신학분과, 목회분과, 교육분과, 교회분과, 문화분과, 선교분과, 윤리분과, 청소년분과로 구성한다.

매월 각 분과별로 강의를 담당하고, 친교와 식사도 각 분과별로 섬기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원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회의는 원장이 사회를 보며, 서기보고, 회계보고, 총무보고, 신안건 토의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목회연구원의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목회연구원의 회원은 25명으로 한정하고, 신입회원이 가입할 경우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25년 10월 현재 목회연구원의 정회원은 25명, 명예회원은 2명으로 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회원들이 여러 분야의 신학을 주제로 하여 토론을 하며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목회를 함께 동역하는 사랑과 연합의 큰 뜻을 갖고, 이민목회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구 공동체로서 그 면모를 다하고 있다. 1997년에는 목회연구원 10주년을 맞아 논문집 (10주년 기념논문집)을 발간(발행인 윤정태 목사, 편집인 정인량 목사)하였고, 2006년 12월 18일에는 목회연구원 20주년을 맞아 윤여천 목사님의 제안으로 이민목회와 신학논문 연구집을 발간(발행인 윤여천 목사 편집인 정인량 목사)하고 기념식을 페어팩스한인장로교회에서 가졌다. 또한 목회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는 2015년 2월 정기모임 시 윤여천 목사의 제안으로 30주년 논문집 발간(발행인 김범수 목사, 편집인 이병완 목사)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목은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역사 및 논문집, 이민 목회와 신학(III)'으로 결정하고, 출판기념예배를 2015년 11월 29일 주일 오후 6시에 메시야장로교회에서 원장 김범수 목사의 설교, 류응렬 목사, 김용훈 목사, 김영진 목사의 축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장 박상섭 목사의 비전선포, 이원희 목사의 축도로 출판예배를 드렸다.

2013년까지는 목회연구원이 카카폰 수양관에서 목회연구원들에 한하여 신년세미나를 가졌다. 그러나 2014년 2015년에는 워싱턴침례신학교에서 신년세미나를 열어 워싱턴의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세미나가 되어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부터는 윌리암스버그에서 신년세미나를 개최하여 세미나의 규모를 더 크게 열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목회자들과의 교제와 신학적 교류를 폭넓게 갖게 되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었다.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최소 2년간은 세계가 마치 시계바늘이 멈추어 선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과 성장의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다. 이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재택근무, 팔꿈치 인사(Elbow Bump), 자가격리, 화상회의(Virtual meeting), 마스크필수 등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 문화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로인해 많은 영역에서 침체기를 맞았지만 대중들이 모여야 하는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곳보다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2025년에 와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Covid19 기간에는 무려 교회 출석 인원의 1/3이 줄어드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났다. 교회를 사회적인 모임으로 출석하던 교인들이 신앙적인 자세로 고통의 기간을 겪는 과정에서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기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신앙을 일깨우는 연단의 시간들이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전기 자동차와 AI, 그리고 우주여행을 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 맞게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2025년을 맞게 되었다.

2025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현재 회원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김범수 김성도 김재학 김찬영 문정주 박노영 박진욱 손갑성 안현준 양경욱 윤구현 윤여천
윤정태 이병완 이석해 이정범 이택래 임종길 정영만 조남홍 전정구 조동수 최일승 한세영
허성무

명예회원: 정인량 최윤환

* 2025년 총회에서는 목회연구원 회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할 헌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3. 40년간의 발자취(신년세미나를 중심으로)

1) 10년의 역사(1985-1995)

년 월 일	내 용
1985.10.21	워싱턴목회연구원 발족모임
1985.11.11.	워싱턴목회연구원 창립예배
1985.11.11.	김택용 목사 '1986년 새해 목회 계획'
1985. 12.	김의환 목사, 첫 번째 세미나
1986. 2.	워싱턴목회연구원 뉴스레터 1호 창간
1986. 2.18.	이원상 목사 '새신자 성경공부 안내'
1986. 7.31.	김중기 목사 '목회자는 민중신학자다'
1986.10. 6.	김상복 목사 '중국선교회의 현황과 방향'
1986.11. 7	조영진 목사 '세례준비 교육의 갱신'
1987. 3.22.	김계용 목사 '목회자의 설교준비'
1987. 5. 4.	옥한흠 목사 '강해설교준비'
1987. 6. 8.	김상복 목사 '나의 설교와 방법론' 김상묵 목사 '시험을 이기는 자(약1:1-12)'
1987.11.4.	박희민 목사 '이민목회와 이민목회의 비전'
1987.12.15.	방지일 목사 '바람직한 목회상'
1988. 3. 7.	변재창 목사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1988. 3.30.	세미나 '제자훈련의 실제' 강사: 우수명 목사, 박대균 목사, 민대식 목사
1989. 2. 6.	세미나 강사 방지일 목사
1990. 1. 8-10	신년세미나, 이연길 목사 '성경공부를 통한 교회성장'
1990. 2. 1.	김의환 목사 '미국 사회속의 한인목회'
1990. 5.14-17	최창수 목사 '성경 기억법 세미나'
1991. 1.14-16.	신년세미나, 은준관 목사 '성경 커리큘럼'
1991. 5.28.	김경렬 박사 '교회경영관리'
1992. 1.6-8.	신년세미나, 황창기 목사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1993. 1.4-6.	신년세미나, 오덕교 목사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
1993. 6.13.	호시노 목사 '21세기를 지향하는 일본선교'
1994. 1. 3-5	신년세미나, 김경섭 목사 '프리셉트 귀납법적 성경공부'
1994. 3. 7.	우수명 목사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안 소개'
1995. 1. 2-4.	신년세미나, 최창욱 목사 '목회심리학, 성공적인 목회와 문빗장'
1995. 6. 6-7.	봄 세미나, 김명룡 교수 '칼 바르트 비판'

2) 20년의 역사(1996-2006)

년 월 일	내 용
1996. 1. 5-7.	1996년 원장: 윤정태 목사 장소: 안나산 기도원 강사: 김재성 박사 '개혁주의신학'
1997. 1. 6-9.	1997년 원장 김택용 목사 장소: 메릴랜드 수양관 강사: 신년맞이 금식 기도회
1998. 1. 5-7.	1998년 원장 임종길 목사 장소:워싱턴 크리스천 하우스 강사: 장영일 목사 '구약성경연구'
1999. 1. 8-10.	1999년 원장 정인량 목사 장소: 크리스천 하우스 강사: 윤영탁 박사 '학개서에 나타난 교회부흥고찰'
2000. 1.17 -19.	2000년 원장 박노영 목사 장소: 클립사이드 인(하퍼스 페리, MD) 강사: 오태균 박사 'NCD 교회 성장학'
2001. 1.13-15.	2001년 원장 지선묵 목사 장소: 클립 사이드 인(하퍼스 페리, MD) 강사: 홍성철 박사 '이민목회와 전도'
2002. 1. 6-8.	2002년 원장 조남홍 목사 장소: 클립 사이드 인(하퍼스 페리, MD) 강사: 박창섭 선교사(케냐) '이민목회와 북방선교'
2003. 1. 6-8.	2003년 원장 이석해 목사 장소: 안나산 기도원 강사: 이승호 목사 '정신분열과 마귀역사' 서현석 선교사 '21세기 세계 선교전략'
2004. 1. 8-10.	2004년 원장 서보창 목사 장소: 클립사이드 인(하퍼스 페리, MD) 강사: 정장복 박사 '이민교회의 목회자와 성경적 설교'
2005. 1.19-21.	2005년 원장 양광호 목사 장소: 클립 사이드 인(하퍼스 페리, MD) 강사: 서정운 박사(미주 장신대 총장) '목사다움'

3) 30년의 역사(2006-2015년)

년 월 일	내 용
2006. 1.18-20.	2006년 원장 윤여천 목사 장소: 클립 사이드 인(하퍼스 페리, MD) 강사: 김재성 박사 '한국교회와 개혁신학의 정체성'
2007. 1.22-24.	2007년 원장 채홍석 목사 장소: 워싱턴 크리스천 하우스 강사: 유승원 목사 '성경본문에서 설교까지'
2008. 1.14-16.	2008년 원장 윤여천 목사 장소: 워싱턴 크리스천 하우스 강사: 최훈진 목사 '노년기/은퇴기 사역을 위한 지도력 개발'
2009. 1.29-31.	2009년 원장 정영만 목사 장소: 카카폰 수양관 강사: 서창원 박사(총신대 교수) '개혁교회의 예배와 설교'
2010. 1.18-20.	2010년 원장 이병완 목사 장소: 카카폰 수양관 강사: 김용국 박사(한국침례신학대학원 역사신학교수)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발전사'
2011. 1.17-19.	2011년 원장 김성도 목사 장소: 카카폰 수양관 강사: 박진욱 목사(한사랑 교회) '목회에 있어 비정상적인 심리와 대처방법' 손갑성 목사(필라장로교회) '고대근동의 문헌과 모세5경의 비교'
2012. 1.16-18.	2012년 원장 노규호 목사 장소: 카카폰 수양관 강사: 신현수 박사(평택대학교 조직신학교수) '21세기 칼빈적 개혁신학의 역할'

2013. 1.14-16.	2013년 원장 안현준 목사 장소: 카카폰 수양관 강사: 이명희 박사(한국 침례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복음주의적 현대설교'
2014. 1.20-21.	2014년 원장 손갑성 목사 장소: Virginia Washington University 강사: 전정구 박사(체사픽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성경신학과 강해설교'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강해설교의 실제'
2015. 1.26-28.	2015년 원장 김범수 목사 장소: 메시야장로교회 강사: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이민목회와 주일성수 및 성경강해 정숙 박사(전총신대교수) '이민목회와 치유상담'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열린문교회이야기' 손형식 목사(필그림교회) '성경적 교회와 바른신학세우기'



2023년신년하례회



2014년신년세미나



2024년신년세미나



2019년신년세미나



이민목회 와신학III논문2015



2022년11월정기모임



정기모임



2022년봄수양회



정기모임



워싱턴청소년재단(Washington Youth Foundation)



1. 설립 및 역사

워싱턴 청소년 재단은 2002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주관으로 다민족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교육, 건강, 사회봉사를 제공하여, 미래의 차세대 한인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되었다.

발기인: 정인량 목사(교협 27대 회장) 이원상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발기인교협회장: 양광호 목사(교협 28대 회장) 정영만 목사(교협 29대 회장) 김재동 목사(30대 회장) 이병완 목사(30대 회장)

2005년에는 청소년재단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신후식 목사와 교협이 후원하고, 와싱톤중앙장로교회가 음악회를 통해 모은 기금을 합하여 약 $100,000의 기금을 모금하였다. 2007년에는 IRS에 501(c) (3)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되어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로 그랜트를 받게 되어 청소년 과외수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2025년까지 지금까지 18년동안 계속 방과후 수업과 지도자 양육을 위한 그룹 활동 및 멘토링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2. 역대 이사장

제 1대 이원상 목사(2004-2006)
제 2대 정인량 목사(2006-2008)
제 3대 정인량 목사(2008-2010)
제 4대 김재동 목사(2010-2012)
제 5대 이병완 목사(2012-2014)
제 6대 이병완 목사(2014-2016)
제 7대 김성도 목사(2016-2018)
제 8대 김성도 목사(2018-2021)
제 9대 김범수 목사(2021-2023)
제 10대 김범수 목사(2023- 2025)

3. 비젼 및 교육 이념

워싱턴 청소년 재단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들을 느낄 때 청소년들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 는 교육 이념으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기여하는 지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재단의 비젼이다.

4. 조직

1) 상임이사: 전임 이사장
2) 이 사 회: 한인사회 및 교계지도자들로 구성하되 매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3) 실행이사: 이사장, 서기이사, 재무이사, 사무총장
4) 직원 : 사무총장과 프로그램 디렉터

5. 프로그램

1) 방과후 수업(After School and Weekend School; ASWS)

전, 현직 공립 또는 사립 학교 교사들 또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로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영어와 수학을 배워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반을 학년별, 학업수준별로 나누어 반을 편성하되, 한 반에 10명을 넘지 않게 한다.

1년에 120명을 목표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봄과 가을 두 학기를 가르치고 있다.

2) 그룹활동(Group Activities) 및 멘토링(Group Mentoring & Individual Mentoring)

매월 2회 씩 그룹을 대상으로 주제를 정해서 그룹멘토링을 실시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고민과 상담과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 멘토링을 실시한다. 그룹활동으로는 대학교 탐방, Washington DC Tour, Apple Picking, Intern Program을 실시한다.

멘토링 주제: 학업성적, 이성교제, 부모와의 갈등, 사춘기고민, 학교폭력, 학교내폭력, 고독감, 절망감, 동기부여, 책읽는 방법, 대학교 진학상담, 약물복용,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법, 환경보호, 스트레스, 우울증, 외모,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멘토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치료, 및 지도를 하고 있다.

3) 한국방문프로그램

2018년 한국 경북 고령군과 MOU를 맺은 후 2018년 7월 워싱턴의 학생들이 고령을 방문하여 고령, 경주, 안동, 강원도 속초, 서울등을 방문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였다. 2019년 2월에는 고령군의 학생들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Home Stay를 통해서 학생들간 교류를 하였고, 그해 2019년에도 다시 고령을 방문하였고, 안동, 경주, 속초,경포대를 방문하고, 서울, 그리고 통일전망대, 제3의 땅굴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분단된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3년에는 한국 하남시의 교회 연합회에서 초청하여 하남시와 서울, 설악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였고, 2024년에는 하남시의 학생들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을 방문하여, 미국의 역사, 대학, 문화를 체험하였다.

워싱턴청소년재단에서는 계속 한국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경북고령탐방


2023한국하남시탐방


경북고령방문



연합멘토링



Apple Picking



그룹멘토링



리더쉽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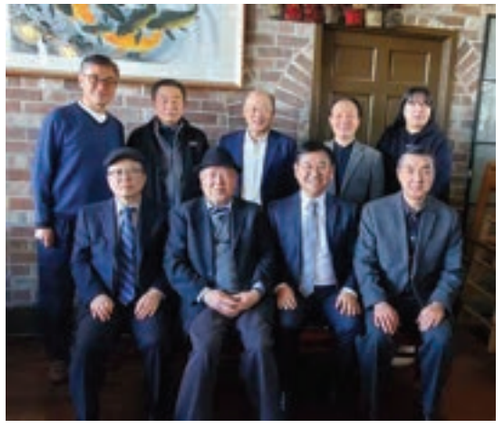


성탄절그룹활동


방과후과외수업



운영기금모금만찬


2024정기이사회


이사회수련회



재단운영기금및경북고령군학생워싱턴방문환영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1. 1980– 2010년대/ 태동기

본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는1983년4월24일, 워싱턴신학교(Washington Theological Seminary)의 교명으로 태동되다. 김택용 목사가 시무한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당회원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조직하고 교회에서 재정보조와 시설물 사용을 지원받다.

1983년7월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동부노회에서 인준되다.

1983년7월26일, 버지니아주정부에 법인체 등록완료

1983년9월8일, 버지니아주고등교육국 (SCHEV)으로부터 한인신학교 최초로 인허를 받다.

1983년9월 20일,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당시Burke 소재) 교육관에서 개교 및 수업 시작하다.

1985년12월24일, 국제신학교협의회 (International Accrediting Commission) 정회원 학교가 되다.

1987년4월28일, PCA한인동남부노회 (현수도노회 모체)의 후원신학교가 되다.

1993년12월31일, 제10주년기념학술지 "라마나욧"1 창간호 발행하다.

1997년5월31일, 개교 제14주년 기념음악회 "성가와 음악의 밤"을 갖다 (특별초청음악인: 황해규).

2003년9월4일, Springfield, VA의 학교 건물을 구입하다.

2004 년 2 월 26일, 제 20 주년 기념 학술지 "라마나욧" 발행하다.

2004년3월, 미주 기독교총연합회의 국제 기독교선교대학교" 동부 분교 개설하다.

2004년1월15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SEVIS), I-20 Form발행 허가되다.

2005년 9 월1 일, Springfield, VA의 학교 새 교사 (자체 건물)로 이전하다.

2008년10월28일, 인도 도마신학교 (학장 김정구 목사)와 자매결연하다.

1 라마(Ramah)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욧(Naioth)은 '작은 공동체'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무엘이 고향인 '라마에 세운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2016년 현재, 졸업생120여명 중:

1) 미국에서– 대부분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으로 목회 일선사역에 임하고 있음

2) 한국에서– 일부 졸업생은 신학교 교수, 교회 목회사역 및 어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

3) 해외에서– 인도 (박정일), 중국 (한대위), 구소련 (장훈), 터키 (이미숙)등 선교사

4) 상급학교 진학– Westminster, Faith, Regent 등 신학교에서 석·박사 학위 받음

2. 2011–2022년대/ 발전기

2016년 5월 26일, 문선희 선교사가 워싱턴신학교(WTS)를 김택용 목사로부터 인수받다. 김택용 목사의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를 돌보라!"는 권면과 기도, 문선희 이사장의 "워싱턴과 미주지역의 영적 리더들의 첫 사랑 회복, 교회들의 진리 회복과 세계 선교(행 1:8)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는 화답과 아울러, '바른 복음 실현과 제자양성의 선지동산'으로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다.

2018년5월26일, 워싱턴신학교에서 35년간 총장으로 후학을 양성해 온 김택용 목사의 은퇴감사예배가 성료되다.

2019년8월20일, 본 교가 주관하고 YMBB, ODPC, CKCGW가 협력하여 개최한 "Mission Conference 2019"에 박현식 목사, 황경애 선교사 등 인도및 부탄지역 선교사30여명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다. 이 행사 후 땅끝 선교 마지막 노정에 있는 인도지역의 콜린신학교(KORI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와의 MOU를 체결하다.

2020년 8월 21일, 워싱턴신학교 학위 수여식이 온라인 중계 (Zoom ID:993 1776 8958)와 동시에 진행되다. 겸하여 한미기독장학재단 주최로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되다.

2020년 8월23일, 본 교의 2020 Fall Semester가 오후 5시에 개강되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개강예배도 온라인 (Zoom)으로 갖다.

2020년 8월 23일, 워싱턴신학교 (임시총장 정진오 박사)가 2020 Fall Semester가 개강되다. 개설학과는 신학과(TH.B.),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교육학 석사(M.C.E.), 기독교교육학 박사(D.C.E.) 등이다.

2021년 2월 12일, 워싱턴신학교 총장으로 이억섭 박사 부임.

2021년 9월27일, "마지막 때를 위한 선교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워싱턴신학교와 비라카미신학교 (장요나 선교사)간의 MOU를 체결하다.

2021년 12월 21일, 뉴욕 및 뉴저지 지역 입학설명회를 DC 이벤트홀 (뉴욕시온성교회)에서 개최하다.

3. 2022년대– 현재/ 확장기

2022년 3월 2일, 워싱턴다니엘기도회(대표 문선희 선교사)를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헌묵 목사)와 연합하여 개최하다. 특히 3.1절 103주년을 맞아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나라의 올바름을 구하는 기도의 장으로 마련되다.

2022년 4월 11일, 워싱턴신학교 "연방 학력인준기관 인증" 받다. 연방교육부 학력인준기관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의 인증을 받았다. 학위과정은 신학사(Th.B.),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교육 석사(M.C.E.), 기독교교육 박사(D.C.E) 등이다. 이를 계기로 타 신학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한 정식 신학교로 격상되다.

2022년5월23일, 워싱턴신학교 제37회 학위 수여식 갖다. 신학사 23명, 목회학 석사1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4명 등, 총 28명 학위 수여됨

2022년6월27일, 워싱턴신학교 산하 기독교교육연구소(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 주최, 제1회 세미 컨퍼런스(Semi-Conference)가 '성경에 근거한 교회 중핵(Middle-Core) 리더십의 발견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되다.

2022년 7월12일, 워싱턴신학교는 KWMC(사무총장 조영중 목사)가 주최한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장소: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회 운영에 동참하고, 세계 선교 사역(마28:19-20)에 동역하다.

2022년7월15일, 워싱턴신학교는 워싱턴북한선교회(대표회장 김영호 장로)가 주최한 '2022 통일선교사 세계대회'(장소: 열린문장로교회)의 환영위원회(위원장 문선희 선교사) 분과를 담당, 협력하므로 세계선교 사역에 동역하다.

2022년 11월, 워싱턴신학교(Washington Theological Seminary, 이사장 문선희 선교사, 총장 이억섭 박사)가 새로 구입한 패어팩스Campus로 이전하다.

2023년 6월 26일, 워싱턴신학교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공동주관 '목회 리더십과 미전도 종족 선교 컨퍼런스'가 '그리스도인의 선교사역, 어디까지 인가?- 땅끝 10/40 창문지역 선교는?' 라는 주제로 패어팩스 캠퍼스에서 개최되다(26-27일). 강사는 송용필 목사(햇불트리니티대학교)와 장요나 선교사(베트남)가 맡았다.

2023년 6월 27일, 워싱턴신학교 명예총장으로 송용필 박사를 추대하다.

2023년8월14일, 워싱턴신학교, 2023 Fall Semester 오리엔테이션이 새로 구입한 패어팩스 캠퍼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션활동이 소개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Zoom) 강의를 끝내고 다시 대면 수업(in-person)을 시작한다고 알리다.

2023년 8월 21일, 2023 Fall Semester 개강식을 갖다. 신학사(Th.B.), 기독교교육학 석사(M.C.E.),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교육학 박사(D.C.E), 철학 박사(Ph.D.) 등의 과정이 개설되며 30여명의 교수진이 강의한다. M.C.C.(기독교상담학 석사), M.C.M.(교회음악 석사), D.Min.(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을 새 학기에 시작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종강일은 12월 9일).

2023년 10월 1일, 워싱턴신학교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공동주최로, 장경동 목사와 김호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회복과 부흥' 영성집회를 패어팩스캠퍼스 채플에서 개최하다(1-2일).

2023년 10월 8일, 워싱턴신학교와 비라카미선교회 미주본부(본부장 문선희 선교사) 공동주최,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주제로 제 3회 '목회 리더십과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다[8(주)- 11일(수)]. 강사는 손윤탁 목사(남대문교회 담임), 장요나 선교사(비라카미선교회 대표), 배현찬 교수(워싱턴신학교)이다.

2024년 1월, 본 교 대표 이름을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로 TRACS및 주정부에 개명을 요청하고, 신학대학원은 Washington Theological Seminary이름으로 그대로 두기로 하다.

2024년 1월 22일, 봄학기 개강에 즈음하여 Faculty & Students Orientation (교수 및 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하다.

2024년 1월 22일, 2024 Spring Semester 개강하다 (5월11일 종강).

2024년 5월, 본 워싱턴신학교는 연방 학력인준기관인 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로 부터 M.C.C.(기독교상담학 석사), M.C.M.(교회음악 석사), D.Min.(목회학 박사), Ph.D.(실천신학 철학박사), 프로그램들의 추가 인증을 받다.

2024년 5월 30일, 본 교 이억섭 총장 은퇴하다.

2024년 6월, 본 워싱턴신학교 (Washington Theological Seminary)는 제자 교육 현장 미션을 확대키 위해 교명을 기독교종합대학인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로의 개명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갖다.

2024년 6월 27일,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워싱턴신학대학 및 대학원) 제38회 학위 수여식 거행되다(6월 10일부터 졸업사진 촬영 시작).

2024년7월15일, 본 교는 워싱턴 북한선교회 (대표회장 김영호 장로)가 주최한 '2024 통일선교사 세계대회'의 목회자세미나를 연합으로 패어펙스 캠퍼스에서 개최하다.

2024년9월16일, 본 교는 "통전적 선교"라는 주제로 "목회 리더쉽과 선교 컨퍼런스"를 장요나 선교사, 최요한 목사, 김대영 목사를 강사로 초청, 워싱턴 교협과 협력하여 주관하다.

2024년 9월18일, 본 교회는 베트남 다낭시에 '소수부족교회'의 설립을 위해 워싱턴신학교 복음교회와 협력하여 건축헌금 지원을 시작하다. 이로 인해 땅끝 선교의 기반을 구축하다.

2024년 12월 14일,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제 39회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다. 신학사 14명, 목회학 석사 3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10명, 총 27명 학위 수여됨.

2025년 1월22일, 본 교는 2025 Spring Semester교수 오리엔테이션 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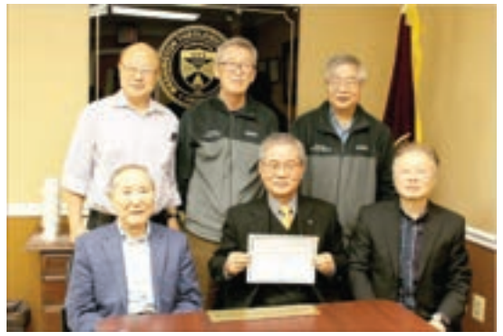
2025년1월27일, 본 교는 2025 Spring Semester 를 개강하다 (5. 10 종강).

2025년5월24일,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제 40회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다. 신학사 11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9명, 기독교교육학 박사 4명 등, 총 24명 학위 수여됨.

2025년5월31일, 본 교는 워싱턴신학교복음교회와 협력하여 배영훈 박사(본교 겸임교수) 출판기념예배를 주관하다.










버지니아 크리스챤 대학교(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는 이광현(Thomas Rhee) 박사와 강웅조 박사의 주관아래 2005년 3월에 버지니아 고등 교육국(SCHEV)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버지니아 고등 교육국(SCHEV)으로 부터 수여하도록 받은 학위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부 과정(BBS).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Theology.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Doctor of Ministry (D. Min).

본 대학은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이하ABHE) 2020년 2월 제 73차 정기 모임에서 인준(Accreditation)을 받았다. 본교는 2025년 2월에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ABHE 정기총회에서 정식회원대학으로 재승인을 받았고 기간은 10년간이다. 또한, 본교는 2019년 1월에 ATEA(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nations, 이하 ATEA)에서 회원 대학으로 승인받았다. 본교는 2012년 10월에 한국 부산에 있는 고신대 (당시 김성수 총장)와 MOU를 체결하여 교수진 교류, 학생 교환 및 도서자료 공유 등에 조인하였다.

1. 교단 배경

본 대학은 2014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대한 예수교 장로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합동) 99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며 미국에 본부가 있는 세계 한인 예수교 장로회(WKPC)에서 인준을 받았다.

모든 학사 일정은 버지니아 고등 교육국(SCHEV)과 ABHE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본교는 봄학기 가을학기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학기제이며 매학기 주야간 수업을 하며 16주 수업방식을 통하여 각 학위 취득에 합당한 교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신학 노선

대학교와 모든 직원, 교수들은 정통 개혁주의(Reformed Theology) 보수신학을 중심으로 Westminster 신앙고백(대,소요리 문답)과 완전 축자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 바탕위에 굳게 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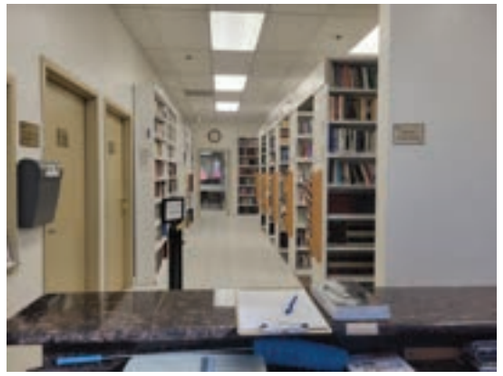
3. 해외 선교 활동

중국 베이징에 선교 목적으로 학교건물을 건축하여 2007 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제자 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곳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여 이 사역자들은 중국 전역과 세계 각국에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다. 본교는 몽고 등 아시아 계통 학생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목적으로 2010 년부터 지금까지 동남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동유럽과 중남미에 선교를 하고 있으며 각곳에서 목회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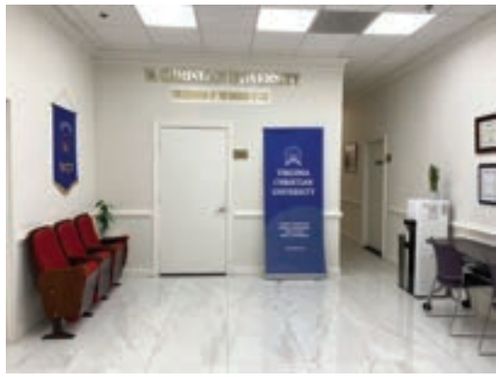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각 과정별 풀타임 학생들은 약 340명정도 된다. 이 학생들은 행정건물과 도서관 건물이 있는 Chantilly Campus 와 교육 시설이 구비된 Annadale Campus 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주중에 교육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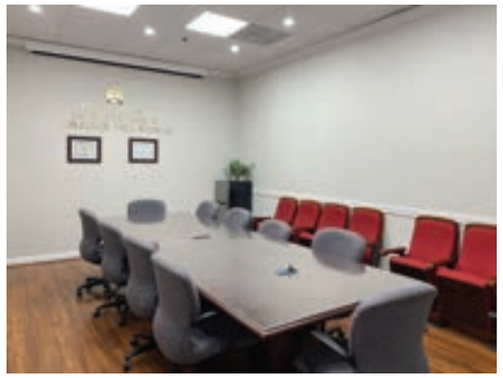
이광현 총장



도서관



본교실내사진



본교회의실사진





도서관



고신대와 MOU체결



이광현총장연변과기대방문



본교교실



Annandalesite실내사진

워싱턴 야베스 대학교(Washington Jabez University)



박 엘리사 박사 / WJU 이사장

워싱턴 야베스 대학교(Washington Jabez University)는 2014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에 세워졌다. 본교는 어떤 교파에 소속된 학교가 아니라 초 교파적인 학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본교의 교수진들은 각 교단에서 설립한 건전한 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학위를 소지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워싱턴 야베스 대학교(Washington Jabez University)는 주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학사는 신학(BACHELOR OF THEOLOGY), 기독교 상담학(BACHELOR OF CHRISTIAN & COUNSELING), 비교종교학(BACHELOR OF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 과목들을 인가 받았고, 석사는 신학(MASTER OF THEOLOGY), 목회학(MASTER OF DIVINITY), 기독교 상담학(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교육학(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비교 종교학(MASTER OF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 채플린(MASTER OF CHAPLAINCY) 과목들을 인가 받았다. 그리고 박사는 목회학(DOCTOR OF MINISTRY)을 인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에 필요한 과목들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워싱톤 야베스 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생명, 진리, 실천'이며, 교육목표는 '체험하는 신앙인, 신학을 아는 전문인, 선교하는 세계인'이고, 교육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학문을 겸비하는 전인교육'으로 세워놓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 중에 본교와 협력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각 나라의 일부 도시의 선교사)는 중국, 태국, 인도, 네팔, 파라과이, 멕시코, 남 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가 있다. 그리고 본교의 교수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는 태국의 치앙마이(Chiang Mai)에 위치한 신학교, 그리고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Cape Town)에 위치한 신학교들이다.

세계적으로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어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현실 가운데, 교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사역자들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가 리더들을 발굴하고 격려하여 신학교

에 보낼 때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인턴전도사로 봉사하게 하면 담임 목사님 사역들에 보탬이 되고 학교는 신학생들을 잘 훈련시켜 각 교회에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주의 종들을 교회와 학교가 함께 키워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한 동역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본교는 남성도들을 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절반 이상이 되는 여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훈련시켜 복음 전파로 지역 교회 부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영혼 돌봄과 심방, 소그룹 인도, 그리고 은사들을 계발하여 예배 찬양 및 리더십 분야에서도 섬김을 통해 목회자를 적극 도울 수 있는 여성도 훈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와 교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통해 디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성숙한 여성사역자들이 성숙이 필요한 여성도들을 가르칠 비전을 갖도록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찬양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섬기는 분들의 자질 향상과 성가대원들의 음악적인 훈련의 장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본교는 전문 음악교수들을 통해 찬양사역자들을 훈련시켜 각 교회 예배를 더욱 공교히 섬기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칠 교수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최근 본교 산하에 '야베스 아카데미'를 열었고 예배와 선교에 필요한 언어(한글, 영어, 스페니쉬), 음악(노래교실, 시창발성), 예술(서예, 캘리그래피)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강사들을 세우고 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관한 기술 등 다방면에 은사를 계발하는 반들을 열어 효율적으로 지교회를 섬기게 도우려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우리 인생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군들을 훈련시켜 원근 각처에 추수할 일군들이 필요한 적재 적소에 보내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워싱턴 야베스 대학교와 야베스 아카데미의 꿈이다.

지금까지 본 교는 많은 신학생을 배출하였다. 이 사역자들은 각 교단에 가입하여 각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으며 졸업생 중에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들도 있다.

본 워싱턴 야베스 대학교(Washington Jabez University)는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이다. 학교의 주소는 4421 Dale Blvd. Woodbridge VA 22193 이고 학교의 Website는 wjuniv.org이며 연락처는 한국어 (703) 232-5452. 영어 (703) 489-4168이다.



워싱턴기독장학재단(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of Greater Washington)

Mission Statement

Our mission is to provide scholarship to future Korean American pastors. We sponsor about 10 – 12 students a year. Our organization has been around for over 30 years started by our mothers who cared about our future. Let us continue and support our children by investing in what matters most –"Faith" to our children!

설립 취지의 목적 및 역사

본 장학 재단은 1981년 워싱턴 지역 여선교회 연합회가 결성 되던 같은 해에 연합회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취지는 혼탁하고 부패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절실함을 깨달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힘을 모아 청소년 교육에 사명을 갖고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훈련을 받는데 용기와 활력을 가지고 선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하여 1981년에 장학재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는 신학생들이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자, 2)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선한 사명자 3) 말씀과 신학으로 무장된 능력의 설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453명 신학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워싱턴기독장학재단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군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2009년까지 '워싱턴여선교연합회 장학재단'으로 사용되던 명칭을 '워싱턴 기독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전의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영어권 사역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이민 2세들의 신앙교육에 더욱 더 힘쓰고자 영어권 사역자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모금은 실행이사들의 이사비 및 1년 이사들의 후원과 고인되신 분들의 가족들이 고인을 기념하는 세운 기념장학금(고 서준덕 목사 기념 장학금, 고 남석호 장로 기념 장학금, 고 이신자 집사 장학금)과 은혜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서류를 심사할 때는 성적 및 신앙간증, 재정상태를 바탕으로 공정하며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비록 44년 전 소수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본 재단은 더 많은 후원과 기도로, 어려운 신학대학(원)생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해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쉬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직

고문 : 박상근
이사장 : 이인천
서기 & 회계 : 구은수
실행이사 : 서유석, 김진이, 전우주, 호수경,김옥자
명예이사 : 홍성남, 박명옥, 장옥자, 남혜숙, 장은수, 임인자, 진정자, 차정애
* 재정이사 : 이순철, 박혜숙, 진순세, 김숙희, 김철자
* 후원교회 : 버지니아장로교회 올네이션스교회 워싱턴한인교회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워싱턴한인성결교회 열린문교회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 후원단체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CKCGW), 북미주기독실업인회 동부연합회, 굿스푼선교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한미교육재단

역대 이사장

1 대 홍성남 장로
2 대 강은숙 장로
3 대 임인자 권사
4 대 이 연구 권사
5 대 박명옥 집사
6 대 장은수 부재
7 대 송상례 장로
8 대 최정선 권사
9 대 진 이 권사
10 대 박상근 장로




2010년장학금수여식


2012년장학금수여식


2019년장학금수여식


2021년장학금수여식


2022년장학금수여식


2024년장학금수여식


2025년장학금수여식

한미기독장학재단(Korea America Scholarship Foundation)


이사장 김택용 목사

시작하는 말

2018년 5월 16일은 워싱턴 신학교를 인계 인수를 하고 일선에서 석별하는 날입니다. 지난 35년간 봉직하던 학교의 일을 많이 성원하여 도와준 바 있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 담임)에서 은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에서는 이 지역의 개교회와 소속 교파를 총 망라하여 초대함으로 집회 장소인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회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영렬 목사(중앙장로교회)의 설교와 김의원 목사의 격려사 (서울 총신대학교 총장) 등 모든 순서들을 마치고 친교실로 옮겨 감사 만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공통적인 문제로 무슨 일을 할 계획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장학사업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목표를 향해 2년간 준비하고 연구하며 조속한 성취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꿈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이렇게 설계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기본재정이 개인부담이 된다면 좀 힘들터인데 어렵지 않겠느냐는 충언도 있었지요.. 한교회에서 30여년, 신학교 근속 35년을 시무한후 퇴직금 받은것이 있어 일부 충당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의 꿈을 하나씩 펴 나갔습니다. 기본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차차 실천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본 체계

1. 본 장학재단의 목적과 취지(Mission Statement)

한미 기독 장학재단은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주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목회자, 선교사 및 사역자 등) 양성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본 장학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1주의로 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2. 재단법인 설립과 법적 위치(Legal Status)

2019년 4월 장학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Virginia 주 정부로부터 “한미 기독 장학재단 (Korean-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Inc.)” 비영리 법인 체로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연방 정부 산하 국세청(IRS) 세금 공제 (Code: 501(c)(3) 재단으로 수속을 완결하였습니다.

3. 장학사업의 성격과 범위(Nature & scope of the project)

장학 기본 기금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A) 대상 지역은 DC, MD, VA 를 중심으로 한다.

B) 대상 신분은 한국계(외국인으로 한국인 신학교 재학생 포함)를 우선한다

C) 대상 학교는 신학교 (최소 주정부 등록과 SEVIS I-20 발급 이상)로 한다.등입니다.

실적

제 1회(2020년): 한국-지상원/ 한국-허용범/ 한국- 권순영/ 태국- Kanokwan 1인당 $1000.00-$1500.00 (총합계 $4,500.00)

제 2회(2021년): 몽고-Tulga Bat/ 한국-전병각/ 케냐- Karen 1인당 $1500.00 총 합계 $4,500.00

제 3회(2022년): 한국- 최성애 케냐- Krobi / 한국-신철수/케냐-Chege/ 한국- 소순천 1인당 $1200.00 총합계 $6,000.00

제 4회(2023년): 한국-권민지, 오준일, 김주리, 선우양, 박수연 1인당 $1000.00 총합계 $5000.00

제 5회(2024년): 한국-김조이/ Uzbek-Dishod Khaydarov 한국-윤숙희/ 한국-이기풍 /한국- 장애리 1인당 $1000.00 총합계 $5,000.00

기도와 성원에 감사(Appreciate your Support)

2025년도에도 본장학재단은 보다 착실한 준비와 발전을 위하여 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조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Rev. H. Lee($500.00), Ms. S. Lee($500.00), Rev B. Lee- Ch, Council ($1,000.00), P. G. Kim(Board Member) ($1000.00)

제4회(2023년 9월 3일까지의) 찬조 후원금 접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완 이사님 $1000.00, 문선희 실행 위원장님 $500.00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식사 대접, D.S. Shim $300.00, (K. Ch. Council, P. G. Kim, Board Member)- $1000.00 합계: $2800.00 + 알파

2024년 P. G. Kim Board Member $1000.00, 교회 협의 회장 김엘리사 목사 $500.00 을 각각 찬조했습니다.

믿음과 선행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결론

결론을 대신하여 이 지역 일간지에 실린 유제원기자(한국일보 2024년 9월 8일 보도)의 보도 내용을 소개함으로 끝 마치려 합니다.

출처- 미주워싱턴한국일보 2021년 9월 3일자, 유제원 기자

한미기독장학재단(대표 김택용 목사)은 지난 25일 워싱턴신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9년 설립된 한미기독장학재단은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4명, 2021년 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5명의 장학생(최성애, 신철수, 소순천, Krobi, Chenge)을 선발해 각 1,200달러씩 총 6,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이병완 목사의 인도로 심대식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범 목사가 ‘무익한 종’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장학금을 전달한 김택용 대표는 “한인뿐만 아니라 케냐 출신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선희 이사장이 격려사, 고유경 미스웨스트대 학장이 축사를 했으며 장학재단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3기 한미기독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5일 열렸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 김택용 대표, 여섯 번째 문선희 이사장



장학금수여식



장학금수여식



제1기장학금수여식



장학금전달식



제1기장학금수여식

국제성경연구원(International Bible Study Institute)



창립10주년감사예배

국제성경연구원(International Bible Study Institute)의 설립 목적은 이민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성경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는데 있다.

국제성경연구원은 2002년 10월 전재영 목사의 초청에 의해 안병국 목사와 김택용 목사가 합동으로 성경연구원 설립을 발의하고 논의하므로 태동되었고, 그 후 2003년 2월 19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본 연구원은 월 1회 정기모임으로 모이고 강사를 초청하여 1시간의 강의를 갖고, 경건회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회원간의 연합을 도모했다.

국제성경연구원의 역사개관

1. 잉태 및 초창기(2003-2006년)

국제성경연구원의 발족은 2002년 10월, 전재영 목사의 초청에 의해 안병국 목사와 김택용 목사가 합동 발의함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상기 3명의 목사는 수시로 모여 기도와 토의 시간을 통해 6개월간의 준비기를 가졌다. 2003년 2월 19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올드컨트리부페 식당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조직된 초창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원장 안병국 목사, 부원장 김택용 목사, 총무 오광섭 목사, 회계 서의수 목사

2. 성장기(2006-2009년)

2006년에 들어서면서 성경연구원은 운영 정관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헌장에 따라 이사회 제도를 신설 보강하는 한편 실무진도 개편하였다.

1) 이사 : 안병국(이사장), 김석현, 이원희, 정영만, 조영희

2) 실무 : 원장 김택용, 부원장 손인화, 총무 김양일, 회계 유병진(실무진은 직책상 이사 겸임)

(2006년 8월부터 세미나 전에 경건회 시간을 배정, 매 모임 때마다 찬양과 기도 시간(10:45 시작)을 가졌다. 월간 회지(IBI 소식지)도 창간되었다.

3. 부흥기(2009-2012년)

2009년 안병국 목사가 플로리다주로 이사함으로 후임 이사장을 보선, 김상묵 목사를 추대하였다. 2007년 김양일 목사가 워싱턴교협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차용호 목사가 총무 직을 맡고 김양일 목사는 부원장을 맡게 되었다. 연구원은 설립 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상을 높이기 위해 3대 행사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1) 1차 성경테마여행

일시 : 2009년 6월 9일(화) 오전 8시

장소 :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지역(구약 성막과 아미쉬마을, 성극관람)

국제성경연구원은 미국의 신앙역사 유적지를 방문하여 초대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아야 하는 가를 배우는 성경테마여행 행사를 가졌다.

성극제목 : 요셉

(2) 정기모임

일시 : 2009년 8월 31일(월) 오전 10:45

장소 : 팰리스

원장 김택용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성경봉독이 있고 난 후에 합심에서 성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김양일 목사),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박덕준 목사), 세계평화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차용호 목사),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김상묵 목사) 각각 기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일 목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3) 국제성경연구원 설립 7주년 기념성회

일시 : 2010년 8월 20일 -21일

장소 : 워싱톤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성일 목사)

첫째날 성회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국제성경연구원 부원장인 김양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원장 김택용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신동수 목사(프라미스랜드교회)의 기도, 김위만 목사(감사교회)의 성경봉독, 워싱턴지역여선교회연합회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강사인 양정희 목사(인천 성화교회)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다.

이후 차용호 목사(센터빌장로교회)의 헌금기도, 조순금 권사의 가야금 연주, 김양일 목사(하나님의말씀교회)의 광고, 김상묵 목사(국제성경연구원이사장)의 축도가 있었다.

(4) 2차 테마여행

일시 : 2010년 6월 8일 오전 8시

장소 : 장 소: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지역(구약 성막과 아미쉬마을, 성극관람)

성극제목 : 요나

4. 변환기(2012-2025)

회원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세대의 변화를 자연적으로 공감했고, 이에 따라 현역 목회자들과 젊은 신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역 목회자들이 가입하기 시작했고, 이전에 주로 강의의 주제가 되었던 목회와 영성에서 신학과 선교라는 주제로 변환되어 젊은 목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형식 목사(필그림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김양일 목사(하나님의말씀교회), 김만풍 목사(지구촌교회), 김재동 목사(서울장로교회)등이 강의를 마쳤고, 금년 후반기에는 양광호 목사(페어팩스한인교회), 김용훈 목사(열린문 교회), 김영진 목사(베다니장로교회), 홍원기 목사(올네이션스교회) 등이 참여를 했다.

(1)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일시 : 2013년 6월 22일(토) 오전 11시

장소 : 우래옥

국제성경연구원(원장 김택용 목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지 '워싱턴 성경 패러다임(A Biblical Paradigm of Washington)'을 출간하고, 10주년 감사예배와 출판기념 예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택용 목사의 사회, 문경원 목사의 기도, 김지현 집사의 특송, 양광호 목사(페어팩스한인교회)의 설교, 박상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축사 및 감사 만찬은 이사장 김상묵 목사의 환영사, 최인환 목사(워싱턴교협 부회장)와 오광섭 목사(워싱턴원로목사회 회장)의 축사, 부이사장 박덕준 목사의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원장 김택용 목사는 연구원 회원들에게 지난 10간의 협력과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술지 원고내용: 성경 통독에 관하여(김양일 목사), 전도서 강해(김윤국 목사), 워싱턴 한인교계의 뿌리를 찾아서(김택용 목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음악(문경원 목사),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관 비판(박덕준 목사),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 본 목회상담(박상섭 목사), 단기선교의 성경적 기초 및 역사(손상웅 목사), 사본의 증언(송인도 목사), 세 개의 사과와 지구 최후의 비밀(창 3:1-5)(신동수 목사), W.C.C.의 실상과 에큐메니컬 운동의 허상(양광호 목사), 역사의 기적 그리고 삶과 영원의 지표(장국원 목사), 하나님의 교육(정병완 목사)

(2) 제 3차 성경테마여행

일시 : 2013년 6월 25일 오전 8:30

장소 :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지역(구약 성막과 아미쉬마을, 성극관람)

(3) 2014년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1월 27일 오전 10:30

장소 : 팰리스

주제세미나 : 모임에 강사로 초청된 "현대교회 건강진단과 치유방법"

강사 : 김만배 목사(IMWTL 교회 컨설팅 사역)

3대 원장을 선출된 김양일 목사는 2003년부터 실무임원으로 헌신해 왔었다면서 "국제성경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길로 나아갈 것"이며, "세속의 풍조와 육체의 소욕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 중심의 진리 사역을 추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성경연구원 새 임원진으로 총무 박상섭 목사, 서기 예경해 목사, 회계(임시) 권혁용 전도사를 각각 선출했다.

(4) 정기모임

일시 : 2016년 4월 27일 오전10:45

장소 : 팰리스

강사 : 김택용 목사(워싱턴신학대학장) "예수님은 왜 비유를 사용해 가르쳤을까?"

반성과 전망

2014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원장을 역임해온 김양일 목사는 "국제성경연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경중심의 신학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생명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더 내부적인 회원관리와 외부적인 확장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기모임


정기모임


정기모임


2009년정기모임(강사박성일목사)


정기모임(강사김윤국목사)


7주년성회

워싱턴여교역자회(Washington Women Pastors Council)



여교역자회발기인박지나박희숙이경희(좌로부터)

1. 설립비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11:29)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창1:27) 그들에게 복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 교역자를 부르신 뜻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교역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 때 여자를 단지 남자에게 소속되어 남자를 돕는 단순한 조력자의 위치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를 먼저 두신 것일 뿐 남자 먼저 여자 나중의 순서로 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여자가 잘 못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자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 분명한 어떤 통제구역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을 때 여자 교역자들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유리천장을 깨는 마음과 같이 어떤 세계를 도전하기 보다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보듬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해 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자 여교역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워싱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 교역자들의 공적 기관을 조직하여 모임과 교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감당하고자 여교역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여교역자회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눅15:1-7)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롬12:15) 소외된 여성들과 여성 사역자들을 돕고자 지원하는 모임입니다

2. 사업계획

1) 기도사역 : 매달 두 차례 기도모임을 통해서 영적재무장
2) 여성 사역자들 지원 : 여성 목사 안수, 여성 목회자들의 고충 지원
3) 감옥선교(JAIL MINISTRY) : 교도소, 구치소 등을 방문해 성경공부, 상담사역

4) 병원선교 : 호스피스, 양로원, 노인아파트 방문
5) 다민족 전도 : 아랍어, 중국어, 인도어, 베트남어, 히스패닉인어 등 5개국 언어로 전도

3. 임원

회장 : 박희숙 목사
부회장 : 이향숙 목사
총무 : 김봉묘 목사
서기 : 이경희 목사
회계 : 박지나 목사
중보기도 리더 : 이영희 목사

4. 설립예배

일시 : 2025년 3월 6일 오후 5시
장소 : 순복음제일교회(윤창재 목사)
예배 : 반주는 조혜숙 전도사, 특송반주는 박국희 전도사
사 회 : 1대회장 박희숙 목사
찬양인도 : 김기현 목사
기도 : 김찬영 목사(워싱턴 비젼교회),
성경봉독 : 박지나 목사(헤세드 유나이트선교회) 고린도전서 4장1-5)
설교 : 임은미 선교사'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특송 : 김광호 전도사, 강현정 집사
축사 : 이원희 목사(교협 21대 증경회장), 이택래 목사(워싱턴 교역자회53대 회장)
헌금 : 이경희 목사(생활선교교회)
헌금찬양 : 워싱턴글로리아 하프 찬양단, 단장 김영란),
합심기도 : 이영희 목사의 인도
여교역자회 설립배경 및 목적 설명 : 이향숙 목사(부회장, 워싱톤 리빙스톤교회)
임원소개
후원금 증정 : 생활선교교회
광고 : 김봉묘 목사
축도 : 박엘리사 목사(교협49대 회장)
식사기도 : 문정주 목사(한인예루살렘 침례교회)



여교역자회창립2025



임원



크로마하프 연주단



1대 회장 박희숙 목사



창립예배순서 담당자
왼쪽부터 이원희 목사 이택래 목사 박엘리사 목사 문정주 목사
임은미 선교사 김찬영 목사

워싱턴밀알선교단(Washington Wheat Mission)

Address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Phone
사무실 (301) 294-6342,
핸드폰 (240) 550-0771
Email
milalusa@gmail.com
Website
Washingtonmilal.



장애인 심방 산책

- **밀알 조직**

(사) 세계밀알연합 / 총재 : 이재서 목사, 부총재 : 정택정 목사, 강원호 목사
한국밀알총단 : 부산, 거제통영, 경기, 수원, 용인, 김포강화, 목포, 양산, 고양, 경기광주, 전남동부, 구미김천, 고흥
미주총단 : 워싱턴 DMV,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시카고, 아틀랜타, 텍사스, 리치몬드, 캐롤라이나, 마이애미, 남가주 LA, 북가주,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맥시코
유럽총단 : 북부독일, 오스트리아, 중부독일, 베를린, 남부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바르셀로나, 베오그라드, 루마니아, K국
기타지역: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C국a, C국b, 캄보디아

- **워싱턴밀알선교단 역대 단장**

1대 단장 : 이재서 목사, 2대 단장 : 강원호 목사, 3대 단장 : 정택정 목사, 4 대 단장: 정진정 목사

- **선교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

밀알선교단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약 8억 명에 달하는 세계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우며, 장애인에 대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밀알선교단은 세 가지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장애인을 섬기고 돕는 '봉사',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계몽'입니다.
이러한 사명 아래 밀알 운동은 197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꾸준히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밀알은 1991년 11월 2일에 설립되어 동일한 비

전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미국과 캐나다, 남미, 동유럽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지로 확장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21개국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밀알선교단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알선교단은 앞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계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 1000곳에 장애인 선교지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밀알선교단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계속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워싱턴밀알선교단의 주요 행사**

1. 밀알의 밤 : 매년 10월 중 열리는 장애인선교를 위한 문화후원 행사로 장애인들이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있는 삶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
2. 사랑의 캠프 : 장애인과 함께 벽을 뛰어넘어 말씀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연중 행사. 성인 장애인 캠프와 아동 장애인 캠프로 나누어 진행.
3. 밀알 & 세계 : 장애인들과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우송되는 장애인 선교복지를 위한 종합 월간지.
4. 장애인 심방 : 정기적인 심방을 통해 장애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구체적인 삶을 나누고 중보함.
5. 수화찬양단 :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밀알행사나 교회 방문을 통해 장애인 사역을 홍보함.
6.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 : 한국에서 재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장애인들을 초정하여 함께 예배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장애인의 날 행사.
7. 추수감사 파티 :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 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초대의 장.
8. 크리스마스 파티 :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차량지원 봉사에 나서고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하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
9. 성탄 케롤링 : 크리스마스 전에 사랑의 교실 봉사자들이 조를 이루어 장애아동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케롤찬송을 불러주고 선물을 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시간.
10. 기타 행사 : 밀알 장터 등.

- **정기 모임 1 : 집회 (대상 : 성인 장애인과 봉사자)**

매주 화요일 저녁 6~8:00pm MD, Rockville지역 (@ 워싱턴밀알선교단)
매주 목요일 저녁 6~8:00pm VA, Annadale지역 (@ 메시야장로교회)

- **정기 모임 2 : 토요 사랑의교실 (대상 : 장애아동과 봉사자)**

매주 토요일 10:30am~2:30pm (아래 세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MD, Baltimore지역 (@ 로럴침례교회)
MD, Rockville지역 (@ 워싱턴밀알선교단)
VA, McLean지역 (@ 와싱톤한인교회)
※한 학기를 마치는 봉사자에게는 60시간의 봉사활동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 **후원 종류**

기도 후원 : 장애인선교와 복지증진을 위한 중보기도.
정기 후원 : 매월 일정금액을 정하여 후원합니다.
일시 후원 : 일시적인 후원으로 지정 후원할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 : 상품이나 식품, 생활용품 등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 : 특별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 방법**

후원방법 (1) : 후원금을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merican Wheat Mission Inc워싱턴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Pay to the order: American Wheat Mission Inc
후원방법 (2) : Venmo- @Washington-Milal
후원방법 (3) : 워싱턴밀알선교단 홈페이지(washingtonmilal.org) 첫 화면에 후원하기(Donation) 버튼을 누르면 Paypal의 보안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Paypal Account 가 없는 경우는 Paypal 화면 좌측 하단의 링크를 통해 Credit Card로 안전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밀알 장터 파머스마켓


토요 사랑의교실 피크닉



사랑의 캠프



성탄 케롤링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



수화 찬양단



동부 사랑의 캠프

메릴랜드 상록회(KASCA MD)



메릴랜드 상록회(KASCA MD)는 1980년에 설립되어, 메릴랜드 지역의 한인 시니어들을 섬기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회원들의 존엄, 권리, 건강, 그리고 평생 성장의 가치를 증진시켜, 독립성과 존중, 그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KASCA는 문서 번역, 이민 관련 상담, 주거지 알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아울러 관광, 신체 단련, 동양화, 영어 회화 및 작문 수업 등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전인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1984년에는 교육적 사명을 확대하여, 캐튼스빌 커뮤니티 칼리지(Catonsville Community College) 산하의 베데스다 캠퍼스로 상록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시니어를 위한 2년 과정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였으며, 1991년 해당 기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모금과 자체 자원 관리를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을 지속하며 강한 회복력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KASCA는 봄학기, 여름캠프, 가을학기, 겨울캠프의 네 학기 체제로 연간 20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하며, 지적 성장, 신체 건강, 문화 예술, 사회적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KASCA는 다음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 건강 증진
- 노인의 권리와 책임 보호 및 권익 옹호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교육과 정보 접근성 확대

매주 특별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건강, 과학, 문학, 교육,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회원들이 현대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ASCA는 다양성과 협력,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를 중시하며, 타 민족 및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Hispanic 단체와는 사무 공간을 공유하며 문화적 소통과 우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 South Asian 커뮤니티와는 문화예술 강사 교류 및 행사 참여를 통해 상호 존중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KASCA가 공동체의 리더십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언어와 문화, 제도적 장벽을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 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 문화 교류, 협력 봉사를 통해 KASCA는 회원은 물론, 메릴랜드와 AAPI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KASCA의 발자취는 리더십, 멘토십, 공동체 개발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시니어와 자원봉사자, 협력 단체가 평생교육, 사회 정의, 봉사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도 KASCA는 헌신적인 리더십, 협력의 파트너십, 그리고 꺾이지 않는 회복력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범 단체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Maryland state public service award–May–2025



생일잔치



2024-가을학기 개강식



2025-봄학기 종강식





상록회 광고포스터

미주성경통독선교회(America Bible Reading Mission)



미주성경통독선교회는 신구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운동을 전개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소성케 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딤후3:15-17).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교훈을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세의 때에 지혜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종을 찾으십니다(마24:25). 또한 목자가 자기의 양무리들을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무기요., 막대기는 늑대를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필수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혹하는 이두움의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엡6:10-20).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시1편). 말씀을 자주 보고, 읽고, 들음으로 성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3)” 또한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1:2-3).

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성경통독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시간 중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안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욥22:21-22).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며 읽을 때 확연히 깨달아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것을 느끼게 됩니다(시19:10).



21차성경통독집회



23차성경통독집회



57회성경통독집회



58차성경통독집회참가자



"말씀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신년 성경통독집회, 신약성경 완독

59차성경통독집회기사한국일보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



문선희
기념위원회 후원회장

할렐루야!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워싱턴교회협의회 50주년 기념위원회의 모든 행사와 교협 50년사 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 목회자,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워싱턴 교회협의회 50주년(희년) 기념행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교협산하 미자립교회와 선교지를 후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일에 교회들이 함께 하게 하셔서 풍성하게 희년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으로 교협이 또 50년(희년)을 맞이할 때는 지금보다 더욱 더 기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사 30:26)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 후원금 내역

교협 및 교회			
감사영광예배 &감사영광음악회헌금	$4,957	워싱턴휄로우십교회(김대영 목사)	$1,000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	$4,000	서울장로교회(한상인 목사)	$1,000
50대 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목사)	$2,500	워싱턴성광교회(임용우 목사)	$1,000
열린문장로교회(김요셉 목사)	$2,000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1,000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김영진 목사)	$2,000	페어팩스한인교회(최일승 목사)	$1,000
워싱턴세계로장로교회(이병완 목사)	$2,000	열방사랑교회(김성도 목사)	$1,000
워싱턴동산교회(김범수 목사)	$2,000	린치버그한인교회(이택래 목사)	$500
49대 교회협의회(회장 박엘리사 목사)	$1,000	벧엘한인침례교회(전찬선 목사)	$500
워싱톤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	$1,000	알링톤감리교회(류영성 목사)	$300
워싱턴지구촌교회(박승진 목사)	$1,000		

유관기관 및 사업체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이사장 문선희)	$3,000	메시야탁구모임	$600
Global Food(김종택 장로)	$2,000	워싱턴 야베즈 신학교(이사장 박엘리사 목사)	$500
약손향 한의원	$1,500	워싱턴기독장학재단(이사장 이인천 장로)	$500
워싱턴애견센터	$1,500	Top Travel(사장 신승철 장로)	$500
J & G Group(이근선 회장)	$1,000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 목사)	$500
메릴랜드상록회(회장 이광운)	$1,000	LA Mart	$500
워싱턴밀알선교단(단장 정진정 목사)	$1,000	미주성경통독선교회(선교회장 김양일 목사)	$500
GoGi Friends	$1,000	워싱턴원로목사회(회장 이석해 목사	$300
버지니아크리스챤대학(총장 이광현 목사)	$1,000	워싱턴여교역자회(회장 박희숙 목사)	$300
워싱턴목회연구원(원장 전정구 목사)	$1,000	안나산 기도원(원장 김영창 목사)	$300
New Grand Mart	$1,000	한미기독장학재단(이사장 김택용 목사)	$300
워싱턴국제성경연구원(원장 김양일 목사)	$1,000	Grace Piano Studies	$100
개 인			
문선희(후원회장)	$10,000	이 범 목사	$200
한세영 목사	$1,500	김양일 목사	$200
Richard J & YongS Cashman	$1,000	지선묵 목사	$200
정인량 목사(편찬위후원회장)	$600	최윤환 목사	$150
심대식 목사	$500	임종길 목사	$100
박지나 목사	$500	정영만 목사	$100
박희숙 목사	$500	김종철 목사	$100
최인환 목사	$300	이원희 목사	$100
한 훈 목사	$300	김재동 목사	$100
정진환 목사	$300	배현수 목사	$100
정승옥(정승욱(KUNPB회장)	$300	노규호 목사	$100
황수봉 목사	$200	임헌묵 목사	$100
	후원금 총액	$68,207.00	

편집후기



편집총무 김범수 목사

50년사를 편집 발간한다는 무거운 중압감에 지난 8개월동안 늘 마음에 자유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먼저 50년사 발간 편집인 이병완 목사님과 편집위원 모두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년사를 10년전에 발간한 교협회장 노규호 목사와 편집위원장 배현수 목사의 도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5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 역사기록 방향은 1) 시간별 기록 2) 사건별 기록 3) 인물별 기록 4) 의미적 기록 5) 증거적 기록이었습니다. 50년사는 교협의 어느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교협 산하 교회들과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고 50대까지 회장을 지내신 교협 회장들의 수고와 헌신의 발자취입니다.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하고, 책망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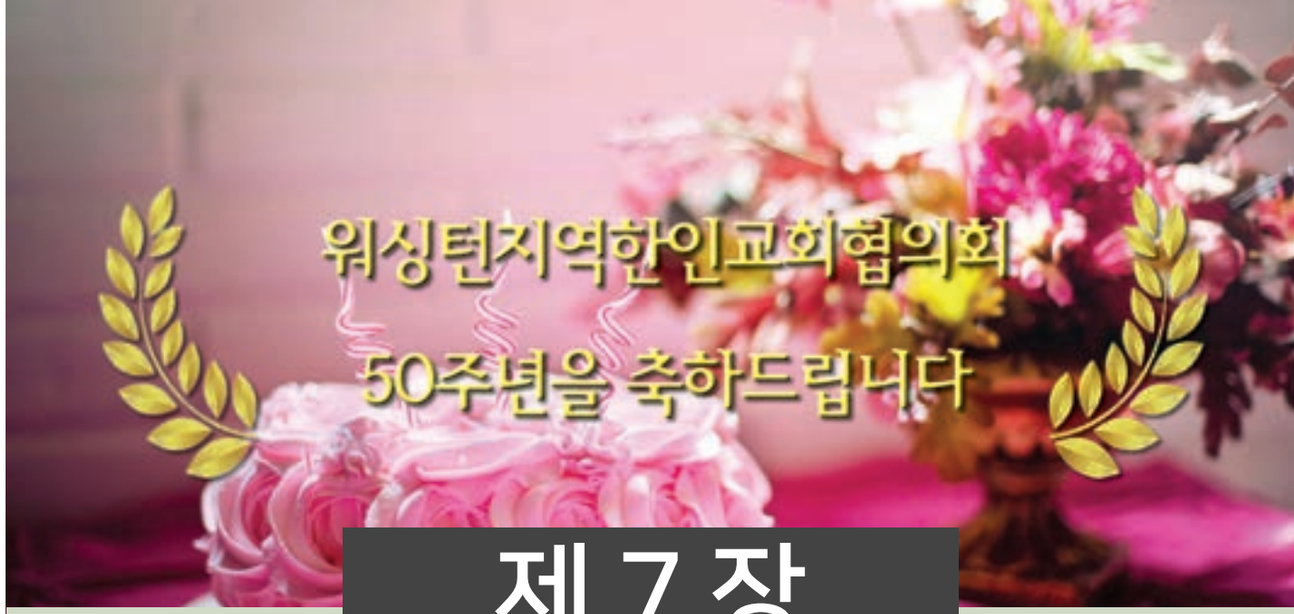
교회협의회는 소수의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적 기관과 같은 곳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연합과 소통의 모임입니다. 5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워싱턴교협이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소통과 연합이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50년사 발간을 위한 광고와 우편메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소통과 홍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까지 교협을 후원하고 협조를 하였던 교회들과 목회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50년사'를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워싱턴 교협의 50년 역사는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생일이 누구에게나 축하받아야 하는 날인 것처럼 50년의 역사는 우리 교협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사건이라도 담으려고 편찬위원들이 수고했습니다.

편집인, 편집총무, 편집위원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교협의 50년사가 워싱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며, 다가올 50년사의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7 장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년사 편찬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개인에게 감사 드립니다.
모든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교회, 기관 & 사업체 광고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워싱턴성광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워싱턴서울장로교회
린치버그한인교회
세계로장로교회
워싱턴동산교회
열방사랑교회
워싱턴휄로쉽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알링턴감리교회

워싱턴여교역자회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워싱턴목회연구원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버지니아크리스챤대학교
워싱턴청소년재단
워싱턴밀알선교단
워싱턴야베스대학교
안나산기도원
한미기독장학재단
워싱턴기독장학재단
국제성경연구원
미주성경통독선교회
메릴랜드상록회

Global Food(Market)
JR. GROUP
NEW GRAND MART
GOGI FRIENDS
SUSHI FRIENDS
약손향한의원
LA mart
편한나라병원
탑여행사
애견미용학교

The Sent 보냄받은 사람들

와싱톤중앙장로교회



S piritual Worship 예배하는 교회
E ngaging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
N urturing the Saints 제자 세우는 교회
T ogether in Christ 함께하는 교회

예배안내

	예배/모임		시간	장소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오전 6:30 (토)	제2예배실 제1예배실
주일	주일예배	장년 1부	오전 8:00	제1예배실
		장년 2부	오전 10:00	제1예배실
		영어 회중 (EC)	오전 10:00	다목적실
		장년 3부	오후 12:15	제1예배실
		청년 4부	오후 2:30	제2예배실
	한어중고등부예배 Agape		오전 10:00	말씀채플
	영어중등부예배 All Stars		오후 12:15	말씀채플
	영어고등부예배 JG		오후 12:15	The Well
	어린이 교회학교 Promiseland	영아부 Nursery	오전 10:00 (2부) 오후 12:15 (3부)	2200호, 2207호 2212호
		유아부 Preschool		2215호
		K-1학년 Gr. K-1		소망채플
		2-3학년 Gr. 2-3		기쁨채플
		4-6학년 Gr. 4-6		은혜채플
	좋은이웃부 (장애인)		오후 12:15	2116호
수요일	AWANA (어와나)		오후 7:15	다목적실
목요일	The Blessing 어성예배		오전 10:00	제2예배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 The Sent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 U.S.A
Phone : (703) 815-1200 Fax (703) 815-1299



an open door to a life -changing grace

"은혜가 임하는 머무는 흐르는 공동체"

Korean 한국어예배

성인1부예배 고요한 영성의 예배 7:30 am
성인2부예배 성숙한 경건의 예배 9:20 am
성인3부예배 거룩한 축제의 예배 11:20 am

English영어예배

성인1부 9:20am 성인2부 11:20am

Young Adult | NExT 청년예배

청년/학생/영커플 1:45pm

Youth Group | Grove 중고등부

9:20am &11:20am

Klema Ministry 클레마

9:20am & 11:20am Speical Care Ministry

Children's Ministry 주일학교

9:20am & 11:20am
유아부 (2-3세)
한어권 유치부 • 아름다운 포도원 (3-6세)
영어권 유치부 • Fruitful Vineyard (3-6세)
유년부 (1-3학년) • Little Lights
초등부 (4-6학년) • Kids for Christ

열린문장로교회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t. 703.318.8970 • www.opendoorpc.org
담임목사 | 김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자

워싱턴 베다니장로교회

예배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 **4부**: 오후 2시	본당
English Service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제2교육관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새벽 예배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30분	본당
대학,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EM College 대학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중등부,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 50분	제2교육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 50분	제1,2교육관
장애인부(소마헨) 예배	**주일** 오전 11시 (Zoom ID:812 3337 6680 Pwd: 12345)	제2교육관

섬기는 이

목사

- 김영진 (담임)
- 홍석용
- 신현덕
- 조훈기
- 김요한
- John안(EM)

교육부 사역자

- 김지영 (유아부)
- 김인천 (유치부)
- 신연수 (유년부)
- 김호진 (초등부)
- 문종은 (중고등부)

장로

- 김문중 (당회서기)
- 신창기
- 최병욱
- 김유중
- 경생수
- 김명원
- 박영환
- 양현석
- 김진기(사역)
- 송하균(사역)
- 안현웅(사역)
- 이동우(사역)
- 한원재(사역)
- 고정석(원로)
- 강영제(원로)
- 이종균(은퇴)
- 최일섭(은퇴)
- 임성일(은퇴)
- 황병섭(은퇴)
- 조무행(은퇴)
- 조병칠(은퇴)
- 박두석(은퇴)
- 장진용(은퇴)
- 이병택(은퇴)
- 홍기현(은퇴)
- 한광희(은퇴)
- 김완수(협동)
- 정준기(협동)
- 조장호(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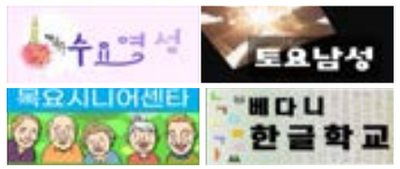
성가대

1부 성가대
대장 : 복기만 집사
지휘 : 신진미 권사
반주자 : 임상옥 집사
키보드 : 박지연 집사
2부 성가대
대장 : 이동렬 집사
지휘 : 김연진 집사
반주자 : 한소영 집사
키보드 : 윤애형 집사
3부 성가대
대장 : 정준기 장로
지휘 : 남성원 집사
반주자 : 장원영 집사

사명별 모임 안내



기관 사역



주보 QR 코드

부서별 담당자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제1교육관 : 1199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제2교육관 : 1200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전화번호 : 301)670-1200 Fax : 301)670-1267
E-Mail Address : bethanyusaorg@gmail.com
www.bethanyusa.org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주일예배 한어	7:30am	9:15am	11am
청년	1:30pm		
영어	1부 9:15am	2부 11am	
주일학교	11am (영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주중 모임			
새벽기도회	월~토 6am		
수요예배	10am		
금요중보기도회	7:30pm		

워싱턴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www.gmcusa.org 301-460-1656
담임목사 **박승진**



밖으로는 해외선교, 안으로는 자녀선교하는 교회
워싱턴성광교회로 초대합니다.

■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2부예배	오전 11시	■ Family Worship (매월 마지막 토)	오전 6시
■ EM Worship	오전 9시15분	■ 수요찬양예배 (수)	오후 7시 30분
	오전 11시	■ 금요중보기도회 (금)	오후 7시 30분
■ Children Worship	오전 11시	■ KM 청년 모임 (주일)	오후 12시 15분
■ Youth Worship	오전 11시		

❝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937 Strathmeade St. Falls Church, VA 22042 | www.shiningstar.org | 703-205-3900

워싱턴성광교회
Shining Star Community Church

축복의 근원
섬기는 공동체
행복한 가정

페어팩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최일승


원로목사 양광호

〈교회소개〉

페어팩스한인교회는(Fairfax Korean Church) 버지니아 Fairfax County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한인장로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구원 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인 본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처음 오신 한분 한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저녁 8시
금요기도회	금요일(격주)	저녁 9시

페어팩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최일승 | 원로목사 양광호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703-352-0855, 703-691-4309**
www.fairfaxchurch.org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닮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

메시아장로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1989년 10월 1일 창립되어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버지니아 애난데일 중심부에 위치하며, 세대와 민족을 넘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유튜브채널 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 mpcoworg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토) 오전 9:30~오후 12:50
평생교육원(수) 오전 9:30~오후 3:00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영어 예배(EM)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0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
Messiah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703-941-4447 | www.mpcow.org



서울장로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주님의 새계명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시간	장소	요일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본당	주일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본당	주일
영어권 (Embrace Minstry)	오전 10:30	비전센터	주일
수요예배	저녁 8:00	본당	수요일
금요성령집회	오후 8시	비전센터	금요일
새벽예배	화-금 5:30/ 토 6:00	비전센터	화-토요일
영아부	오전 11:00	본당 자모실	주일
유아, 유치부 (Pre-K)	오전 11:00	본당 유치부실	주일
아동부 (K-6)	오전 11:00	비전센터	주일
중고등부 (Youth)	오전 11:00	비전센터	주일
청년부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
엘피스 (장애우 사역)	오전 11:00	엘피스실	주일

워싱턴 서울장로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한상인**
703-764-1310 | 6428 Ox Road. Fairfax Station. VA, 22039
www.myspc.org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행복한

린치버그한인교회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Service Time | 예배시간

주일예배 Sunday | 11 AM |
영어통역 Translation service in English
수요예배 Wednesday | 7 PM
새벽기도회 Prayer Service | 6 AM,
Saturday 매달 첫째주 토요일 아침
주일학교 Sunday School | 11 AM
중고등부 Youth | 11 AM
청년 대학부 College Group 11 AM,
Sunday | 7 PM, Friday

린치버그한인교회 **Lynchburg Korean Church**
담임목사 이택래 Pastor | 512-660-8378 교회 Church | 434-847-2523
2409 Judith St.Lynchburg, VA 24501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워싱턴세계로장로교회

Washington Segeroh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병완**

1. **세계로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2. **세계로교회**는 평신도양육을 통해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정)생활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열어드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3. **세계로교회**는 2세들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자녀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입니다.





세계로교회

4401 Muncaster Mill Rd. Rockville, MD 20853
Tel:301-924-3006,3009(Fax) Cell:301-538-3451
Email:wspc2020@yahoo.com/www.segeroh.org

창립 2001년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워싱턴동산교회

교회비전: WDPC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Worship)
말씀으로 제자삼는 교회(Discipleship)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Preaching)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Community)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 일 오전 6:00



워싱턴동산교회(Washington Dongsan Presbyterian Church)
7408 Muncaster Mill Rd. Gaithersburg, MD 20877, 301-537-8522
담임목사 **김범수**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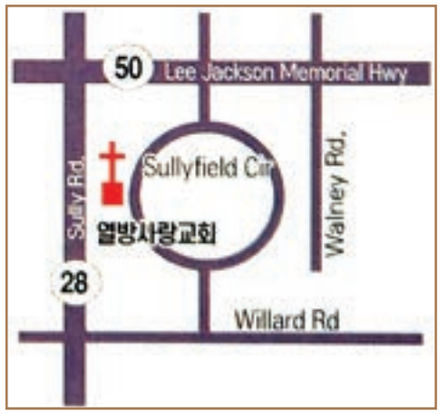
열방사랑교회
ALL NATIONS LOVE CHURCH





열방사랑교회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영어예배(주일)	오전 11시
아동부예배(주일)	오전 11시
새벽예배(화~금)	오전 5시 30분
수요, 금요예배	오후 8시



담임목사 김 성 도
Rev. Seong Do Kim, Cell 571-242-0191
kimseongdo@hotmail.com
14310 Sullyfield Circle, #350 Chantilly, VA 20151



FELLOWSHIP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휄로쉽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어 예배 ADULT WORSHIP/KOREAN

- 1부 전통예배 | 8:00 AM – Traditional Worship
- 2부 열린예배 | 10:00 AM – Contemporary Worship

다국어 예배 MULTILINGUAL SERVICES

- 영어예배 (English Service) | 12:00 PM
- 스페인어예배 (Spanish Service) | 10:00 AM
- 중국어예배 (Chinese Service)| 10:00 AM

다음세대 예배 NEXT GENERATION WORSHIP

- 영아부 예배 (Nursery Service) 10:00 AM & 12:00 PM
- 유치부 예배 (Discoveryland) 10:00 AM & 12:00 PM
- 초등부 예배 (Promiseland) 10:00 AM & 12:00 PM
- 중고등부 예배 (Youth Ministry) 12:00 PM
- 장애우 예배 (Speical Care Ministry) 10:00 AM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휄로쉽교회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 444. 3100/ info@fellowshipusa.com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PCA교단에 소속된 이민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영혼구원 중심의 교회



	시간	장소	요일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소예배실	주일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본당	주일
EM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주일
EM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소예배실	주일
금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일
새벽기도회	월-금 5:30/ 토 6:00	본당	월-토요일
영아부 (1부/2부)	오전 9:00, 오전 11:00	영아부실	주일
유아, 유치부 (1부/2부)	오전 9:00, 오전 11:00	유아, 유치부실	주일
유초등부 (1부/2부)	오전 9:00,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주일
중고등부 예배/모임	주일 11:00 / 금 7:30	중고등부실	주일 /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00	청년부실	주일
전도회 월례회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00	교회	매월 첫째 주일
구역모임	매월 둘째 주일 가정별	각 가정, 교회	매월 둘째 주일
학부모 기도회	매월 첫째 화 오전 10:00	교회	매월 첫째 화요일
중보기도모임	주일 오전 8:00 / 매월 셋째 토 오전 6:45	교회 중보기도실	주일 매월 셋째 토요일
여성말씀 묵상반	화, 수, 목 오전 10:00	교회	화, 수, 목요일

교회 교역자들 명단

담임목사: 박성일 (Rev. Seong Il Park)
KM 보조목사: 김기환 (Rev. Gi Hwan Kim)
EM 부목사: 방지훈 (Rev. Paul Bang)
EM 보조목사: 정시영 (Mr. Siyoung Jung)
EM 전도사: 강휘후 (Mr. Hwihu Kang)
유초등부디렉터: 허한나 (Mrs. Hanna Heou)
1부 Pre-k & K 디렉터: Mrs. Kathleen Ahn

원로목사: 김택용 (Rev. Taek Yong Kim)
KM 보조목사: 김한호 (Rev. Han Ho Kim)
EM 보조목사: 김동우 (Rev. Jacob Kim)
EM 강도사: 정진영 (Mr. Andrew Chung)
Youth 전도사: 연재형 (Mr. Jae Hyong Yeon)
유치부디렉터: 신주혜 (Mrs. Joohye Shin)
EM Toddler디렉터: Mrs. Michelle Hwang

워싱톤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담임목사: **박성일** Senior Pastor: Rev. Seong Il Park
9524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Tel. (703) 321-8090. Fax. (703) 321-8091
www. kpcw.net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알링턴 한인교회

한국어/영어예배: 주일 10:45 am
Youth Ministry 주일 10:45 am Children's Ministry: 주일 10:45 am
수요모임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 - 금 6 am, 토 6:30 am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T: 703-276-8018 www.alringtonkumc.org 담임목사 I 류영성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사역자

워싱턴여교역자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11:29)



회장 박희숙 목사
총무 김봉묘 목사
서기 이경희 목사
회계 박지나 목사
중보기도리더 이영희 목사



35대 원로목사회장
이석해 목사

축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원 한훈 목사 박지나 목사 최인환 목사 이석해 목사(회장) 유흥태 목사 최석규 목사 조형복 목사 (왼쪽부터)



원로목사회단체사진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35대 임역원

회　장: 이석해 목사
부회장: 유흥태 목사
총　무: 최인환 목사
서　기: 최석규 목사
회　계: 박지나 목사
예배선교분과위원장: 조형복 목사
문화교양분과위원장: 한　훈 목사
친교봉사분과위원장: 오봉영 목사
35대감사위원: 김택조 목사 임종길 목사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회원일동

SINCE 1985

워싱턴목회연구원
(WASHINGTON MINISTRY INSTITUTE)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전서2:15)

발기인 윤정태 목사 우수명 목사 민대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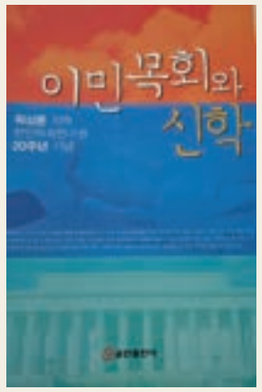


35대 원장 전정구 목사 총무 김찬영 목사 서기 양경욱 목사 회계 윤구현 목사

[회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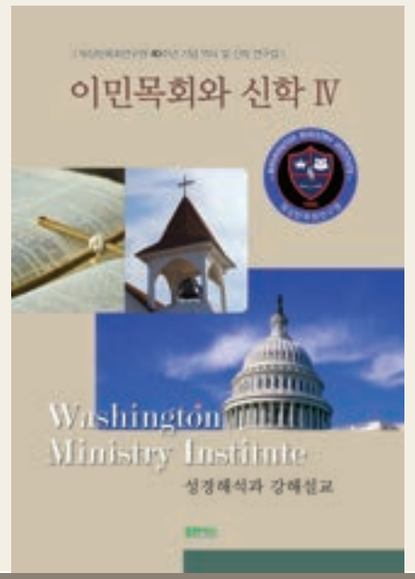
김범수 김성도 김재학 김찬영 문정주 박노영 박진욱 손갑성 안현준 양경욱 윤구현 윤여천 윤정태 이병완 이석해
이정범 이택래 임종길 정영만 전정구 조남홍 조동수 최일승 한세영 허성무 명예회원: 정인량 최윤환(이상 가나다순, 목사)





40년의 역사를 가진
성경해석, 개혁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회관을 세우는
워싱턴지역의 대표적인 신학과 목회연구기관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WASHINGTON HERITAGE UNIVERSIT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www.whuva.edu



Welcome to WHU

WHU(구.워싱턴신학교)는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격을 갖춘 사역 지도자를 양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198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43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는 25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Theology (Th.B.) 신학사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C.E.) 기독교교육학석사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C.C.) 기독교상담학석사
- Master of Church Music (M.C.M.) 교회음악석사
- Master of Divinity (M. Div.) 목회학석사
-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D.C.E.) 기독교교육학박사
- Doctor of Ministry (D.Min.) 목회학박사
- Ph.D. in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철학박사

11240 Waples Mill Rd. #201
Fairfax, VA 22030 Tel. (703) 762-6937
Email: info@whuva.edu website: www.whuva.edu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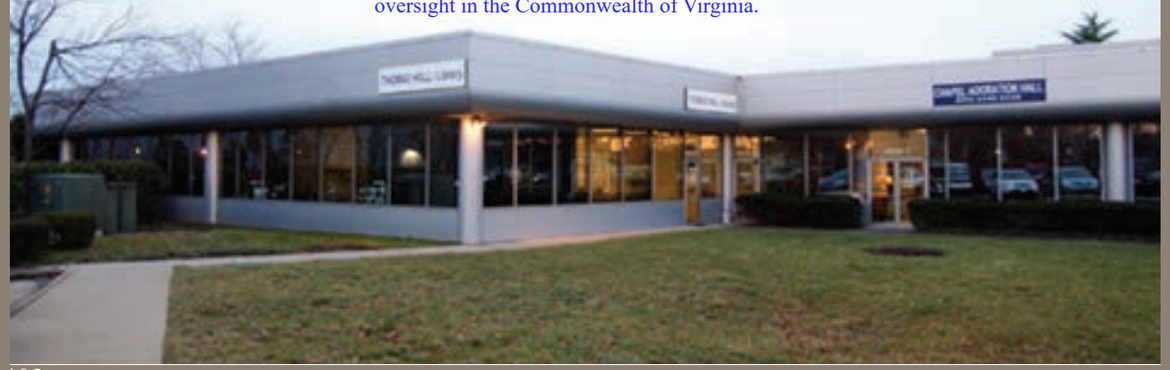
Mission Statement

VACU exists to glorify God by educating students to serve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church and society as biblically minded and professionally competent leaders.

Contact Info Email:office@vacu.edu
Phone: +1 703-629-1281 +1 703-378-7497 Fax: +1 703-657-0690
Main Campus 14012-F Sullyfield Cir. Chantilly, VA 20151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교(VACU)

총 장 이광현 목사
부총장 박진욱 목사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is a religious institution exempt from state regulation and oversight in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비전
청소년들에게 내일을 향한 자기확신과
세계를 향한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1. 방과후 수업 2. 멘토링
3. 야외 캠프 4. 한국방문
5. 대학탐방 6. 역사유적지 방문

워싱턴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범수 목사
상임이사 정인량 이병완 김성도
실행이사 조동수 안현준 문정주 김재학 이택래 김찬영(이상 목사)

워싱턴청소년재단은 2007년 이후 Montgomery County, MD 의 후원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과 멘토링과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밀알선교단(American Wheat Mission)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장애인을 섬기고 돕는 **봉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계몽**





12대 사역
성인집회(화,목 6pm) 아동사랑의교실(토 10:30am-2:30pm) 밀알의밤 사랑의캠프 밀알&세계월간지 파머스마켓 장애인의날기념예배 추수감사파티 성탄케롤링 크리스마스파티 수화찬양단 장애인심방

워싱턴밀알선교단 단장 **정진정** 목사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사무실 (301) 294-6342, 휴대폰 (240) 550-0771
Email : milalusa@gmail.com / **Website** : Washingtonmilal.org

워싱턴 야베스 대학교(Washington Jabez University)



교육이념 생명, 진리, 실천
교육목표 체험하는 신앙인, 신학을 아는 전문인, 선교하는 세계인
교육목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학문을 겸비하는 전인교육

Degree Program
신학사(BACHELOR OF THEOLOGY), 기독교 상담학사(BACHELOR OF CHRISTIAN & COUNSELING),
비교종교학사(BACHELOR OF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
석사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기독교 상담학석사(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교육학석사(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비교 종교학석사(MASTER OF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 채플린석사(MASTER OF CHAPLAINCY)
박사 목회학박사(DOCTOR OF MINISTRY)

이사장 박엘리사 목사
4421 Dale Blvd. Woodbridge VA 22193 | (703) 232-5452(KOREAN) (703) 489-4168(ENGLISH) | wjuniv.org

안나산 기도원

MT. Anna Retreat & Conference Center

영혼의 회복 / 삶의 감사 / 소명의 발견

안나산 기도원(1983년 개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종말과 재림의 때를 맞아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과 새 역사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굳건한 영적 전선을 구축하길 소망합니다. 세파에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소생케 하는 생명 역사를 일으키며, 말씀과 기도와 응답이 있는 기도원입니다. 안나산 기도원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매일 새벽, 오전, 저녁 세 번의 예배(기도회)의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섬길 기도의 사명자, 동역자들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용안내 개인기도 및 수양의 시간 / 교회 및 단체 수련회, 부흥회 / 소그룹 모임
(금식, 또는 개인, 단체 식사 가능)

기도원 집회 계절에 따른 집회와 매일의 경건시간을 통한 은혜
말씀과 독서와 묵상/ 기도와 노동과 산책/ 나눔과 봉사와 헌신
숙소를 온돌난방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매일 예배(기도회) 안내
- 새벽 6시 30분
- 오전 11시
- 저녁 7시 30분

♦기도원 찾아 오시는 길은 구글 지도를 참고 바랍니다.

www.annaprayer.com

- **기도원 전화: 301) 874-2983~4**
- 메세지&카톡 (347)330-0334 , 카톡ID: faum77
- E-Mail: annaprayer@gmail.com
- 주소: 7910 Peters Road, Frederick, MD 21704
- 원장 : 김영창 목사 / 명예원장 : 이경숙 목사
- 협력 : 유정봉 목사 / 송명순 목사

한미기독장학재단(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Inc)



본 재단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목회자, 선교사 및 사역자 등) 양성하기위해 신학생들을 기도와 권면과 장학금으로 후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사장 김택용 목사
11240 Waples Mill Road Fairfax, Virginia 22030 / 703-927-1267

워싱턴기독장학재단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of Greater Washington)

본 재단은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
2)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선한 목회자
3) 말씀과 신학을 겸비한 신학자가 되려는 신학생을 후원합니다.



고문 박상근
이사장 이인천
서기 & 회계 구은수

실행이사
서유석
김진이
전우주
호수경
김옥자

7024 Highland Meadows Ct, Alexandria VA 22315
703.447.2654 / www. sfwcw.org

국제성경연구원(International Bible Study Institute)
바른 성경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는 기관



연구방향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성경말씀 연구
그 말씀을 근간으로 적용
온전한 신앙과 건전한 신학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

원장: **김양일** 목사
14852 Bolton Rd.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7-7611

미주성경통독선교회(America Bible Reading Mission)



말씀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위해
신구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

생활실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소성케 하는 일에 전력



선교회장: **김양일** 목사
14852 Bolton Rd.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7-7611

긍정적인 삶을 돕는 상록회

The Korean-Americ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Inc.
대밀랜드 상록회

메릴랜드 상록회 (KASCA MD)

1980년 설립

평생 교육원

4401 Muncaster Mill Road,
Rockville, MD 20853

지구촌마켓
GLOBAL FOOD

힘들어 하는 분들의 **친구** 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이웃** 이 되겠습니다.

Global Food 가 함께 하겠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be a friend and good neighbor of the community. This is the motto that Global Food relies on when working with our friends and neighbors.

Good friend
Good neighbor
Global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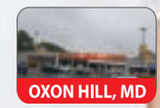
www.iglobalfood.com


MANASSAS, VA
703.369.9977
10320 Festival Lane,
Manassas, VA 20109


WOODBRIDGE, VA
703.897.6100
13813 Foulger Square,
Woodbridge, VA 22192


ALEXANDRIA, VA
703.933.6033
1476 North Beauregard St,
Alexandria, VA 22311


SILVER SPRING, MD
301.847.9884
13814 Outlet Dr,
Silver Spring, MD 20904


OXON HILL, MD
301.485.0651
5470 St Barnabas Rd,
Oxon Hill, MD 20745


BALTIMORE, MD
410.645.8627
6600-6658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SUPERMAX ENTERPRISE INC
(703) 665-2162
23550 Pebble Run Pl,
Sterling, VA 20166

JG GROUP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 내 63에이커(약 8만 평)규모의
'케스캐이드 타운센터' 개발 및 분양을 시작합니다.



주거와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CASCADE TOWN CENTRE

Cascade Town Centre Development, LLC
14475 Molleville Ave., Cascade, MD 21719
E-mail: info@cascadetowncentre.net

고객의 편리한 쇼핑과 만족을 드리는

INTERNATIONAL FOOD MARKET

NEW GRAND MART



New Grand mart

INTERNATIONAL FOOD

VIRGINIA STORE — MARYLAND STORE




고기친구
GOGI FRIENDS
THE HOUSE OF KOREAN BBQ
최상급의 좋은 고기를 최상의 숙성과정을 거쳐
고기 고유의 육즙과 최고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베큐 전문점
고기친구
623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571-749- 9900


"확실히 다릅니다!"
정통 일식 레스토랑 "하시"
최상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
정통 일식 주방장이 일식의 진정한 맛을 즐기시는
고객님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HASHI
SUSHI FRIENDS
はし
703-653-0077
4090 Jermantown Rd., Fairfax, VA 22030
WEB: SushiFriendsHashi.com
e-mail: HelloHashi2025@gmail.com

Village Of Healing Hands Acupuncture

Congrats

RECOGNIZED FOR OUTSTANDING CUSTOMER SATISFACTION FROM RECENT ONLINE REVIEWS BY YOUR CUSTOMERS

Annandale

BEST of 2024

- Based on genuine customer feedback, not nominations or votes.
- Recognizing your business as a top-rated Acupuncture clinic.

애난데일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약손향 한의원

Lmart

INTERNATIONAL FOOD

www.carefreelandusa.com

교통사고

통증 침 치료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교통사고후 발생되는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교통사고 환자분들께,

-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 선임
-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 사고후 보험회사 클레임 및 통역 서비스
- 사고 당일 렌트카를 못 구하신 분,

첫 방문시 교통편을 제공해 드립니다.

엘리콧시티 · 락빌 · 센터빌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나라는 지난 18년간 교통사고 후 발생되는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교통사고 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척추 디스크 통증
- ✓ 만성근육통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 엘리콧시티 (410)480-2331 | 락빌 (301)279-6960 | 센터빌 (703)830-4422

한번고객은 평생 고객

버스/항공여행은 탑여행사가 TOP 입니다.

탑여행사 TOP TRAVEL

탑여행사 고객센터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22003
Tel. 703-256-0606
(중앙일보 건물)

버지니아 (센터빌)
13880 Braddock Rd. #103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43-2322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80-0100
(탕이리 식당, 푸레공프 제과점과 동일 건물에 위치)

대한민국 (서울)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36 2층
Tel. 02-737-2322

조지아 (애틀란타)
2750 Peachtree Industrial Blvd #E
Duluth, GA 30097
Tel. 800-551-9373

탑여행사 | 대표 : 신승철 | 사업자 등록번호 : 784-88-00538
대표번호 : (미국) 1-800-551-9373 / (서울지사) 02-737-2322 | e-mail : info@toptravelusa.com

Accepted Credit Card


P.D.L Academy
애견 미용학교
18년 역사의
미주 최초 한인 애견 미용학교
교육청에 인가된 학원 (CTO SCHEV)
WWW.PDLVA.COM
703.339.4332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